

연구보고서 2019-20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변수정

김유경 · 최인선 · 김지연 · 최수정 · 김희주

【책임연구자】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공동연구진】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최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수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김희주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보고서 2019-20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발 행 일 2019년 12월

저 자 변 수 정

발 행 인 조 흥 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발간사 <<

가족주의가 짙은 한국 사회는 결혼제도에 들어오지 않은 채로 아이를 낳는 것을 이상한 일로 간주해 왔다. 그래서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미혼모가족을 흔히 말하는 정상가족의 범주 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 속에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는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미혼모가족에 대해 결코 따뜻하지 않았다. 미혼모의 임신·출산 및 양육은 흔히 축복과 기대 속에 시작되는, 평범한 여성이 엄마가 되는 과정과는 달리 대부분 힘든 과정인데도 그렇다. 하지만 세계적인 흐름에서 보면 출산의 전제에 결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법칙과도 같았던 일이 결혼의 현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그 법칙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듯하지만, 시대적·세계적 변화에 따른 사고 변화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느리지만 변화는 시작되었고, 그 변화 속에서 미혼모가족에 대한 논의가 과거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미혼모와 그 자녀도 평등한 환경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미혼모가족에 대한 규모 있는 조사로 생활 전반과 관련된 주요 영역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정책적 변화를 위한 근거 자료를 생성하고자 수행되었다. 또한, 현장의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상황 및 욕구를 파악해 촘촘한 정책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

보하는 노력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혼모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미혼모가족의 실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비교 가능한 분야에 대해 기혼 유배우 여성과 미혼모의 상황을 비교하였다. 물론 절대적인 비교는 아닐 수 있지만, 기혼 유배우 여성과의 차이에서 나타난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미혼모가족의 상대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에 더해 일반 국민의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함께 알아봄으로써 미혼모가족이 살아가는 인식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더했다.

이 연구는 변수정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수행되었고, 본원의 김유경 연구위원과 최인선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김지연 선임연구위원과 최수정 연구사업운영원, 협성대학교의 김희주 교수가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연구 진행에 있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본원의 이소영 연구위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이선형 연구위원과 꼼꼼히 평가해 주신 익명의 평가위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연구를 위해 조언을 해 주신 여러 전문가들에게도 감사드린다. 특히 이 연구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도경 대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오영나 대표,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형숙 대표, 미혼모협회 I'm MOM 김은희 대표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조신숙 과장, 오민옥 사무관 그리고 미혼모·부자거점기관 및 시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연구에 직접 참여해 준 미혼모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별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 I 부 도입부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미혼모가족 지원 정책	33
제1절 한국의 미혼모가족	3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47
제3절 미혼모가족 관련 정책	61

제II부 조사 결과: 미혼모가족의 생애별 특성 및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

제3장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기 특성	99
제1절 미성년 미혼모의 임신·출산	102
제2절 성인 미혼모의 임신·출산	130
제3절 소결	153

제4장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특성 165

제1절 돌봄·양육 168

제2절 경제활동 및 소득·소비 199

제3절 소결 231

제5장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취학가족의 특성 253

제1절 돌봄·양육 256

제2절 경제활동 및 소득·소비 273

제3절 소결 298

제6장 미혼모가족의 주요 쟁점별 특성 319

제1절 학업·자립 준비 322

제2절 직업교육·일자리 경험 330

제3절 주거 339

제4절 건강 349

제5절 주변 관계·사회적 편견 및 국가 지원 357

제6절 소결 385

제7장 미혼모가족에 대한 국민인식 393

제1절 조사 개요 395

제2절 조사 결과 398

제3절 소결 427

제Ⅲ부 결론부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433

 제1절 결론 435

 제2절 정책적 제언 455

참고문헌 485

부 록 493

표 목차

〈표 1-1〉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내용	25
〈표 1-2〉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의 응답자 일반 특성	29
〈표 1-3〉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응답자의 현재 연령별 출산 연령	30
〈표 1-4〉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	30
〈표 2-1〉 미혼모, 미혼부 연령별 분포	37
〈표 2-2〉 2000~2018년 혼인 외의 자 추이	38
〈표 2-3〉 다양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지각 정도	42
〈표 2-4〉 무료접종 항목	64
〈표 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66
〈표 2-6〉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내용(2019년)	68
〈표 2-7〉 입소 우선순위	69
〈표 2-8〉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2019년 기준)	70
〈표 2-9〉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영역	74
〈표 2-10〉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2019년)	76
〈표 2-11〉 교육급여 지급 기준 및 지급 내용(2019년)	77
〈표 2-12〉 긴급복지지원제도 서비스(2019년)	79
〈표 2-13〉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가구소득 인정액 기준(2019년)	80
〈표 2-14〉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2019년)	80
〈표 2-15〉 청소년한부모 가구소득 인정액 기준(2019년)	81
〈표 2-16〉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2019년)	81
〈표 2-17〉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변화	82
〈표 2-18〉 미혼모·부 초기 지원 사업 내용(2019년)	83
〈표 2-19〉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2019년)	85
〈표 2-20〉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2019년)	86

〈표 2-21〉 수선유지급여의 지급 기준(2019년)	86
〈표 2-22〉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종류	89
〈표 2-23〉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90
〈표 2-24〉 학생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현황	92
〈표 2-25〉 취업성공패키지Ⅰ 단계별 지원 내용	94
〈표 2-26〉 미혼모가족이 이용 가능한 정책	95
〈표 3-1〉 미성년 미혼모가 임신 당시 함께 살고 있던 사람(중복 응답)	103
〈표 3-2〉 미성년 미혼모의 임신 기간 동안 출산 후 양육에 대한 생각(중복 응답)	104
〈표 3-3〉 미성년 미혼모의 임신 사실 인지 시기	106
〈표 3-4〉 미성년 미혼모의 산전 진찰 장소	107
〈표 3-5〉 미성년 미혼모의 산전 진찰 횟수	108
〈표 3-6〉 미성년 미혼모의 초진 시기	108
〈표 3-7〉 미성년 미혼모의 산전 진찰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109
〈표 3-8〉 미성년 미혼모의 분만 장소	110
〈표 3-9〉 미성년 미혼모의 분만 주수	111
〈표 3-10〉 미성년 미혼모 아이의 출생 당시 체중	111
〈표 3-11〉 미성년 미혼모의 산후 진찰 경험	111
〈표 3-12〉 미성년 미혼모의 산후 진찰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112
〈표 3-13〉 미성년 미혼모의 산후우울감 경험	113
〈표 3-14〉 미성년 미혼모의 산후우울증 진단 혹은 상담 경험 여부	114
〈표 3-15〉 미성년 미혼모의 산후조리 장소(중복 응답)	115
〈표 3-16〉 미성년 미혼모의 산후조리 비용	115
〈표 3-17〉 미성년 미혼모의 정부 지원 임신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117
〈표 3-18〉 미성년 미혼모의 정부 지원 출산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118
〈표 3-19〉 미성년 미혼모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1순위)	121
〈표 3-20〉 미성년 미혼모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122

〈표 3-21〉 미성년 미혼모의 임신·출산 당시 학업 상태	124
〈표 3-22〉 미성년 미혼모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학교 중단 경험	124
〈표 3-23〉 임신·출산 과정에서 학교를 중단하지 않은 미성년 미혼모가 다닌 학교	125
〈표 3-24〉 미성년 미혼모의 학업을 중단한 시기	126
〈표 3-25〉 미성년 미혼모가 학업을 중단한 가장 주된 이유	127
〈표 3-26〉 미성년 미혼모가 학업중단 후 복학하거나 학교 재입학 여부	127
〈표 3-27〉 미성년 미혼모가 학업중단 후 복학하거나 재입학한 학교	128
〈표 3-28〉 미성년 미혼모가 생각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임신·출산한 경우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129
〈표 3-29〉 성인 미혼모가 임신 당시 함께 살고 있던 사람(중복 응답)	131
〈표 3-30〉 성인 미혼모의 출산 후 양육에 대한 생각(중복 응답)	132
〈표 3-31〉 성인 미혼모의 임신 사실 인지 시기	134
〈표 3-32〉 성인 미혼모의 산전 진찰 장소	135
〈표 3-33〉 성인 미혼모의 산전 진찰 횟수	136
〈표 3-34〉 성인 미혼모의 초진 시기	137
〈표 3-35〉 성인 미혼모의 산전 진찰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138
〈표 3-36〉 성인 미혼모의 분만 장소	139
〈표 3-37〉 성인 미혼모의 분만 주수	139
〈표 3-38〉 성인 미혼모 아이의 출생 당시 체중	140
〈표 3-39〉 성인 미혼모의 산후 진찰 경험	141
〈표 3-40〉 성인 미혼모의 산후 진찰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142
〈표 3-41〉 성인 미혼모의 산후우울감 경험	143
〈표 3-42〉 성인 미혼모의 산후우울증 진단 혹은 상담 경험 여부	143
〈표 3-43〉 성인 미혼모의 산후조리 장소(중복 응답)	144
〈표 3-44〉 성인 미혼모의 산후조리 비용	145
〈표 3-45〉 성인 미혼모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신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146

〈표 3-46〉 성인 미혼모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148
〈표 3-47〉 성인 미혼모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1순위)	150
〈표 3-48〉 성인 미혼모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152
〈표 3-49〉 성인 미혼모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학업 진행 상태	153
〈표 3-50〉 미성년 미혼모와 성인 미혼모의 정부 지원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비교	155
〈표 3-51〉 미혼모의 산후우울감 경험 및 산후우울증 진단 혹은 상담 경험 여부	156
〈표 3-52〉 미혼모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1순위)	156
〈표 3-53〉 미혼모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157
〈표 3-54〉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산전 진찰 여부 및 진찰 장소 비교	159
〈표 3-55〉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산전 진찰 횟수 비교	160
〈표 3-56〉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초진 시기 비교	160
〈표 3-57〉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분만 장소 비교	161
〈표 3-58〉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분만 주수 비교	161
〈표 3-59〉 기혼여성과 미혼모 아이의 출생 당시 체중 비교	162
〈표 3-60〉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산후 진찰 경험 비교	162
〈표 3-61〉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산후조리 장소 비교(중복 응답)	163
〈표 4-1〉 미취학 자녀의 실제 주간 돌봄 방식	169
〈표 4-2〉 미취학 자녀의 돌봄 방식에 대한 만족도	170
〈표 4-3〉 미취학 자녀의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172
〈표 4-4〉 미취학 자녀의 희망하는 주간 돌봄 방식	174
〈표 4-5〉 3세 미만 자녀의 주간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돌봄 유형 일치도	175
〈표 4-6〉 3세 이상 자녀의 주간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돌봄 유형 일치도	175
〈표 4-7〉 일주일 중 미취학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176
〈표 4-8〉 미취학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에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류	178
〈표 4-9〉 미취학 자녀의 하루 평균 육아시간(평일, 토요일, 일요일)	180

〈표 4-10〉 정부에서 지원하는 미취학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아동수당정책)	181
〈표 4-11〉 정부에서 지원하는 미취학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가정양육수당 지원정책)	183
〈표 4-12〉 정부에서 지원하는 미취학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보육료(어린이집) 지원)	184
〈표 4-13〉 정부에서 지원하는 미취학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유아학비(유치원) 지원)	186
〈표 4-14〉 정부에서 지원하는 미취학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아이돌봄서비스)	188
〈표 4-15〉 정부에서 지원하는 미취학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공동육아나눔터)	190
〈표 4-16〉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1순위)	192
〈표 4-17〉 미취학 자녀 양육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	194
〈표 4-18〉 미취학 자녀 양육을 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196
〈표 4-19〉 미취학 자녀가 잘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198
〈표 4-20〉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제활동	200
〈표 4-21〉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가 가장 희망하는 일자리(1순위)	201
〈표 4-22〉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202
〈표 4-23〉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의 일자리 분야	204
〈표 4-24〉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의 주당 근로시간	205
〈표 4-25〉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가 전일제근로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	207
〈표 4-26〉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어려운 정도	208
〈표 4-27〉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가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209
〈표 4-28〉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지 않는 어머니의 향후 취업 의향	210
〈표 4-29〉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지 않는 어머니가 향후 취업하려는 가장 주된 이유	212
〈표 4-30〉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의 월평균 소득액(경제적 지원 포함)	214
〈표 4-31〉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의 현재 저축(예금, 적금 등)을 하고 있는지 여부	215

〈표 4-32〉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의 현재 저축(예금, 적금 등)용도	218
〈표 4-33〉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의 부채(지인 또는 가족에게 빌린 비용 포함) 여부	218
〈표 4-34〉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의 부채 총액	219
〈표 4-35〉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의 부채 사유	220
〈표 4-36〉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이 부채를 진 곳	222
〈표 4-37〉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의 월평균 지출액	224
〈표 4-38〉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의 정부 생활지원에 대한 이용 경험, 도움 정도	226
〈표 4-39〉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	228
〈표 4-40〉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이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이유	230
〈표 4-41〉 미취학 아동 돌봄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232
〈표 4-42〉 미혼모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3세 미만 미취학 아동 돌봄 방식과 만족도	236
〈표 4-43〉 미혼모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3세 이상 미취학 아동 돌봄 방식과 만족도	237
〈표 4-44〉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의 정부 생활지원에 대한 이용 경험, 도움 정도	239
〈표 4-45〉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미취학 자녀 실제 주간 돌봄 방식 비교	242
〈표 4-46〉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미취학 자녀 돌봄 방식에 대한 만족도 비교	242
〈표 4-47〉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희망하는 미취학 자녀 주간 돌봄 방식 비교	245
〈표 4-48〉 미취학 자녀 대상 보육 및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율 및 도움 정도	246
〈표 4-49〉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전일제근로를 하지 않는 이유 비교	247
〈표 4-50〉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종사상 지위 비교	247
〈표 4-51〉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직종 비교	248
〈표 4-52〉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주당 근로시간 비교	248
〈표 4-53〉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비교	249
〈표 4-54〉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비교	249
〈표 4-55〉 일하지 않고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향후 취업 의향 비교	250
〈표 4-56〉 일하지 않고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향후 취업하려는 가장 주된 이유 비교	251

〈표 5-1〉 초등학교 자녀의 실제 주간 돌봄 방식	256
〈표 5-2〉 초등학교 자녀의 돌봄 만족도	258
〈표 5-3〉 초등학교 자녀의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259
〈표 5-4〉 초등학교 자녀의 희망하는 주간 돌봄 방식	259
〈표 5-5〉 초등학교 4~6학년 자녀의 주간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돌봄 유형 일치도	260
〈표 5-6〉 일주일 중 초등학교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261
〈표 5-7〉 초등학교 자녀의 하루 평균 돌봄시간(평일, 토요일, 일요일)	262
〈표 5-8〉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학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초등돌봄교실)	263
〈표 5-9〉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학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지역아동센터)	264
〈표 5-10〉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학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아이돌봄서비스)	266
〈표 5-11〉 초등학교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1순위)	267
〈표 5-12〉 중고등학교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1순위)	268
〈표 5-13〉 초중고생 자녀 양육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	269
〈표 5-14〉 초중고생 자녀 양육을 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271
〈표 5-15〉 초중고생 자녀가 잘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272
〈표 5-16〉 초중고생 자녀를 둔 엄마의 경제활동	274
〈표 5-17〉 초중고생 자녀를 둔 엄마가 가장 희망하는 일자리(1순위)	275
〈표 5-18〉 초중고생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의 종사상 지위	276
〈표 5-19〉 초중고생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의 분야	277
〈표 5-20〉 초중고생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의 주당 근로시간	278
〈표 5-21〉 초중고생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가 전일제근로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	279
〈표 5-22〉 초중고생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의 일·가정 양립 어려운 정도	280
〈표 5-23〉 초중고생 자녀를 둔 엄마가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281
〈표 5-24〉 초중고생 자녀를 둔 일하지 않는 엄마의 향후 취업 의향	282
〈표 5-25〉 초중고생 자녀를 둔 일하지 않는 엄마가 향후 취업하려는 가장 주된 이유 ...	283

〈표 5-26〉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의 월평균 소득액(경제적 지원 포함)	284
〈표 5-27〉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의 현재 저축(예금, 적금 등)을 하고 있는지 여부 ...	285
〈표 5-28〉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의 현재 저축(예금, 적금 등) 용도	286
〈표 5-29〉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의 부채(자신 또는 가족에게 빌린 비용 포함) 여부	287
〈표 5-30〉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의 부채 총액	288
〈표 5-31〉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의 부채 사유	289
〈표 5-32〉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이 부채를 진 곳	291
〈표 5-33〉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의 월평균 지출액	292
〈표 5-34〉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의 정부 생활지원에 대한 이용 경험, 도움 정도	294
〈표 5-35〉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 ...	297
〈표 5-36〉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이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이유	298
〈표 5-37〉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학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미혼모의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300
〈표 5-38〉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의 정부 생활지원에 대한 이용 경험, 도움 정도	304
〈표 5-39〉 자녀 학년에 따른 양육 시 가장 힘든 점	305
〈표 5-40〉 미취학 자녀와 초중고생 이상 자녀가 있는 미혼모의 경제활동 비교	306
〈표 5-41〉 미취학 자녀와 초중고생 이상 자녀가 있는 미혼모가족의 수입 비교	307
〈표 5-42〉 미혼모가족에 대한 비양육자(아이 아빠)의 양육비 지원	307
〈표 5-43〉 미취학 자녀와 초중고생 이상 자녀가 있는 미혼모가족의 지출 비교	308
〈표 5-44〉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초등학교 자녀 실제 주간 돌봄 방식 비교	309
〈표 5-45〉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초등학교 자녀 돌봄 방식에 대한 만족도 비교	310
〈표 5-46〉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희망하는 초등학교 자녀 주간 돌봄 방식 비교	312
〈표 5-47〉 초등학교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전일제근로를 하지 않는 이유 비교 ...	313
〈표 5-48〉 초등학교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종사상 지위 비교	314
〈표 5-49〉 초등학교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직종 비교	314
〈표 5-50〉 초등학교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근로시간 비교	315
〈표 5-51〉 초등학교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비교	315

〈표 5-52〉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비교 ...	316
〈표 5-53〉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일하지 않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향후 취업 의향 비교 ...	316
〈표 5-54〉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일하지 않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향후 취업하려는 가장 주된 이유 비교	317
〈표 6-1〉 미혼모의 현재 학업 지속 여부	322
〈표 6-2〉 미혼모의 현재 학업을 지속하게 된 가장 큰 도움	324
〈표 6-3〉 미혼모의 현재 학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1순위)	325
〈표 6-4〉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현재 학력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지 여부	326
〈표 6-5〉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력	327
〈표 6-6〉 미혼모가 현재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갖추기 위해 학업을 더 할 경우 가장 받고 싶은 교육 유형	328
〈표 6-7〉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329
〈표 6-8〉 임신·출산 이후 미혼모의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	330
〈표 6-9〉 신청·완료한 직업훈련 수	331
〈표 6-10〉 직업훈련 만족도	331
〈표 6-11〉 직업훈련 받을 때 가장 큰 어려움(1순위)	332
〈표 6-12〉 직업훈련 후 취업 여부	332
〈표 6-13〉 직업훈련과 관련된 일자리 여부	332
〈표 6-14〉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하지 않은 이유	333
〈표 6-15〉 임신·출산 후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334
〈표 6-16〉 앞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 여부	335
〈표 6-17〉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일을 그만둔 경험 여부	336
〈표 6-18〉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일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	337
〈표 6-19〉 일자리를 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1순위)	338
〈표 6-20〉 직장에서 미혼모임을 알림	338
〈표 6-21〉 미혼모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소외나 차별당한 경험 여부	339
〈표 6-22〉 미혼모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340

〈표 6-23〉 미혼모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유형	341
〈표 6-24〉 미혼모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소유 형태	342
〈표 6-25〉 미혼모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 만족도	343
〈표 6-26〉 미혼모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1순위)	344
〈표 6-27〉 미혼모가족의 주거 관련 지원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346
〈표 6-28〉 정부의 주거지원 중 미혼모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348
〈표 6-29〉 미혼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350
〈표 6-30〉 미혼모의 우울 정도	351
〈표 6-31〉 미혼모의 스트레스 정도	353
〈표 6-32〉 미혼모의 최근 1년간 정신적 문제에 대한 전문가 상담 경험 여부	354
〈표 6-33〉 미혼모의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356
〈표 6-34〉 미혼모 당사자와 부모의 관계	358
〈표 6-35〉 미혼모 당사자가 부모와 연락을 잘하지 않거나 잘 만나지 않고 지내는 주된 이유	359
〈표 6-36〉 미혼모가 고민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의지하는 사람	361
〈표 6-37〉 미혼모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있는 정도	363
〈표 6-38〉 미혼모가족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 정도	366
〈표 6-39〉 미혼모가족이 미혼모라는 이유로 차별 경험 정도	368
〈표 6-40〉 미혼모가족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가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어떤 환경인지'에 대한 의견	369
〈표 6-41〉 미혼모가족이 우리 사회가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371
〈표 6-42〉 미혼모가족의 가장 큰 고민(1순위)	373
〈표 6-43〉 미혼모가족이 최근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기관	375
〈표 6-44〉 미혼모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국가 지원	379
〈표 6-45〉 미혼모가족이 생각하는 국가 지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1순위)	382
〈표 6-46〉 주택 유형	388
〈표 6-47〉 거주 주택 소유형태	389

〈표 7-1〉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내용	395
〈표 7-2〉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조사’의 응답자 일반 특성	397
〈표 7-3〉 미혼모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 편견 정도	399
〈표 7-4〉 미혼모가족에 대한 개인의 편견 정도	401
〈표 7-5〉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가족 유형(1순위)	403
〈표 7-6〉 ‘미혼인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라는 견해에 대한 생각	405
〈표 7-7〉 ‘미혼인 남성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라는 견해에 대한 생각	407
〈표 7-8〉 ‘미혼인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다’라는 견해에 대한 생각	409
〈표 7-9〉 ‘미혼인 남성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다’라는 견해에 대한 생각	411
〈표 7-10〉 ‘20대 이상 성인 여성이 미혼인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면 그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	413
〈표 7-11〉 ‘미성년 여자 청소년이 임신을 했다면 그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	415
〈표 7-12〉 ‘내 가족이 미혼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면 그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에 찬성할 것이다’라는 견해에 대한 생각	417
〈표 7-13〉 ‘다른 가족 대비 미혼모가족에 대한 지원 수준’에 대한 생각	418
〈표 7-14〉 ‘미혼인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기에 우리 사회의 환경 수준’에 대한 생각	420
〈표 7-15〉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생각	422
〈표 7-16〉 ‘미혼모가족의 안정된 삶을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에 대한 생각 ...	424
〈표 7-17〉 ‘미혼모가 아이를 낙태나 입양 보내기보다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	426
〈표 7-18〉 미혼모가족과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 정도 비교	427

〈표 7-19〉 미혼모가족과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미혼인)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데 있어 우리 사회의 환경 수준에 대한 정도 비교	42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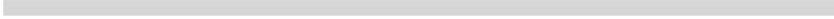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4-1]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0~2세 자녀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비교 .. 243

[그림 4-2]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3세 이상 미취학 자녀의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비교 244

[그림 5-1]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1~3학년 초등학생 자녀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비교 311

[그림 5-2]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4~6학년 초등학생 자녀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비교 311

Abstract <<

Childbirth and Child-Rearing in Unwed Mothers' Families and Policy Implications

Project Head: Soo-Jung Byo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current situations of unwed mothers' families in Korea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policy development. To this end, we conducted a survey of and in-depth interviews with unwed mothers.

The findings show that unwed mothers face highly vulnerable situations during pregnancy and after having a baby. They recognize their pregnancy late, with many of them failing to receive their post-pregnancy medical examination on time. This study finds that unwed adolescent mothers are especially vulnerable during pregnancy. Many unwed mothers experience economic difficulties and unstable housing conditions during pregnancy and after childbirth. Compared to unwed adult mothers, unwed teenage mothers are likely to feel more uncomfortable due to social prejudice during that period.

Unwed mothers face many difficulties in childrearing. Unwed mothers with a child under 3 years of age find it very difficult to have a job, because, despite their having to make a living, they have to deal with child-rearing all by themselves. Many unwed mothers start working as their kids turn three and begin

Co-Researchers: Kim, Yukyung · Choi, Insun · Kim, Jiyon · Choi, soo jung · Kim, HeeJoo

working full-time when the children grow old enough to go to school. If the children are under the third grade, however, unwed mothers often find themselves having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without family support. Even as they work, however, their economic situations do not get much better as their spending needs grow. Thus, handling economic situations is the most difficult thing in their lives. Work-family reconciliation is also difficult for unwed working mothers, especially when they have young children.

Although unwed mothers often feel depressed and get stressed out, many of them do not seek professional counselling services. The families of unwed mothers often do not experience severe discrimination, but feel treated unfairly. Unwed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tend to worry about their children being discriminated against at school.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several implications for policy. Safe environment is needed for unwed mothers in their pregnancy period. Also, it is necessary to support unwed mothers to balance work and family. Polic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help unwed mothers ease their families' economic difficulties. In addition, unwed mothers' health, especially mental health should be looked after. Moreover, we need to make efforts to eliminat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unwed mothers that still remains strong in our society.

*Key words: unwed mothers' families, childbirth, child-rearing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문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고, 그에 따라 열악한 임신·출산 및 양육 환경을 경험하는 미혼모가족의 어려움이 최근 빈번하게 공유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논의가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 걸쳐 1인 양육자가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은 미혼모가족에게는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촘촘한 사회보호망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미혼모가족의 임신·출산부터 양육의 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고, 우리 사회가 미혼모가족에 대해 갖는 인식을 파악해 미혼모의 안전한 출산과 아이의 건강한 성장 등 미혼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가. 미혼모의 임신·출산기 특성

출산 후 양육에 대한 생각은 처음부터 직접 양육할 생각이었던 경우, 출산 하지 않을 생각을 했던 경우, 입양 등을 생각한 경우에 고르게 분포해 있어, 미혼모의 임신기부터의 고민과 갈등 상황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특징 중 하나는 임신 사실을 인지하는 시기가 비교적 늦다는 것이다. 조사에 응한 미혼모의 임신 인지 시기는 평균 8.7주였는데, 미성년 시기

4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에 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는 평균 9.7주로 늦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미성년 미혼모 중 임신 사실을 16주 이후에 인지하는 비율이 4분의 1로 나타나 성인 미혼모보다 임신 사실을 늦게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초진 시기는 평균 약 10주로 나타났는데, 미성년 미혼모의 초진 시기는 성인 미혼모의 경우보다 더 늦었다. 또한, 산전진찰을 받은 경험은 평균 9.5회로 나타났는데, 산전진찰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도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산전진찰을 받지 않은 이유는 받으려 했지만 비용이 부담됐다는 응답과 출산이 가까워질 때까지 임신사실을 몰라서 못 받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산전 상황에 있어서 기혼 유배우 여성의 경우를 보면, 산전진찰을 안 받은 경우는 전혀 없고, 초진 시기 또한 5주 내외로 빨라 미혼모의 취약한 산전 관리 상황을 알 수 있다. 산후진찰 경험 또한 기혼여성보다 미혼모가 받은 경험이 낮았고, 그 이유는 받으려 했지만 시간이나 상황상 여유가 없어서, 또는 비용이 부담돼서 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안정적으로 지낼 곳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특히,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자신의 상황을 말할 곳이 없었다든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느끼는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성인 미혼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미혼모가족의 양육기 특성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첫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 양육비와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것이었다. 그다음은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점과 아이를 돌보거나 챙길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3세 이상인 경우는 취업한 상황이 많아서 아이를 돌보거나 챙길 시간이 부족한 점이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녀 돌봄 방식에 있어 본인이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희망하는 돌봄과 괴리를 보였다. 즉, 본인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보다 실제로 본인 돌봄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미취학 자녀의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본인이 돌봐야 하는 시간이 길어서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 미혼모가족의 단독 육아에 대한 어려움이 드러났다. 또한 가족과 단절되거나 근거지를 떠나 생활하는 등 주변 자원이 별로 없어 급할 때 맡길 곳이 없는 문제도 드러났다.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는 경제활동을 안 하는 비율이 높았다. 3세 미만의 경우 특히 높았고 전일제근로 비율이 매우 낮았다. 일·가정 양립에 있어 극심한 어려움은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미취학 자녀를 둔 시기였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본인이 안 별면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일할 의향이 높았다. 일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수입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기초생활보장이나 한부모가족 지원 중 하나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미혼모가족의 자립을 위해 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는 학업이나 일하는 동안 자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다른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3세 이상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는 근무시간 조정이나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돌봄 비용과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이유였다. 또한 본격적으로 엄마가 일을 하는 시기인 만큼 아이를 돌보거나 챙길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상승하였다. 그리고 자녀가 고학년이 되면서 학습관리나 학교에서 차별받을까 봐 걱정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사설교육기관 이용에 대한 비율이 기혼여

성의 자녀와 미혼모의 자녀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났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경우는 경제활동을 안 하는 비율이 낮아지며 전일 제근로의 비율이 증가해, 자녀의 초등학교 시기에 엄마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에 따라 자녀의 미취학기보다 소득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지출액이 더욱 높아지는 현상으로 자녀의 학령기에는 자녀 교육비 부담 상승으로 수입이 늘어도 여유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자립을 위해 근무시간 조정이나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은 미취학 자녀부터 취학자녀를 둔 가족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다. 미혼모가족의 주요 쟁점 특성

학업 및 자립의 측면에서는 미성년 미혼모가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업을 지속함에 있어서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고,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며, 학업시간 동안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 주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미혼모가족은 자립을 위해 현재보다 높은 학력을 갖출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립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근무시간 조정이나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가 많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외에는 학업이나 일하는 동안 자녀 돌봄 서비스, 다양한 직업 훈련 과정,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나타났다.

직업교육과 일자리 경험에서는 직업교육을 받은 경험은 3분의 1이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직업훈련 후에 일자리를 구하는 비율은 약 40% 수준이었다. 직업훈련을 받아도 취업하려는 곳의 급여나 근로시간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거나 일할 상황이 아니어서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하던 일을 그만둔 경험이 약 80%로 높게 나타났다. 일을 그만둔 이유는 몸조리나 육아 및 양육을 위해 그만둔 경우와 임신 사실이 알려질까 봐 스스로 퇴직한 경우가 많았다. 구직 과정의 경험에서는 혼자 양육한다는 사실만으로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을 다니면서는 차별 경험을 직접 하지 않은 비율이 반 정도이고 그 외에는 동료들의 따돌림이나 수군거림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가족이 현재 거주하는 곳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본인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상승하고 시설 거주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는 시설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가족이 가장 원하는 주거지원 방식은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는 것과 지원받는 주거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는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수준이었지만, 전문가 상담 경험은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우울이나 스트레스 정도가 약간 높았지만, 전문가 상담 경험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았다.

미혼모가족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사람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나 지인이었다. 그 외에 같은 미혼모 당사자에게 의지하는 경향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전혀 의지하는 사람이 없는 비율이 약 14%로 나타났다. 미혼모가족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기관은 구청 및 주민센터, 모자관련시설, 미혼모단체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움받은 기관 없다는 응답도 20% 가까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미혼모가족은 우리 사회에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가족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 고민이었고, 초중고생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보다 경제적 고민이 많았다. 미혼모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국가적 지원은 역시 경제적인 지원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지원을 제외하면 일과 돌봄 시간이 확보되는 업무 환경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일반 국민의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 전반에는 차별이 있지만 개개인의 편견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미혼모가족의 어려움과 정책적 욕구에서 드러난 부분을 국민들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미혼인 여성 혼자 아이를 양육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이해도도 미혼모와 비슷하게 하고 있으며, 미혼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및 시사점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기에는 상담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임신을 인지한 순간부터 일어나는 갈등 상황부터 임신 유지 및 중단, 출산, 입양 등 결정 과정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상담과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적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다.

산전·산후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미혼모와 기혼여성을 비교한 결과 미혼모는 임신 인지 및 초진 시기가 늦고, 산전·산후 진찰율이 낮으며 산후 우울감 등 산전·산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마와 아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로 반드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위기 임신·출산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지원 외에 지낼 곳, 산후조리 서비스, 긴급상담 등의 욕구가 높았다. 당장 지낼 곳이

없다는 것은 아이와 엄마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일로 필요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임신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 미혼모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모든 위기 임신부가 이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지원 체계가 작동해 시설 입소를 위한 지역 이동이나 까다로운 절차 없이 본인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미혼모가족의 양육기에는 성인 양육자가 1인임을 고려한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미취학 자녀를 미혼모 본인이 돌보는 비율이 높아 자녀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돌봄으로 인해 소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원을 통해 돌봄 비용 절약을 위한 본인 돌봄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응급 돌봄과 병원 돌봄이 시급하다.

또한, 자녀가 어릴 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 자녀가 어릴 때(3세 미만)에는 거의 일을 하지 못하는 현실로 수입이 너무 낮아 안정된 생활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혼모에게 일을 하도록 권장하는 대신, 어린 자녀 양육에 집중한 후 단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여건이 되도록 돌봄과 생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녀 성장에 따른 경제활동 및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사교육 등으로 인해 지출이 많아지고, 시설 생활이 종료되거나 자녀 돌봄 시간이 줄어들면서 일을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자녀가 아주 어릴 때보다는 마련되는 경향이다. 여전히 저학년 자녀는 돌봄이 미취학 자녀만큼 필요한 상황으로 엄마가 일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과후교실, 또는 만족도가 높은 지역아동센터 등을 비용 부담 없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일하는 미혼모에 대해 근로 시간 유연성 및 휴가 적용 시 추가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시설 생활

종료 및 자녀 성장으로 인해 주거 마련이 중요한데, 저렴한 가격에 임대 주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주거 지원 시에는 지원받은 주거인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세심한 배려가 바탕이 되는 주거 지원 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성년 미혼모가 학교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제공하고 학업을 하는 동안 돌봄 제공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훈련 기간 동안에도 미혼모에게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미혼모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 및 기관, 학교 등 차별 없는 환경을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한부모가족 대응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곳에서 가장 차별을 많이 경험하기도 한다. 공공기관 대상 교육뿐 아니라 교육이 현장에서 실천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상담부스 마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자녀들은 보육시설이나 학교를 이용함에 있어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교사의 감수성과 교육과정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주요 용어: 미혼모가족, 임신·출산, 양육, 인식

제 1 부 도입부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출산율 및 출생아 수 하락,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일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인지 잘 알 수 있다. 성인 남녀 둘이 아이 한 명을 기르는 것도 힘든 환경에서 여성 혼자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과정은 엄마에게나 아이에게나 어려운 일을 더욱 많이 경험하게 할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자명하다.

미혼모는 임신하면서부터 출산하기까지 여러 가지 고민과 결정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출산을 택하고 양육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 질게 남아 있는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및 편견과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 결혼 후 아이를 낳는 가족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주체가 성인 두 명인 경우가 많은 데 비해 미혼모가족은 여성 홀로 아이의 양육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아이와 미혼모 본인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미혼모가족 내에서 엄마가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그 수입 활동의 결과 측면에서는 한 명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자녀 돌봄 상황에서는 맞벌이 부부와 같은 환경이 되어 버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 아빠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미혼모는 전체 양육 미혼모의 5% 미만(김혜영 외, 2010)에 불과하고, 미혼모가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은 정비되어 있지만 신청 건수 대비 양육비를 실제로 받는 경우는 32%(양육비이행관리원, 2018)로 나타나 미

혼모의 자녀 양육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다수의 미혼모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선택하고 기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동의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에서부터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가족을 이루는 것의 기초 또는 시작은 법률혼으로 여겨왔고,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지금도 결혼과 출산의 고리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편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때문에 결혼이라는 과정이 없이, 누구의 아내가 아닌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여성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 대해 존중받기보다 편견으로 인해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리고 여전히 이러한 편견은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한 여성이 홀로 낳은 아이를 버려진 신생아로 신고했다가 본인의 아이로 밝혀진 미혼모 아이 유기 사건(2018. 1. 30.) 등은 사회적 편견이 두렵고 혼자 아이를 직접 키울 자신이 없어 아이를 포기하려는 미혼모의 상황과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정확히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미혼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서 인식이 변화하고 있기도 하다.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거나 결혼 대신 동거를 택하는 등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여성이 미혼모가족을 선택하는 과정이나 미혼모가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러한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과정과도 연관되어 있다. 2018년 국민청원 중 미혼모가 아이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 내용이 있었다(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2018. 3. 25. 청원완료). 이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가 답변을 할 정도로(대한

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2018. 4. 24. 청원답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중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져야 할 책무이자 아동의 권리다.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국가가 돕고 복지 대책 외에도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이중삼, 2018. 8. 23.)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미혼모에 대한 지원 의지가 분명히 확인되는 등 최근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지원체계의 문제점이 사회적 현안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사회가 변화하고 그 속에서 미혼모가족의 위치나 인식적이 변화하는 동안 미혼모가족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미혼모의 연령을 기준으로 연구 대상이 분화되어 왔다. 미성년 미혼모와 성인 미혼모는 앞에 놓인 문제나 그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해결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미혼모라는 그룹이지만 그 안에서 두 그룹은 나누어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고(김영신, 2011), 실제로 여러 연구들에서 성인기와 10대 미혼모가 분리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미혼모는 정확한 모수의 부재로 조사 설계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연구 대상 섭외의 어려움도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혼모 연구는 질적 연구로 많이 진행되었다.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에 실시한 미혼모 조사가 대규모 조사로 남아있고, 이 조사 후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대형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의 미혼모가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이미정 외(2018)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자녀 연령 9세 이하의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미성년 미혼모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임신이나 출산, 어린 자녀 양육 등에 주제가 한정되어 있다. 10대 미혼모부터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들을 통

합적으로 다루면서 생활 영역 전반을 논의하는 연구가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미혼모가족의 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 미혼모의 연령을 전 연령으로 열어둔다. 미혼모가족이라는 전체 집단이 연구 대상인 만큼 미성년 미혼모와 성인기 미혼모 모두를 포함한다. 하지만 이 두 집단은 함께 또 따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들의 지적에 동의하며, 두 그룹이 구분되어 논의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구분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즉, 같으면서도 다른 특성을 가진 그룹임을 인정하고 그러한 특성을 확연하게 보여 주기 위해서는 한 연구 안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대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미혼모가족에 대해 생애적 접근을 취함에 있어 모든 연령대의 미혼모가족을 다루는 동시에 그 안에서 성인과 10대 미혼모로 구분지어 비교함으로써 통합적인 접근과 동시에 두 그룹이 구별되는 특성은 더욱 강조할 수 있는 연구 구조를 갖춘다.

모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미혼모가족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 미혼모가족의 다양한 상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적조사와 질적조사가 모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수행되는 양적조사의 규모를 기존의 연구보다 확대하여 미혼모집단 안에서도 이질적인 면들을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미혼모가족의 생활을 가족 주기 측면에서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임신이나 출산, 초기 양육기의 문제들에 집중했다면, 이미 연령이 높아진 미혼모가족에 대한 이해도 함께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고연령의 미혼모가족이 자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 생활주기에 따른 실태와 여러 영역의 문제를 짚어보는 기회를 가지려 한다.

그동안 미혼모가족의 연구가 가족 생활의 단편적인 시기, 제한적인 영역에 집중해 미혼모가족의 특성을 보여 주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방식은 비교 집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상황을 더욱 객관적으로 보여줄 방법으로 기혼여성과의 비교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비교를 통해 실태를 보여 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혼모가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미혼모가족에 대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하여 미혼모가족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과 방향을 제안함에 있어 현재 우리의 사회적·문화적 분위기과 적절한 수준을 이해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3부로 구성된다. 제1부인 도입부에서는 제1장 서론과 제2장이론적 검토 및 미혼모가족 지원 정책을 알아본다. 제1장 서론에서는 먼저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정리한다. 이어지는 제2장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가족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인식적인 측면이나 통계적으로 나타난 규모 등을 살펴본다. 또한, 이 연구에서 다루는 미혼모가족의 임신·출산뿐 아니라 생활 영역 전반에 대한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현재 미혼모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정책을 정리한다.

제2부에서는 이 연구에서 실시한 두 가지 조사의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미혼모가족에 대한 조사는 가족의 생애별로 나누어 제3장에서 제6장까지 4개의 장에 걸쳐 결과를 제시한다.

제3장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기는 이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에 참여한 모든 미혼모가 경험한 시기로, 이 시기를 성인기에 경험한 것과 청소년으로서 해당 시기 발달과업 이행이 일어나는 미성년 시기에 경험한 것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제3장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기 경험에 대해서는 미성년 미혼모의 임신·출산과 성인 미혼모의 임신·출산 경험을 구분해 살펴보고 미성년-성인 미혼모 비교에 중점을 둔다. 이때 미성년 미혼모는 현재를 기준으로 미성년이 아닌 임신 및 출산 당시의 연령이 미성년인 경우를 의미한다. 엄마의 첫째 자녀 출산연도에서 엄마의 출생연도를 뺀 값이 19인 경우가 만 19세 출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값이 19 이하인 경우를 미성년 미혼모인 상태에서 출산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제3장 이외의 부분에서 분석된 엄마 연령은 현재 연령으로 조사 연도를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출생자를 10대로 구분하였다.

미혼모의 임신·출산 경험은 미성년-성인 미혼모의 구분뿐 아니라, 크게 보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임신·출산 경험과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3장 소절에서 미혼모-기혼여성 간 비교 가능한 문항들을 비교하면서 정리한다. 비교 시 기혼여성은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데이터에서 유배우자인 여성을 추출해 비교한다. 그리고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이 15~49세 기혼여성이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참여자 중 15~49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추출해 연령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비교한다. 조사 문항 구성 시 미혼모-기혼여성 비교 가능한 문항에 대해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만,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는 대면조사이기 때문에 조사원의 설명이 가능한 반면,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는 온라인 조사로 미혼모가 직접 질문을 이해하고 응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질문이 좀 더 분명해야 한다고 판단되거나 질문이 단계적 질문으로 구성되어야 할 경우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질문의 내용이 달라지는 수준의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에 무리가 없도록 유지하였다. 질문 수정 이외에 보기 문항에서 미혼모가 응답하기 적절한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분석 시 각주에 설명을 해 놓아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하였다.

임신 및 출산기 다음에는 자녀의 미취학기-취학기가 이어진다. 이 시기에 중요한 이슈는 돌봄과 경제활동 및 상황일 것이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제4장과 제5장에서 다루게 되는데, 제3장은 임신·출산기의 특성상 미성년 미혼모-성인 미혼모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면, 돌봄과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미취학기 자녀가 있는지 취학기 자녀가 있는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먼저 경험하게 되는 시기인 자녀의 미취학기의 돌봄과 경제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제5장에서는 자녀의 취학기에 대해 돌봄과 경제 관련 내용을 특성별로 파악한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에 참여한 미혼모가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미취학 자녀의 돌봄 질문에 대해 응답하고, 취학 자녀가 있으면 취학 자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미취학 자녀와 취학 자녀 모두 있는 경우는 각 질문에 대해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다. 만일 미취학 자녀가 2명인 경우라면 마지막 자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해 한 번만 응답하였다. 그리고 제3장의 임신·출산기와 제4장과 제5장에서도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기혼여성, 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기혼여성 비교가 가능한 문항들에 대해 비교하면서 이 시기의 미혼모가족 특성을 파악한다.

제6장은 미혼모가족 조사 결과 중 어느 한 특정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

이 아닌 경험을 파악하거나,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영역에 대한 내용으로 학업·자립 준비, 직업교육·일자리 경험, 주거, 건강, 주변 관계 및 사회적 편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제2부의 마지막 장인 제7장은 이 연구에서 실시한 또 하나의 조사인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국민인식조사 결과 부분이다. 미혼모가족, 그리고 지원 등에 대한 생각을 특성별 분석을 통해 파악한다.

마지막 제3부는 결론부로 이 연구에 대한 종합적 요약 및 결론과 함께 이 연구를 통해 찾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안하면서 마무리한다.

2.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문헌 검토와 양적 연구방법, 질적 연구방법, 전문가 회의 등을 활용한다.

가. 문헌 검토

기본적으로 미혼모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를 각 주제별로 정리해 미혼모가족 연구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한다. 또한, 조사 설계 과정이나 조사표 작성 등의 과정에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한다. 분석상 또는 정책 방향제언에 있어서 기존의 문헌을 활용한다.

나. 양적 연구

우선 양적 연구를 위해 미혼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과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이외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조사가 실시되는데, 이 조사에 대해서는 제7장 국민인식조사에서 그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1) 조사 대상자

미혼모에 대한 연구는 직접 양육을하기로 결정을 하기 전 상태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양육 미혼모에 집중하기 위해 미혼인 상태에서 낳은 자녀를 현재 배우자 없이 직접 양육하고 있는 여성 가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생애적 관점에서 미혼모가족을 논의하기 위해 미성년인 미혼모부터 연구에 포함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 실시하는 조사에 있어서 질문에 대한 이해수준 및 응답 정확도를 고려해 만 15세 이상부터 조사 대상자에 포함하며, 상위 연령에는 한계를 두지 않는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활용해 미혼모가족의 특성을 알아본다. 우선, 미혼모가족은 그 모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반적인 특성 파악을 위해서 양적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미혼모 관련 단체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네 개 정도의 미혼모 관련 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모든 미혼모가 단체 네 곳 중 한 곳에 서라도 도움을 받거나 가입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다수의 미혼모가 지원 및 정보 공유를 위해 미혼모 관련 단체에 접근할 확률이 크다고 판단

된다. 재가(在家) 미혼모와 시설에 거주하는 미혼모 한쪽의 특성이 조사에 두드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혼모 단체를 통해 조사를 홍보하고 두 그룹의 조사 참여에 대한 비율에 대한 구분은 두지 않는다.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미혼인 상태에서 출산한 자녀를 현재 배우자 없이 양육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미혼모가족의 출산·양육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미혼모 관련 단체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 지원네트워크,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미혼모협회 I'm MOM의 협조를 얻어 온라인조사를 연동시킨 URL을 당사자 모임 카페 혹은 밴드 등에 게시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를 통해 한부모 및 미혼모시설에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미혼모·부자거점기관 17곳에도 조사 협조 요청을 하였다.

조사 방식은 네 개 단체의 소통 창구인 온라인 카페에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홍보하고, 시설은 조사에 대한 안내를 받은 시설 관계자가 시설에 거주하는 미혼모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본 조사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였다. 이 조사에 대해 알게 된 미혼모가 직접 조사 참여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온라인에 접속해 응답을 함으로써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구현하여 컴퓨터 혹은 개인 휴대전화에서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문항 개발은 연구진이 기존 미혼모 관련 조사 문항 및 임신·출산 및 돌봄 조사 문항 등을 선별하고, 새로운 문항을 만들어 학계 전문가 뿐 아니라 현장 전문가의 검수 과정을 거쳐 확정하였다. 또한, 조사 실시 전 미혼모를 대상으로 직접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문구 수정 및 문항 수정 등의 과정이 이루어졌으며, 의견이 반영된 최종 설문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제2019-33호) 절차를

완료했다.

조사 내용은 임신 및 출산, 돌봄 및 양육, 경제, 학업 및 직업훈련, 주거, 가족 및 주변 관계, 사회적 환경 및 지원 욕구 등이 포함되며, 온라인 조사로 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문항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응답을 완료해 분석 대상이 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무응답이나 결측치가 나타나지 않는다. 단, 소득액이나 지출액 등 금액을 기록하는 부분에서는 무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 통계분석과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을 중심으로 처리된다.

〈표 1-1〉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내용

구분	내용	
선정 문항	미혼모 여부, 자녀 양육 여부, 자녀와 동거 여부, 출생연도, 자녀 성별·출생연도	
임신·출산 및 건강 관련 사항	임신 당시 동거 가구, 임신 중 출산 후 양육에 대한 생각, 임신 인지 시기, 산전 진찰 횟수 및 시기, 산전 진찰을 받지 않은 이유, 분만 장소, 분만 시기, 출생 당시 영아 체중, 산후진찰 경험, 산후진찰을 받지 않은 이유, 산후우울감 경험, 의료기관에서의 산후우울감 진단, 산후조리 장소 및 비용, 임신·출산 관련정책 인지 정도, 이용 경험, 도움 정도(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철분제 지원,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정도, 스트레스 정도,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상담 경험, 삶의 만족도	
돌봄 및 양육 관련 사항	미취학 자녀	미취학 자녀 여부, 실제 주된 돌봄 및 희망하는 돌봄 기관·사람, 돌봄 만족도, 불만족한 주된 이유, 자녀 혼자 있는 시간, 본인 돌봄 시 이용하는 시설, 하루평균 돌봄시간(평일, 토·일요일), 정부의 돌봄지원정책(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자녀 양육 시 가장 힘든 점
	초등학생 자녀	초등학생 자녀 유무 및 학년, 실제 주된 돌봄 및 희망하는 돌봄 기관·사람, 돌봄 만족도, 불만족한 주된 이유, 자녀 혼자 있는 시간, 하루평균 돌봄시간(평일, 토요일, 일요일), 정부의 돌봄 관련 정책 인지 정도, 이용 경험, 도움 정도(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자녀 양육 시 가장 힘든 점
	중고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유무 및 학년, 자녀 양육 시 가장 힘든 점
	공통	자녀 양육 만족도, 불만족한 이유, 자녀 양육 시 필요한 지원

26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구분	내용	
경제적 상황 및 경제 활동 관련 사항	월평균 소득, 저축 여부, 저축 용도, 부채 여부, 부채금액, 부채 사유, 채권자 유형, 월평균 지출, 정부 생활지원정책 인지 정도, 이용 경험, 도움 정도(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지원), 정부 지원받지 않은 이유, 경제활동 여부, 근로시간 형태, 전일제근로를 하지 않은 이유, 종사상 지위, 직종, 근로시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 향후 취업 의향, 취업하려는 가장 주된 이유, 희망하는 일자리, 임신·출산 중 경력단절 경험, 경력단절 이유, 구직의 어려움, 직장 내 미혼모임을 밝힘, 직장 내 차별과 소외경험	
학업 및 직업훈련	학업	학교 재학 여부, 검정고시 준비 여부, 학업지속에 가장 큰 도움, 학업 지속에 가장 큰 어려움, 청소년(학업) 시기의 출산 경험, 임신·출산 당시 학업 상태, 학업 중단 시기, 학업 중단의 가장 큰 이유, 미성년 미혼모 학업 지속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더 높은 학력 보유 필요성,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학력, 선호하는 교육 유형
	직업훈련	신청·완료 직업교육 개수, 완료 직업훈련 과정, 직업훈련 만족도, 직업훈련 중 어려웠던 점, 직업훈련 후 구직, 취업하지 않은 이유,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향후 직업훈련 계획, 선호 직업훈련,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주거 관련 사항	현재 거주하는 곳, 주거유형·소유 형태, 주거 만족도, 만족하지 않은 이유, 주거 관련 지원정책 인지 정도, 이용 경험, 도움 정도(임대주택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다답돌 내집마련 대출, 주거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모자 관련 시설 입소),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정책	
가족 및 주변 관계 사항	부모님(길러주신 분)과의 관계, 연락 빈도, 고민을 공유하는 사람, 도움 주는 사람	
사회적 환경 및 지원 욕구 관련 사항	미혼모에 대한 편견, 미혼모 차별 경험, 아이를 혼자 낳아 기르는 환경 정도, 현재 가장 큰 고민, 최근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기관, 미혼모에게 가장 필요한 국가적 지원, 국가 지원 중 개선되어야 할 부분	
일반 사항	최종 학력, 거주 지역, 동거가족	

본 조사는 2019년 7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하였다. 질문 내용이 많아 응답자가 시간을 두고 응답할 수 있도록 중간에 설문문을 멈추어도 이전 응답이 저장되도록 구현해, 다시 시작해도 처음부터가 아니라 멈춘 단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데이터 에러 체크를 수행하였고, 조사 완료 후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는 최종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현실적으로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모집단의 수가 분명하지 않

아 표본 설계에 한계가 있어 대표성 있는 표본을 구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대상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이 대상 확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미혼모 조사는 대면 조사 방법이 어려울 뿐 아니라 미혼모임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경우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고 민감한 내용에 대한 응답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의 미혼모 조사는 온라인 응답이 가장 효율적이며 현실적으로 응답을 확보할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미혼모가 직접 응답을 하는 지에 대한 확인이 여전히 불가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하였듯이 미혼모 당사자만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카페를 통해 홍보를 하였다. 시설과 거점기관에서는 담당자가 미혼모에게 직접 조사 참여 URL을 전달함으로써 조사 대상자만 알도록 노력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조사 전 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본 조사의 특성을 강조하고 이번 조사가 미혼모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니 조사 대상자만 참여하고, 솔직한 답변을 요청하는 안내를 제공하여 양심적인 참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조사 대상자인 미혼모만 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온라인 조사라는 점에서 대표성의 한계를 가지며 결과에 대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조사 대상자의 일반 특성

이 연구의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에 응답 완료한 총 응답자 수는 1247명이다. 조사에 응답 완료한 미혼모의 평균연령은 31.1세(S.D. 7.33세)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미혼모가 42.5%(530명)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20대 40.1%, 40대 이상이 13.6%, 10대 미혼모는 3.8%(48명)순이었다. 마지막 자녀 연령은 가공변수로 자녀의 취학 여부

와 자녀의 연령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구성한 변수이다. 우선, 미취학 인 자녀 유무에 대한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자녀 연령 변수를 기준으로 '3세 미만'과 '3세 이상의 미취학'으로 구성하였다. 즉, 마지막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 연령을 나누었기 때문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더라도 미취학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는 3세 미만이나 3세 이상의 미취학으로 구분된 것이다. 미취학 자녀가 마지막 자녀로 구분된 후, 초등학생 자녀 유무에 대한 질문에서 있다고 응답한 경우 '초등학교'로, 나머지 경우를 '중고등학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조사 참여자 중 막내 자녀가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인 경우가 52.3%(652명)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3세 미만인 경우가 26.8%(334명), 초등학생인 경우가 17.5%(218명), 그 외 중고등학생 이상인 경우가 3.4%(43명)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1명인 경우가 89.2%(1112명)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자녀가 8.7%(108명), 3자녀 이상이 2.2%(27명)순이었다. 거주 상황을 살펴보면 재가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가 83.2%(1038명)로 많은 경우 시설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시설에 있는 응답자는 16.8%(209명)였다. 현재 응답자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살펴보면 응답자와 자녀들로만 구성되어 살고 있는 가구는 76.2%(950명)고, 그 외 다른 구성원으로 구성된 가구는 23.8%(297명)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여부로는 비수급자가 54.1%(675명)로 수급자(45.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49.7%(620명), 경제활동을 한다는 응답자가 50.3%(627명)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 중 시간제로 근로하는 응답자는 26.2%(327명)였고, 전일제근로를 하는 경우는 24.1%(300명)였다.

〈표 1-2〉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의 응답자 일반 특성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1,247)
엄마 연령 (평균 31.1세, SD 7.33세)		
만 15~19세	3.8	(48)
만 20~29세	40.1	(500)
만 30~39세	42.5	(530)
만 40세 이상	13.6	(169)
마지막 자녀 연령		
3세 미만	26.8	(334)
3세 이상 미취학	52.3	(652)
초등학교	17.5	(218)
중고등학교 이상	3.4	(43)
자녀 수		
1명	89.2	(1,112)
2명	8.7	(108)
3명 이상	2.2	(27)
거주 상황		
시설	16.8	(209)
재가	83.2	(1,038)
가족 구성		
모자녀	76.2	(950)
그 외	23.8	(297)
기초보장		
비수급	54.1	(675)
수급	45.9	(572)
경제활동		
안 함	49.7	(620)
시간제근로	26.2	(327)
전일제근로	24.1	(300)

자료: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이 조사에 참여한 미혼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27세이고, 현재 미성년인 미혼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약 17세로 나타났다. 미혼모 현재의 연령을 기준으로 출산 당시 연령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3〉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응답자의 현재 연령별 출산 연령
(단위: %, 명)

구 분	출산 당시 연령						계	(명)	평균 출산 연령
	10대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대 이상			
전체	10.9	28.7	26.0	21.8	9.6	3.0	100.0	(1,247)	27.0
현재 연령									
10대	100.0	-	-	-	-	-	100.0	(48)	16.9
20~24세	32.8	67.2	-	-	-	-	100.0	(204)	20.4
25~29세	5.7	54.4	39.9	-	-	-	100.0	(296)	23.8
30~34세	1.0	15.1	51.7	32.2	-	-	100.0	(292)	27.8
35~39세	0.4	3.8	16.8	54.6	24.4	-	100.0	(238)	32.0
40대 이상	0.0	4.1	8.9	28.4	36.7	21.9	100.0	(169)	35.3

주: 출산을 2번 이상 경험한 경우, 마지막 출산을 기준으로 함.
자료: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다. 질적 연구

양적 조사와 함께 질적 조사도 이루어진다. 다양한 미혼모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최대한 조건이나 특성이 다른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한다. 심층 인터뷰의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미성년 미혼모는 현재 미성년도 있지만, 출산을 경험한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해 두었다.

〈표 1-4〉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

구분	이름	연령	자녀 연령	거주
미성년 미혼모	A1	18세	8개월	시설
	A2	18세	80일	시설
	A3	18세	100일	시설
	A4	18세	4개월	시설
	A5	18세	1개월	시설
	A6	19세	26개월	재가
	A7	19세	1개월	시설
	A8	18세	임신 10개월	재가
	A9	18세	임신 9개월	재가

구분	이름	연령	자녀 연령	거주
	A10	21세	29개월	시설
	A11	19세	16개월	시설
	A12	21세	14개월	시설
성인 미혼모	B1	23세	5세	재가
	B2	39세	8세	재가
	B3	24세	4세	재가
	B4	35세	7세	재가
	B5	27세	5세	재가
	B6	29세	8세	재가
	B7	37세	13세	재가
	B8	21세	10개월	시설
	B9	26세	4세, 임신 중	재가
	B10	26세	5세	재가
	B11	28세	7세	재가
	B12	38세	13세, 4세	재가
	B13	31세	4세	재가
	B14	45세	12세	재가
	B15	43세	9세	시설
	B16	45세	10세, 11세	시설
	B17	25세	6개월 쌍둥이	시설

인터뷰는 일대일 심층인터뷰 또는 그룹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다. 각 인터뷰당 평균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인터뷰 진행은 연구진이 직접 진행한다. 인터뷰는 8월과 9월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모든 인터뷰는 시작 전에 연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터뷰에 응했을 때의 비밀보장 등에 대한 안내의 시간을 가진다. 모든 설명을 듣고 참여자는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인터뷰가 시작되고, 중간에 언제든지 원한다면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라. 전문가 자문

그 외에 연구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공무원의 자문을 활용했다. 설문지를 구성하는 과정이나 분석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고, 필요시 미혼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의 정책 자문을 활용했다.

현장전문가로 미혼모 관련 단체 대표 및 종사자, 시설 관계자 등과 자문회의를 실시했다. 미혼모 관련 단체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와 사업팀장, 그리고 충청지부 대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와 사례관리팀장,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미혼모협회 I'm MOM 대표로부터 현장 자문 및 정책 자문을 받았다. 또한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애란원 원장과 사회복지사, 나래대안학교 사회복지사, 사랑샘 원장, 생명터 과장, 그리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해오름마을 원장으로부터도 현장 자문 및 정책 자문을 받았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과장, 사무관과 조사 지원 및 정책 관련 자문 회의를 실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검토 및 미혼모가족 지원 정책

제1절 한국의 미혼모가족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미혼모가족 관련 정책

2

이론적 검토 및 << 미혼모가족 지원 정책

제1절 한국의 미혼모가족

2015년 발표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시스템 확립과 포기되는 출산과 양육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를 저출산 해소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5, p. 54). 이에 따라 미혼모가족을 포함하여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비혼과 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5, pp. 73-74). 이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미혼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차별을 국가가 금지하고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 이어서 향후 미혼모가족의 사회적 지위와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 물론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미혼모가족들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경제적 빈곤, 빈약한 사회적 관계망 등의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다(이미정 외, 2018). 그러나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낙태나 입양이 아닌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들은 비난을 감수하며 혼자서 삶을 헤쳐 나가야 했다. 지난 10년 사이에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숨어 살기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당당한 엄마로서, 그리고 하나의 가족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즉 국가 정책에 미혼모가족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 배경에는 저출산이라는 사회 현상 외에도 양육미혼모가족의

양적 증가와 당사자들의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미혼모가족의 변화와 특성들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미혼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였고, 이들의 사회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미혼모가족의 위치와 국가의 정책적 지원 상태를 파악하고 향후 한국 사회에서의 미혼모가족에 대한 전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미혼모가족의 현황

미혼모가족에 대한 현황은 2015년부터 정부가 인구주택총조사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통계를 포함시키면서 처음으로 미혼모에 대한 통계적 파악이 가능해졌다.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미혼모·부는 총 2만 9022명으로 이중 미혼모가 2만 1254명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a). 2015년부터 공표한 미혼모 통계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은 2만 4487명, 2016년은 2만 3936명, 2017년은 2만 2065명, 2018년은 2만 1254명이다. 미혼부의 경우 2015년 1만 601명, 2016년 9172명, 2017년 8424명, 2018년 7768명이었다. 통계청 결과를 보면 미혼모의 수가 미혼부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미혼모와 미혼부의 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9b). 또한 연령별 미혼모 현황을 보면 30대 이상의 미혼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혼모들은 대부분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일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과는 대비되는 결과이다(이미정 외, 2018, p. 263). 2017년에 비해 2018년 미혼모와 미혼부의 전체 비율은 4.8% 감소하였고, 미혼모의 수가 가장 많은 35~39세 연령에서는

4.5% 감소하였다(통계청, 2019a). 2018년 미혼모의 자녀 수는 2만 4969명이고, 미혼부의 자녀 수는 9066명이었다. 미혼모 자녀의 연령은 9세 미만이 1만 4883명으로 가장 많았다(통계청, 2019a). 미혼한부모 자녀 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미혼부의 수보다 더 많다는 점과 미혼모 자녀의 대부분이 영유아기로, 미혼모의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의 양립이 매우 어려운 시기이며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2-1〉 미혼모, 미혼부 연령별 분포

(단위: 명)

연령	2017년			2018년		
	계	미혼모	미혼부	계	미혼모	미혼부
계	30,489	22,065	8,424	29,022	21,254	7,768
20세 미만	387	377	10	323	317	6
20~24세	2,008	1,724	284	1,776	1,579	197
25~29세	2,902	2,507	395	2,890	2,498	392
30~34세	4,005	3,286	719	3,669	3,047	622
35~39세	6,109	4,672	1,437	5,833	4,550	1,283
40~44세	5,823	4,010	1,813	5,605	3,969	1,636
45~49세	5,111	3,147	1,964	4,892	3,058	1,834
50세 이상	4,144	2,342	1,802	4,034	2,236	1,798

자료: 통계청(2019a). 2018 인구주택총조사 보도자료.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중 미혼모의 미혼부 통계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전수 통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미혼모 관련 연구에서 밝혀진 현황과 거리가 있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방법과 경로를 명확히 밝히고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즉 통계청 자료 조사에서는 35세 이상 연령층의 미혼모 비율이 높다는 점과 미혼부의 비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들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라는 의견이다(이미정 외, 2018, p. 263). 따라서 미혼모가족에 대한 현황을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 다른 연구 조사에서 제시된 미혼모가족에 대한 통계자료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출생신고 시점에서 미혼모 자녀의 수를 보여 주는 자료로서 통계청의 법적혼인상태별 출생 통계(이미정 외, 2018)를 보면 2000년 혼인 외의 자 7614명에서 2010년 9636명으로 증가하였고 2018년 7166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혼인 외의 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출생아 중 혼인 외의 자 비율은 2000년 이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저출산이라는 사회 현상 속에서 미혼모의 출산은 증가하고 있고, 전체 가족 중 미혼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표 2-2〉 2000~2018년 혼인 외의 자 추이

연도	총계	혼인 중의 자	혼인 외의 자	미상	(단위: 명, %)
					전체 출생아 중 혼인 외의 자 비율
2000	640,089	630,733	7,614	1,742	1.19
2010	470,171	458,546	9,636	1,989	2.05
2015	438,420	429,992	8,152	276	1.86
2017	357,771	350,646	6,951	174	1.94
2018	326,822	319,462	7,166	194	2.19

자료: 김희주·성정현(2018). 미혼모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원가족 수용 차이와 지역사적 배경, p. 288.
통계청(2019c). “시도 법적 혼인상태별 출생” 인구 동향조사를 재구성함.

미혼모에 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2000년 이후 양육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김유경, 조애저, 노충래, 2006; 김혜영 외, 2010; 이미정 외, 2018). 이 연구들은 양육미혼모의 증가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계자료는 없지만 미혼모 시설 입소 여성 수와 시설 내 양육 미혼모 비율의 증가, 국내외 입양아동 감소 등의 실태조사 자료

를 통해 양육미혼모의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양육미혼모의 증가는 그동안 미비했던 미혼모의 양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이미정 외, 2018).

양육미혼모의 증가와 함께 미혼모의 특성도 변화되어 왔다. 특히 미혼모는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학력이 낮은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만(김희주, 권종희, 최형숙, 2012, p. 142)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미혼모의 연령과 관련해서 김유경 외(2006)는 1980년대에는 20대의 미혼모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10대 연령의 미혼모가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미혼모의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미혼모의 저연령화 현상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관찰되다가 2000년 중반 이후부터 10대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미혼모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더 많다(김혜영 외, 2010; 이미정, 김혜영, 선보영, 2010; 이미정 외, 2018). 이러한 연령의 변화는 입양보다는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연령도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혼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 양육보다는 입양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25세 이상의 미혼모들의 경우 양육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로 인해 양육미혼모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김혜영, 안상수, 이미정, 선보영, 2009; 김혜영 외, 2010, p. 13).

미혼모의 학력수준도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미혼모의 고학력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김유경 외, 2006, p. 84). 1980년대는 미혼모의 학력이 중학교 이하가 46.0%로 나타났으나 1990년대에는 중학교 이하의 학력 소지자 비율이 25.0%로 감소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15.1%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비율은 꾸준히 증가

하여 2000년대에는 84.9%로 전반적인 미혼모의 학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김유경 외, 2006, p. 84; 이미정 외, 2018, p. 7). 그러나 연령별로 구분해서 볼 때 10대 이하의 청소년 미혼모들의 경우 저학력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혜영 외, 2010). 이는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출산 이후에는 양육으로 인해 학교로 복귀하지 못해 저학력으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청소년 미혼모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한창 학업에 집중하고 장래의 진로를 탐색해야 하는 시기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10대 청소년 미혼모들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사회경제적인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꾸준히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미혼모의 연령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시설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 수행된 김혜영 외의 연구에서는 모자원 등 시설 입소 미혼모의 비율이 39.4%였고, 지역사회 거주 미혼모는 60.6%를 차지하였다. 이후 2018년 조사된 이미정 외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15.0%만이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고, 75%가 본인 또는 부모님의 집 등에서 재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 거주 미혼모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거주상태를 보면 거주지가 불안정한 10대나 20대 초반 미혼모들의 경우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25세 이상 연령층의 미혼모들의 경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미정 외, 2010). 최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이 많아지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미혼모들이 시설이 아닌 다른 유형의 주거를 선

택할 기회가 많아졌지만 실제로 이들의 주거 상황은 불안정한 상태이다. 2010년 조사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혼모의 33.8%가 월세 거주자로, 자가나 전세 거주 비율보다 월등히 높아 지역사회 거주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거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고 주거비의 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다(김혜영 외, 2010, pp. 87-88).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현황을 정리하면 2000년대 이후 양육미혼모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연령이나 학력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혼모들은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인적 자본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입양이 주를 이루던 시기에는 시설에서의 임신과 출산 지원이 미혼모 지원정책의 전부였으나 양육미혼모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양육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지원정책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도울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미혼모 자녀의 연령은 대부분 미취학 연령이 많아 양육미혼모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2. 미혼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사회적 위치

미혼모란 용어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 중이거나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가진 여성”을 의미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들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부도덕하거나 무책임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김희주 외, 2012: 122). 이러한 인식은 유교적 관점에 기반한 부계혈통 중심의 가족주의와 이중적 성규범의 영향에 기인한다(김혜영, 2013; 성정현, 김희주, 이미정, 박영미, 2016). 이로 인해 미혼상태의 여성이 임신을 할 경우 가족들조차도 출산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양육이

아닌 입양을 강요하게 된다(김희주 외, 2012). 더구나 한국 사회의 이중적 성규범은 엄마로서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하려는 미혼모의 결정을 비난하거나 폄하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고 강화하고 있다(김희주, 조성희, 김지혜, 2017). 다양한 사회 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를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인식은 동성애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김혜영 외, 2009).

〈표 2-3〉 다양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지각 정도

(단위: 점)

대상	남성	여성
장애인	3.07	3.12
외국인 노동자	3.16	3.17
동성애자	3.45	3.50
미혼모	3.14	3.23
미혼부	3.03	3.11
영세민	2.88	2.88
결혼이주자	2.78	2.78
이혼자	2.72	2.70
여성	2.42	2.59

주: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이 자주 일어난다고 인식함.

자료: 김혜영 외(2009). 미혼부모와 그들 자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43을 재구성.

외부 집단에서 인식하는 미혼모에 대한 높은 사회적 차별 정도는 미혼모 당사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 수준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양육미혼모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의료기관이나 주민센터 이용 시 미혼모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거나 냉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각 35.7%로 나왔다. 또한 미혼모라는 이유로 혼전임신에 대해 비난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0.2%로 나와 임신 단계에서부터 이들은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인구보건복지협회, 2018).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71.8%의 응답자가 미혼모라서 편견에 시달리거나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외에도 미혼모라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당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이미정 외, 2018). 이렇듯 미혼모들은 일상생활에서 미혼모임이 알려질 경우 사회적 비난이나 편견은 물론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이들의 모성권을 박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과의 관계의 단절, 임신·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학업과 경력의 단절, 일과 양육의 양립의 어려움 속에서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김희주 외, 2012). 이미정의 연구(2011)에 의하면 미혼모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미혼모의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고, 전체의 84% 정도가 150만원 미만의 월평균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혼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이용우, 2017에서 재인용).

미혼모들이 처한 상황은 개인의 노력이나 특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원인들을 담고 있고, 따라서 미혼모가족의 차별이나 빈곤,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등 관련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미혼모의 입양이 당연시되던 1990년대 이전에는 이들을 위한 서비스는 출산을 앞둔 미혼임신부들을 위한 산전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었다. 즉 미혼모들을 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면서 출산하게 하고 자녀를 입양 보내는 것이었다(이미정 외, 2018). 그러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양육하려는 미혼모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모성권과 복지를 보호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거나 드러내지 못했던 미혼모들을 옹호하는 단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제일 먼

저 1999년 미혼모 보호시설인 애란원에서 전국공동모금회에 제출한 ‘양육미혼모를 위한 자조지지공동체 사업’에서 ‘양육미혼모’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장상천, 2010), 입양이 아닌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양육미혼모들의 권익옹호와 차별철폐 운동을 펼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2009년 미혼모 당사자들에 의해 설립된 한국미혼모가족협회가 등장하였다. 이 단체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양육미혼모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출산과 양육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들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양육미혼모들의 증가와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맞물리면서 이들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김희주 외, 2012).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패러다임이 입양에서 자녀 양육 지원으로 전환하면서 시설 서비스도 산전후 보호 지원에서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시설²⁾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이미정, 2015; 이용우, 2017에서 재인용). 또한 2009년에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 양육미혼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운영하면서 이들을 위한 출산 및 양육지원과 위기지원사업, 상담, 자조모임 운영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또한 미혼모가족을 위한 주거지원사업들이 강화되면서 2013년에는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운영, 미혼모가족을 입주 1순위로 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그 밖에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중 한부모가족을 1순위 또는 우선순위 대상으로 포함시켜 미혼모가

2) 2003년 만 2세 미만 영유아 자녀가 있는 양육미혼모를 위한 시설이 ‘중간의 집’으로 시범 운영되다가 2006년 공동생활가정으로 변경되어 미혼모의 양육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이용우, 2017에서 재인용).

족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다(황정임, 김은지, 남원석, 2013).

2011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미혼모가 입양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입양절차들을 개정하고, 입양기관 운영자는 미혼모자가 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하였다(성정현, 김지혜, 신옥주, 2015).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친모에 의한 아동양육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미혼모의 양육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용우, 2017).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임신과 출산 의료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와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을 통해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임신과 출산 후 미혼모들의 열악하고 비참한 삶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이미정 외, 201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임신, 출산 진료비 의료비 지원의 확대, 산모·신생아 지원 대상자 확대 등의 임신·출산 사회책임시스템 구축을 강화하였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지원하는 등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무엇보다도 비혼과 동거가족에 대한 사회 및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대한민국정부, 2015)함으로써 오랫동안 미혼모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가족생활에 위협이 되었던 사회적 차별 철폐의 구체적인 방안들과 미혼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지위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였을 때 미혼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들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이제는 미혼모의 양육권리는 당연한 것으

로 간주되는 추세이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을 통해 미혼모가족에 대한 임신·출산지원은 물론, 양육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이어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혼모가족의 양육과 경제적 자립,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적 관계의 욕구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지원의 수준도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이용우, 2017). 예를 들면, 임신과 출산으로 경제활동의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영유아기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이유로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미혼모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의 수급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이용우, 2017; 이미정 외, 2018). 또한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의 경우 2005년 이후 금액이 꾸준히 증가³⁾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원 금액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최소 액수보다 적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미정 외, 2018). 아동양육비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중복 급여가 허용되지 않아 수급비 지원에서 탈락할 경우 아동양육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미혼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미혼모들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높은 월세를 부담하며 주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김혜영 외, 2010; 이미정 외 2018).

미혼모가족을 위한 정책들은 대부분 청소년 미혼모와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미혼모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학령기 자녀를 둔 미혼모들이나 고연령의 미혼모들은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

3)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2005년 5만 원에서 2018년 13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아동대상 범위도 6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여성가족부, 2018; 이미정 외, 2018).

혼모가족의 실태조사들도 대부분 임신·출산기 또는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녀 연령이 많은 미혼모가족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경제 및 복지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녀가 영유아기인 경우 양육과 경제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생계비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경제활동이 가능해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미혼모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양육과 경제적 자립, 사회적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 연구 자료의 축적과 생애주기별 정책지원의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이용우, 2017).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가족이 다양한 가족 유형 중 하나로 인정받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완전히 철폐하는 구체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한국의 미혼모가족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최근 미혼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 또한 풍부해지고 있다. 1990년대 미혼모 관련 연구의 특징은 입양을 보내는 결정을 많이 하던 과거와 달리 직접 양육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지면서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2000년대에 들어서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나 정서상태 등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었다(신필식, 2017). 양육미혼모의 증가는 미혼모의 양육 권리

연구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교육권 등에 대한 연구도 이어졌다. 이어서는 실질적인 미혼모가족의 어려움과 지원, 사회적 인식 등 조금 더 다양한 미혼모 관련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신필식, 2017).

최근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2010년 이후 미혼모가족에 대한 연구를 보면, 크게 미혼모의 임신, 출산, 양육이나 입양 결정 등에 대한 연구(i.e., 김영신, 2011; 성정현, 김지혜, 신옥주, 2015; 이미정 외, 2018; 이은주, 최규련, 2014; 임해영, 이혁구, 2013), 미혼모의 건강, 특히 정신건강과 양육의 관계에 대한 연구, 미혼모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연구,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 등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주제와 별도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서는 분리하여 연구된 경우가 많다(i.e., 권정미, 2016; 김영미, 이화영, 2018; 김혜영, 2010; 남미애, 2013; 박현미, 최한나, 2016; 홍봉선, 2013; 홍봉선, 남미애, 2011).

이 연구에서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가족에 대해 생애적 접근과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선행연구 또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분야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 분야는 임신-출산-양육, 경제, 학습, 주거, 건강, 인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다양한 영역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영역들로 주제를 구분하기는 하지만, 사실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영역에 대해서 분절적으로 다루어서는 면밀한 분석이나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점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임신·출산, 양육, 건강, 일자리·경제적 상황 및 자립, 주거 관련 상황, 주변 및 가족과의 관계나 사회적 인식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선행연구 검토는 이 영역들을 기반으로 한다.

선행연구 검토에 있어 미혼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환경이 비교적 빠르

게 변화하는 최근의 상황과 연구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진행된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다만, 10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연구는 성인 미혼모와 주요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도 구분되어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성년 미혼모가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먼저 다룬 후, 10대 미혼모가족에 대한 선행연구는 구분해서 검토하고 학업에 대한 주제는 10대 미혼모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여러 분야 중 학업 분야에 대해서는 10대 미혼모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에서 이루어진다.

1. 임신·출산 및 양육

미혼모는 임신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여러 번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 선택을 위한 결정을 홀로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미혼모의 임신경험에 대한 연구(성정현, 김지혜, 신옥주, 2015)에서 임신 당시 출산 결정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관계가 부족했다는 미혼모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혼모는 낙태나 입양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여러 유혹을 경험하고 결정 자체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출산을 결정한 후에는 경제적 문제, 주거 문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부정적 시선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정현, 김지혜, 신옥주, 2015).

최근 임신기 및 출산 후 미혼모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신 8주가 되기 전에 병원을 찾은 경험은 조사 응답자 661명 중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정 외, 2018). 미혼모가 아닌 만 15~49세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결과가 담긴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 1784명 중 31.5%는 4주 이내에 초진을 받았고, 5~8주에 초진을 받은 경우는 64.7%로 전체 응답자의 96.2%가 8주 이내에 초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소영 외, 2018). 미혼모 조사의 결과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인 이 기혼 여성 대상 조사 결과는 미혼모들이 임신기에 일반 기혼여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출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양육 과정에 들어서게 되는데, 엄마와 아빠가 모두 있는 양부모 가정과 양육미혼모 가정의 양육 효능감을 비교한 연구(신승렬, 이승희, 2016) 결과에 따르면, 양육미혼모가 양부모 가정의 엄마보다 부모 역할에 대해 불안감이나 양육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승렬, 이승희, 2016).

2. 일자리, 경제적 상황 및 자립

경제적 어려움은 미혼모가족이 경험하는 주요 어려움 중 하나이다. 경제적 상황은 미혼모가족의 자립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특히 아이 양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미혼모의 연령이 낮아지고 그 수가 증가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일정한 학력이나 기술, 경력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거다.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낮은 임금 조건 등으로 인해 어린이 양육을 위한 시간을 보전받으며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결국 미혼모가족의 빈곤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립의 기회가 점점 멀어지기 쉽다(김지혜, 2013).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자립과 관련된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 결과에서도 미혼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우선

적으로 돌봄과 경제활동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는 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해한다고 지적했다(김지혜, 조성희, 2016). 특히 초기 미혼모가족의 경우 돌봄을 대신해 줄 주변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자립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노동시장 진입 준비를 통해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한순간에 전환이 일어나는 식의 자립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의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김지혜, 조성희, 2016). 이뿐만 아니라 미혼모가족의 자립을 위해서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변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의존의 측면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모습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부터 미혼모 주변으로 확립된 자원 활용 체계는 이후 자녀가 성장하면서도 지속되고 연계되는 자원으로 남게 되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이 자원 활용은 정보의 활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김지혜, 조성희, 2016).

3. 주거

주거 상황은 미혼모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거비용이 미혼모가족의 지출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는 자립에 걸리는 기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양육미혼모의 자립 연구에서 심층면접에 참여한 미혼모들은 임대주택, 시설 거주, 정부의 전세금 지원, 부모님 댁에 거주 등으로 나타나 주거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립을 위한 저축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거비용 지출이 전혀 없는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임차료 등 일정 부분 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아주 없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김지혜, 조성희, 2016).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 비용으로 한 거처에서 오래 거주하기보다 여러 번 이동을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원가족과 함께 살다가도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갑자기 집을 나오게 되면 계획이나 준비금 없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원룸이나 고시텔을 전전하게 된다. 시설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시설 입소마저 어려운 상황도 종종 발견된다. 불안정한 주거 환경은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안정된 주거 확보의 어려움은 미혼모 대부분이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다(이미정 외, 2018).

4. 건강

미혼모가족에서 생계유지와 자녀 양육 모두를 책임지는 엄마의 건강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신체적 건강을 알아볼 수 있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미혼모의 임신기 및 출산 후 생활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출산 후 1년이 지났을 때의 미혼모 건강상태를 알아본 결과, 좋다는 응답은 전체 741명 응답자 중 약 20.0%에 불과했고, 나쁘다는 응답은 약 40.0%로 나타나 미혼모 스스로 생각하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조사에서 산후몸조리를 못했다는 응답이 약 70.0%를 차지했는데, 산후조리를 잘한 경우보다 못한 경우 산후우울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이미정 외, 2018). 산후조리를 잘 못할 환경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미혼모의 경우 이러한 조건의 결과로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취약할 환경에 있음을 보여 주었다.

엄마의 정신적 건강과 정서 상태가 여성 자신뿐 아니라 아이에게 온전히 전달되기 쉬운 가족 구조인 미혼모가족에 대한 연구에서는 엄마의 정신적 건강이 더욱 중요하게 논의되는 측면이 있다. 김혜순, 이명희(2012)의 연구에서는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상태불안 정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1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65명의 재가 미혼모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 상태불안 정도는 중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 사이에서는 정적 상관관계, 자아존중감과 상태불안 사이와 사회적지지와 상태불안 사이에서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사회적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은 미혼모가족 엄마의 상태불안을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가족 및 주변과의 관계와 인식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용해 온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흔히 미혼모는 원가족마저도 등을 돌리고 단절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성정현, 김지혜, 신옥주, 2015; 손승영, 2017). 한국과 일본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원가족의 태도에 대해 알아본 질적 연구(김희주, 성정현, 2018)에 따르면, 한국의 미혼모는 임신·출산과 양육을 결정하면서 원가족의 반대나 비난을 경험하거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일본 미혼모의 경우 한국보다 원가족의 지지와 지원이 많아 원가족이 미혼모의 어린아이를 돌봐주고 미혼모가 경제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주, 성정현, 2018).

출산 이후에 다시 연락이 이루어지거나 처음부터 인정해온 경우는 가족이 든든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원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은 미혼모가족의 안정과 자립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결과로 나타났다(김지혜, 조성희, 2016). 특히 미혼모가 원가족의 집으로 들어가 생활을 함께하는 것은 미혼모가족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윤정혜, 2014).

임신이나 출산에 대해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도 당연하지만은 않은 미혼모가족에게 사회의 지지나 시선은 더욱 냉담할 수 있다. 최근 가족의 형태가 더욱 다양해지고 그만큼 과거보다는 전형적인 형태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더 수용하는 분위기가기는 하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미혼모가족에 대한 시선은 생각만큼 빠르게 변화하지 않는 모습이다. 미혼모가족이 사회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많지만, 특히 병원이나 주민센터, 어린이집 등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직접적인 시선을 경험한다. 공공 서비스 전문가들로부터 경험한 인식에 대해 미혼모 당사자들에게 직접 인터뷰를 통해 알아야 연구에 따르면, 미혼모는 여전히 병원이나 주민센터,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로부터 부정적 시선과 차별적인 태도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정현, 김희주, 이미정, 박영미, 2016).

과거와 달리 현재는 당당하게 자발적 미혼모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미혼모가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여전한 부정적 인식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자발적 의지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생애사적 인터뷰를 통해 질적 연구를 수행한 연구(김영신, 2011)의 결과에서, 연구참여자는 미혼모에 대한 주체적인 선택에도 어쩔 수 없이 미혼모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경험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의 누적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 의식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 결과 임신·출산 단계에서 주체적으로 미혼모를 선택할 때와는 다른 심리적 상태로 타인을 대하면서 생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김영신, 2011).

6. 미성년 미혼모가족

이 절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들과 미성년 10대 양육미혼모 등 청소년 미혼모 관련 최근 연구동향을 검토하였다. 먼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그동안 한부모와 구분 없이 이루어지다가 2010년 4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이듬해에 법률 개정 과정에서 ‘청소년한부모’를 별도의 정책대상에 포함하면서 본격화되었다(동법 제2조). 현재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가족 지원제도 내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성년자와 성인기에 갓 진입한 20대 초반 청소년이라는 취약성과 특수성이 일부 고려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지원제도가 소득·재산기준을 두는 등 10대양육미혼모 또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보편적인 지원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제도인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내)도 2019년 현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최근의 청소년 미혼모 관련 연구 동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10대 양육미혼모를 포함한 청소년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 경험을 다룬 연구이다. 여기에는 청소년 미혼모가 임신상태를 유지하여 출산에 이르고 출산 이후 입양 또는 양육을 선택하게 되는 개인적인 경험을 다룬 연구가 다수 포함된다. 선행연구에서 조사 대상 청소년 미혼모

상당수가 가출, 학교탈락 등 고위기 상황에서 피임과 임신에 대한 사전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채 계획 없이 임신을 하고, 임신 5~6개월 이후에 접어들어서야 임신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10대 청소년이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는 위기상황에 직면해도 부모와 가족, 교사 등 주변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절박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거나 준비 없이 출산을 맞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임신 상태에서 부모나 상대 남성으로부터 폭언, 협박, 폭행 등을 경험하거나 산전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김혜영, 2010; 백혜정, 김지연, 김혜영, 방은령, 2012; 김지연 외, 2013; 박혜경, 고문희, 2017). 그러나 태동을 느끼며 태아와 교감하는 과정에서 미안함,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기도 하고 출산 이후에는 막막하지만 주체적으로 삶의 의지를 다지며 양육을 선택하는 경로를 보인다. 다만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심각하게 갈등하며 입양을 결정했다가 취소하거나 양육과정에서도 학업과 경제적 문제, 양육에 대한 자신감 상실 등 심리·정서적 문제로 입양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박혜경 외, 2017; 김지연 외, 2013).

한편, 일부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사회적 편견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 연구는 청소년 미혼모 개인의 낙관성과 같은 적응유연성이 사회적 편견을 상쇄하고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증가시키지만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법률의 제·개정 등 제도적 접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김지연 외, 2013; 김영미, 이화명, 2018; 김정희, 김향미, 2018). 특히 김정희 외(2018)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과 분리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제안하면서 기존의 「헌법」, 「교육기본법」을 위시한 주요 법률에서 규정한 청소년 미혼모 관련 조항이 제도로서 적절하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로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속 및 학업 복귀의 장애요인을 다룬 연구를 들 수 있다.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가족의 심리·경제적 지원 부족이 학업 지속에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양육과 학업병행의 어려움, 학업에 대한 낮은 기대와 효능감 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파악된다(남미애, 2013; 박현미, 최한나, 2016).

청소년한부모 지원제도의 시행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결과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일부 이루어졌다. 현재 전국 12개 시도에 대안위탁교육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고 연간 154만 원 이내에서 검정고시 학습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a). 특히 경기도교육청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미혼모·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14년과 2017년에 별도의 조례를 각각 제정·시행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페이지 2019. 6. 12. 검색). 이들 조례는 미혼모·부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수업일수 신축운영 및 휴학 보장, 출산·양육·진로·학업 복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프로그램의 맞춤형 제공,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학습지원교육, 대안학교 등 별도의 위탁교육기관 지정, 학습권 보장을 위해 사회단체, 대안학교, 경찰청장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같은 교육감의 책무를 공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 영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은 교육복지 맥락에서 10대미혼모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국가인적자원개발, 적극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학업 중단 가능성을 차단하

기 위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탈락 예방을 위한 보조금 등 현금지원, 탁아(돌봄)서비스 제공, 학교기반 검정고시(GED),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휴학·복학지원 등을 들 수 있고 학업성취와 직업교육, 부모교육, 건강교육, 자립교육 등이 교육과정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노경란, 김숙이, 2018).

마지막으로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에 관한 연구이다. 미혼모에게 자립이란 “하나의 완결된 사건이 아니며 상대적이고, 엄마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그 힘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김지혜, 김희주, 2018, p.159). 따라서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체계들과의 상호작용과 개인의 성장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한 양육미혼모의 자립은 어느 한 시점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과 환경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양육자로서의 내적 역량을 키우는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과정은 “양육과 입양 선택의 딜레마, 생계와 양육으로 고군분투하는 삶”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혜경 외, 2017, p. 20). 이들은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으로 연결되어야 하므로 적성을 고려하기 어렵고 직종 선택의 폭도 좁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학업에 대한 동기는 높은 반면 자신감과 효능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교육·훈련제도 내에서 이러한 부분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 미혼모는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가족의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울·불안·스트레스 정도가 높고 친구, 이웃 등 비혈연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미혼모에 대한 초기 공적지원과 원가족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남미애, 2013; 홍봉선,

2013; 권정미, 2016; 이미정 외, 2018). 또한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제도는 청소년 미혼모의 스트레스 수준을 조절할 뿐 아니라 학업 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이운정, 2017), 양육비 지원 등 현금급여와 자녀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적절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를 위한 주거지원, 임신·출산·건강지원, 생계·자립지원, 양육·돌봄지원, 학업·직업훈련지원 등 주요제도에 대한 정책대상의 인식과 평가를 다룬 정책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7.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기존 연구 검토 결과 성인 미혼모와 미성년 미혼모는 대부분 구분되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는 있지만 미혼모의 어려움이 임신 및 출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임신 및 출산 또는 양육 중에서도 초기 양육기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대상 확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질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최근 미혼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연구(이미정 외, 2018)가 있었지만, 청소년 미혼모와 관련된 학업 등에 대한 이슈는 제외되었고, 또한 자립과 관련된 직업훈련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내용이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자녀 연령이 9세 이하인 미혼모를 대상으로만 조사를 실시했다.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성인 미혼모뿐 아니라 미성년 미혼모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미성년 미혼모와 관련된 학업 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따라서 만 15세 이상이면서 현재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가 이 연구의 대상이다. 이 연구에 포함되는 미성년 미혼모는

조사 연도인 2019년을 기준으로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인 미혼모를 의미한다. 분석 중 엄마 연령에서 10대를 구분한 기준은 엄마의 출생연도가 2000년인 경우가 2019년도에 만 19세이기 때문에 2000년 이후 출생자를 10대로 구분하였다. 단, 제3장 임신·출산기 분석에서는 미성년 미혼모를 구분지어 분석하는데, 이때 미성년 미혼모는 미성년인 상태에서 출산을 경험한 엄마를 구분짓는 것으로, 만 19세 또는 이전에 출산을 경험한 경우를 미성년 미혼모로 구분하였다. 그 외의 장에서 엄마의 연령은 앞서 말했듯이, 현재 만 19세까지를 10대로 구분하였다.

또한 초기 양육기를 벗어난 미혼모들이 증가하고 이 시기가 되면 자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혼모가족의 자립 및 직업훈련, 경제활동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다. 또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를 포함해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며 그동안 미혼모 연구에 있어서 양적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양적 조사 규모를 확대한다. 임신, 출산 및 초기 양육기뿐 아니라 자녀의 학령기 등에 대한 내용 측면에 있어서도 연구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고 조사 대상에 미혼모나 자녀의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동안 미혼모에 대한 조사로만 이루어졌던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다 객관적인 미혼모가족의 경험 및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비교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미혼모가족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 국민의 생각과 태도를 점검해 봄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의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및 방향 설정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3절 미혼모가족 관련 정책

이 절에서는 미혼모가족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임신·출산 및 건강 영역, 돌봄·양육 영역, 경제 영역(소득·소비), 주거 영역, 자립(학업·취업)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임신·출산 영역

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2019. 8. 26. 검색). 지원 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유산 및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자이다. 제외 대상자로는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를 신청한 자, 신청 접수 시 주민등록말소자, 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의 급여정지자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는 바우처 대신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임신·출산비가 적립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건강보험의 체납이 6개월이 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2019. 8. 26. 검색).

지원 내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 1세 미만의 영유아 진료비(출산 비용,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 포함)로, 최대 60만 원 내(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 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 지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한다. 이용 방법

으로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면 된다. 이용 기간은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이며, 사용 기간 내에 미사용한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2019. 8. 26. 검색).

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보건복지부, 2019a, p. 29). 지원 대상은 ‘임신헌인서’상 ‘임신헌인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의 산모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 재료 구입 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의 최대 120만 원이다. 이용 기간은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이며, 사용 기간 내에 미사용한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보건복지부, 2019a, p. 30).

청소년산모가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해야 한다. 그 가족의 범위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다(보건복지부, 2019a, p. 35). 하지만 본사업의 추진 배경으로 ‘청소년산모 특성상 사회적 노출 기피, 부모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산전관리가 미흡하다’고 명시하여 가족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대상자임을 인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a, p. 29). 청소년산모의 경우

가족과 단절된 경우가 많고(변수정, 박종서, 오신희, 김혜영, 2017), 청소년산모가 미혼모인 경우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이 모두 제외되므로 본인 이외의 신청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가족의 도움이 어려울 수 있는 청소년 미혼 산모에게 취약한 산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신청권자 기준은 매우 협소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엽산·철분제 지원 사업

임산부의 엽산 부족으로 인한 유사산 또는 선천성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9, p. 16). 지원 대상은 보건소 등록 임산부로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의 엽산제(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9, p. 16).

철분제 지원은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및 산모 사망 등을 예방하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지급한다(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9, p. 11). 지원 대상은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로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9, p. 12).

라.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지

원하는 사업이다(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2019. 9. 2. 검색).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2019년 기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무료접종 대상 백신 17종이다(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2019. 9. 2. 검색).

〈표 2-4〉 무료접종 항목

BCG (폐내용), B형간염 , DTaP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Td (파상풍/디프테리아), Tdap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IPV (폴리오), 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DTaP-IPV/Hi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 MM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일본뇌염(약독화 생백신), A형간염 , HPV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IIV (인플루엔자)
--

자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영유아가 모여있는 곳에서 감염되기 쉬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미혼모시설이나 산후조리원과 같이 영유아가 모여있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로타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높아 예방접종이 필수적인 데도, 백신 지원이 따로 지원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조제 분유사업은 저소득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보건복지부, 2019a, p. 333). 지원 대상은 기저귀사업의 경우,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 대상 아

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9a, p. 337). 지원 내용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한다. 기저귀 지원은 영아 1인당 월 6만 4000원이 지급되며,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받는 경우는 월 15만 원이 지급된다. 추가로 조제분유를 지원받는 경우 월 8만 6000원이 추가 지급된다(보건복지부, 2019a, p. 346).

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검색, 2019. 6. 8. 검색). 지원 대상으로는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이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검색, 2019. 6. 8. 검색). 미혼모 산모인 경우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예외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재가 미혼모는 만 24세가 넘으면 미혼모 조건만으로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다. 단, 미혼모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만 24세를 초과하더라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9b, p. 38).

지원 내용으로는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19b, p. 59).

〈표 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 - 산후 부종관리 - 산모 영양관리 - 좌욕지원 - 산모 위생관리 -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 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준비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 정서 상태 이해 - 정서적 지지
기타	- 제공기록 작성 - 특이사항 보고

자료: 보건복지부(2019b),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안내」 p. 59.

본 사업의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권자는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다. 신청방법은 산모의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9b, p. 41). 미혼모의 경우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청소년 미혼모는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거나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모의 집에서 나와서 살거나, 성인 미혼모의 경우에도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사실상 만삭인 상태의 미혼모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은 쉽지 않다(성정현 외, 2017).

서비스 제공시간은 1주간 5일,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을 제공한다. 제공기간은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15~25일을 제공한다(보건복지부, 2019b, p. 57).

사.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지원 대상은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한 한부모로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있으면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을 받은 미혼모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보건복지부, 2019c, p. 30). 지원 내용으로는 3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정 내 보호지원으로 산후지원인력이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로 1주일 동안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아동의 생필품비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미혼·이혼한 한부모 자택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를 원할 경우 아동생필품 비용을 포함하여 1인당 35만 원을 지원한다. 두 번째는 미혼모자가족복지 시설 내 입소자를 대상으로 1인당 산후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때의 산후인력은 시설의 기존 인력을 활용하거나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등 시설 상황에 적합하게 운영하되, 입양숙려기간 중에 있는 미혼모 2인당 최소 1명의 산후지원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지원금은 1인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세 번째는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산후조리업 신고를 한 산후조리원 중 미혼·이혼한 한부모 선택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기간은 1주일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용료가 70만 원 미만인 경우 실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9c, pp. 30-33).

〈표 2-6〉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내용(2019년)

구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1주)	• 5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40만 원 한도) - 아동 생필품비 포함(10만 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 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 350,000원 -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자 가족 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 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 4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 700,000원 • 1주 이용료가 700,000원 미만인 산후조 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2019c), 「2019 아동분야 사업안내(1)」 p. 30.

2. 돌봄·양육 영역

부모의 자격조건과 관계없이 제공되는 보편적 돌봄·양육 서비스는 무상보육,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선별적 돌봄·양육서비스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방과후 보육료 지원, 지역아동센터를 살펴보고 있다.

가. 보육료 지원(유아학비 지원)

현재 정부는 만 5세 이하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는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유아학비로 전 계층 교육과정과 방과후 비용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2018).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입소할 때, 영유아보육법 28조에 따라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한부모가족은 소득수준에 따라 한부모가족과 기타 한부모가족이 구분되는데, 일정 소득수준 이상인 경우 기타 한부모가족으로 분류되어 입소 순위가 2순위가 된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있는 경우는 취업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의 돌봄공백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기준만으로 1순위가 유지되어 미혼모가족의 돌봄공백을 줄일 필요가 있다.

〈표 2-7〉 입소 우선순위

구분	대상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 계층 - 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 맞벌이가구	- 다문화가족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제1형 당뇨아동 - 산업단지 거주자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 - 조손가족 - 입양된 영유아	- 가정위탁 보호아동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형제자매

자료: 보건복지부, (2019d), 「2019 보육사업안내」.

나.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종류로는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으로 나뉜다. 지원 금액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연령(개월)별로 월 10만~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d, p. 351).

〈표 2-8〉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2019년 기준)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 원	0~11	200천 원	0~35	200천 원
12~23	150천 원	12~23	177천 원		
24~35	100천 원	24~35	156천 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 원	36~47	129천 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 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 원		

자료: 보건복지부, (2019d), 「2019 보육사업안내」, p. 351.

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8년 도입되어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제공하고 있다(아동수당 홈페이지, 2019. 6. 8. 검색).

라.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 연계 활동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a, 2019. 9. 16. 검색).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공간,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지역사회 자녀돌봄 사랑방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가족품앗이사업으로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하교 동행 등을 함께하며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

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a, 2019. 9. 16. 검색).

지원 대상으로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부모 및 자녀)이며,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통상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일부지역에 한하여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한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1.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장난감 및 육아 물품 지원), 2.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소통 등 정보나눔 기회 제공, 3. 동화구연 등 상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장난감 및 도서 대여, 5. 가족품앗이 유형별 그룹활동 운영(전체모임 및 소모임 등)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a, 2019. 9. 16. 검색).

마.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b, 2019. 9. 16. 검색). 정부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취업 한부모가정(혹은 다자녀, 장애인), 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기타 양육공백(장기부재, 학교재학, 취업준비, 모의 출산)이 발생하는 가정이다(여성가족부, 2019b, p. 18). 지원 내용은 아이돌보미가 가정 등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여성가족부, 2019b, p. 26),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9b, p. 19).

종일제 돌봄은 만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에게 이유식, 젖병소독, 기

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제공하고, 시간제 돌봄은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활동, 간단한 급식·간식,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9b, p. 26).

우선순위 부여 기준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가정, 다문화 가정, 맞벌이(취업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한다(여성가족부, 2019b, p. 50).

1) 기관연계 서비스: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한부모가족의 취업·학업, 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 파견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입소·이용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다. 지원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다. 단,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하나,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에게 서비스 제공 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이 높음에 대한 이용 가정(기관)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19a, p. 277). 양육공백 사유로는 한부모가 취업·학업 중이거나 취업·학업을 위해 준비 중인 경우, 한부모 또는 자녀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한부모가족이 상담·치료지원사업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여성가족부, 2019a, p. 277). 아이돌보미 1인당 0~2세 이하의 경우 최대 3명, 만 3세 이상~12세인 경우 최대 5명까지 돌볼 수 있다. 기본이용시간은 1회 2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19a, p. 277).

바. 방과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아동으로, 수급자, 한부모 가정,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가정, 모·부자(일시)보호시설 입소가정,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입소가정,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이다. 지원 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방학 기간 동안은 종일제 보육을 실시하여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9d, p. 345).

사.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보건복지부, 2019e. p. 3). 지원 대상 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로서 24개월 이상 운영시설 중 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한다(보건복지부, 2019e. p. 3).

지원 내용으로는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 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해 제공한다(보건복지부, 2019e. p. 3).

이용아동은 시설별 신고 정원의 80% 이상이 돌봄취약 아동이어야 하고, 일반 아동은 2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9e. p.

39). 이용아동 선정 기준은 소득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이며, 가구 특성이 적용되기도 한다. 연령 기준으로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이다(보건복지부, 2019e. pp. 42-46). 운영시간은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15일,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학기 중엔 오후 2시~7시 필수로 운영되며, 방학 기간에는 낮 12시~오후 5시 운영된다(보건복지부, 2019e. pp. 53-54). 서비스영역으로는 기본 프로그램과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기본 프로그램은 보호·교육·문화·정서지원·지역사회 영역으로 구성되며, 특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특수성 및 주요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9e. pp. 54-55).

〈표 2-9〉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영역

영역	세부영역	세부 프로그램
보호	생활	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안전	생활안전지도, 안전귀가지도, 5대 안전의무교육
교육	학습	숙제지도, 교과학습지도
	특기적성	예체능 활동, 적성교육
	성장과 권리	인성·사회성 교육,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문화	체험활동	관람·견학, 캠프·여행
	참여활동	공연, 행사(문화/체육 등)
정서지원	상담	연고자 상담, 아동 상담, 정서지원 프로그램
	가족지원	보호자 교육, 행사·모임
지역사회 연계	홍보	기관홍보
	연계	인적연계, 기관연계

자료: 보건복지부(2019e).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p. 54.

3. 경제 영역(소득·소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우나 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을 조사하고,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보장기관장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⁴⁾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한다(보건복지부, 2019f).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생계급여를,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의료급여를,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주거급여를,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4)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국토교통부, 2019).

〈표 2-10〉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2019년)

(단위: 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19년 기준 중위소득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자료: 교육부(2019).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 안내」 p. 27.

생계급여의 급여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로 결정된 수급자이며, 급여의 내용은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 급여액 산정 기준으로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인 기준 중위소득액 30%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다. 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한다(보건복지부, 2019f)

해산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해산급여를 지급한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하여 해산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해산급여를 지급하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해산급여의 금액은 1인당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즉 쌍둥이를 출산할 경

우, 120만 원을 지급한다(보건복지부, 2019f).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 할 수도 있으며,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 신청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생계 급여와 주거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으며,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다(교육부, 2019, p. 4). 교육급여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달리, 교육급여만 선택하여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급여를 지급한다. 지급 내용으로는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에게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한다(교육부, 2019, pp. 127-130). 한부모가족 학용품비와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자격을 신청하거나 갖고 있는 경우, 교육급여 지원액이 많으므로 우선 적용하고 한부모가족 학용품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교육부, 2019, p. 133).

〈표 2-11〉 교육급여 지급 기준 및 지급 내용(2019년)

지급 대상	급여 항목	지급 내용	지급 방법	
초등학생	부교재비	1명당 132,000원	연 1회 일괄 지급	수급자 현금 지급
중·고등학생		1명당 209,000원		
초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71,000원	연 1회 일괄 지급	
중·고등학생		1명당 81,000원		
고등학생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일괄 지급	학교로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자료: 교육부(2019),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 안내」 p. 6.

나.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9. 9. 16. 검색). 미혼모는 갑작스러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위기상황에 빠질 수 있어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이다. 여기서의 ‘위기상황’이라 함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9. 9. 16. 검색). 이때에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적용하는데,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8만 256원, 4인 기준 346만 152원)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9. 9. 16. 검색).

〈표 2-12〉 긴급복지지원제도 서비스(2019년)

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최대 횟수
금전·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94.9천 원 (4인 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 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 원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12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 원 이내 (4인 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221.6천 원, 중 352.7천 원, 고 432.2천 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그 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8천 원/월 - 해산비(60만 원)·장제비(75만 원)·전기요금(50만 원 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없음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복지>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 2019. 9. 16. 검색.

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이고, 만 18세 미만의 아동(취학 시 만 22세 미만)을 양육하는 한부모로 미혼모 또한 한부모가족에 포함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복지급여 대상자와 발급대상자로 구분한다. 소득인정액⁵⁾의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5)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국토교통부, 2019).

인 한부모인 경우 복지급여 발급대상자로 분류되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급한다. 또한 이 경우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담감 등을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지원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여성가족부, 2019a, p. 52).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의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며 복지급여 이외의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9a, p. 51).

〈표 2-13〉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가구소득 인정액 기준(2019년)

(단위: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19년 기준 중위소득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기준 중위소득 52%	1,511,395	1,955,217	2,399,039	2,842,861	3,286,683
기준 중위소득 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자료: 여성가족부(2019a),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p. 3.

복지급여는 가구 또는 개인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가구 단위로는 시설에 입소한 가구에 한하여 생활보조금으로 월 5만 원씩 지급한다. 개인 단위로는 아동양육비를 월 2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로 월 5만 원, 학용품비로 연 5만 4100원 지급한다(여성가족부, 2019a, p. 139).

〈표 2-14〉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2019년)

(단위: 원/월)

구분	항목	금액
가구 단위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가구, 월 5만 원
개인 단위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연 5.41만 원

자료: 여성가족부(2019a),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재구성.

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다.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가 제공된다.

〈표 2-15〉 청소년한부모 가구소득 인정액 기준(2019년)

(단위: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19년 기준 중위소득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기준 중위소득 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기준 중위소득 72%	2,092,700	2,707,223	3,321,746	3,936,269	4,550,792

자료: 여성가족부(2019),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p. 3.

청소년한부모 지원 내용은 가구 단위와 개인 단위로 나누어 지원한다. 가구 단위로는 자립에 참여한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촉진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원한다. 개인 단위로는 아동양육비를 월 35만 원, 검정고시 학원을 수강할 경우 검정고시 학습비로 연 154만 원,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 실비를 고등학생 교육비로 지급한다.

〈표 2-16〉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2019년)

(단위: 원/월)

구분	항목	금액
가구 단위	자립촉진수당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한부모, 월 10만 원
개인 단위	아동양육비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월 35만 원
	검정고시 학습비	검정고시 학원 수강 시 연 154만 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소득인정액 수준별로 지원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2019a),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재구성.

2019년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비 또한 기존의 양육비 상승과 비교하여 크게 상승하였다(〈표 2-17〉 참조). 2018년 월 18만 원에서 2019년 월 35만 원으로 인상하여(여성가족부, 2019a, p. 12), 청소년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되었다.

〈표 2-17〉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변화

(단위: 원/월)

구분	2010	2011	2017	2018	2019
지원액	10만	15만	17만	18만	35만

자료: 여성가족부(2019a),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pp. 10-12.

마. 미혼모·부 초기 지원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에 의거하여 양육 및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9a, p. 321). 지원 대상은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운영방법으로는 시도별 1곳(서울 2곳)의 사업수행기관(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선정하여, 3년 이내의 운영기간을 두고 운영하며,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상담경력자 등 전담인력을 1명 배치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19a, p. 323). 사업 내용으로는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 정서 지원, 출산 및 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조모임 운영지원, 지역 유관기관 연계지원이 있다. 미혼모·부 초기 지원 사업은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에서만 소득 기준을 적용하며, 다른 사업의 경우는 소득과 관계없이 미혼모인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표 2-18〉 미혼모·부 초기 지원 사업 내용(2019년)

구분	항목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 정서지원	- 임신·출산에 대한 정서적 불안감 해소,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해소, 사회 편견으로 위축된 자존감 향상, 자립심 강화 등을 위한 상담 - 온·오프라인 상담, 미혼모·부의 부모 상담,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정서지원, 주거·양육 등 미혼모·부의 생활 상담 등
출산 및 양육지원	- 지원 대상: 시설입소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연 70만 원, 2자녀인 경우 140만 원) * 자녀가 12개월 이하인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연간 30만 원 한도 내 추가 지원 가능
친자검사비 지원	친자검사비(실비) 지원
교육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 임신·출산,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은 최소 연 6회 진행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자립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지원 - 자조모임은 최소 연 6회 진행해야 하며, 1인당 지원한도액은 2만 원, 모임 1회당 30만 원 이내로 지원함
지역 유관기관 연계지원	미혼모·부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혼모·부 및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복지 서비스 수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

자료: 여성가족부(2019a),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pp. 323-327.

바.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 가족 등이다.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양육비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또는 협의성립 지원, 법원의 양육비 확정 판결에 따른 이행지원 및 이행 여부 모니터링 확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및 비양육

부모의 양육책임에 대한 인식개선, 양육비 이행 지원에 관한 제도 연구, 프로그램 지원이 있다(여성가족부, 2019a).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최장 9개월) 양육비를 긴급지원하는 제도이다.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심사 후 대상을 선정한다. 1.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하고,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에 양육비 채권자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3. 과거 긴급복지지원을 수급하였으나, 생계가 지속적으로 어렵고, 4.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보유하였으며(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통한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함), 5.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지 않고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6개월로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로 3개월이 연장 가능하다(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블로그 검색 2019. 9. 16. 검색)

4. 주거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과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⁶⁾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인 모든 가구이다.

6)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국토교통부, 2019).

〈표 2-19〉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2019년)

(단위: 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19년 기준 중위소득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자료: 국토교통부(2019), 「2019 주거급여 사업안내」 p. 38.

이때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는 보장시설 거주 수급자로 분류되어 주거급여를 제공받을 수 없다(국토교통부, 2019, p. 38).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그리고 주택조사(거주유형, 임차료, 임대차 기간, 실제 거주 여부, 주택소유 등 권리 관계, 주택 상태 등 노후도 조사)를 통해 급여를 제공한다(국토교통부, 2019, p. 38).

급여의 종류로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제공한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표 2-20〉 참조).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 규모, 소득 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보수(경, 중, 대)를 실시한다(국토교통부, 2019, p. 16).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는 생활보조금 아동양육비 등으로 구성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거급여와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동시 수급이 가능하다(국토교통부, 2019, p. 53).

〈표 2-20〉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2019년)

(단위: 원)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	4급지 (그 외 지역)
1인	233,000	201,000	163,000	147,000
2인	267,000	226,000	178,000	161,000
3인	316,000	272,000	213,000	194,000
4인	365,000	317,000	247,000	220,000
5인	377,000	329,000	258,000	229,000
6~7인	441,000	389,000	296,000	267,000
8~9인	485,000	427,000	325,000	293,000
10~11인	533,000	470,000	358,000	323,000

자료: 국토교통부(2019), 2019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p. 40.

〈표 2-21〉 수선유지급여의 지급 기준(2019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 금액 (수선 주기)	378만 원 (3년)	702만 원 (5년)	1,026만 원 (7년)
수선 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3% 이하인 경우: 80% 지원 • 욕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자료: 국토교통부(2019), 2019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p. 40.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은 총 5가지로 나뉘는데,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구분된다. 현재 2018년 12월 기준으로 총 128개소가 운영 중이며, 생활시설은 123개소, 이용시설은 5개소이다(여성가족부,

2019a, p. 17).

모·부자가족복지시설은 기본생활지원형과 자립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으로 구분된다. 기본생활지원형의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 혹은 부자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자립생활지원형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으로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가구로서 자립 준비가 미흡한 가구인 경우 우선 입소가 가능하다. 입소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 기준에 부합될 경우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직업교육 연계, 양육·가사교육 등 자립 준비 지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 제공)이다. 공동생활지원형의 입소 대상은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부자가족으로서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자이다. 입소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입소 기간 연장 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지원 내용으로는 주거 제공, 자립 프로그램 실시,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이 있다(여성가족부, 2019a, p. 212).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한 기본생활지원형과 공동생활지원형으로 구분된다. 기본생활지원형의 입소 대상은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일정 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 혜택과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이다(여성가족부, 2019a, p. 213). 입소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입소 기간 연장 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숙식 무료 제공, 분만의료 혜택, 자립지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이

있다(여성가족부, 2019a, p. 213).

공동생활지원형의 입소 대상은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 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미혼모자 공동생활지원형), 또는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로서 일정 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미혼모 공동생활지원형)이다(여성가족부, 2019a, p. 215). 입소 기간은 미혼모자 공동생활지원형의 경우 2년 이내로 하되, 입소 기간 연장 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1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19a, p. 215). 지원 내용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숙식 무료제공, 자립 프로그램 실시,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이 있다(여성가족부, 2019a, p. 216).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은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자녀 동반 없이 혼자 입소를 희망하는 모도 가능)이다(여성가족부, 2019a, p. 216). 입소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입소 기간 연장 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지원 내용으로는 숙식 무료 제공, 생활보조금 지원,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하여 의료혜택 제공, 법률상담, 심리상담,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지원, 자녀의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학력 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과 협의, 수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19a, pp. 217-218).

〈표 2-22〉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종류

시설 유형		입소 대상	입소 기간 (연장 가능 기간)	시설 수
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 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3년(2년)	42
	공동생활 지원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 는 모자가족	2년(1년)	3
	자립생활 지원	만 18 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 로서 자립 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3년(2년)	2
부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 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3년(2년)	2
	공동생활 지원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 는 부자가족	2년(1년)	2
	자립생활 지원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부자세대로서 자립 준비가 미흡한 부자가족	-	-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기본생활 지원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개 월 미만) 지원을 요하는 여성	1년(6개월)	20
	공동생활 지원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휴지시설 1개소 포함	2년(1년)	39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2년(6개월)	2
일시복지시설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 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휴지시설 1개소 포함	6개월 (6개월)	11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미운영 1개소 포함	이용시설	5

자료: 여성가족부(2019a),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p. 209.

다.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위해 주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자립 의지가 있는 무주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에게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지급하면서 운영기관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한다. 입주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입주 방식은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지원)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를 원칙으로 한다. 주택 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여건상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가 가능하다.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한다(여성가족부, 2019a). 운영기관에서는 임대보증금 및 사업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물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주택을 확보한다. 더불어 입주자에 대한 상담과 직업훈련·취업 연계 등 자립을 지원, 자조모임을 운영한다.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수납받고, 주택을 관리·점검하는 역할을 한다(여성가족부, 2019a, p. 306). 입주자 우선순위 기준은 1순위가 미혼한부모가족, 2순위 부자가족, 3순위가 모자가족으로 됨으로써, 미혼모를 우선순위로 둔 주거정책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은 11개 지역의 12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표 2-23〉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지역	운영기관	지역	운영기관
서울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충남	천안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홀트아동복지회(고운뜰)	광주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	전주건강가정지원센터
강원	원주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	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	홀트아동복지회(아침뜰)	경북	포항건강가정지원센터
충북	새생명지원센터	경남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자료: 여성가족부·복권위원회(2018),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p. 19.

라.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시·도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혹은 민간 주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한부모가족을 5년·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여 주거를 지원한다.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한부모가족을 선정·특별공급대상으로 추천한다(여성가족부, 2019a, p. 237). 특별공급의 입주대상으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으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분양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이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배점 기준은 가구원수, 무주택기간, 특별공급 대상지역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자활 의지, 아동 장애 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한부모인 경우 우선순위를 두어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구임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전세임대인 경우 1순위로 설정하며 우선권을 부여하고, 국민임대인 경우 우선공급대상을 두거나 일반공급 시 가점을 부여한다(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2018).

5. 자립(학업·취업)

가. 미혼모 대안위탁교육

청소년한부모가족의 학업 중단 위기를 예방하고자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단기 위탁교육기관으로서 청소년한부모가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권을 보호한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9. 9. 16. 검색). 지원 대상은 재학 중 임신으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기 어려

은 학생이다. 청소년한부모의 복지급여인 교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17년도에는 12개 시도에서 미혼모학생 77명이 위탁교육을 받았으며, 2018년도에는 17개 시도로 확대되어 미혼모학생 65명이 위탁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 교육청 안내자료, 2019. 9. 16.검색). 미혼모학생이 타 지역 소재 기관에서 위탁교육 희망 시 ‘학생 미혼모 위탁교육기관’을 상호 인정하여 원적 학교의 학적을 유지한 채 타 지역에 소재하는 위탁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표 2-24〉 학생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현황

지역	운영기관	지역	운영기관
서울	나래대안학교(애란원)	강원	마리아의집
부산	마리학교	충북	청주해오름마을
대구	가톨릭푸름터	충남	새소망의집
인천	자모원(바다의별대안학교)		구세군아름드리
광주	인애복지원	전북	민들레학교
대전	대전자모원	전남	성모의집
울산	마리학교	경북	가톨릭푸름터
세종	대전자모원	경남	로템학교
경기	홀트고운학교	제주	애서원(무궁화아카데미)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민주시민생활교육과〉부서업무방〉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1) 2019. 9. 16. 검색.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각 시도 교육청 및 위탁기관의 현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교육과정을 지니고 있다. 편성 교과목과 주당 수업시간도 대안학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공부하는가에 따라 이수 교과목과 수업일수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시험응시 장소와 시험지 출제 방식, 성적 산출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 일관된 방식이 요구된다. 위탁기관에서 시험을 응시하고, 위탁기관의 시험결과를 그

대로 원적학교가 반영하는 곳이 있는 반면, 원적학교에서 직접 시험에 응시하여 원적학교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 성적을 산출하는 지역이 있어, 교육과정에서의 지역별 차등이 없도록 통일된 교육과정과 시험 산출 방법이 요구된다.

대안학교의 한계점으로는 ‘임신으로 인해 시설 안의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위탁교육이 너무 단순하고 부실하다고 판단되어, 다니던 고등학교를 자퇴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지연 외, 2013, p. 154). 이렇듯 원적학교에 비해 낮은 교육수준과 임신부와 양육미혼모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정해숙, 최윤정, 최지은, 2014)은 개선될 필요가 요구된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대안학교에서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원적학교로 복교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학교가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인지하고 복교와 진학을 거부한 경우가 있고, 학생들은 복교에 성공하더라도 지체된 학습진도, 자녀 양육 병행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해숙 외, 2014). 세 번째로 학업 중단상태였던 미혼모는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지속하려고 하였는데 원적학교 복학후 대안교육기관으로 이적하려 해도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여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불가능하였다(정해숙 외, 2014).

대안학교의 긍정적인 점은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소수 인원의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여 학업 흥미를 증가시킬 수 있고, 일반 학교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등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해숙 외, 2014).

나. 자립준비금 공제제도

자립준비금 공제제도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가 근로소득평가액의 4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자립준비금’으로 인정하여 소득항상으로

인한 퇴소를 유예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한 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시설) 입소자이다. 자립준비금의 인정 요건은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 상품(정기적금 등)을 선택하여 별도 계좌를 신설한 후 납입한 금액을 자립지원금으로 인정한다. 시설거주 기간을 연장하여 머무르기 때문에, 유예기간 동안은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여성가족부, 2019a, p. 235).

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는 참여자 특성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간 단계별 맞춤형(상담·진단·경로설정(1단계)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취업성공 패키지 I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69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미혼모, 한부모 등이다. 취업성공패키지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표 2-25>와 같다. 2019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30~50%인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표 2-25> 취업성공패키지 I 단계별 지원 내용

구분	내용
1단계(취업상담)	- 3주~1개월 -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최대 25만 원 참여수당 지급
2단계(취업의욕, 능력증진)	- 최장 8개월 -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200만~300만 원의 훈련비 지급
3단계(집중취업알선)	- 최장 3개월 -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30만 원, 최대 3개월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분야별정책>취업지원), 2019. 6. 9. 검색.

지금까지 검토한 미혼모가족이 임신부터 출산, 양육기에 걸쳐 이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6〉 미혼모가족이 이용 가능한 정책

영역	보편/ 선별 구분	정책	법령근거	미혼모 우선순위
임신·출산 및 건강	보편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등)	국민건강보험법 50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엽산·철분제 지원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선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한부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모자보건법 제15조	미혼모 명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입양특례법 제13조	미혼모 명시
돌봄·양육	보편	보육료 지원(유아학비 지원)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우선순위 적용
		가정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법 제34조 2항	
		아동수당	아동수당법 제4조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선별	아이돌봄	아이돌봄 지원법	우선순위 적용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아이돌봄지원법 제13조의 2	
		방과후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법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 제50~52조, 제54~75조. 사회사업법 제3조	

영역	보편/ 선별 구분	정책	법령근거	미혼모 우선순위
경제(소득· 소비)	선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법	
		미혼모·부 초기 지원(거점기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미혼모 명시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거	선별	주거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법 제1조 주거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2	
		한부모가족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27조,	국민주택 분양 및 임대시 일정 비율의 우선분양
자립(학업· 취업)	선별	미혼모 대안위탁교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자립준비금 공제제도	-	
		취업성공패키지		

제 II 부 조사 결과:

미혼모가족의 생애별 특성 및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

제 3 장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기 특성

제1절 미성년 미혼모의 임신·출산

제2절 성인 미혼모의 임신·출산

제3절 소결

3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기 특성

이번 3장부터 6장까지는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⁷⁾. 먼저, 이 3장에서는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기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주로 다룬다. 미성년 미혼모는 청소년기 과업 이행과 함께 임신 및 출산을 경험하게 되어 성인 미혼모와 또 다른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기 특성을 다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미성년 미혼모와 성인 미혼모에 대해 절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 구분을 위해 출산 당시 엄마의 연령이 기준이 된다. 이 장에서 의미하는 미성년 미혼모는 출산 당시 「민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미혼모와 19세 이상 성인 미혼모를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미혼모의 출산 당시 연령 구분을 위해 첫째아이 출산연도에서 엄마의 출생연도를 뺀 수가 19 이하인 경우를 미성년 미혼모 출산으로 보고 구분하였다. 이렇게 미성년 미혼모와 성인 미혼모의 임신·출산 당시 경험과 상황을 각 절로 구성해 임신 당시 상황과 출산 과정에서 경험한 심리·정서·상황적 특성, 출산 이후 양육에 대한 생각,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이용률, 도움 정도 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임신 및 출산 환경은 사회 환경과 정책의 발전에 따라 그 환경이 매우 다를 수 있어, 임신 및 출산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데 자녀를 출산한 시기에 따른 차이가 중요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으로 임신·출산 관련 정책 및 환경이 변화하였는데,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7) 제3장부터 제6장에 제시된 표는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로 자료 출처가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가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표마다 데이터 출처 기록을 생략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기 특성을 이해함에 있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가장 최근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시행 원년인 2016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미혼모 집단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만, 지원제도와 관련한 사항에서는 개별 정책에 대한 인지도, 이용률, 도움 정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정책 및 제도가 도입된 시기가 각기 다르고 최근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8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출산 경험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1절 미성년 미혼모의 임신·출산

이 절에서는 미성년 미혼모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과 상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미성년 미혼모가 임신 당시 함께 살고 있던 사람은 부모(5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형제·자매(27.9%), 시설의 다른 가족들(18.4%), 이성 친구·애인·파트너(12.5%), 자녀의 아빠나 그 친인척(11.0%) 순이었다. 자녀 출산 시기를 2016년을 기점으로 전·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부모나 형제·자매와 생활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2016년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의 아빠나 그 친인척과 생활했다는 응답(20.0%)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2016년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시설의 다른 가족들과 생활했다는 응답률(20.9%)이 그다음으로 높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 부분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먼저, 임신 상황에서 부모와 형제자매 등 원가족으로부터 일차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개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기보다 시설이라는 공적지원체계를 활용한 미성년 미혼모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편, 면접조사에서 일부 확인되듯이, 원가

정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청소년쉼터’와 같은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던 여자 청소년이 임신·출산을 경험하는 경우가 다소 증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 3-1〉 미성년 미혼모가 임신 당시 함께 살고 있던 사람(중복 응답)

(단위: %, 명)

구분	자녀	본인 아버지 /엄마	본인 할아버지 /할머니	본인 형제/ 자매	친인척	친구, 동료 및 지인	자녀의 아버지 나 그 친인척	이성친구, 애인, 파트너 (현재 아이아빠)	시설의 다른 가족들	혼자 였음	(명)
전체	11.1	38.3	3.7	16.0	1.2	8.3	7.9	10.2	12.3	13.7	(1,247)
미성년 미혼모	8.1	50.0	5.9	27.9	0.7	5.9	11.0	12.5	18.4	1.5	(136)
자녀 출산 시기											
2016년 이전	12.0	38.0	0.0	24.0	0.0	10.0	20.0	12.0	14.0	2.0	(50)
2016년 이후	5.8	57.0	9.3	30.2	1.2	3.5	5.8	12.8	20.9	1.2	(86)

주: 1) 중복 응답으로 합이 100.0% 이상일 수 있음.

2) ‘기타’ 항목이 모두 ‘혼자였음’으로 나타나 직접 표기하였음.

미성년 미혼모의 출산 후 양육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직접 기를 생각이었다는 응답(41.2%)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출산하지 않을 생각을 한 적 있음(39.0%), 입양 등 타인 양육을 생각한 적 있음(37.5%) 순이었다. 즉, 조사 대상자 전체 응답과 비교하면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출산 후 양육에 대한 생각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출산 시기를 2016년 전·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양육에 대한 생각은 44%에서 39.5%로 4.5%포인트 감소한 반면 입양 생각은 34%에서 39.5%로 5.5%포인트 증가하였다. 다만 같은 기간 낙태 생각은 48%에서 33.7%로 14.3%포인트나 크게 감소하여 임신한 청소년이 낙태보다 출산을 고려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전체 미혼모와 비교할 때 출산 이후 직접 양육보다 입양을 고민하

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점도 정책 추진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표 3-2〉 미성년 미혼모의 임신 기간 동안 출산 후 양육에 대한 생각(중복 응답)

(단위: %, 명)

구분	처음부터 직접 기를 생각이었음	출산하지 않을 생각(인공임신중절(낙태) 고려)을 한 적 있음	타인 양육(입양 등)을 생각한 적 있음	기타	(명)
전체	44.8	38.3	32.4	1.0	(1,247)
미성년 미혼모	41.2	39.0	37.5	0.7	(136)
자녀 출산 시기					
2016년 이전	44.0	48.0	34.0	2.0	(50)
2016년 이후	39.5	33.7	39.5	0.0	(86)

주: 1) 중복 응답으로 합이 100.0% 이상일 수 있음.

2) 기타: '별다른 생각이 없었음'

미성년이 임신한 경우 가족의 반대나 자신의 생각도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들이 발견되었다.

“정말 그냥 낳을 생각도 없고 지을 생각도 없고 그냥 그렇게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배가 불러서 아, 이젠 안 되겠다. 그냥 온 거죠.”(A1)

“임신했으니까 저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낳겠다고 마음을 먹었고…사실 제가 아이를 낳고 낳기 전에도 입양을 고민했었고…지금은 애기가 좀 크고 해서 괜찮은데…(입양 계획은) 접었죠.”(A2)

“(가족들이) 완전. (반대했다)…저희 아빠도 지금 서른아홉 살이고 엄청 젊은데 어쨌든 젊은 나이에 저를 포기 안 해서 제가 이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히 저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제 실수도 있는데 아기를 지우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지우는 것도 무섭고 그랬어요.…집에 가서 몇 날 며칠을 (아기) 심장 소리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생각나고요. 엄청 죄책감도 들고, 엄청 힘들었는데… 나중에 ‘재 낙태했대.’ 이런 시선보다

‘재 벌써 아기 낳았대.’ 이런 시선이 더 나올 것 같고. 책임지고 싶었어요. 제 생명이니까... 다시는 안 오잖아요. 첫아이는.”(A3)

“처음에는 좀 되게 후회를 많이 했었는데. 그냥 책임지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A5)

“솔직하게 애를 (입양)보내려고 했었어요. 대학도 가고 싶고요, 근데 (입양) 보내려면 애 아빠 동의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한테 연락해서 사인 만이라도 해 달라 했는데, 지가 싫다고 해서 결국 못 보냈거든요... 처음에는 양육한다고 했지만 생각을 하다 입양을 결정했었거든요.(저의)아빠도 제가 키우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키우자고.”(A7)

“저는 양육을 선택했는데 제 주변 아이들은 입양하거나 낙태란 말이에요. 거의 낙태가 많아서, 제 친구 중에서도 임신한 것 알고 바로 낙태했던 말이에요. 저랑 생각이 달라서...첫 번째는 모성애가 아닐까 싶어요...처음에는 그랬어요. 알자마자 아, 키워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갈수록 좀 변하긴 했는데, 그냥, 믿는 것뿐이었어요.”(A8)

“처음부터 낳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뭐라고 해야 하지... 너무 마음이 약해서? 원래부터 낙태할 생각도 있긴 했는데 무서웠던 것 같아요.”(A9)

“저도 이제 처음에는 19살 때 임신한 거니까 입양 보내는 게 맞겠다. 자신도 없었고. 이 애를 어떻게 키우나. 근데 낳고 입양 그거를 연결 받았어요. 상담을 해야 되는데 출산했을 때 애기 얼굴 보니까 너무 이게 그때부터 모성애가. 내 새끼니까. 뭔가 모르게 내가 내 배 속에서 저런 생명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대단하구나. 생명이란 게. 그렇게 느끼고 그래서 입양 상담받으려다가 취소시키고...그냥 양육으로 바로 전환했거든요. 힘든 것도 많았고 아직 가족들도 키우는 건 아는데 만나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A11)

미성년 미혼모의 임신 사실 인지 시기는 평균 9.7주로, 본 조사 표본의 전체 미혼모(평균 8.7주)보다 1주 정도 늦고, 8주 이내(58.1%)에 인지하는 경우가 과반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16주 이상이라는 응답이(25%) 그 다음으로 많았다. 출산 시기를 2016년을 기점으로 전·후로 구분하여 살

해보면 본 조사 표본에서 미성년 미혼모가 임신 사실을 8주 이내에 인지한 비율이 50%에서 62.8%로 증가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면접조사에서도 일부 확인이 가능하듯, 임신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처음 임신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표 3-3〉 미성년 미혼모의 임신 사실 인지 시기

(단위: %, 주, 명)

구분	4주 이전	5~8주	9~11주	12~15주	16주 이상	계	(명)	평균(주)
전체	22.5	41.5	9.1	10.5	16.4	100.0	(1,247)	8.7
미성년 미혼모	21.3	36.8	6.6	10.3	25.0	100.0	(136)	9.7
자녀 출산 시기($\chi^2=4.43$)								
2016년 이전	22.0	28.0	8.0	16.0	26.0	100.0	(50)	10.4
2016년 이후	20.9	41.9	5.8	7.0	24.4	100.0	(86)	9.3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성년 미혼모의 산전 진찰 장소는 병원(71.3%)이 가장 많았는데, 본 조사 표본에서 10명 중 1명 이상이 산전 진찰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0.3%). 2016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경우는 82%에서 65.1%로 감소한 반면, 진찰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률은 4%에서 14%로 10%포인트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조산원에서 진찰을 받는 경우도 10.5%포인트 증가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미성년 미혼모가 여전히 모성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일부 방증하는 결과이다. 다만 면접조사에 참여했던 시설 입소 미성년 미혼모 대다수가 병원에서 산전 진찰과 정기 검진을 규칙적으로 받았다고 응답하여 임신 당시 환경에 따라 개인별 편차가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4〉 미성년 미혼모의 산전 진찰 장소

(단위: %, 명)

구분	진찰받은 적 없음	종합병원	병원	의원	조산원	보건 의료원	계	(명)
전체	11.9	8.0	71.5	5.4	0.9	2.3	100.0	(1,247)
미성년 미혼모	10.3	8.8	71.3	1.5	6.6	1.5	100.0	(136)
자녀 출산 시기								
2016년 이전	4.0	8.0	82.0	4.0	0.0	2.0	100.0	(50)
2016년 이후	14.0	9.3	65.1	0.0	10.5	1.2	100.0	(86)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산전 진찰 장소의 응답 중 ‘진찰받은 적 없음’에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전 진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받은 횟수를 알아보았다. 미성년 미혼모의 산전 진찰 횟수는 평균 9회로, 6~10회(48.4%)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1~5회(27.0%), 11~15회(16.4%), 16~20회(8.2%) 순이었다. 2016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16~20회가 10.4%에서 6.8%로, 11~15회가 18.8%에서 14.9%로 각각 감소하였고, 1~5회가 18.8%에서 32.4%로 증가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특히 전체 미혼모의 산전 진찰 횟수(9.5회)와 미성년 미혼모의 산전 진찰 횟수(9.0회)는 비슷한 수준이나, 2016년 이전 출산한 경우(9.8회)보다 이후 출산한 경우(8.5회) 산전 진찰 횟수가 1회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 진찰 횟수는 앞선 질문에서 ‘산전 진찰 받은 적 없음’에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한 평균 횟수이다. 따라서 ‘산전 진찰 받은 적 없음’을 0회로 포함해 분석하면, 전체 응답자(1247명) 평균은 8.4회이고 미성년 미혼모(136명)의 평균 산전 진찰 횟수는 8.1회로 더욱 낮게 나타난다. 또한 ‘산전 진찰 받은 적 없음’을 포함한 2016년 이전에 출산한 미성년 미혼모의 평균 산전 진찰 횟수는 9.4회인 반면, 2016년 이후에 출산한 경우는 7.3회로 더욱 낮게 나타났다.

〈표 3-5〉 미성년 미혼모의 산전 진찰 횟수

(단위: %, 회, 명)

구분	1~5회	6~10회	11~15회	16~20회	21회 이상	계	(명)	평균(회)
전체	23.4	46.5	19.0	11.1	0.0	100.0	(1,099)	9.5
미성년 미혼모	27.0	48.4	16.4	8.2	0.0	100.0	(122)	9.0
자녀 출산 시기($\chi^2=2.99$)								
2016년 이전	18.8	52.1	18.8	10.4	0.0	100.0	(48)	9.8
2016년 이후	32.4	45.9	14.9	6.8	0.0	100.0	(74)	8.5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산전 진찰 받은 적 없음'을 0회로 포함한 분석 결과: 전체 산전 진찰 평균 8.4회, 미성년 미혼모 8.1회, 2016년 이전/이후 출산 미성년 미혼모의 평균 산전 진찰 횟수는 각각 9.4회, 7.3회

산전 진찰을 받은 경험이 있는 미성년 미혼모의 초진 시기는 평균 12.9주로 본 조사 표본의 전체 미혼모 집단 평균(10.7주)보다 약 2주 늦었다. 13주 이후(41.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5~8주(32.0%), 9~12주(14.8%), 4주 이전(12.3%) 순으로, 임신 사실의 인지 시기와 비교하면 초기 진료시기가 대체로 늦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2016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13주 이후가 47.9%에서 36.5%로 감소하고 5~8주가 20.8%에서 39.2%로 증가하여 임신 사실 인지 시점과 초진 시기의 차이가 다소 줄어든 양상을 보이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3-6〉 미성년 미혼모의 초진 시기

(단위: %, 주, 명)

구분	~4주	5~8주	9~12주	13주 이후	계	(명)	평균(주)
전체	15.2	40.8	16.2	27.8	100.0	(1,099)	10.7
미성년 미혼모	12.3	32.0	14.8	41.0	100.0	(122)	12.9
자녀 출산 시기($\chi^2=4.86$)							
2016년 이전	12.5	20.8	18.8	47.9	100.0	(48)	14.1
2016년 이후	12.2	39.2	12.2	36.5	100.0	(74)	12.2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성년 미혼모가 초진을 늦게 받는 경향은 인터뷰에서도 나타났다.

“(병원에는) 24주 또는 25주 6일(초진을 받음)”(A1)

“10주 때요.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를 찍으러 갔는데”(A3)

“임신 18주인가? (의사가)그 정도라고”(A4)

“3개월, 4개월? 일반 산부인과에 가서… 생리를 안 해서 갔는데 초음파 겸 사랑 질 내 검사했는데, 애기가 있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처음 알았죠.”(A8)

미성년 미혼모가 산전 진찰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는 비용이 부담되어서라는 응답(35.7%)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출산 때까지 임신 사실을 몰라서(28.6%), 산전 진찰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또는 병원에서 미혼모인 것을 아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각각 7.1%) 순이었다. 전체 미혼모와 비교할 때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산전 진찰에 따른 비용 부담뿐 아니라 출산 때까지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산전 진찰의 필요성을 모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미성년 미혼모의 산전 진찰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출산이 가까워질 때까지 임신 사실 몰라서	산전 진찰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건강 하다고 느껴서 따로 진찰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받으려 했지만 시간이나 상황상 여유가 없어서	받으려 했지만 비용이 부담 되어서	병원에서 미혼모인 것을 알 것 같아 불편해서	기타	계	(명)
전체	21.6	15.5	7.4	12.2	25.7	10.8	6.8	100.0	(148)
미성년 미혼모	28.6	7.1	0.0	0.0	35.7	7.1	21.4	100.0	(14)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주변인 등이 진료를 받게 해 주지 않음’, ‘아이가 잘못되기 바라서’

미성년 미혼모는 병원을 가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병원에 가기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병원 가도 되는데. 그때는 뭐가 그렇게 무서워 가지고 그냥 테스트기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A1)

미성년 미혼모의 분만 장소는 병원(71.3%), 종합병원(16.9%), 조산원(6.6%) 순으로 본 조사 표본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이 병원에서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병원 출산 비율이 높다는 점이 공통적인 특성인 반면, 2016년 이전 출산에 비해 이후 조산원, 자택 출산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8〉 미성년 미혼모의 분만 장소

(단위: %, 명)

구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조산원	보건 의료원	자택	계	(명)
전체	18.0	71.7	6.2	1.9	1.0	0.7	100.0	(1,247)
미성년 미혼모	16.9	71.3	2.9	6.6	0.7	1.5	100.0	(136)
자녀 출산 시기								
2016년 이전	12.0	82.0	4.0	0.0	2.0	0.0	100.0	(50)
2016년 이후	19.8	65.1	2.3	10.5	0.0	2.3	100.0	(86)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응답이 전체 결과에 0.5% 있으나, 미성년 미혼모에서 0.0%로 본 표에 제시하지 않음. 즉, 전체 비율은 ‘기타’ 0.5%를 더해 100%임.

미성년 미혼모의 분만 주수는 평균 38.3주로 대체로 정상 분만 주수에서 출산하였다. 본 조사 표본의 전체 미혼모 평균 분만 주수(38.2주)와도 차이가 없었다.

〈표 3-9〉 미성년 미혼모의 분만 주수

(단위: 주, 명)

구분	평균 주수	(명)
전체	38.2	(1,247)
미성년 미혼모	38.3	(136)

미성년 미혼모 아이의 출생 당시 체중은 평균 3.08kg로 대체로 정상 체중으로 출산하였다. 본 조사 표본 전체 미혼모 자녀의 출생 시 체중 평균(3.11kg)과도 차이가 없었다.

〈표 3-10〉 미성년 미혼모 아이의 출생 당시 체중

(단위: kg, 명)

구분	평균 체중	(명)
전체	3.11	(1,247)
미성년 미혼모	3.08	(136)

미성년 미혼모의 산후 진찰 경험을 보면 조사 대상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있다(66.9%)고 응답하였다. 전체 미혼모의 산후 진찰 경험(62.9%)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높지만, 2016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2016년 이후에 출산한 미성년 미혼모가 2016년 이전에 출산한 미성년 미혼모보다 산후 진찰 경험률이 17.5%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미성년 미혼모의 산후 진찰 경험

(단위: %, 명)

구분	없음	있음	계	(명)
전체	37.1	62.9	100.0	(1,247)
미성년 미혼모	33.1	66.9	100.0	(136)
자녀 출산 시기($\chi^2=4.39^*$)				
2016년 이전	22.0	78.0	100.0	(50)
2016년 이후	39.5	60.5	100.0	(86)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성년 미혼모의 산후 진찰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는 비용 부담과 진찰 필요를 못 느꼈다는 응답이 각각 24.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상황상 여유가 없어서(22.2%), 산후 진찰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15.6%), 병원에서 미혼모인 것을 알 것 같아 불편하다(13.3%)는 순이었다. 2016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비용 부담과 산후 진찰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개선된 반면 미혼모라는 낙인감에 대한 불안은 2016년 이후에 출산한 미혼모가 그전에 출산한 미성년 미혼모보다 17.6%포인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3-12〉 미성년 미혼모의 산후 진찰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산후진찰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건강하다고 느껴서 따로 진찰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받으려 했지만 시간이나 상황 상 여유가 없어서	받으려 했지만 비용이 부담되어서	병원에서 미혼모인 것을 알 것 같아 불편해서	계	(명)
전체	18.6	13.4	31.2	31.6	5.2	100.0	(462)
미성년 미혼모	15.6	24.4	22.2	24.4	13.3	100.0	(45)
자녀 출산 시기							
2016년 이전	27.3	18.2	27.3	27.3	0.0	100.0	(11)
2016년 이후	11.8	26.5	20.6	23.5	17.6	100.0	(34)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성년 미혼모의 산후우울감 경험을 보면 본 조사 표본의 미성년 미혼모 10명 중 약 9명(89.7%)가 우울감을 경험하였다. 전체 미혼모의 평균(80.6%)보다 다소 높고, 출산 시기를 2016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미성년 미혼모의 산후우울감 경험

(단위: %, 명)

구분	없음	있음	계	(명)
전체	19.4	80.6	100.0	(1,247)
미성년 미혼모	10.3	89.7	100.0	(136)
자녀 출산 시기($\chi^2=0.01$)				
2016년 이전	10.0	90.0	100.0	(50)
2016년 이후	10.5	89.5	100.0	(86)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조사에 참여한 미성년 미혼모 상당수가 산후우울감을 경험하였는데, 체력적인 피로감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낮은 자신감,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박탈감 등을 호소하였다.

“밤만 되면 엄청 우울해지고. 임신했을 때 엄청 심했어요. 그때보다는 나아졌지만, 요즘에도 새벽에 깨있으면 힘들고 내가 다른 애들과 다른 부분 박탈감. (지금의) 상태 자체가 그냥. (시간이 지나도) 안 나아질 것 같아요. 여기서 대부분 언니들도 다 우울하고 엄청 심해요. 언니들은 상담 갔었는데 도움 안 났다고.”(A1)

“제가 아이 낳고 나서 산후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뭐만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울고 소리 지르고 애기 입양 보내겠다고 난리 치고 해서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애기가 좀 크고 해서 괜찮은데 50일 전후까지만 해도 거의 매일 울고 소리 지르고 입양 보내겠다고 하고. 육체적인 부분도 많이 힘들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임신하기 전에 하려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까 하고 싶었던 것도 하기 힘들어지고 하더라고요.”(A2)

“당시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되게 무섭기도 했고 많이 힘들어서 울고 그랬고 조리원에 있을 때부터 산후우울증이 심하게 왔었어요.”(A5)

“제가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다 보니까 놀고 싶은 마음도 많았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우울증이 와서 (아이 아빠랑) 서로 떨어져서 지내보자 하고 시설에 들어왔어요.”(A6)

미성년 미혼모의 산후우울증 진단 혹은 상담 경험을 보면 10명 중 8명 이상(87.7%)이 진단 및 상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산후우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진단 및 상담 경험률이 2016년 이후에 출산한 경우 5.4%포인트 더 많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여 미혼모의 산후우울증에 대한 적극적 진단과 상담 기회의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3-14〉 미성년 미혼모의 산후우울증 진단 혹은 상담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없음	있음	계	(명)
전체	82.3	17.7	100.0	(1,005)
미성년 미혼모	87.7	12.3	100.0	(122)
자녀 출산 시기($\chi^2=0.77$)				
2016년 이전	91.1	8.9	100.0	(45)
2016년 이후	85.7	14.3	100.0	(77)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성년 미혼모의 산후조리 장소는 본인 집(38.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시설(31.6%), 산후조리원(23.5%), 친정·형제·자매 집(10.3%) 순이었다. 2016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본인 집 6.7%포인트, 미혼모시설 2.6%포인트, 조산원 4.7%포인트 각각 증가한 반면, 산후조리원 3.9%포인트, 친정·형제자매 집 2.7%포인트로 각각 감소하였다.

〈표 3-15〉 미성년 미혼모의 산후조리 장소(중복 응답)

(단위: %, 명)

구분	산후 조리원	조산원	산부 인과	산부 인과 외 병원	본인 집	미혼모 시설	친정, 형제/ 자매 집	친인척 집	친구나 지인 집	기타	(명)
전체	19.7	0.8	6.3	4.1	37.6	27.0	14.0	0.6	2.0	3.2	(1,247)
미성년 미혼모	23.5	2.9	2.9	1.5	38.2	31.6	10.3	0.7	2.2	2.9	(136)
자녀 출산 시기											
2016년 이전	26.0	0.0	4.0	4.0	34.0	30.0	12.0	0.0	2.0	4.0	(50)
2016년 이후	22.1	4.7	2.3	0.0	40.7	32.6	9.3	1.2	2.3	2.3	(86)

주: 1) 중복 응답으로 합이 100.0% 이상일 수 있음.

2) 기타: '산후조리하지 않음'

미성년 미혼모의 산후조리 비용은 평균 59만 1000원으로, 전체 미혼모의 산후조리 평균 비용(75만 8000원)보다 16만 7000원이 적었다. 하지만 이 비용은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표 3-16〉 미성년 미혼모의 산후조리 비용

(단위: 만 원, 명)

구분	평균 비용	(명)
전체	75.8만 원(S.D. 103.18)	(1,247)
미성년 미혼모	59.1만 원(S.D. 87.8)	(136)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임신·출산관련 지원 제도 중 미혼모가 활용 가능한 정책에 대해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를 살펴보았다. 정책 인지 자체가 본인이 출산을 경험할 때 해당 정책이 존재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이 도입된 이후에 출산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정책이 도입된 연도만을 기준으로 인지 여부를 알아볼 경우, 정책 도입 해의 월과 미혼모의 출산연도의 월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이 도입된 해의 다음 연도부터 출산을 경험한 사례만을 분석에 포함한다. 아래 표에서 정책명 아래 괄호 안의 연도가 정책이

도입된 다음 해를 기록해 놓은 것으로, 해당 연도를 포함해 그 이후에 마지막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분석에 포함된다. 또한, 자녀 출산 시기에 따른 분석에서는 가장 최근의 정책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2018년도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점검한다.

먼저, 임신기에 주로 사용하는 정책으로 국민행복카드로 알려져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와 엽산·철분제 지원 제도를 살펴보았다. 미성년 미혼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인지율은 92.4%로 가장 높았고, 이용률은 89.3%, 이용자 가운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응답(다소 도움됨 + 매우 도움됨)은 85.3% 수준이었다. 출산 시기를 기준으로 2018년 이전과 이후 출산 경험자를 비교해 보면 2018년 이후에 출산을 경험한 미성년 미혼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한 인지율은 약간 낮지만, 이용 경험은 높은 수준(88.4%)을 유지했다. 그리고 도움 정도의 결과로 보면, 2018년 이후 출산을 경험한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다소 도움됨 21.1% + 매우 도움됨 71.1%).

두 번째로 엽산·철분제 지원 제도 인지율은 82.6%, 이용률은 67.0%, 이용자 가운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응답률은 71.2% 수준이었다. 2018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2018년 이후에 출산을 경험한 경우 이전 경험자보다 인지율은 낮지만, 이용 경험 수준은 비슷하고, 일단 이용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7〉 미성년 미혼모의 정부 지원 임신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모름	알고 있음	(명)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명)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도움 됨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전체	7.4	92.6	(1,170)	9.1	90.9	(1,084)	0.2	3.8	16.5	33.2	46.3 (985)
미성년 미혼모 자녀 출산 시기	2018년 이전 (2009년)	7.6	92.4	(132)	10.7	89.3	(122)	0.0	3.7	11.0	26.6	58.7 (109)
2018년 이후	2.5	97.5	(81)	10.1	89.9	(79)	0.0	4.2	14.1	29.6	52.1	(71)
2018년 이후	15.7	84.3	(51)	11.6	88.4	(43)	0.0	2.6	5.3	21.1	71.1	(38)
전체	14.3	76.2	(1,170)	23.8	76.2	(1,003)	0.7	3.9	22.1	38.9	34.4	(76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전체	17.4	82.6	(132)	33.0	67.0	(109)	0.0	5.5	23.3	37.0	34.2 (73)
미성년 미혼모 자녀 출산 시기	2018년 이전 (2009년)	12.3	87.7	(81)	33.8	66.2	(71)	0.0	6.4	21.3	36.2	36.2 (47)
2018년 이후	25.5	74.5	(51)	31.6	68.4	(38)	0.0	3.8	26.9	38.5	30.8	(26)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각 정책 영역별 모수는 정책 도입 연도 다음 해까지 마지막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임신·철분제 지원은 2008년도에 정책이 도입되어 각 연도 +1년 이후부터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만 분석함.

다음은 출산 후에 주로 이용하게 되는 제도들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를 알아보았다. 미성년 미혼모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인지율은 36.8%, 인지한 경우 중 이용한 비율은 38.8%, 이용자 가운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응답률은 79.0% 수준이었다. 2018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이후에 인지율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의 인지율은 45.3%, 이용률은 14.6%였고, 이 정책은 사용한 샘플 수가 많지 않아 도움 정도에 대한 해석 등에서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제도의 인지율은 90.8%로 높았다. 다만, 2018년도 이전에 출산한 경우 100.0% 인지율은 보였으나, 이후에 출산한 경우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용률은 98.3%으로 매우 높고,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응답률 또한 96.6%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자녀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정책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인지율은 69.8%, 이용률은 61.7%,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응답률은 97.3% 수준이었다. 2018년 이전에 출산한 미성년 미혼모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이 정책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미성년 미혼모의 정부 지원 출산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모름	알고 있음	(명)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명)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007년)	전체	51.8	48.2	(1,205)	63.7	36.3	(624)	0.9	4.3	17.5	37.4	39.8	(211)
	미성년 미혼모 자녀 출산 시기	63.2	36.8	(133)	61.2	38.8	(49)	0.0	5.3	15.8	47.4	31.6	(19)
		$(\chi^2=1.06)$			$(\chi^2=0.57)$								
	2018년 이전	59.8	40.2	(82)	57.6	42.4	(33)	0.0	7.1	21.4	42.9	28.6	(14)
	2018년 이후	68.6	31.4	(51)	68.8	31.3	(16)	0.0	0.0	0.0	60.0	40.0	(5)
임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 (2014년)	전체	55.4	44.6	(895)	73.7	26.3	(399)	3.8	5.7	15.2	29.5	45.7	(105)
	미성년 미혼모 자녀 출산 시기	54.7	45.3	(106)	85.4	14.6	(48)	0.0	0.0	14.3	28.6	57.1	(7)
		$(\chi^2=0.01)$											
	2018년 이전	54.5	45.5	(55)	80.0	20.0	(25)	0.0	0.0	20.0	40.0	40.0	(5)
	2018년 이후	54.9	45.1	(51)	91.3	8.7	(23)	0.0	0.0	0.0	0.0	100.0	(2)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2010년)	전체	5.3	94.7	(1,149)	2.3	97.7	(1,088)	0.0	0.3	5.2	25.7	68.9	(1,063)
	미성년 미혼모 자녀 출산 시기	9.2	90.8	(131)	1.7	98.3	(119)	0.0	0.0	3.4	21.4	75.2	(117)
	2018년 이전	0.0	100.0	(80)	1.3	98.8	(80)	0.0	0.0	5.1	24.1	70.9	(79)
	2018년 이후	23.5	76.5	(51)	2.6	97.4	(39)	0.0	0.0	0.0	15.8	84.2	(38)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016년)	전체	19.7	80.3	(685)	27.3	72.7	(550)	0.3	0.8	7.0	29.0	63.0	(400)
	미성년 미혼모 자녀 출산 시기	30.2	69.8	(86)	38.3	61.7	(60)	0.0	0.0	2.7	24.3	73.0	(37)
		$(\chi^2=7.12^{**})$			$(\chi^2=1.76)$								
	2018년 이전	14.3	85.7	(35)	30.0	70.0	(30)	0.0	0.0	0.0	23.8	76.2	(21)
	2018년 이후	41.2	58.8	(51)	46.7	53.3	(30)	0.0	0.0	6.3	25.0	68.8	(16)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각 정책 영역별 모수는 정책 도입 연도 다음 해까지 마지막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2006년, 임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은 2013년,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은 2009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2015년도에 정책이 도입되어 각 연도 +1년 이후부터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만 분석함.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본 조사 표본에서 미성년 미혼모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엽산·철분제 지원,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에 대해 대체로 잘 인지하고 이용하고 있으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상대적으로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았다. 또한 전체 미혼모와 비교할 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과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대한 미성년 미혼모의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엽산·철분제 지원의 경우는 전체 미혼모보다 미성년 미혼모의 인지 여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출산 시기를 기준으로 2018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2018년 이전보다 이후에 출산을 경험한 경우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엽산·철분제 지원,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의 이용 경험률에서는 2018년 이전과 이후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도움 정도 또한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도움이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정책 발전 등으로 일단 제도나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그 도움 정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지 및 이용률을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성년 미혼모가 초기에 접촉하는 병원, 보건소, 시설 등을 통한 제도 홍보 또는 미성년 미혼모가 많이 사용하고 정보를 얻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용률 제고를 위한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불편 사항 상시 모니터링과 제도 환류(feed back) 등 운용 과정 전반의 개선이 일부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민행복카드는 병원에 가면서 바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초진 시기가 너무 늦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책 인지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갔을 때 처음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왔다 하니 왜 아직 한 번도 안 왔냐고 되게 알려주더라고요. 국민행복카드 신청하라고. 처음 만들면서 60만원 있었고. 여기(시설) 들어와서 선생님이 신청 해주셔서 120만원 또 따로… 안 쓰고 있는데 너무 늦게 알았어요.”(A1)“(행복카드) 여기 들어오고 나서 만들어야 된다 하니까 그때 만들었어요.”(A3)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했는데도 카드 승인이 계속 안 되어서. 지금 170만원 한 번도 못 썼어요. 고양시에서 여기로 넘어오면서 카드가 정지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번도 결제를 못하기도 했고 게다가 의료기관에서 재결제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정된 의료기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애기가 태어난 병원도 안 되냐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한 번도 못 썼어요. 주소가 바뀌어서 카드 정지되었다고만 이야기해 줬어요.”(A5)

“바우처, 처음에 잘 몰랐다가 찾아보고 보건소 다녀왔거든요.…보건소에서 (바우처 신청 방법)잘 알려주셔서 좋았어요.… 보건소에서 철분제 준다는 것, 1차 기형아 검사 같은 거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알려줘서 거기서 무료로 한 번 했었어요.…바우처 만들 때 불편했던 건 엄청 쓸 게 많더라고요. 일일이 복사해서 작성하고 등기우편으로 서울에 보내야 하고… 잘못 보내서 다시 써서 보내고.”(A8)

“병원에서 국민행복카드 알려줬어요. 그 때 병원에서 들고 카드를 만들고.”(A11)

미성년 미혼모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1순위)은 진료비 및 출산 비용 등 금전적 어려움(31.6%)이 가장 컸고, 그다음은 고민을 말할 곳이 없음(16.2%), 안정된 거주지 부재(14.7%), 사람들의 부정적 시선(13.2%), 병원에 동행할 사람이 없거나 신생아를 돌보는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각각 11.0%) 순이었다. 출산 연도에 따라 2016년 이전과 이후 출산 경험자를 비교해 보면, 2016년 이전에 출산한 미성년 미혼모는 2016년 이후에 출산한 미성년 미혼모와 비교해 금전적인 어려움은 10.1%포인트, 신생아를 돌보는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은 1.5%포인트, 부정적 시선은 1.2%포인트의 비율이 높은 반면, 병원에 동행할 사람이 없거나(8%포인트), 고민을 말할 곳이 없다(3.4%포인트)는 각각 2016년 이

후에 출산한 미성년 미혼모의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성년 미혼모가 원가족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지근거리에서 소소한 돌봄을 포함하여 심리·정서 지원이 가능한 공적·사적 지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표 3-19〉 미성년 미혼모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1순위)

(단위: %, 명)

구분	병원에 같이 갈 사람이 없었다	안정되게 지낼 곳이 없었다	진료비 및 출산비용 등 금전적 으로 어려웠다	신생아 돌보는 방법을 몰라 어려웠다	나의 상황을 이야기 하고 고민을 말할 곳이 없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 같았다	기타	계	(명)
전체	13.2	14.4	41.8	9.8	13.5	5.8	1.6	100.0	(1,247)
미성년 미혼모	11.0	14.7	31.6	11.0	16.2	13.2	2.2	100.0	(136)
자녀 출산 시기									
2016년 이전	6.0	16.0	38.0	12.0	14.0	14.0	0.0	100.0	(50)
2016년 이후	14.0	14.0	27.9	10.5	17.4	12.8	3.5	100.0	(86)

주: 기타: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음', '수면부족'

미성년 미혼모가 고민을 이야기할 대상 부재나 부정적 시선에 민감해하는 경향은 전체 응답에서보다 심층 인터뷰에서 나타난다. 임신 사실을 밝히는 동시에 주변으로부터 경험하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다니던 학교가 특히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장선생님이 아파한테 딸은 대학 못 갈 거라고 말씀하시고 학교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막 혼란스럽다는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지우라는 식이었고요... 저는 임신 초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만 한 딸이 있는데 아이 지우라고 하셨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A9)

“처음에 가족 반대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 때까지 애를 숨겼어

요. 돌 지나고 가족한테 밝혔는데 너무 반대가 심하고 두 돌 때까지도 반대했거든요.”(A10)

“우리 나이 또래나 이렇게 차이 얼마 안 나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아직 미혼모라는 인식이 별로 안 좋죠. 우리 엄마도 그랬었고....”(A12)

미성년 미혼모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필요했던 지원은 진료비 지원(33.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비용 및 물품 지원(21.3%), 임신·출산기간 생활비 지원(19.9%), 출산 후 산후조리(9.6%), 임신·출산기간 동안 거처 지원(8.1%), 긴급상담전화(3.7%) 순이었다. 2016년 이전 출산 경험자와 이후 출산 경험자를 비교해 보면, 진료비 지원은 3.4%포인트, 생활비 지원은 3.4%포인트 감소한 반면 비용 및 물품 지원은 2.1%포인트, 산후조리서비스 2.5%포인트, 정서안정을 위한 상담 4.7%포인트 각각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미성년 미혼모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생필품 지원과 함께 산후조리를 포함한 심리·정서 지원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을 일부 시사한다.

〈표 3-20〉 미성년 미혼모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단위: %, 명)

구분	임신·출산 관련 긴급 상담 전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준비에 드는 비용 및 물품 지원	임신·출산 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	임신·출산 기간 동안 거처 지원	출산 후 필요한 산후 조리 서비스	임신·출산 과정에 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아이를 낳자 마자 돌보는 방법에 대한 교육	계	(명)
전체	4.7	30.2	19.8	26.7	7.9	5.1	2.7	2.7	100.0	(1,243)
미성년 미혼모	3.7	33.8	21.3	19.9	8.1	9.6	2.9	0.7	100.0	(136)
자녀 출산 시기										
2016년 이전	4.0	36.0	20.0	22.0	8.0	8.0	0.0	2.0	100.0	(50)
2016년 이후	3.5	32.6	22.1	18.6	8.1	10.5	4.7	0.0	100.0	(86)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응답이 전체 결과에 0.3% 있으나, 미성년 미혼모에서 0.0%로 본 표에 제시하지 않음.
즉, 전체 비율은 ‘기타’ 0.3%를 더해 100%임.

지낼 곳이 없는 경우는 그 비율이 매우 높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지낼 곳이 없을 때를 경험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어린 엄마에게는 매우 위험한 환경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2차 시설에) 대기 걸어놓고 계속 자리가 없어서 다른 시설 가시는 분들도 많고. 아, 제가 ○○도에 있을 때 2차 시설을 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대기를 기다려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계속 자리가 없다고 하고 저는 찜질방에서 살았거든요. 찜질방에서 애 키우다가….”(A6)

‘미성년 미혼모의 임신·출산 당시 학업 상태’는 고등학교 자퇴(40.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고교 재학(28.3%), 고교 졸업(16.5%), 고등학교 휴학·퇴학(각각 3.9%), 중학교 자퇴(3.1%), 중학교 재학·졸업(각각 1.6%), 중학교 휴학(0.8%) 순이었다. 2016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고교 퇴학은 6.6%포인트, 고교 자퇴는 5.4%포인트, 중학교 자퇴는 3.7%포인트, 중학교 졸업은 1.8%포인트 감소한 반면 고교 재학은 6.6%포인트, 고교 휴학은 5.4%, 고교 졸업은 2.5%포인트, 중학교 재학은 2.2%포인트, 중학교 휴학은 1.1%포인트 증가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중등학교의 자퇴와 퇴학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반면, 미성년 미혼모의 학력이 초졸 또는 중졸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양육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학력 취득을 포함하여 ‘청소년기’ 발달과업 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21〉 미성년 미혼모의 임신·출산 당시 학업 상태

(단위: %, 명)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명)
	재학	휴학	졸업	자퇴	퇴학	재학	휴학	졸업	자퇴	퇴학		
미성년 미혼모	1.6	0.8	1.6	3.1	0.0	28.3	3.9	16.5	40.2	3.9	100.0	(127)
자녀 출산 시기												
2016년 이전	0.0	0.0	2.9	5.9	0.0	23.5	0.0	14.7	44.1	8.8	100.0	(34)
2016년 이후	2.2	1.1	1.1	2.2	0.0	30.1	5.4	17.2	38.7	2.2	100.0	(93)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성년 미혼모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학교를 중단한 경험은 본 조사 표본에서 10명 중 7명 이상(74.2%)에 달하였다. 2016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전자의 경우 임신·출산 과정에서 학교 탈락률은 76.5%인 반면 후자의 경우 72.7%로 3.8%포인트 감소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3-22〉 미성년 미혼모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학교 중단 경험

(단위: %, 명)

구분	없음	있음	계	(명)
미성년 미혼모	25.8	74.2	100.0	(89)
자녀 출산 시기				
2016년 이전	23.5	76.5	100.0	(34)
2016년 이후	27.3	72.7	100.0	(55)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학교에 다니던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기에는 현재 우리 사회의 학교 환경상 어려움이 많아 보였다.

“(임신 사실을 알고) 학교에서 소문이 나서 안 좋게 보여 가지고...처음 임신했었을 때 휴학했었는데 또 휴학 중에 또 임신 사실을 알게 돼 가지고요... 그때는 제가 자퇴한다고...”(A7)

임신·출산 과정에서 학교를 중단하지 않은 미성년 미혼모가 다닌 학교를 살펴보면 정규학교(71.4%)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시설위탁교육(28.6%)이었다. 2016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정규학교는 21.4%포인트 감소하고 시설위탁교육은 21.4%포인트 증가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신·출산을 이유로 정규학교에서 학업 중단이 발생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최근의 위탁교육 활성화 노력에 따른 정책의 일부 성과로 판단된다.

〈표 3-23〉 임신·출산 과정에서 학교를 중단하지 않은 미성년 미혼모가 다닌 학교

(단위: %, 명)

구분	정규 과정 학교	시설위탁교육	계	(명)
미성년 미혼모	71.4	28.6	100.0	(21)
자녀 출산 시기				
2016년 이전	85.7	14.3	100.0	(7)
2016년 이후	64.3	35.7	100.0	(14)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자퇴'로 응답하여 분석에서 제외함.

미성년 미혼모의 학업 중단 시기를 보면 임신 5주 이전(30.6%)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21주 이상(24.2%), 16~20주(21.0%), 6~10주(12.9%), 11~15주(11.3%) 순이었다. 즉, 미성년 미혼모가 임신 사실을 인지한 직후 바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임신기간이 진행되면서 배가 불러와 더 이상 임신 사실을 숨길 수 없는 상황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출산 시기를 2016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6년 이전 출산한 미혼모에 비해 2016년 이후 출산한 경우 5주 이전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는 16%포인트 증가하였고, 21주 이상은 28.5%포인트 감소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여학생의 임신이 학업 중단 사유가 되고 있음을 일부 방증하는 결과이다.

〈표 3-24〉 미성년 미혼모의 학업을 중단한 시기

(단위: %, 주, 명)

구분	~5주	6~10주	11~15주	16~20주	21주 이상	계	(명)
미성년 미혼모	30.6	12.9	11.3	21.0	24.2	100.0	(62)
자녀 출산 시기							
2016년 이전	20.8	4.2	16.7	16.7	41.7	100.0	(24)
2016년 이후	36.8	18.4	7.9	23.7	13.2	100.0	(38)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성년 미혼모가 학업을 중단한 주된 이유를 보면 임신·출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56.1%)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아이들 맡길 곳이 없거나 주변의 차별과 편견을 견디기 어려웠다(각각 10.6%), 부모님이나 가족의 권유 때문 또는 학교의 징계와 강요 때문(각각 7.6%), 생활비를 벌기 위해(4.5%) 순이었다. 2016년 이전과 비교해 2016년 이후에 출산한 경우에는 임신·출산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는 3.7%포인트, 부모님이나 가족의 권유 때문에는 6.2%포인트,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는 4.8%포인트 각각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반면, 학교의 징계와 강요 때문은 6.5%포인트,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5.2%포인트 더 낮은 비율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여전히 미성년 미혼모와 가족은 임신·출산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과 낙인으로 인해 학업 중단을 선택하고 있고,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학업 중단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다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임신·출산 및 생활고로 인한 비자발적인 학업 중단이 소폭 감소하여 미성년 미혼모의 학업 중단 예방 및 자립지원 제도가 일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25〉 미성년 미혼모가 학업을 중단한 가장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임신 및 출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주변의 차별과 편견을 견디기 어려워서	부모님, 가족의 권유 때문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교의 징계와 강요 때문	기타	계	(명)
미성년 미혼모	10.6	56.1	10.6	7.6	4.5	7.6	3.0	100.0	(66)
자녀 출산 시기									
2016년 이전	7.7	53.8	11.5	3.8	7.7	11.5	3.8	100.0	(26)
2016년 이후	12.5	57.5	10.0	10.0	2.5	5.0	2.5	100.0	(40)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스스로 선택함'

미성년 미혼모가 학업 중단 후 복학이나 재입학을 했는지를 확인한 결과 복학 또는 재입학을 했다는 응답이 34.8%에 불과하여 미성년 미혼모가 학교 탈락 후 복귀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016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2016년 이후 출산한 미성년 미혼모의 학교 복귀 비율이 이전에 출산한 미성년 미혼모에 비해 0.4%포인트 높아져 큰 변화가 없었다.

〈표 3-26〉 미성년 미혼모가 학업중단 후 복학하거나 학교 재입학 여부

(단위: %, 명)

구분	안했음	했음	계	(명)
미성년 미혼모	65.2	34.8	100.0	(66)
자녀 출산 시기				
2016년 이전	65.4	34.6	100.0	(26)
2016년 이후	65.0	35.0	100.0	(40)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성년 미혼모가 학업 중단 후 복학하거나 재입학한 경우 어떤 학교인지 살펴본 결과 원적학교(60.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원

적학교가 아닌 다른 일반학교(13.0%), 원적학교가 아닌 대안학교(4.3%) 순으로 나타나 원적학교 복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6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2016년 이후 출산한 미성년 미혼모는 원적학교로 복귀가 63.5%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간 교육부가 학업 중단예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학업 중단 이후 학교복귀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진 부분이 있고, 출산 이후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원적학교를 떠나기보다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표 3-27〉 미성년 미혼모가 학업중단 후 복학하거나 재입학한 학교

(단위: %, 명)

구분	원래 다니던 학교	원래 다니던 학교가 아닌 다른 일반학교	원래 다니던 학교가 아닌 다른 대안학교	기타	계	(명)
미성년 미혼모	60.9	13.0	4.3	21.7	100.0	(23)
자녀 출산 시기						
2016년 이전	22.2	22.2	0.0	55.6	100.0	(9)
2016년 이후	85.7	7.1	7.1	0.0	100.0	(14)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미혼모시설에서 수업을 받음', '방송통신학교'

재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을 확인한 결과 정규과정에서 휴학 보장(30.4%)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학업과 양육이 가능한 대한학교 운영(24.4%), 검정고시 학원이나 온라인 교육이용 지원(14.8%), 미혼모시설에 교사를 파견하여 학업을 이수하고 학력 인정(13.3%), 수업일수와 교육과정 조정(8.9%), 임신·출산으로 불이익을 줄 경우 학교 제재 조치 이행(8.1%) 순이었다. 2016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다른 지원에 대한 요구는 변화가 없는 반면, 휴학 보장은 19.6%포인트, 검정고시 학원이나 온라인 교육이용 지원 1.3%포인트

증가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면접조사에 참여한 미성년 미혼모 가운데 위탁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대상자들의 경우 시설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면서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고 원적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매우 만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성년 미혼모가 원할 경우 정규교육과정에서 탈락하지 않고 원적학교에서 학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습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원적학교를 떠나 위탁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지속하거나, 검정고시 등 학력 취득이 가능한 다른 선택지를 확보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28〉 미성년 미혼모가 생각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임신·출산한 경우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단위: %, 명)

구분	정규 교육과정 이수할 수 있도록 휴학보장	정규 교육과정 이수 범위에서 수업일수와 교육과정 조정	학업과 양육이 가능하도록 대안학교 운영	미혼모 시설에 교사 파견해 학업을 이수하고 학교와 동일한 학력 인정	검정고시 위한 학원이나 온라인 교육 이용 지원	임신·출산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학교 재제 조치	계	(명)
미성년 미혼모	30.4	8.9	24.4	13.3	14.8	8.1	100.0	(135)
자녀 출산 시기								
2016년 이전	18.0	10.0	32.0	18.0	14.0	8.0	100.0	(50)
2016년 이후	37.6	8.2	20.0	10.6	15.3	8.2	100.0	(85)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어도 아이를 돌봐 줄 곳이 없는 미성년 미혼모에게 학업을 마치는 동안 돌봄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대안학교)여기 다니면 (시설 안이라서)생활하기 편하고 졸업장도 원래 학교 걸로 나와서 좋아요. (원적학교를 휴학하기보다 위탁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지속하며 양육도 하는 방안요?) 네. 수업 중에는 아기도 봐주니까요.”(A3)

“어린이집도 일을 하면 증빙서류를 떼 와야 하잖아요. 헌데 (저녁에 공부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준비 기간에)저녁까지 맡길 수 있게 야간 보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저는 국비 (검정고시 학원비)지원을 받았는데 그 정도면 더 바랄 게 없어요.”(A6)

“(학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애를 돌봐야 하니까 검정고시를 생각하고 있거든요.”(A7)

제2절 성인 미혼모의 임신·출산

이 절에서는 성인 미혼모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과 상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성인 미혼모가 임신 당시 함께 살고 있던 사람을 보면 부모(36.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혼자였거나(15.2%), 본인의 형제자매(14.5%), 시설의 다른 가족(11.5%) 순이었다. 출산 시기를 2016년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두 집단 간 경향성에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출산 시점에서 본인의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20대와 30대는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각각 40.2%, 33.4%로 가장 많았지만, 40대 이상은 혼자 거주가 45.9%로 가장 많았다.

〈표 3-29〉 성인 미혼모가 임신 당시 함께 살고 있던 사람(중복 응답)

(단위: %, 명)

구분	자녀	본인 아버지/엄마	본인 할아버지/할머니	본인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 동료 및 지인	자녀의 아버지나 그 친인척	이성 친구, 애인, 파트너 (현재 아이 아빠)	시설의 다른 가족들	혼자였음	(명)
전체	11.1	38.3	3.7	16.0	1.2	8.3	7.9	10.2	12.3	13.7	(1,247)
성인 미혼모	11.4	36.8	3.4	14.5	1.3	8.6	7.6	9.9	11.5	15.2	(1,111)
자녀 출산 시기											
2016년 이전	11.1	36.9	2.1	13.3	1.0	7.8	9.6	11.3	10.2	12.7	(512)
2016년 이후	11.7	36.7	4.5	15.5	1.5	9.3	5.8	8.7	12.7	17.4	(599)
출산 시 모 연령											
만 20-29세	12.0	40.2	4.5	17.2	.9	8.9	7.9	9.8	14.5	10.9	(682)
만 30-39세	10.2	33.4	1.8	10.7	2.0	8.7	6.9	9.7	7.4	19.9	(392)
만 40세 이상	13.5	10.8	0.0	5.4	0.0	2.7	8.1	13.5	0.0	45.9	(37)

주: 1) 중복 응답으로 합이 100.0% 이상일 수 있음.

2) '기타' 항목이 모두 '혼자였음'으로 나타나 직접 표기하였음.

성인 미혼모의 출산 이후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직접 기를 생각이었다는 응답(45.3%)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출산하지 않을 생각을 한 적 있음(38.2%), 입양 등 타인 양육(입양 등)을 생각한 적 있음(31.8%) 순이었다. 본 조사 표본의 전체 응답과 비교하면 양육에 대한 생각은 0.5%포인트 정도 높았지만, 출산 시기를 2016년 전·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양육에 대한 생각은 감소하고 낙태와 입양에 대한 고려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2016년 이전에 자녀를 출생한 미혼모는 타인 양육(입양 등)을 고려한 비율이 28.1%였으나, 2016년 이후 자녀를 출생한 미혼모의 경우 34.9%로 6.8%포인트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출산 시 미혼모의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연령에 따라 양육 생각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전체 연령대에서 처음부터 양육을 고려했다

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지만 연령대가 낮을수록 양육 생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20대 미혼모에 비해 30, 40대 이상 미혼모가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하거나 입양을 생각한 비율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모 지원정책 추진 시 연령에 대한 고려가 일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3-30〉 성인 미혼모의 출산 후 양육에 대한 생각(중복 응답)

(단위: %, 명)

구분	처음부터 직접 기를 생각이었음	출산하지 않을 생각(인공임신중절(낙태) 고려)을 한 적 있음	타인 양육(입양 등)을 생각한 적 있음	기타	(명)
전체	44.8	38.3	32.4	1.0	(1,247)
성인 미혼모	45.3	38.2	31.8	1.0	(1,111)
자녀 출산 시기					
2016년 이전	46.1	37.9	28.1	1.2	(512)
2016년 이후	44.6	38.4	34.9	0.8	(599)
출산 시 모 연령					
만 20-29세	40.0	41.1	38.0	1.0	(682)
만 30-39세	53.3	33.4	22.2	0.8	(392)
만 40세 이상	56.8	35.1	18.9	2.7	(37)

주: 1) 중복 응답으로 합이 100.0% 이상일 수 있음.

2) 기타: '죽음에 대해 생각함', '베이비박스', '별다른 생각이 없었음', '정부보호지원', '출산 때까지 임신 사실을 모름', '아이 아빠에게 보낼 생각'

여러 고민은 아이를 낳기 전에도 낳은 후에도 이어지고, 혼자 고민을 반복하며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시설을 어떻게, 왜 찾으셨어요?) 제가 원래 지금 애들이 쌍둥이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감당을 못할까 봐 입양도 생각하고 했는데, 출산을 하자마자 사실 입양 보내는 기관에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도움을 달라 했더니 이제 여기 연계해주셔서 그렇게 입소하게 되었어요. (일주일 때 결정해야 될 때 확 마음이 바뀐 거예요?) 네, 다음 날이 이제 아기들이 가는 날이었는데 이제 그때 도저히 못 보내겠어가지고 안 되겠

다고. 입양 갈 곳이 다 정해져 있어서 원래는 바로 데려가겠다고 하셨다가. (그때 마음이 바뀐 계기가 뭐였어요?) 그날 봉사자분들이 아기들을 봐주시는 상황이었는데, 봉사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한 며칠만 이제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있어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며칠 동안에도. 처음 겪어 보는 그런 아기 돌봄? 근데 이제 딱 든 생각이, 내 배 아파서 낳은 애인데, 이렇게 힘든데도 그냥 데리고 가시는 분들은 그 힘든 걸 모르니까, 아이한테 정말 막 대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처음에 임신하고서는 바로 입양 보내야겠다고 결정하셨어요?) 아니요, 원래 지우려고도 했다가. 병원에 12주차에 가서 늦기도 했고, 근데 초음파를 봤는데, 두 명이 누워 있더라고요, 이미 형제가 다 있어가지고. 아, 지우는 거는 정말 못 하겠구나 해서. (지우지 못하고 낳아야겠다는 결정은 그때 했는데, 그때 이후로 입양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냥 고민을 항상 하다가, 이제 출산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그 상황까지.”(B17)

성인 미혼모의 임신 사실 인지 시기는 평균 8.6주로, 본 조사 표본의 전체 미혼모 평균(8.7주) 수준이며, 5~8주에 인지한 경우가 42.1%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4주 이전(22.7%), 16주 이후(15.3%) 순이었다. 특히 미혼모의 연령대에 따라 임신 인지 시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먼저, 30대의 경우 9주 이후부터는 임신 인지 비율이 소폭 감소하여 16주 이후 인지 비율(9.7%)이 가장 낮았다. 반면, 20대는 9~11주차에 인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16주 이후 인지 비율(18.6%)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다. 20대의 평균 임신 인지 시기는 9주로 30대(평균 7.8주), 40대 이상(평균 8.2주)보다 다소 늦었고 미성년 미혼모(평균 9.7주) 보다는 0.7주 정도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1〉 성인 미혼모의 임신 사실 인지 시기

(단위: %, 주, 명)

구분	4주 이전	5-8주	9-11주	12-15주	16주 이후	계	(명)	평균(주)
전체	22.5	41.5	9.1	10.5	16.4	100.0	(1,247)	8.7주
성인 미혼모	22.7	42.1	9.4	10.5	15.3	100.0	(1,111)	8.6주
자녀 출산 시기($\chi^2=8.41$)								
2016년 이전	25.0	41.2	9.2	11.9	12.7	100.0	(512)	8.3주
2016년 이후	20.7	42.9	9.5	9.3	17.5	100.0	(599)	8.8주
출산 시 모 연령($\chi^2=18.83^*$)								
만 20-29세	20.5	41.9	8.5	10.4	18.6	100.0	(682)	9.0주
만 30-39세	25.8	43.1	10.7	10.7	9.7	100.0	(392)	7.8주
만 40세 이상	29.7	35.1	10.8	10.8	13.5	100.0	(37)	8.2주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성인 미혼모인 경우도 예상하지 못했거나 자신의 신체변화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경우에 임신 사실을 늦게 인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학을 진학했었는데 자퇴해서 자취하면서 알바하고 지내다가.... 그러다가 남자친구 사귀고. 근데 지금은 헤어져서... (아이 가진 거 알고 헤어지신 거예요?) 아이 가진 걸 늦게 알았어요. 헤어진 건 그전에 헤어졌는데 8개월 때 알아가지고. 알려도 반응도 없고. 첩엔 배 나오는 게 살찌는 건 줄 알고 굶고 그랬는데 엄마가 배만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산부인과 데려가니까 8개월이라는 거예요.”(B8)

성인 미혼모의 산전 진찰 장소는 병원(71.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종합병원(7.9%), 의원(5.9%) 순이며, 본 조사 표본에서 성인 미혼모 10명 중 1명 이상은 산전 진찰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2.1%). 특히 자녀 출산 시기에 따라 산전 진찰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2016년 이전에 출산한 성인 미혼모의 경우 산전 진찰을 받지 않은 비율이 14.6%였으나 2016년 이후 출산한 성인 미혼모는 9.8%로 4.8%포인트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산

전 진찰을 받지 않은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증가하여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3-32〉 성인 미혼모의 산전 진찰 장소

(단위: %, 명)

구분	진찰받은 적 없음	종합병원	병원	의원	조산원	보건의료 원	계	(명)
전체	11.9	8.0	71.5	5.4	0.9	2.3	100.0	(1,247)
성인 미혼모	12.1	7.9	71.6	5.9	0.2	2.4	100.0	(1,111)
자녀 출산 시기($\chi^2=13.26^*$)								
2016년 이전	14.6	8.0	66.8	7.2	0.2	3.1	100.0	(512)
2016년 이후	9.8	7.8	75.6	4.7	0.2	1.8	100.0	(599)
출산 시 모 연령								
만 20-29세	12.8	6.9	72.7	5.3	0.0	2.3	100.0	(682)
만 30-39세	11.2	10.2	69.6	6.1	0.3	2.6	100.0	(392)
만 40세 이상	8.1	2.7	70.3	13.5	2.7	2.7	100.0	(3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산전 진찰 장소에서 ‘진찰받은 적 없음’에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만 산전 진찰 횟수를 알아본 결과, 성인 미혼모의 산전 진찰 횟수는 6~10회(46.3%), 1~5회(22.9%), 11~15회(19.3%), 16~20회(11.5%) 순으로, 본 조사 표본에서 성인 미혼모는 평균 9.6회의 산전 진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성년 미혼모의 산전 진찰 평균 횟수(9회)와 비슷한 수준이다. 출산 시기를 2016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산전 진찰 횟수 평균은 각각 9.3회, 9.8회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출산 당시 미혼모의 연령에 따른 진찰 횟수를 보면 20대(9.9회), 30대(9.1회), 40대 이상(8.6회) 순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산전 진찰 횟수는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앞서 미성년 미혼모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설명한 산전 진찰 횟수는 ‘산전 진찰 받은 적 없음’을 제외한 분석 결과이다. ‘산전 진찰

받은 적 없음'을 0회로 포함해 분석하면, 성인 미혼모(1111명)의 산전 진찰 횟수 평균은 8.4회로 낮아진다. 또한 '산전 진찰 받은 적 없음'을 포함한 2016년 이전에 출산한 성인 미혼모의 평균 산전 진찰 횟수는 7.9회인 반면, 2016년 이후에 출산한 경우는 8.8회로 나타났다. 출산 시 연령에 따라서는 20대 8.6회, 30대 8.1회, 40세 이상 7.9회로 나타났다.

〈표 3-33〉 성인 미혼모의 산전 진찰 횟수

(단위: %, 회, 명)

구분	1~5회	6~10회	11~15회	16~20회	계	(명)	평균(회)
전체	23.4	46.5	19.0	11.1	100.0	(1,099)	9.5회
성인 미혼모	22.9	46.3	19.3	11.5	100.0	(977)	9.6회
자녀 출산 시기($\chi^2=6.74$)							
2016년 이전	22.4	50.1	18.3	9.2	100.0	(437)	9.3회
2016년 이후	23.3	43.1	20.2	13.3	100.0	(540)	9.8회
출산 시 모 연령($\chi^2=6.10$)							
만 20~29세	21.0	46.4	20.3	12.3	100.0	(595)	9.9회
만 30~39세	25.9	45.4	18.7	10.1	100.0	(348)	9.1회
만 40세 이상	26.5	52.9	8.8	11.8	100.0	(34)	8.6회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산전 진찰 받은 적 없음'을 0회로 포함한 분석 결과: 전체 미혼모의 산전 진찰 평균과 성인 미혼모의 산전 진찰 평균 8.4회, 2016년 이전/이후 출산 성인 미혼모의 평균 산전 진찰 횟수 각각 7.9회, 8.8회. 출산 시 연령 20대 8.6회, 30대 8.1회, 40세 이상 7.9회

산전 진찰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성인 미혼모의 초진 시기는 평균 10.4주이며, 5~8주(41.9%), 13주 이후(26.2%), 9~12주(16.4%)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전에 출산한 경우 평균 9.9주, 2016년 이후에 출산한 경우 평균 10.8주에 초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출산 당시 성인 미혼모의 연령에 따른 초진 시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출산 당시 20대(11.1주)는 30대(9.4주), 40대 이상(9.0주)보다 초진 시기가 늦었고 미성년 미혼모(12.9주)보다는 빨라 연령이 낮을수록 초진 시기가 늦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4〉 성인 미혼모의 초진 시기

(단위: %, 주, 명)

구분	~4주	5~8주	9~12주	13주 이후	계	(명)	평균(주)
전체	15.2	40.8	16.2	27.8	100.0	(1,099)	10.7주
성인 미혼모	15.6	41.9	16.4	26.2	100.0	(977)	10.4주
자녀 출산 시기($\chi^2=5.50$)							
2016년 이전	18.1	40.5	17.4	24.0	100.0	(437)	9.9주
2016년 이후	13.5	43.0	15.6	28.0	100.0	(540)	10.8주
출산 시 모 연령($\chi^2=18.95^{**}$)							
만 20~29세	13.3	41.3	15.0	30.4	100.0	(595)	11.1주
만 30~39세	18.7	42.5	19.3	19.5	100.0	(348)	9.4주
만 40세 이상	23.5	44.1	11.8	20.6	100.0	(34)	9.0주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임신 사실을 알라도 바로 진료를 받지 않아 초진 시기가 늦어지기도 했다.

“원래 지우려고도 했다가.(못 지웠던 계기는 뭐예요? 물어봐도 돼요?) 쌍둥이인 걸 알고 못 지운 것 같아요. 제가 병원을 좀 늦게 갔는데. (몇 개월에 갔어요?) 임신 사실은 임신하자마자, 한 달 되자마자 알긴 했는데, 이제 11주? 12주차 때 병원을 갔어요. (왜 병원에 그때 갔어요?) 그냥 막, 그땐 어차피 지울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안 가고 하다가. 초기에 막 입덧하고 이런 게 너무 심해 가지고, 내가 못 견디겠구나 싶어서 갔는데.”(B17)

산전 진찰을 받지 않은 성인 미혼모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받지 않은 사유를 확인한 결과 비용 부담(24.6%)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미성년 미혼모(35.7%)에 비해 다소 비율은 낮지만 성인 미혼모도 비용 부담이 산전 진찰의 가장 큰 장애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다만 2016년 이전에 출산한 성인 미혼모에 비해 이후 출산한 미혼모의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한 응답률이 16.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 다음으로 응답률이 높은 항목은 출산이 가까워질 때까지 임신 사실을 몰

라서(20.9%), 산전 진찰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16.4%), 시간과 상황에 여유가 없어서(13.4%) 순이었다. 특히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은 8.1%포인트, 산전 진찰 필요성을 몰랐다는 응답은 7%포인트 각각 증가하였다. 이는 성인 미혼모 역시 임신 사실을 늦게 인지하는 것이 초진 시기의 지체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모성보건 관점에서 산전 진찰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교육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3-35〉 성인 미혼모의 산전 진찰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출산이 가까워질 때까지 임신 사실 몰라서	산전 진찰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건강하다고 느껴서 따로 진찰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받으려 했지만 시간이나 상황 상 여유가 없어서	받으려 했지만 비용이 부담 되어서	병원에서 미혼모인 것을 알 것 같아 불편해서	기타	계	(명)
전체	21.6	15.5	7.4	12.2	25.7	10.8	6.8	100.0	(148)
성인 미혼모	20.9	16.4	8.2	13.4	24.6	11.2	5.2	100.0	(134)
자녀 출산 시기									
2016년 이전	17.3	13.3	8.0	12.0	32.0	12.0	5.3	100.0	(75)
2016년 이후	25.4	20.3	8.5	15.3	15.3	10.2	5.1	100.0	(59)
출산 시 모 연령									
만 20-29세	21.8	13.8	6.9	14.9	26.4	9.2	6.9	100.0	(87)
만 30-39세	20.5	22.7	11.4	11.4	15.9	15.9	2.3	100.0	(44)
만 40세 이상	0.0	0.0	0.0	0.0	100.0	0.0	0.0	100.0	(3)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음', '다른 과 진료를 봄', '주변인이 임신 사실을 몰라서 혹은 숨기고 있어서', '임신 계획이 없어서', '임양을 생각하고 있어서',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성인 미혼모의 분만 장소는 병원(71.7%), 종합병원(18.1%), 의원(6.6%) 순으로, 본 조사 표본에서 대부분의 성인 미혼모(96.4%)가 병·원에서 출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산 시기를 2016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큰 차이가 없었고, 출산 당시 미혼모의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40대 이상 성인 미혼모의 경우 종합병원(24.3%) 이용 비율이 20대(16.3%), 30대(20.7%)보다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36〉 성인 미혼모의 분만 장소

(단위: %, 명)

구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조산원	보건 의료원	자택	기타	계	(명)
전체	18.0	71.7	6.2	1.9	1.0	0.7	0.6	100.0	(1,247)
성인 미혼모	18.1	71.7	6.6	1.4	1.0	0.6	0.6	100.0	(1,111)
자녀 출산 시기									
2016년 이전	20.3	68.6	6.8	1.6	1.6	0.6	0.6	100.0	(512)
2016년 이후	16.2	74.5	6.3	1.2	0.5	0.7	0.7	100.0	(599)
출산 시 모 연령									
만 20-29세	16.3	73.5	6.9	1.3	0.9	0.3	0.9	100.0	(682)
만 30-39세	20.7	69.9	5.6	1.3	1.3	1.0	0.3	100.0	(392)
만 40세 이상	24.3	59.5	10.8	2.7	0.0	2.7	0.0	100.0	(37)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미혼모시설', '외국'

성인 미혼모의 분만 주수는 평균 38.2주로, 20대(38.2주), 30대(38.3주) 성인 미혼모보다 40대 이상(37.6주)이 상대적으로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3-37〉 성인 미혼모의 분만 주수

(단위: 주, 명)

구분	평균 주수	(명)
전체	38.2	(1,247)
성인 미혼모	38.2	(1,111)
출산 시 모 연령($F=0.95$)		
만 20-29세	38.2	(682)
만 30-39세	38.3	(392)
만 40세 이상	37.6	(37)

성인 미혼모 아이의 출생 당시 체중은 평균 3.11kg로 대체로 정상 체중으로 출산하였다. 본 조사 표본 전체 미혼모 자녀의 출생 시 평균 체중(3.11kg), 미성년 미혼모 자녀의 출생 시 평균 체중(3.08kg)과도 차이가 없었다. 성인 미혼모의 출산 당시 연령에 따라 자녀의 평균 체중이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표 3-38〉 성인 미혼모 아이의 출생 당시 체중

(단위: kg, 명)		
구분	평균 체중	(명)
전체	3.11	(1,247)
성인 미혼모	3.11	(1,111)
출산 시 모 연령($F=1.80$)		
만 20-29세	3.14	(682)
만 30-39세	3.07	(392)
만 40세 이상	3.08	(37)

성인 미혼모의 산후 진찰 경험을 보면 조사 대상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있다(62.4%)고 응답하여 미성년 미혼모(66.9%)보다 다소 낮았다. 다만 2016년 이전과 이후 출산자를 비교해 보면 산후 진찰 경험률은 6.3%포인트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다만 출산 당시 미혼모의 연령에 따른 산후 진찰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39〉 성인 미혼모의 산후 진찰 경험

(단위: %, 명)

구분	없음	있음	계	(명)
전체	37.1	62.9	100.0	(1,247)
성인 미혼모	37.6	62.4	100.0	(1,111)
자녀 출산 시기($\chi^2=4.66^*$)				
2016년 이전	41.0	59.0	100.0	(512)
2016년 이후	34.7	65.3	100.0	(599)
출산 시 모 연령($\chi^2=3.44$)				
만 20-29세	37.2	62.8	100.0	(682)
만 30-39세	39.5	60.5	100.0	(392)
만 40세 이상	24.3	75.7	100.0	(3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산후 진찰을 받지 않은 성인 미혼모를 대상(417명)으로 산후 진찰을 받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비용 부담(32.4%)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받으려 했지만 시간이나 여유가 없어서(32.1%), 산후 진찰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18.9%) 순이었다. 2016년 이전에 비해 이후 출산한 미혼모의 경우 산후 진찰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는 응답 비율은 10%포인트 감소하였는데, 시간이나 상황의 여유 때문에 받지 못했다는 비율은 10.7%포인트 증가하여 산후 진찰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진 반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산후 진찰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출산 당시 미혼모의 연령별 응답을 보면, 20대는 시간 및 상황상 여유가 없어서(32.8%), 비용이 부담되어(29.2%), 산후진찰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20.6%), 30대는 비용이 부담되어(34.8%), 시간 및 상황상 여유가 없어서(31.6%), 40대 이상은 비용 부담(77.8%) 때문이라는 응답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3-40〉 성인 미혼모의 산후 진찰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산후진찰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건강하다고 느껴서 따로 진찰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받으려 했지만 시간이나 상황상 여유가 없어서	받으려 했지만 비용이 부담되어서	병원에서 미혼모인 것을 알 것 같아 불편해서	계	(명)
전체	18.6	13.4	31.2	31.6	5.2	100.0	(462)
성인 미혼모	18.9	12.2	32.1	32.4	4.3	100.0	(417)
자녀 출산 시기($\chi^2=9.75^*$)							
2016년 이전	23.9	13.4	26.8	31.6	4.3	100.0	(209)
2016년 이후	13.9	11.1	37.5	33.2	4.3	100.0	(208)
출산 시 모 연령							
만 20-29세	20.6	13.8	32.8	29.2	3.6	100.0	(253)
만 30-39세	17.4	10.3	31.6	34.8	5.8	100.0	(155)
만 40세 이상	0.0	0.0	22.2	77.8	0.0	100.0	(9)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성인 미혼모의 산후우울감 경험을 보면 본 조사 표본의 성인 미혼모 10명 중 약 8명(79.5%)이 우울감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미성년 미혼모의 우울 경험 비율(89.7%)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나 대다수의 미혼모가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산 당시 미혼모의 연령에 따른 산후우울감 경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3-41〉 성인 미혼모의 산후우울감 경험

(단위: %, 명)

구분	없음	있음	계	(명)
전체	19.4	80.6	100.0	(1,247)
성인 미혼모	20.5	79.5	100.0	(1,111)
자녀 출산 시기($\chi^2=0.03$)				
2016년 이전	20.3	79.7	100.0	(512)
2016년 이후	20.7	79.3	100.0	(599)

구분	없음	있음	계	(명)
출산 시 모 연령($\chi^2=2.01$)				
만 20-29세	79.9	20.1	100.0	(682)
만 30-39세	79.6	20.4	100.0	(392)
만 40세 이상	70.3	29.7	100.0	(37)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성인 미혼모의 산후우울증 진단 혹은 상담 경험을 보면 10명 중 8명 이상(81.5%)이 진단 및 상담 경험이 없었다. 이는 미성년 미혼모(87.7%)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나, 성인 미혼모 역시 산후우울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16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진단 및 상담 경험이 5.3%포인트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출산 시 미혼모의 연령별로 보면 30대의 진단 및 상담 경험이 22.8%로 가장 높았고, 20대(16.1%), 40대 이상(15.4%) 순으로 나타나, 미성년 미혼모(12.3%)를 제외하면 성인 미혼모 가운데 40대 이상이 진단 및 상담에 가장 소극적이었다.

〈표 3-42〉 성인 미혼모의 산후우울증 진단 혹은 상담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없음	있음	계	(명)
전체	82.3	17.7	100.0	(1,005)
성인 미혼모	81.5	18.5	100.0	(883)
자녀 출산 시기($\chi^2=4.13^*$)				
2016년 이전	78.7	21.3	100.0	(408)
2016년 이후	84.0	16.0	100.0	(475)
출산 시 모 연령($\chi^2=6.10^*$)				
만 20-29세	83.9	16.1	100.0	(545)
만 30-39세	77.2	22.8	100.0	(312)
만 40세 이상	84.6	15.4	100.0	(26)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성인 미혼모의 산후조리 장소는 본인 집(37.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미혼모시설(26.5%), 산후조리원(19.3%) 순으로 미성년 미혼모와 동일하였다. 2016년 이전 출산한 경우에 비해 이후 출산한 경우 본인 집을 제외하면 사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기보다 산후조리원, 병·의원에서 산후조리를 한 경우가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출산 시 미혼모의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40대 이상의 경우 과반이 본인 집(51.4%)에서 산후조리 한 반면, 20대는 본인 집(34.0%)과 미혼모시설(31.2%)이라는 응답률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3-43〉 성인 미혼모의 산후조리 장소(중복 응답)

(단위: %, 명)

구분	산후조리원	조산소	산부인과	산부인과 외 병의원	본인집	미혼모시설	친정, 형제/자매 집	친인척 집	친구나 지인 집	기타	(명)
전체	19.7	0.8	6.3	4.1	37.6	27.0	14.0	0.6	2.0	3.2	(1,246)
성인 미혼모	19.3	0.5	6.7	4.4	37.5	26.5	14.5	0.6	2.0	3.2	(1,110)
자녀 출산 시기											
2016년 이전	15.7	0.6	8.2	3.5	35.8	26.4	18.0	0.4	1.8	3.5	(511)
2016년 이후	22.4	0.5	5.3	5.2	38.9	26.5	11.5	0.8	2.2	3.0	(599)
출산 시 모 연령											
만 20-29세	18.9	0.3	6.5	5.6	34.0	31.2	15.1	0.9	3.1	2.6	(682)
만 30-39세	20.5	1.0	7.4	2.8	42.2	18.7	13.6	0.3	0.3	4.1	(391)
만 40세 이상	13.5	0.0	2.7	0.0	51.4	21.6	13.5	0.0	0.0	5.4	(37)

주: 1) 중복 응답으로 합이 100.0% 이상일 수 있음.

2) 기타: '산후조리를 하지 않음(34명)', '남자친구 집', '시설'

산후조리 비용은 그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해석상 주의를 필요로 한다. 본 조사에 참여한 성인 미혼모의 산후조리 비용은 평균 77만 9000원으로, 미성년 미혼모(59만 1000원)보다 18만 8000원이 많았다. 출산 시 미혼모의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30대(83만 3000원)만 유일하게 8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고 20대(75만 원), 40대 이상(72만 원) 순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3-44〉 성인 미혼모의 산후조리 비용

(단위: 만 원, 명)

구분	평균 비용	(명)
전체	75.8 (S.D. 103.2)	(1,246)
성인 미혼모	77.9(S.D. 104.8)	(1,110)
출산 시 모 연령($F=0.85$)		
만 20-29세	75.0	(682)
만 30-39세	83.3	(392)
만 40세 이상	72.0	(37)

미혼모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임신·출산 관련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이용 경험, 도움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 역시 임신기와 출산기에 해당하는 정책 중 임신기 관련 정책을 보면, 성인 미혼모의 경우 국민행복 카트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의 인지율은 92.7% 수준이며, 이용률은 91.1%, 이용자 가운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응답(다소 도움됨 + 매우 도움됨)은 78.7% 수준이었다. 미성년 미혼모에서와 마찬가지로 최근의 정책 이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2018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보면, 양쪽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이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용 경험의 측면에서 2018년 이후 출산을 경험한 미혼모가 그 이전 출산 경험자보다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움 정도를 출산 당시 미혼모의 연령별로 보면,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응답이 40대 이상(81.8%)이 가장 높았고 20대(79.1%), 30대(77.8%)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출산 연령이 40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7.3%로 20, 30대가 동일 응답에 대해 40.0% 이상의 비율로 나타난 것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엽산·철분제 지원 제도에 대한 성인 미혼모의 인지율은 86.1%로 전체 미혼모의 76.2%보다 높았다. 이용률은 77.3%, 이용자 가운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응답(다소 도움됨 + 매우 도움됨)은 73.5% 수준이었다. 출산 시기에 따라 이용 경험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2018년 이전보다 이후에 출산한 경우 엽산·철분제 지원을 이용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시 도움 정도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응답이 2018년 이후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45〉 성인 미혼모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신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모름	알고 있음	(명)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명)	전혀 도움되지 않음	별로 도움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체	7.4	92.6	(1,170)	9.1	90.9	(1,084)	0.2	3.8	16.5	33.2	46.3
성인 미혼모	7.3	92.7	(1,038)	8.9	91.1	(962)	0.2	3.8	17.2	34.0	44.7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009년)	$(x^2=0.03)$			$(x^2=15.47^{***})$			0.2	3.8	17.2	34.0	44.7
자녀 출산 시기							0.2	3.8	17.2	34.0	44.7
2018년 이전	7.3	92.7	(754)	11.2	88.8	(699)	0.2	4.0	16.9	34.9	44.0
2018년 이후	7.4	92.6	(284)	3.0	97.0	(263)	0.4	3.1	18.0	31.8	46.7
출산 시 모 연령	$(x^2=3.57)$			$(x^2=0.08)$			0.4	3.1	18.0	31.8	46.7
만 20-29세	8.1	91.9	(631)	9.1	90.9	(580)	0.4	3.4	17.1	30.9	48.2
만 30-39세	6.7	93.3	(371)	8.7	91.3	(346)	0.0	4.1	18.0	37.0	40.8
만 40세 이상	0.0	100.0	(36)	8.3	91.7	(36)	0.0	6.1	12.1	54.5	27.3
전체	14.3	76.2	(1,170)	23.8	76.2	(1,003)	0.7	3.9	22.1	38.9	34.4
성인 미혼모	13.9	86.1	(1,038)	22.7	77.3	(894)	0.7	3.8	22.0	39.1	34.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009년)	$(x^2=0.23)$			$(x^2=7.25^{**})$			0.7	3.8	22.0	39.1	34.4
자녀 출산 시기							0.7	3.8	22.0	39.1	34.4
2018년 이전	14.2	85.8	(754)	25.0	75.0	(647)	1.0	4.1	22.3	38.6	34.0
2018년 이후	13.0	87.0	(284)	16.6	83.4	(247)	0.0	2.9	21.4	40.3	35.4
출산 시 모 연령	$(x^2=4.69)$			$(x^2=0.53)$			0.0	2.9	21.4	40.3	35.4
만 20-29세	15.7	84.3	(631)	22.9	77.1	(532)	0.5	3.4	21.5	38.3	36.3
만 30-39세	11.3	88.7	(371)	21.9	78.1	(329)	1.2	4.3	23.3	39.3	31.9
만 40세 이상	8.3	91.7	(36)	27.3	72.7	(33)	0.0	4.2	16.7	50.0	29.2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x^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각 정책 영역별 모수는 정책 도입 연도 다음 해까지 마지막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엽산·철분제 지원은 2008년도에 정책이 도입되어 각 연도 +1년 이후부터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만 분석함.

출산기 지원과 더 관련 있는 임신·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이용 및 도움 정도를 보면, 성인 미혼모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인지율은 49.6%, 이용률은 36.1%로 다른 정책과 비교해 대체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용자의 도움 정도에 대한 긍정 응답(다소 도움됨 + 매우 도움됨)은 77.1% 수준이었다. 2018년 전후 출산한 미혼모를 비교해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률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2018년 이후 출산을 한 경우가 2018년 이전에 출산한 경우보다 인지율과 이용률이 약간씩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 당시 미혼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율이 높아지는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의 경우 인지율(44.5%)과 이용률(27.9%)이 다른 정책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고, 이용자의 도움 정도에 대한 긍정 응답(다소 도움됨 + 매우 도움됨)은 74.5% 수준이었다. 미혼모의 출산 시 연령이 40대 이상의 경우가 작기는 하지만 40대 이상의 인지율(50.0%)이 가장 높고 30대(37.5%)가 가장 낮아 차이를 보였다.

성인 미혼모의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제도 인지율은 95.2%로 임신·출산 관련 정책 인지도 중 가장 높았고 이용률도 97.6%에 달하였으며 이용자의 도움 정도에 대한 긍정 응답(다소 도움됨 + 매우 도움됨)은 94.3% 수준이었다. 2018년 이전에 출산한 경우보다 최근에 출산한 경우의 인지도와 이용률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당시 미혼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율이 높아지는 차이를 보였는데 40대 이상은 그 수가 작기는 하지만 인지율이 100.0%에 달하였다. 반면, 이용률은 20대(97.4%)와 30대(98.6%)보다 40대가 가장 낮아(91.7%)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인지율은 81.8%, 이용률은 74.1%, 이용자의 도움 정도에 대한 긍정 응답(다소 도움됨 + 매우 도움됨)은

91.5% 수준이었다. 인지율, 이용률, 만족도 등이 비교적 높고 시기별로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표 3-46〉 성인 미혼모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단위: %, 명)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구분	모름	알고 있음	(명)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명)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2007년)	전체	51.8	48.2	(1,205)	63.7	36.3	(624)	0.9	4.3	17.5	37.4	39.8	(211)
	성인 미혼모	50.4	49.6	(1,072)	63.9	36.1	(532)	1.0	4.2	17.7	36.5	40.6	(192)
	자녀 출산 시기	(χ ² =3.27)			(χ ² =0.77)								
	2018년 이전	52.0	48.0	(788)	65.1	34.9	(378)	0.8	3.8	16.7	39.4	39.4	(132)
	2018년 이후	45.8	54.2	(284)	61.0	39.0	(154)	1.7	5.0	20.0	30.0	43.3	(60)
	출산 시 모 연령	(χ ² =8.99*)			(χ ² =0.58)								
	만 20-29세	52.2	47.8	(648)	62.6	37.4	(310)	1.7	3.4	17.2	41.4	36.2	(116)
	만 30-39세	49.6	50.4	(387)	65.6	34.4	(195)	0.0	6.0	20.9	23.9	49.3	(67)
만 40세 이상	27.0	73.0	(37)	66.7	33.3	(27)	0.0	0.0	0.0	66.7	33.3	(9)	
임양 숙려 기간 모자 지원 (2014년)	전체	55.4	44.6	(895)	73.7	26.3	(399)	3.8	5.7	15.2	29.5	45.7	(105)
	성인 미혼모	55.5	44.5	(789)	72.1	27.9	(351)	4.1	6.1	15.3	29.6	44.9	(98)
	자녀 출산 시기	(χ ² =1.31)			(χ ² =0.02)								
	2018년 이전	57.0	43.0	(505)	72.4	27.6	(217)	3.3	6.7	15.0	35.0	40.0	(60)
	2018년 이후	52.8	47.2	(284)	71.6	28.4	(134)	5.3	5.3	15.8	21.1	52.6	(38)
	출산 시 모 연령	(χ ² =8.25*)			(χ ² =3.03)								
	만 20-29세	51.9	48.1	(489)	74.5	25.5	(235)	5.0	8.3	18.3	35.0	33.3	(60)
	만 30-39세	62.5	37.5	(272)	65.7	34.3	(102)	2.9	2.9	11.4	22.9	60.0	(35)
만 40세 이상	50.0	50.0	(28)	78.6	21.4	(14)	0.0	0.0	0.0	0.0	100.0	(3)	
영유아 무료 예방 접종 (2010년)	전체	5.3	94.7	(1,149)	2.3	97.7	(1,088)	0.0	0.3	5.2	25.7	68.9	(1,063)
	성인 미혼모	4.8	95.2	(1,018)	2.4	97.6	(969)	0.0	0.3	5.4	26.2	68.1	(946)
	자녀 출산 시기	(χ ² =13.68***)			(χ ² =5.35*)								
	2018년 이전	3.3	96.7	(734)	1.7	98.3	(710)	0.0	0.1	5.0	26.9	67.9	(698)
	2018년 이후	8.8	91.2	(284)	4.2	95.8	(259)	0.0	0.8	6.5	24.2	68.5	(248)
	출산 시 모 연령	(χ ² =11.64**)			(χ ² =7.07*)								
	만 20-29세	6.6	93.4	(619)	2.6	97.4	(578)	0.0	0.0	5.9	24.7	69.4	(563)
	만 30-39세	2.2	97.8	(363)	1.4	98.6	(355)	0.0	0.9	5.1	27.7	66.3	(350)
만 40세 이상	0.0	100.0	(36)	8.3	91.7	(36)	0.0	0.0	0.0	36.4	63.6	(33)	
기저귀·조제 분류 지원 (2016년)	전체	19.7	80.3	(685)	27.3	72.7	(550)	0.3	0.8	7.0	29.0	63.0	(400)
	성인 미혼모	18.2	81.8	(599)	25.9	74.1	(490)	0.3	0.8	7.4	29.5	62.0	(363)
	자녀 출산 시기	(χ ² =0.50)			(χ ² =1.89)								
	2018년 이전	17.1	82.9	(315)	23.4	76.6	(261)	0.0	0.5	6.0	27.5	66.0	(200)
	2018년 이후	19.4	80.6	(284)	28.8	71.2	(229)	0.6	1.2	9.2	31.9	57.1	(163)

구분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모름	알고 있음	(명)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명)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명)
출산 시 모 연령	(χ ² =1.60)			(χ ² =0.58)								
만 20-29세	19.4	80.6	(381)	24.8	75.2	(307)	0.0	1.3	7.8	29.9	61.0	(231)
만 30-39세	16.7	83.3	(198)	27.9	72.1	(165)	0.8	0.0	7.6	27.7	63.9	(119)
만 40세 이상	10.0	90.0	(20)	27.8	72.2	(18)	0.0	0.0	0.0	38.5	61.5	(13)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각 정책 영역별 모수는 정책 도입 연도 다음 해까지 마지막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2006년,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은 2013년,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은 2009년, 기저귀·조제분유지원은 2015년도에 정책이 도입되어 각 연도 +1년 이후부터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만 분석함.

요약하면 본 조사 표본에서 성인 미혼모는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엽산·철분제 지원제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대한 인지율은 대체로 높은 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에 대한 인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출산 시기에 따라서 최근보다 2018년 이전에 출산한 경우 인지율이 높은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지만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을 제외하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엽산·철분제 지원,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은 출산 시기에 따라 이용률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엽산·철분제 지원은 최근에 이용률이 높아진 반면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의 경우 오히려 낮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출산 당시 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출산 시기를 기준으로 2018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일단 제도와 정책을 이용한 경우의 도움 정도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2018년 이후 출산을 한 경우 높은 경향을 보인다. 제도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출산 당시 미혼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지원제도의 인지율과 이용자

만족도가 대체로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미성년 미혼모를 포함하여 20대, 30대 미혼모의 제도 인지율 제고를 위해 온라인 홍보 등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성인 미혼모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1순위)은 진료비 및 출산 비용 등 금전적 어려움(43.0%)이 가장 컸는데 이는 미성년 미혼모(31.6%)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다음은 안정된 거주지 부재(14.3%), 병원에 동행할 사람이 없고(13.5%), 고민을 말할 곳이 없다(13.1%) 순이었다. 한편, 2016년 이전에 출산한 미혼모와 이후 출산한 미혼모가 겪었던 어려움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두 집단 모두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점은 공통적이나, 2016년 이전 출산한 집단은 안정된 거주지 부재(17.6%), 2016년 이후 출산한 집단은 병원에 동행할 사람이 없다(14.9%)는 응답이 그다음 순위를 기록하였다. 출산 당시 미혼모의 연령에 따른 응답을 보면, 20대는 신생아 돌보는 방법을 몰라서 어려웠다는 응답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고, 30대는 안정된 거주지 부재, 40대 이상은 병원에 동행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3-47〉 성인 미혼모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1순위)

(단위: %, 명)

구분	병원에 같이 갈 사람이 없었다	안정되게 지낼 곳이 없었다	진료비 및 출산비용 등 금전적으로 어려웠다	신생아 돌보는 방법을 몰라 어려웠다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말할 곳이 없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 같았다	기타	계	(명)
전체	13.2	14.4	41.8	9.8	13.5	5.8	1.6	100.0	(1,247)
성인 미혼모	13.5	14.3	43.0	9.6	13.1	4.9	1.5	100.0	(1,111)
자녀 출산 시기($\chi^2=23.60^{***}$)									
2016년 이전	11.9	17.6	41.4	7.8	16.2	4.3	0.8	100.0	(512)
2016년 이후	14.9	11.5	44.4	11.2	10.5	5.3	2.2	100.0	(599)

구분	병원에 같이 갈 사람이 없었다	안정되게 지낼 곳이 없었다	진료비 및 출산비용 등 금전적으로 어려웠다	신생아 돌보는 방법을 몰라 어려웠다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말할 곳이 없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 같았다	기타	계	(명)
출산 시 모 연령									
만 20-29세	12.3	13.5	43.7	10.7	12.6	5.4	1.8	100.0	(682)
만 30-39세	15.1	15.8	41.6	8.4	13.8	4.1	1.3	100.0	(392)
만 40세 이상	18.9	13.5	45.9	2.7	16.2	2.7	0.0	100.0	(3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기타: '주변에 임신 사실을 말하기 어려웠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음', '아이 친부와 헤어진 상황이라 심적으로 힘들었음', '아이 친부의 무책임한 태도감동', '부모님과과의 갈등', '임신 사실을 출산 직전에 알게 되어 당황함', '입양을 보내야 할지 직접 키워야 할지 갈등함', '진로를 포기해야 해서 힘들었음'

성인 미혼모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필요했던 지원은 진료비 지원(29.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미성년 미혼모(33.8%)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다음은 임신·출산기간 생활비 지원(27.5%), 비용 및 물품 지원(19.5%) 순이었다. 2016년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미혼모 집단은 긴급상담전화, 임신·출산 기간 동안 지낼 곳 지원, 기타 지원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2016년 이후 출산한 미혼모 집단은 진료비 지원, 비용 및 물품지원, 생활비 지원, 산후조리서비스, 상담, 출산 직후 신생아를 돌보는 방법에 대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출산 당시 미혼모의 연령에 따른 응답을 보면, 본 조사 표본에서 40대 이상 미혼모 10명 중 4명 이상이 임신·출산 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비용 및 물품 지원에 대한 요구도 20대, 30대 미혼모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연령별 응답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3-48〉 성인 미혼모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단위: %, 명)

구분	임신·출산 관련 긴급 상담 전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준비에 드는 비용 및 물품 지원	임신·출산 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	임신·출산 기간 동안 지낼 곳 지원	출산 후 필요한 산후 조리 서비스	임신·출산 과정에서 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아이를 낳자 마자 돌보는 방법에 대한 교육	기타	계	(명)
전체	4.7	30.2	19.7	26.6	7.9	5.1	2.7	2.7	0.3	100.0	(1,247)
성인 미혼모	4.9	29.7	19.5	27.5	7.8	4.6	2.7	3.0	0.4	100.0	(1,111)
자녀 출산 시기($\chi^2=19.35^*$)											
2016년 이전	7.0	29.3	17.4	27.1	10.0	3.7	2.5	2.5	0.4	100.0	(512)
2016년 이후	3.0	30.1	21.4	27.7	6.0	5.3	2.8	3.3	0.3	100.0	(599)
출산 시 모 연령											
만 20-29세	5.1	32.8	18.9	25.8	7.8	4.1	1.6	3.5	0.3	100.0	(682)
만 30-39세	4.3	25.8	20.2	29.1	7.7	5.9	4.6	2.0	0.5	100.0	(392)
만 40세 이상	5.4	13.5	24.3	40.5	10.8	0.0	2.7	2.7	0.0	100.0	(3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기타: '미혼모쉼터 입소 기준 완화', '미혼모 전문상담원 확충', '금전적 지원', '전부'로 응답함.

마지막으로 성인 미혼모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학업 진행 상태를 살펴 본 결과 본 조사 표본의 성인 미혼모 10명 중 1명(9.9%)은 학교에 다니는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2016년 이전에 출산한 미혼모는 8.6%, 2016년 이후에 출산한 미혼모는 11.0%가 임신·출산 당시 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3-49〉 성인 미혼모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학업 진행 상태

(단위: %, 명)

구분	학교 다니고 있지 않았음	학교 다니고 있었음	계	(명)
전체	84.0	16.0	100.0	(1,247)
성인 미혼모	90.1	9.9	100.0	(1,111)
자녀 출산 시기($\chi^2=3.34$)				
2016년 이전	91.4	8.6	100.0	(512)
2016년 이후	89.0	11.0	100.0	(599)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미혼모가족의 임신 및 출산기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이 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결과 내용 정리와 함께 임신·출산기 미혼모의 경험을 기혼여성과 비교하면서 다시 한 번 그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미혼모가족의 임신·출산기 특성을 정리하고 기혼여성의 경우와 비교한 내용을 정리한다.

1. 임신·출산기 미혼모의 특성

이 장에서는 미혼모가족의 임신 및 출산기 특성을 다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출산 당시 미성년 미혼모와 성인 미혼모를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시행원년인 2016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미혼모 집단도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는 신규 정책과 제도 운영에 따른 효과를 점검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기 특성은 미혼모의 경험을 ‘회고(懷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최근 4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임신·출산

을 경험한 두 집단의 특성을 보다 역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특히 2016년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 가운데 4세 이하 영·유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임신·출산·양육의 사안을 모두 경험한 미혼모가족의 상황과 지원 요구를 연속선상에서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성인 미혼모의 경우 20대, 30대, 4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연령별 응답의 차이와 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먼저, 미혼모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공적 지원체계(미혼모시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 표본에서 임신 당시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응답을 근거로 미혼모시설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미혼모는 전체 12.3%였으나, 연령별로 차이를 보면 40대 이상이 0.0%에서, 30대(7.4%), 20대(14.5%), 미성년 미혼모(18.4%) 등 연령이 낮을수록 임신 시 시설에 거주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2016년 이후에 출산한 미성년 미혼모 10명 중 2명(20.9%)이 임신 당시 시설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모시설이 사적인 네트워크가 미흡한 미혼모에게 임신·출산 단계에서 안전망의 기능을 하고 있고, 특히 미성년 미혼모에게 보호체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본 조사 표본에서 미혼모 10명 중 4명 이상(44.8%)이 출산 후 직접 양육을 생각했다고 응답했는데, 이와 동시에 낙태(38.3%)와 입양(32.4%)도 고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연령별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대가 낮고, 최근에 출산을 경험한 집단일수록 직접 양육에 대한 생각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미혼모의 자녀 양육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제도적 환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혼모의 출산 관련 지원제도별로 인지율, 이용률, 이용자의 만족도(도움 정도)에 편차가 컸다. 본 조사 표본에서 미혼모 10명 중 약 9명이 영유

아 무료예방접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해 알고 있고 이용한 경험도 있는 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의 경우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모든 정책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정책에서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일단 받은 지원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성인 미혼모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을 제외하고는 미성년 미혼모가 성인 미혼모보다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 미혼모가 알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는 정책이 없도록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표 3-50〉 미성년 미혼모와 성인 미혼모의 정부 지원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비교

(단위: %, 명)

구분		인지율 (명)	이용률 (명)	도움 정도					(명)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전체	92.6 (1,170)	90.9 (1,084)	0.2	3.8	16.5	33.2	46.3	(985)
	미성년 미혼모	92.4 (132)	89.3 (122)	0.0	3.7	11.0	26.6	58.7	(109)
	성인 미혼모	92.7 (1,038)	91.1 (962)	0.2	3.8	17.2	34.0	44.7	(876)
임산·철분제 지원	전체	76.2 (1,170)	76.2 (1,003)	0.7	3.9	22.1	38.9	34.4	(764)
	미성년 미혼모	82.6 (132)	67.0 (109)	0.0	5.5	23.3	37.0	34.2	(73)
	성인 미혼모	86.1 (1,038)	77.3 (894)	0.7	3.8	22.0	39.1	34.4	(691)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전체	94.7 (1,149)	97.7 (1,088)	0.0	0.3	5.2	25.7	68.9	(1,063)
	미성년 미혼모	90.8 (131)	98.3 (119)	0.0	0.0	3.4	21.4	75.2	(117)
	성인 미혼모	95.2 (1,018)	97.6 (969)	0.0	0.3	5.4	26.2	68.1	(94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체	48.2 (1,205)	36.3 (624)	0.9	4.3	17.5	37.4	39.8	(211)
	미성년 미혼모	36.8 (133)	38.8 (49)	0.0	5.3	15.8	47.4	31.6	(19)
	성인 미혼모	49.6 (1,072)	36.1 (532)	1.0	4.2	17.7	36.5	40.6	(192)
입양숙려 기간 모자 지원	전체	44.6 (895)	26.3 (399)	3.8	5.7	15.2	29.5	45.7	(105)
	미성년 미혼모	45.3 (106)	14.6 (48)	0.0	0.0	14.3	28.6	57.1	(7)
	성인 미혼모	44.5 (789)	27.9 (351)	4.1	6.1	15.3	29.6	44.9	(98)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전체	80.3 (685)	72.7 (550)	0.3	0.8	7.0	29.0	63.0	(400)
	미성년 미혼모	69.8 (86)	61.7 (60)	0.0	0.0	2.7	24.3	73.0	(37)
	성인 미혼모	81.8 (599)	74.1 (490)	0.3	0.8	7.4	29.5	62.0	(363)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성년 미혼모는 산후우울감 경험률(89.7%)이 성인 미혼모(79.5%)보다 높았다. 하지만 상담을 받아 본 경험에서는 미성년 미혼모의 비율이 12.3%로 성인 미혼모의 18.5%보다 낮아서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지만 전문적인 진단이나 상담을 받는 기회는 더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표 3-51〉 미혼모의 산후우울감 경험 및 산후우울증 진단 혹은 상담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산후우울감 경험			산후우울증 진단 혹은 상담 경험 여부		
	없음	있음	(명)	없음	있음	(명)
전체	19.4	80.6	(1,247)	82.3	17.7	(1,005)
미성년 미혼모	10.3	89.7	(136)	87.7	12.3	(122)
성인 미혼모	20.5	79.5	(1,111)	81.5	18.5	(883)

미혼모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금전적으로 어려웠던 경험은 성인 미혼모에서 그 비율이 더 높고,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자신의 상황을 말할 곳이 없었던 점이 성인 미혼모보다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표 3-52〉 미혼모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1순위)

(단위: %, 명)

구분	병원에서 같이 갈 사람이 없었다	안정되게 지낼 곳이 없었다	금전적으로 어려웠다	신생아 돌보는 방법을 몰라 어려웠다	나의 상황을 말할 곳이 없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았다	기타	계	(명)
전체	13.2	14.4	41.8	9.8	13.5	5.8	1.6	100.0	(1,247)
미성년 미혼모	11.0	14.7	31.6	11.0	16.2	13.2	2.2	100.0	(136)
성인 미혼모	13.5	14.3	43.0	9.6	13.1	4.9	1.5	100.0	(1,111)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임신·출산 과정에서 현금지원(진료비, 생활

비), 현물지원(비용 및 물품 지원), 서비스 지원(산후조리, 긴급상담전화) 등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미성년 미혼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준비 비용 및 물품 지원이고, 성인 미혼모의 경우는 역시 임신·출산 진료비를 가장 필요로 하긴 했지만, 임신·출산 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을 비슷한 수준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존재했다. 즉, 현금, 물품을 가장 필요로 하지만 수요에 따라 지원방식을 현금, 현물, 서비스로 다원화할 필요가 있고, 이 외에 긴급주거지원과 생필품지원, 산후조리를 포함한 심리·정서지원 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3-53〉 미혼모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단위: %, 명)

구분	임신·출산 관련 긴급 상담 전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준비에 드는 비용, 물품 지원	임신·출산 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	임신·출산 기간 동안 지낼 곳 지원	출산 후 필요한 산후 조리 서비스	임신·출산 과정 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아이를 낳자마자 돌보는 방법에 대한 교육	기타	계	(명)
전체	4.7	30.2	19.7	26.6	7.9	5.1	2.7	2.7	0.3	100.0	(1,247)
미성년 미혼모	3.7	33.8	21.3	19.9	8.1	9.6	2.9	0.7	0.0	100.0	(136)
성인 미혼모	4.9	29.7	19.5	27.5	7.8	4.6	2.7	3.0	0.4	100.0	(1,111)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한편, 본 조사 표본에서 미성년 미혼모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학교를 중단한 경험은 74.2%에 달하였고, 임신 5주 이내(30.6%), 21주 이상(24.2%)에서 절반 정도가 학교를 그만두었다. 임신·출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게 싫어서라는 응답이 과반수(56.1%)를 차지한 가운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10.6%)와 주변의 차별과 편견을 견디기 어려워서(10.6%)가 학교를 그만둔 이유에 포함되어 있어, 인식 개선과 돌봄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미성년 미혼모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당장 ‘양육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돕는 지원뿐 아니라 학력 취득을 포함하여 ‘청소년기’ 발달과업 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조사 표본에서 임신·출산을 사유로 한 학업 중단 발생 사례가 최근 감소세를 보였고, 위탁교육기관의 만족도가 높아 교육부의 학업 중단예방정책의 성과가 일부 확인되었다. 미성년 미혼모는 학업 지속을 위해 휴학 보장(30.4%), 학업과 양육이 가능하도록 대안학교 운영(24.4%), 검정고시 학원이나 온라인 교육 이용 지원(14.8%), 미혼모시설에 교사를 파견하여 학업을 이수하고 학력 인정(13.3%), 수업일수와 교육과정 조정(8.9%), 임신·출산으로 불이익을 줄 경우 학교 제재 조치 이행(8.1%) 등 다양한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다.

2.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 경험 비교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경험 중 특히 산전·산후 진찰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은 기혼여성(15~49세)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대표적인 조사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사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로 최근 2018년에 조사 결과를 활용해 기혼여성과 미혼모를 비교할 수 있다. 2018년도 조사 결과는 2016년 이후 출산을 경험한 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이 중 미혼모와 비교하기 위해 배우자가 있는 여성 데이터를 추출해 분석한다. 또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와 가장 가까운 조건으로 맞춘 데이터로 비교하기 위해 이 연구의 조사인 미혼모 대상 조사에서 2016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데이터만을 추출해 비교한다. 물론, 표본상 이 두 조사의 결과를 절대적

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혼모와 유배우자 기혼여성 사이의 경향성 비교 수준은 가능할 것이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산전 진찰 여부로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산전수진율은 100%에 달하는 데 반해, 미혼모가족 조사 표본의 미혼모 10명 중 1명(10.4%)은 산전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전 진찰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혼여성에서는 전혀 없으나 미혼모 조사에서는 약 10.0%가 산전 진찰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을 해 미혼모의 산전 진찰에서의 취약성을 볼 수 있다.

〈표 3-54〉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산전 진찰 여부 및 진찰 장소 비교

(단위: %, 명)

구분	진찰받은 적 없음	종합병원	병원	의원	조산원	보건 의료원	계	(명)
기혼여성	0.0	7.9	89.6	10.3	0.0	0.2	100.0	(1,784)
미혼모	10.4	8.0	74.3	4.1	1.5	1.8	100.0	(685)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유배우자(15~49세)와 동일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에서 2016년 이후 출산 경험이 있는 미혼모(15~49세)만을 대상으로 비교함.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산전 진찰 횟수도 미혼모의 경우 평균 9.1회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기혼여성 평균(13.5회)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혼모의 경우 ‘산전 진찰 받은 적 없음’에 대한 응답을 0으로 포함해 분석해 보면, 미혼모 685명의 산전 진찰 횟수 평균은 8.6회로 기혼여성과 더욱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이후에 출산한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는 평균 8.5회(0회 포함 시 7.3회)로 더 낮아 미성년 미혼모의 산전 진찰에 대한 도움이나 관리가 매우 필요해 보인다.

〈표 3-55〉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산전 진찰 횟수 비교

(단위: %, 회, 명)

구분	1~5회	6~10회	11~15회	16~20회	21회 이상	계	(명)	평균(회)
기혼여성	0.7	21.6	58.9	17.3	1.5	100.0	(1,784)	13.5
미혼모	24.4	43.5	19.5	12.5	0.0	100.0	(614)	9.1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유배우자(15~49세)와 동일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에서 2016년 이후 출산 경험이 있는 미혼모(15~49세)만을 대상으로 비교함.

3) 미혼모의 '산전 진찰 받은 적 없음'을 0회로 포함한 분석 결과: 8.6회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미혼모 조사 표본에서 2016년 이후 출산한 미혼모의 초진 시기는 평균 11.0주로, 우리나라 기혼여성이 산전관리를 목적으로 초진을 받는 시기가 평균 5.4주임을 감안하면 매우 늦은 감이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출산한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는 초진 시기가 평균 12.2주로 더욱 늦어진 경향이 있다. 산전 초진 시기는 모성건강(reproductive health)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혼여성 10명 중 3명(31.5%)은 4주 이전에 초진을 받는 것을 감안할 때 미혼모가 임신 사실을 지각한 즉시 초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3-56〉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초진 시기 비교

(단위: %, 주, 명)

구분	~4주	5~8주	9~12주	13주 이후	계	(명)	평균(주)
기혼여성	31.5	64.7	3.1	0.7	100.0	(1,784)	5.4
미혼모	13.4	42.5	15.1	29.0	100.0	(614)	11.0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유배우자(15~49세)와 동일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에서 2016년 이후 출산 경험이 있는 미혼모(15~49세)만을 대상으로 비교함.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분만 장소는 대부분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기혼여성과 미혼모 사이 큰 차이가 없었다.

〈표 3-57〉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분만 장소 비교

(단위: %, 명)

구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자택	계	(명)
기혼여성	10.8	80.7	8.3	0.2	0.1	0.0	100.0	(1,784)
미혼모	16.7	73.7	5.9	2.3	0.4	0.9	100.0	(681)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유배우자(15~49세)와 동일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에서 2016년 이후 출산 경험이 있는 미혼모(15~49세)만을 대상으로 비교함.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미혼모의 경우 분만에 이르는 임신주수(재태주수)는 평균 38.1주로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출산 당시 평균 임신주수(38.7주)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 3-58〉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분만 주수 비교

(단위: 주, 명)

구분	평균 주수	(명)
기혼여성	38.7(S.D.1.58)	(1,784)
미혼모	38.1(S.D.2.65)	(685)

주: 1)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유배우자(15~49세)와 동일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에서 2016년 이후 출산 경험이 있는 미혼모(15~49세)만을 대상으로 비교함.

2) 기혼여성 분석에서 결측값은 제외됨.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출생 당시 아이의 체중은 기혼여성과 미혼모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표 3-59〉 기혼여성과 미혼모 아이의 출생 당시 체중 비교

(단위: kg, 명)

구분	평균 체중	(명)
기혼여성	3.21(S.D.0.46)	(1,784)
미혼모	3.11(S.D.0.52)	(684)

주: 1)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유배우자(15~49세)와 동일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에서 2016년 이후 출산 경험이 있는 미혼모(15~49세)만을 대상으로 비교함.

2) 기혼여성 분석에서 결측값은 제외됨.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또한, 우리나라 기혼여성이 산후 기간에 진찰(검진)을 받은 비율(산후 수진율)도 94.7%에 달하지만 미혼모가족 조사 표본에서 미혼모의 산후 수진율은 64.7% 수준에 불과해 산후 관리 수준에서 차이를 볼 수 있다. 또한, 미성년 미혼모 중 2016년 이후 출산을 경험한 경우 산후 진찰 경험 이 없는 비율이 약 40.0%에 달해 산전 및 산후 진찰에서 미성년 미혼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표 3-60〉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산후 진찰 경험 비교

(단위: %, 명)

구분	없음	있음	계	(명)
기혼여성	5.3	94.7	100.0	(1,784)
미혼모	35.3	64.7	100.0	(685)

주: 1)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유배우자(15~49세)와 동일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에서 2016년 이후 출산 경험이 있는 미혼모(15~49세)만을 대상으로 비교함.

2) 기혼여성 분석에서 결측값은 제외됨.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산후조리 장소는 기혼여성의 경우 산후조리원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본인의 집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의 경우, 본인 집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미혼모 시설이 많았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율은 22.3%로

기혼여성의 73.4%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표 3-61〉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산후조리 장소 비교(중복 응답)

(단위: %, 명)

구분	산후 조리원	조산원	산부 인과	산부인과 외 병원	본인집	미혼모 시설	친정, 형제/자매 집	기타	(명)
기혼여성	73.4	0.4	0.8	0.4	58.1	-	15.8	2.0	(1,784)
미혼모	22.3	1.0	5.0	4.5	39.1	27.3	11.2	6.0	(685)

주: 1) '친정, 형제/자매 집'은 기혼여성은 '친정', 미혼모는 '친정, 형제/자매 집'으로 항목이 조금 상이하고, 기혼여성의 경우 '미혼모 시설' 항목이 없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유배우자(15~49세)와 동일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에서 2016년 이후 출산 경험이 있는 미혼모(15~49세)만을 대상으로 비교함.

3) 기혼여성 분석에서 결측값은 제외됨.

4) 중복 응답으로 합이 100.0% 이상일 수 있음.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산후조리원의 이용률에서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차이가 두드러지다보니, 산후조리 비용 측면에서도 미혼모가 기혼여성보다 더 적은 비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기혼여성은 일반적으로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초산인 경우 산후조리비용이 높게 나타나는(이소영 외, 2018, p.180) 특성을 보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미혼모의 낮은 산후조리 비용은 미혼모의 취약한 교육·경제·인적 지원체계의 상황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임신·출산 환경에 대한 절대적인 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여성의 연령과 출산 시기를 맞추어 비교함으로써 그 경향성과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출산 장소나 아동의 체중 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미혼모는 산전 및 산후 관리에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미성년 미혼모의 취약성이 크게 발견된 부분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제 4 장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특성

제1절 돌봄·양육

제2절 경제활동 및 소득·소비

제3절 소결

4

미취학 자녀를 둔 << 미혼모가족의 특성

본 4장과 다음 장인 5장에서는 미혼모가족의 돌봄·양육, 경제활동 및 소득·소비 분야에 대해 살펴본다. 이 분야들은 가족의 생활주기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특성과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으로 나누어 특성을 알아본다. 먼저 4장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자녀의 연령만으로는 취학과 미취학을 구분하는 데 무리가 있어 조사를 통해 직접 미취학 자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조사 참여자 중 총 985명⁸⁾이 미취학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미취학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는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하였다.

각 분석에서 엄마의 연령, 자녀의 연령, 거주 상황, 현재 자녀와 엄마로만 이루어진 가족인지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족 구성, 기초보장 수급 여부,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 등을 분석한다. 각 항목마다 분석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변수는 제외할 수 있고, 이 변수들 외에 특정 항목에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가 추가될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은 현재 경제활동 안 함/시간제근로/전일제근로, 세 카테고리
리로 구분하는 경우와 또는 경제활동 안 함, 함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

8) <표 1-2>에 제시된 조사 응답자 일반 특성에서 마지막 자녀 연령 중 3세 이상 미취학 자녀의 빈도가 652명인데, 본 4장에서는 651명인 이유는 자녀 연령을 7세(3세 이상 미취학)라고 응답한 동시에 돌봄 영역 응답자 구분을 위해 질문한 ‘미취학자녀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응답해 돌봄 영역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이터가 있어서임. 이 데이터는 다른 모든 영역에 대해서는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을 둔 미혼모가족(제4장)에 대한 분석을 제외하고 사용함.

하는 경우를 필요에 따라 활용한다.

제1절 돌봄·양육

현재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가족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돌봄 방식은 민간 시설(47.3%)로 나타났고,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23.0%로 시설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0% 이상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직접 돌보는 경우는 응답자의 4분의 1 정도로 나타났다. 그 외에 약 2.0% 정도는 친구나 지인,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사설학원,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방문교육,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 혼자 있다고 응답하였다.

엄마의 연령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도출할 수 없지만, 단순 빈도만으로 보면 10대 엄마와 그 이상 연령의 엄마 그룹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 본인이 주간 돌봄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성인인 엄마의 경우는 약 20.0%~25.0%인 데 반해, 10대 엄마의 경우는 그 비율이 50.0%로 나타나 10대 엄마들은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경향을 알 수 있다. 또한 10대 엄마의 경우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가 16.7%로 다른 연령 그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이 친인척에게 돌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본인 돌봄이 많은 것은 10대 미혼모는 아직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결과는 아동의 연령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아동 연령이 3세 미만인 경우와 그 이상인 경우에 돌봄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양육이 3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47.0%인 데 반해, 아동이 3세 이상인 경우는 13.7%만이 가정양육을 하고 있다. 거주 상황에 따른 차이를 보면,

시설보다는 재가 미혼모가족인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는 비율이 좀 더 많다. 가족 구성이 엄마와 아동만으로 구성된 가족보다 그렇지 않은 가족인 경우 친인척 돌봄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서도 돌봄 방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경제활동을 안 하는 미혼모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아동을 돌보는 비율이 37.5%였는데, 시간제근로를 하는 경우는 13.3%, 전일제근로를 하는 경우는 3.6%로 나타났다.

〈표 4-1〉 미취학 자녀의 실제 주간 돌봄 방식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민간시설	본인	친인척	기타	계	(명)
전체	23.0	47.3	25.0	2.7	1.9	100.0	(985)
모 연령							
만 15-19세	4.2	25.0	50.0	16.7	4.2	100.0	(48)
만 20-29세	22.0	48.8	25.3	2.2	1.7	100.0	(463)
만 30-39세	27.6	47.9	21.6	1.5	1.5	100.0	(399)
만 40세 이상	17.3	49.3	25.3	4.0	4.0	100.0	(75)
자녀 연령($\chi^2=178.95^{***}$)							
3세 미만	10.5	33.2	47.0	4.8	4.5	100.0	(334)
3세 이상	29.5	54.5	13.7	1.7	0.6	100.0	(651)
거주 상황($\chi^2=10.51^*$)							
시설	19.6	50.3	24.9	1.1	4.2	100.0	(189)
재가	23.9	46.6	25.0	3.1	1.4	100.0	(796)
가족 구성($\chi^2=36.41^{***}$)							
모자녀	25.5	48.1	23.7	1.1	1.7	100.0	(722)
그 외	16.3	45.2	28.5	7.2	2.7	100.0	(263)
기초보장($\chi^2=16.27^{**}$)							
비수급	25.0	48.0	20.9	4.0	2.1	100.0	(527)
수급	20.7	46.5	29.7	1.3	1.7	100.0	(458)
경제활동($\chi^2=127.26^{***}$)							
안 함	16.5	41.7	37.5	1.8	2.5	100.0	(552)
시간제근로	29.0	52.7	13.3	2.9	2.1	100.0	(241)
전일제근로	34.4	56.8	3.6	5.2	0.0	100.0	(192)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국공립은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이외에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함. 민간시설은 민간·가정어린이집, 기타 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을 포함함. 친인척 돌봄에는 조부모를 포함한 기타 친인척이 해당되며, 기타에는 친구나 지인,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사설학원,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방문교육,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 혼자 등을 포함함.

미혼모가족의 현재 미취학 자녀의 주간 돌봄 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5%로 나타났고, 대체로 만족 29.4%, 매우 만족 6.3%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에 응답한 비율이 80.0% 이상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이 3세 이상인 경우 대체로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6.1%로 3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엄마가 대체로 불만족한 경우(11.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는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3세 이상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돌봄 방식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거 상황에 따른 차이를 보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재가의 경우보다 현재의 자녀 돌봄 방식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미취학 자녀의 돌봄 방식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명)
전체	3.2	14.5	46.5	29.4	6.3	100.0	(985)
모 연령							
만 15-19세	0.0	12.5	43.8	37.5	6.3	100.0	(48)
만 20-29세	2.6	15.3	45.1	29.4	7.6	100.0	(463)
만 30-39세	3.0	13.8	48.6	29.6	5.0	100.0	(399)
만 40세 이상	10.7	14.7	45.3	24.0	5.3	100.0	(75)
자녀 연령($\chi^2=14.18^{**}$)							
3세 미만	4.2	11.4	47.3	27.5	9.6	100.0	(334)
3세 이상	2.8	16.1	46.1	30.4	4.6	100.0	(651)
돌봄 방식($\chi^2=17.42$)							
국공립	1.3	12.8	51.5	27.8	6.6	100.0	(227)
민간	2.6	16.3	44.4	30.0	6.7	100.0	(466)
본인	6.5	13.4	46.3	28.9	4.9	100.0	(246)
기타(친인척)	2.2	10.9	43.5	34.8	8.7	100.0	(46)
거주 상황($\chi^2=24.82^{***}$)							
시설	1.6	11.1	38.1	37.0	12.2	100.0	(189)
재가	3.6	15.3	48.5	27.6	4.9	100.0	(796)
가족 구성($\chi^2=3.70$)							
모자녀	3.7	14.4	46.5	29.6	5.7	100.0	(722)
그 외	1.9	14.8	46.4	28.9	8.0	100.0	(263)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명)
기초보장($\chi^2=7.68$)							
비수급	2.1	16.3	45.5	29.4	6.6	100.0	(527)
수급	4.6	12.4	47.6	29.5	5.9	100.0	(458)
경제활동($\chi^2=7.32$)							
안 함	3.8	13.6	46.7	29.7	6.2	100.0	(552)
시간제근로	2.5	16.2	50.2	24.9	6.2	100.0	(241)
전일제근로	2.6	15.1	41.1	34.4	6.8	100.0	(192)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현재 미취학 아동의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엄마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본인이 돌봐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라는 응답이 22.9%로 나타났고, ‘개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18.9%, ‘원하는 서비스를 구할 수 없어서’ 16.0%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 돌봄 방식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현재 돌봄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 국공립 시설과 민간 시설 등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고, 현재 민간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원하는 서비스를 구할 수 없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리고 친인척과 같은 기타 돌봄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하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높았는데,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0.0% 이상이 이에 응답했다. 본인이 직접 돌보는 경우는 본인 돌봄시간이 긴 것이 문제였고, 현재 친인척 등 기타 방식으로 자녀 돌봄을 하고 있는 경우는 시설의 돌봄시간이 짧아서 현재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민간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에 해당하는 여러 다양한 이유로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항목으로는 혼자 아이를 돌본다는 것 자체에 한계를 느낀다는 이유가 많았고, 그 외에는 가족형태로 인한 어려움, 시간 활용이 어려움 등 개개인의 다

양한 이유가 현재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전일제로 근무하는 엄마들의 경우 ‘시설(기관)의 돌봄시간이 짧아서’라는 이유를 선택한 비율이 17.6%로 경제활동을 안 하거나(5.2%) 하더라도 시간제로 일하는 엄마들의 경우(6.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을 하지 않는 엄마들의 경우는 ‘본인이 돌보아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라는 응답이 31.3%로 시간제근로를 하는 경우(17.8%)나 전일제근로를 하는 경우(5.9%)보다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가정양육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하면 아동이 보육 시설에 가는 시간 없이 모든 시간을 돌보아야 하는 엄마들이 돌봄 시간을 길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미취학 자녀의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시설(기관)에 내야 하는 비용 부담 때문에	개인 돌봄서 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원하는 서비스를 구할 수 없어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본인이 돌보아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시설(기관)의 돌봄시 간이 짧아서	기타	계	(명)
전체	12.0	18.9	16.0	6.9	22.9	8.0	15.4	100.0	(175)
모 연령									
만 15-19세	16.7	0.0	16.7	0.0	50.0	16.7	0.0	100.0	(6)
만 20-29세	12.0	20.5	22.9	7.2	15.7	9.6	12.0	100.0	(83)
만 30-39세	13.4	17.9	10.4	6.0	23.9	6.0	22.4	100.0	(67)
만 40세 이상	5.3	21.1	5.3	10.5	42.1	5.3	10.5	100.0	(19)
자녀 연령($\chi^2=3.20$)									
3세 미만	7.7	17.3	19.2	5.8	28.8	7.7	13.5	100.0	(52)
3세 이상	13.8	19.5	14.6	7.3	20.3	8.1	16.3	100.0	(123)
돌봄 방식($\chi^2=56.92^{***}$)									
국공립	12.5	25.0	12.5	12.5	9.4	9.4	18.8	100.0	(32)
민간	15.9	25.0	20.5	8.0	13.6	10.2	6.8	100.0	(88)
본인	4.1	6.1	10.2	0.0	51.0	2.0	26.5	100.0	(49)
기타(친인척)	16.7	0.0	16.7	16.7	0.0	16.7	33.3	100.0	(6)

구분	시설(기관)에 내야 하는 비용 부담 때문에	개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원하는 서비스를 구할 수 없어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본인이 돌보아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시설(기관)의 돌봄시간이 짧아서	기타	계	(명)
거주 상황($\chi^2=10.37$)									
시설	4.2	20.8	16.7	20.8	20.8	8.3	8.3	100.0	(24)
재가	13.2	18.5	15.9	4.6	23.2	7.9	16.6	100.0	(151)
가족 구성($\chi^2=5.16$)									
모자녀	13.7	19.1	13.0	6.9	22.1	8.4	16.8	100.0	(131)
그 외	6.8	18.2	25.0	6.8	25.0	6.8	11.4	100.0	(44)
기초보장($\chi^2=9.91$)									
비수급	12.4	21.6	20.6	8.2	18.6	8.2	10.3	100.0	(97)
수급	11.5	15.4	10.3	5.1	28.2	7.7	21.8	100.0	(78)
경제활동($\chi^2=23.71^*$)									
안 함	11.5	11.5	16.7	5.2	31.3	5.2	18.8	100.0	(96)
시간제근로	15.6	28.9	15.6	8.9	17.8	6.7	6.7	100.0	(45)
전일제근로	8.8	26.5	14.7	8.8	5.9	17.6	17.6	100.0	(34)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기타: '혼자 아이를 돌보기에 한계가 느껴져서(8명)',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짧아서', '어린이 집에 보내면 수급이 끊겨서 보내지 못함', '일반적이지 않은 가정형태' '아이를 잘 돌보고 있는 것인지 불안함', '양육 환경이 좋지 않음', '자유로운 출퇴근이 어려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두 해주지 못함', '법정 하원시간을 지키지 않음', '여건이 좋지 않음', '본인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 '주소와 실거주지가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함', '부모님과 의견이 맞지 않음', '기관을 이용해보지 않음', '서비스 제공자의 부정적 시선'.

희망하는 미취학 자녀의 돌봄 방식을 알아본 결과, 국공립시설을 원하는 경우는 42.6%, 민간 시설을 희망하는 경우는 32.6%로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응답자의 75.2%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이 3세 미만인 경우는 엄마 본인이 직접 돌보는 것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3.4%로 3세 이상의 9.4%와 차이를 보였다. 경제활동에 따라서는 일을 하지 않는 엄마의 경우 19.0%가 본인이 돌볼 것을 희망하지만, 전일제근로를 하는 엄마의 경우 4.7%만이 본인이 돌보는 것을 희망해 그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4-4〉 미취학 자녀의 희망하는 주간 돌봄 방식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민간시설	본인	친인척	기타	계	(명)
전체	42.6	32.6	14.1	5.3	5.4	100.0	(985)
모 연령							
만 15-19세	22.9	27.1	18.8	29.2	2.1	100.0	(48)
만 20-29세	42.3	32.8	16.0	3.9	5.0	100.0	(463)
만 30-39세	47.1	32.3	10.8	3.8	6.0	100.0	(399)
만 40세 이상	33.3	36.0	17.3	6.7	6.7	100.0	(75)
자녀 연령($\chi^2=47.43^{***}$)							
3세 미만	34.4	28.1	23.4	6.6	7.5	100.0	(334)
3세 이상	46.9	34.9	9.4	4.6	4.3	100.0	(651)
거주 상황($\chi^2=5.35$)							
시설	37.6	34.4	18.5	4.2	5.3	100.0	(189)
재가	43.8	32.2	13.1	5.5	5.4	100.0	(796)
가족 구성($\chi^2=9.29$)							
모자녀	43.5	33.9	13.0	4.3	5.3	100.0	(722)
그 외	40.3	28.9	17.1	8.0	5.7	100.0	(263)
기초보장($\chi^2=4.55$)							
비수급	45.2	30.2	14.6	4.7	5.3	100.0	(527)
수급	39.7	35.4	13.5	5.9	5.5	100.0	(458)
경제활동($\chi^2=37.62^{***}$)							
안 함	38.8	29.9	19.0	6.5	5.8	100.0	(552)
시간제근로	47.3	33.2	10.4	3.3	5.8	100.0	(241)
전일제근로	47.9	39.6	4.7	4.2	3.6	100.0	(192)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국공립은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이외에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함. 민간시설은 민간·가정어린이집, 기타 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을 포함함. 친인척 돌봄에는 조부모를 포함한 기타 친인척이 해당되며, 기타에는 친구나 지인,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사설학원,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방문교육,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 혼자 등을 포함함.

현재 자녀 돌봄과 희망하는 자녀 돌봄 유형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보면,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 국공립 시설에서의 돌봄을 희망하면서 실제 이용하는 비율은 25.2%, 민간 시설에 대한 일치도는 73.4%로 나타났다. 본인이 직접 돌보기를 원하면서 실제 본인이 돌보고 있는 경우는 83.3%로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본인 직접 돌봄에 대한 일치도가 돌봄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5〉 3세 미만 자녀의 주간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돌봄 유형 일치도

(단위: %, 명)

구 분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					계	(명)
	국공립	민간시설	본인	친인척	기타		
전체	10.5	33.2	47.0	4.8	4.5	100.0	(334)
희망하는 곳(사람)							
국공립	25.2	27.8	38.3	5.2	3.5	100.0	(115)
민간시설	2.1	73.4	22.3	0.0	2.1	100.0	(94)
부모	3.8	7.7	83.3	1.3	3.8	100.0	(78)
친인척	0.0	9.1	54.5	36.4	0.0	100.0	(22)
기타	4.0	8.0	60.0	4.0	24.0	100.0	(25)

주: 음영 부분은 수급이 일치함을 의미함.

자녀가 3세 이상인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와 일치도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시설을 희망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53.4%로 과반수로 나타나 3세 미만의 경우보다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91.6%로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여 3세 미만에서는 본인 돌봄이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였으나, 3세 이상 자녀를 둔 경우에는 민간 시설에 대한 일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6〉 3세 이상 자녀의 주간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돌봄 유형 일치도

(단위: %, 명)

구 분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					계	(명)
	국공립	민간시설	본인	친인척	기타		
전체	29.5	54.5	13.7	1.7	0.6	100.0	(651)
희망하는 곳 (사람)							
국공립	53.4	33.8	10.8	1.3	0.7	100.0	(305)
민간시설	3.1	91.6	5.3	0.0	0.0	100.0	(227)
본인	18.0	32.8	47.5	1.6	0.0	100.0	(61)
친인척	20.0	43.3	23.3	13.3	0.0	100.0	(30)
기타	17.9	39.3	28.6	7.1	7.1	100.0	(28)

주: 음영 부분은 수급이 일치함을 의미함.

미취학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을 알아본 결과 90.0% 이상이 혼자 있는 시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있더라도 1주일에 1-2

일 정도가 6.5%로 나타나 아동 대부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 방식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시간제근로를 하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1주일에 1-2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6%, 1주일에 3-4일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4.1%, 1주일에 5일 이상이 2.5%라고 응답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전일제근로를 하는 어머니의 자녀보다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는 어머니가 돌봄을 담당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용 후 어머니가 돌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적을 것이다. 그리고 전일제근로를 하는 어머니의 경우는 본인이 전일 근로를 하기 때문에 아동의 돌봄에 대한 스케줄을 확실히 마련해 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가계수입의 측면에서도 아동의 돌봄에 공백이 없도록 해 놓을 여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제근로를 하는 어머니의 아동은 비정기적인 근로일 가능성과 수입의 측면에서 아동 돌봄에 투자할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7〉 일주일 중 미취학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단위: %, 명)

구분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없음	1주일에 1~2일 정도	1주일에 3~4일 정도	1주일에 5일 이상	계	(명)
전체	90.1	6.5	1.7	1.7	100.0	(985)
모 연령						
만 15-19세	95.8	0.0	4.2	0.0	100.0	(48)
만 20-29세	89.8	6.3	2.6	1.3	100.0	(463)
만 30-39세	90.0	6.8	0.5	2.8	100.0	(399)
만 40세 이상	88.0	10.7	1.3	0.0	100.0	(75)
자녀 연령($\chi^2=5.82$)						
3세 미만	90.1	5.4	1.5	3.0	100.0	(334)
3세 이상	90.0	7.1	1.8	1.1	100.0	(651)

구분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없음	1주일에 1~2일 정도	1주일에 3~4일 정도	1주일에 5일 이상	계	(명)
거주 상황						
시설	92.1	5.3	1.1	1.6	100.0	(189)
재가	89.6	6.8	1.9	1.8	100.0	(796)
가족 구성						
모자녀	90.6	6.4	1.1	1.9	100.0	(722)
그 외	88.6	6.8	3.4	1.1	100.0	(263)
기초보장($\chi^2=14.54^{**}$)						
비수급	87.9	8.3	2.7	1.1	100.0	(527)
수급	92.6	4.4	0.7	2.4	100.0	(458)
경제활동($\chi^2=27.74^{***}$)						
안 함	92.4	5.1	1.1	1.4	100.0	(552)
시간제근로	81.7	11.6	4.1	2.5	100.0	(241)
전일제근로	93.8	4.2	0.5	1.6	100.0	(192)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미취학 자녀를 엄마가 직접 돌보는 시간에 어떤 시설들을 이용하는지 보면, 놀이터(23.5%)가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다음이 집(18.9%)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이용하는 시설을 알아보는 것이었지만, 기타에 집이라는 응답이 많아서 결과 분석에서는 집을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그 결과 상당히 높은 응답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즈카페는 17.3%, 그 외 기타 공용시설이 12.6%,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 등 공공시설이 9.1%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항목에서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미혼모시설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으며, 동네, 공원, 마트, 교회, 친인척 집 등이 있었고, 직접 돌보는 시간에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물었지만, 학원, 치료시설, 돌봄교실, 아동발달센터 등을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사람없는 곳이라는 기타 응답도 발견할 수 있었다.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는 집이 26.9%로 가장 많았고, 3세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는 놀이터가 27.0%로 가장 많았다.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시설이라고 응답한 수가 기타에 21명으로 포함되었는데, 그 수를 집이라

고 응답한 비율과 더해보면,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 내에서 자녀를 돌보는 상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기초보장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집이나 놀이터에서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이 많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공간을 이용한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평일에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은 알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엄마가 키즈카페와 문화센터라고 응답한 비율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엄마보다 높게 나타나 경제적 여유에 따라 자녀를 비용이 발생하는 시설에서 돌보는 비율에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일제근로를 하는 엄마는 아이를 직접 돌볼 시간이 없고, 시간제근로는 하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와 전일제근로를 하는 경우보다 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각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키즈카페나 문화센터 이용 비율이 경제활동 구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표 4-8〉 미취학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에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류

(단위: %, 명)

구분	놀이터	문화 센터	키즈 카페	공공 시설 ^①	그 외 기타 공용시 설	집	기타	평일 직접 돌봄 시간 없음	계	(명)
전체	23.5	3.8	17.3	9.1	12.6	18.9	6.3	8.6	100.0	(985)
모 연령($\chi^2=13.07$)										
만 15-19세	25.0	4.2	16.7	10.4	16.7	18.8	6.3	2.1	100.0	(48)
만 20-29세	21.0	4.3	17.9	9.3	13.6	18.6	6.5	8.9	100.0	(463)
만 30-39세	25.6	3.3	16.5	7.8	11.3	20.3	6.3	9.0	100.0	(399)
만 40세 이상	26.7	2.7	17.3	14.7	10.7	13.3	5.3	9.3	100.0	(75)
자녀 연령($\chi^2=55.45^{***}$)										
3세 미만	16.5	4.5	11.4	11.7	14.1	26.9	9.3	5.7	100.0	(334)
3세 이상	27.0	3.4	20.3	7.8	11.8	14.7	4.8	10.1	100.0	(651)
거주 상황($\chi^2=65.54^{***}$)										
시설	14.3	2.1	17.5	7.9	10.1	16.9	17.5	13.8	100.0	(189)
재가	25.6	4.1	17.2	9.4	13.2	19.3	3.6	7.4	100.0	(796)

구분	놀이터	문화 센터	키즈 카페	공공 시설 ³⁾	그 외 기타 공공시설	집	기타	평일 직접 돌봄 시간 없음	계	(명)
가족 구성($\chi^2=6.54$)										
모자녀	24.4	3.0	17.6	9.0	12.7	18.8	5.7	8.7	100.0	(722)
그 외	20.9	5.7	16.3	9.5	12.2	19.0	8.0	8.4	100.0	(263)
기초보장($\chi^2=17.82^*$)										
비수급	21.1	4.7	18.0	10.4	12.3	17.3	5.3	10.8	100.0	(527)
수급	26.2	2.6	16.4	7.6	12.9	20.7	7.4	6.1	100.0	(458)
경제활동($\chi^2=122.49^{***}$)										
안 함	24.6	2.7	13.9	9.1	14.1	22.8	8.3	4.3	100.0	(552)
시간제근로	22.0	7.1	24.1	10.4	11.6	17.4	2.1	5.4	100.0	(241)
전일제근로	21.9	2.6	18.2	7.8	9.4	9.4	5.7	25.0	100.0	(192)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공공시설: 도서관, 주민센터, 복지관, 공동육아나눔터 등

4) 기타: '미혼모시설(21명)', '동네(8명)', '친인척집', '공원', '치료시설', '시간제 돌봄교실', '어린이집', '마트', '사람없는 곳', '학원', '카페', '직장', '아동발달센터', '교회'

미취학 자녀를 엄마가 직접 돌보는 시간을 알아보았다. 평균 육아시간은 평일에는 약 690분(약 11시간 30분), 토요일은 약 1096분(약 18시간 15분), 일요일은 약 1125시간(약 18시간 45분)으로 나타났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평일과 비교해 육아시간이 길고, 시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평일 시간에서의 차이를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의 연령이 3세 미만인 경우는 약 920분(약 15시간 20분), 3세 이상인 경우는 약 573분(약 9시간 33분)으로 자녀가 어린 경우 육아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연령이 어린 경우 본인이 직접 양육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육시간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현재 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본인이 직접 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사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경우(약 14시간) 주간 시간에 주로 본인이 직접 자녀를 돌보고 있는 엄마들이 많아 전일제근로를 하는 엄마들(약 6시간 40분)보다 평

일 양육시간이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9〉 미취학 자녀의 하루 평균 육아시간(평일, 토요일, 일요일)

(단위: 분, 명)

구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균 육아시간(분)	(명)	평균 육아시간(분)	(명)	평균 육아시간(분)	(명)
전체	690.6	(984)	1096.2	(984)	1125.0	(984)
모 연령	(F=1.96)		(F=1.02)		(F=1.27)	
만 15-19세	837.0	(48)	1035.0	(48)	1030.2	(48)
만 20-29세	682.2	(463)	1082.4	(463)	1120.2	(463)
만 30-39세	684.6	(398)	1119.0	(398)	1141.2	(398)
만 40세 이상	682.8	(75)	1101.0	(75)	1132.2	(75)
자녀 연령	(t=12.33***)		(t=2.11*)		(t=1.41)	
3세 미만	920.4	(334)	1133.4	(334)	1149.0	(334)
3세 이상	573.0	(650)	1077.6	(650)	1113.0	(650)
거주 상황	(t=2.36*)		(t=4.12***)		(t=5.04***)	
시설	757.2	(188)	1201.8	(188)	1245.0	(188)
재가	675.0	(796)	1071.6	(796)	1096.8	(796)
가족 구성	(t=-1.33)		(t=0.16)		(t=-0.08)	
모자녀	679.2	(722)	1097.4	(722)	1124.4	(722)
그 외	722.4	(262)	1092.6	(262)	1126.8	(262)
기초보장	(t=-6.16***)		(t=-6.07***)		(t=-5.21***)	
비수급	613.8	(526)	1027.2	(526)	1067.4	(526)
수급	779.4	(458)	1176.0	(458)	1191.6	(458)
경제활동	(F=100.12***)		(F=12.89***)		(F=3.06*)	
안 함	837.0	(552)	1151.4	(552)	1150.2	(552)
시간제근로	586.2	(241)	1037.4	(241)	1080.6	(241)
전일제근로	400.2	(191)	1011.0	(191)	1108.8	(191)
경제활동	(t=13.57***)		(t=4.97***)		(t=2.35*)	
안 함	837.0	(552)	1151.4	(552)	1150.2	(552)
합	504.0	(432)	1026.0	(432)	1093.2	(432)

주: *** p < .001, **p < .01, *p < .05

정부에서 현재 미취학 아동 돌봄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를 알아보았다. 가장 먼저 아동수당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보면, 알고 있다는 응답이 94.6%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엄마 중 혜택을 받은 경우는 97.0%로 나타났다. 아동수당을 받은 경험자가 응답한 아동수당의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됨’이

43.0%, ‘다소 도움됨’이 31.2%, ‘보통’이 18.5%로 보통 이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92.7%로 도움이 많이 되는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성별로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은 기초보장 수급 여부인데, 기초보장 수급 대상인 경우 수급 대상이 아닌 경우보다 아동수당정책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으며, 아동수당을 받은 비율도 수급 대상인 경우 99.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다른 정책의 수혜자인 경우 새로운 정책에 대해 더 잘 알고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보면, 자녀가 3세 이상인 경우가 3세 미만인 경우보다 아동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나, 정책 이용 경험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엄마의 연령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엄마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볼 수는 없지만, 10대 미성년 엄마의 경우 인지 여부와 이용 경험에 있어서 다른 연령대보다 비율이 낮은 특징을 볼 수 있다.

〈표 4-10〉 정부에서 지원하는 미취학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아동수당정책)

(단위: %, 명)

구분	인지 여부		(명)	이용 경험		(명)	도움 정도					(명)
	모름	알고 있음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전체	5.4	94.6	(985)	3.0	97.0	(932)	1.0	6.3	18.5	31.2	43.0	(904)
모 연령												
만 15-19세	18.8	81.3	(48)	12.8	87.2	(39)	0.0	5.9	14.7	32.4	47.1	(34)
만 20-29세	5.2	94.8	(463)	2.1	97.9	(439)	0.7	4.9	17.2	31.4	45.8	(430)
만 30-39세	4.5	95.5	(399)	2.6	97.4	(381)	1.3	8.1	19.4	31.3	39.9	(371)
만 40세 이상	2.7	97.3	(75)	5.5	94.5	(73)	1.4	5.8	23.2	29.0	40.6	(69)

구분	인지 여부		(명)	이용 경험		(명)	도움 정도					(명)
	모름	알고 있음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자녀 연령	$(\chi^2=10.82^{**})$			$(\chi^2=3.91^{*})$			$(\chi^2=1.69)$					
3세 미만	8.7	91.3	(334)	4.6	95.4	(305)	1.4	6.9	19.9	29.9	41.9	(291)
3세 이상	3.7	96.3	(651)	2.2	97.8	(627)	0.8	6.0	17.8	31.8	43.6	(613)
거주 상황	$(\chi^2=3.44)$			$(\chi^2=0.07)$			$(\chi^2=4.65)$					
시설	2.6	97.4	(189)	2.7	97.3	(184)	1.7	6.1	14.0	35.2	43.0	(179)
재가	6.0	94.0	(796)	3.1	96.9	(748)	0.8	6.3	19.6	30.2	43.0	(725)
가족 구성	$(\chi^2=4.78^{*})$			$(\chi^2=2.66)$			$(\chi^2=10.71^{*})$					
모자녀	4.4	95.6	(722)	2.5	97.5	(690)	0.9	5.2	18.3	30.0	45.6	(673)
그 외	8.0	92.0	(263)	4.5	95.5	(242)	1.3	9.5	19.0	34.6	35.5	(231)
기초보장	$(\chi^2=30.93^{***})$			$(\chi^2=16.59^{***})$								
비수급	9.1	90.9	(527)	5.2	94.8	(479)	0.9	6.2	15.9	30.4	46.7	(454)
수급	1.1	98.9	(458)	0.7	99.3	(453)	1.1	6.4	21.1	32.0	39.3	(450)
경제활동	$(\chi^2=0.14)$			$(\chi^2=0.27)$			$(\chi^2=7.72)$					
안 함	5.6	94.4	(552)	3.3	96.7	(521)	1.2	7.3	19.8	32.3	39.3	(504)
함	5.1	94.9	(433)	2.7	97.3	(411)	0.8	5.0	16.8	29.8	47.8	(400)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는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조사 참여자 중 85.3%가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응답자 중 85.5%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됨’이 38.6%, ‘다소 도움됨’이 31.1%, ‘보통’이 21.6%로 나타나 가정양육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91.3%가 보통 이상으로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자녀 연령이 3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직접 양육한다고 응답했던 비율이 많은 만큼 가정양육수당 이용 경험에서도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엄마들이 3세 이상의 자녀를 둔 엄마들보다 이용 경험이 많았다. 기초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가정양육수당 이용 경험

이 높게 나타났다. 결국,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자녀를 돌볼 확률이 높고, 그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을 이용하는 것에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도움 정도에 대한 응답에서는 기초보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받는 경우보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정부에서 지원하는 미취학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가정양육수당 지원정책)

(단위: %, 명)

구분	인지 여부		(명)	이용 경험		(명)	도움 정도					(명)
	모름	알고 있음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전체	14.7	85.3	(985)	14.5	85.5	(840)	1.4	7.4	21.6	31.1	38.6	(718)
모 연령	$(\chi^2=3.92)$			$(\chi^2=2.63)$			$(\chi^2=3.97)$					
만 15-19세	22.9	77.1	(48)	16.2	83.8	(37)	3.2	6.5	16.1	25.8	48.4	(31)
만 20-29세	15.6	84.4	(463)	12.8	87.2	(391)	0.6	5.3	20.2	32.0	41.9	(341)
만 30-39세	13.3	86.7	(399)	15.3	84.7	(346)	2.4	8.9	23.9	30.4	34.5	(293)
만 40세 이상	12.0	88.0	(75)	19.7	80.3	(66)	0.0	13.2	20.8	32.1	34.0	(53)
자녀 연령	$(\chi^2=0.29)$			$(\chi^2=9.62^{**})$			$(\chi^2=3.97)$					
3세 미만	15.6	84.4	(334)	9.2	90.8	(282)	2.0	5.1	21.5	31.6	39.8	(256)
3세 이상	14.3	85.7	(651)	17.2	82.8	(558)	1.1	8.7	21.6	30.7	37.9	(462)
거주 상황	$(\chi^2=0.17)$			$(\chi^2=0.33)$			$(\chi^2=1.76)$					
시설	13.8	86.2	(189)	16.0	84.0	(163)	0.7	5.8	22.6	29.2	41.6	(137)
재가	14.9	85.1	(796)	14.2	85.8	(677)	1.5	7.7	21.3	31.5	37.9	(581)
가족 구성	$(\chi^2=6.24^*)$			$(\chi^2=0.52)$			$(\chi^2=3.76)$					
모자녀	13.0	87.0	(722)	14.0	86.0	(628)	1.3	6.5	21.5	30.7	40.0	(540)
그 외	19.4	80.6	(263)	16.0	84.0	(212)	1.7	10.1	21.9	32.0	34.3	(178)
기초보장	$(\chi^2=4.24^*)$			$(\chi^2=9.10^{**})$			$(\chi^2=11.92^*)$					
비수급	16.9	83.1	(527)	18.0	82.0	(438)	1.1	4.7	19.5	32.0	42.6	(359)
수급	12.2	87.8	(458)	10.7	89.3	(402)	1.7	10.0	23.7	30.1	34.5	(359)
경제활동	$(\chi^2=0.002)$			$(\chi^2=8.08^{**})$			$(\chi^2=5.77)$					
안 함	14.7	85.3	(552)	11.5	88.5	(471)	1.9	8.4	22.1	31.9	35.7	(417)
함	14.8	85.2	(433)	18.4	81.6	(369)	0.7	6.0	20.9	29.9	42.5	(301)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다음으로는 정부의 무상보육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취학 아동을 양육 중인 응답자 중 84.1%가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그중 78.7%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용해 본 응답자 중 65.3%가 ‘매우 도움됨’이라고 응답했고, 23.5%는 ‘다소 도움됨’, 9.7%가 ‘보통’이라고 응답해 98.5%가 보통 이상 도움 되는 것으로 응답했다.

엄마의 연령이 10대인 경우, 자녀 연령이 3세 미만인 경우가 그 외의 그룹보다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과 이용 경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이 낮은 경우 아직 엄마가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나타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재가 미혼모의 경우보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이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는데, 시설에 생활하는 경우 아동이 어린 경우가 많고 엄마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집 이용 시 받게 되는 보육료 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자녀 이외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보육료 지원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경험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도움 정도는 이용 경험이 있는 대부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2〉 정부에서 지원하는 미취학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보육료(어린이집) 지원)

(단위: %, 명)

구분	인지 여부		(명)	이용 경험		(명)	도움 정도					(명)
	모름	알고 있음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전체	15.9	84.1	(985)	21.3	78.7	(828)	0.3	1.2	9.7	23.5	65.3	(652)
모 연령	$(\chi^2=27.72^{***})$			$(\chi^2=9.71^*)$								
만 15-19세	41.7	58.3	(48)	42.9	57.1	(28)	0.0	6.3	6.3	6.3	81.3	(16)
만 20-29세	16.6	83.4	(463)	21.0	79.0	(386)	0.0	0.7	7.9	21.0	70.5	(305)
만 30-39세	12.8	87.2	(399)	19.0	81.0	(348)	0.7	1.8	12.8	24.5	60.3	(282)
만 40세 이상	12.0	88.0	(75)	25.8	74.2	(66)	0.0	0.0	4.1	38.8	57.1	(49)

구분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명)	
	모름	알고 있음	(명)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명)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자녀 연령	(χ²=58.97***)			(χ²=188.68***)								
3세 미만	28.4	71.6	(334)	49.4	50.6	(239)	0.8	0.8	10.7	20.7	66.9	(121)
3세 이상	9.5	90.5	(651)	9.8	90.2	(589)	0.2	1.3	9.4	24.1	65.0	(531)
거주 상황	(χ²=3.85*)			(χ²=0.73)								
시설	20.6	79.4	(189)	18.7	81.3	(150)	0.0	0.0	4.1	20.5	75.4	(122)
재가	14.8	85.2	(796)	21.8	78.2	(678)	0.4	1.5	10.9	24.2	63.0	(530)
가족 구성	(χ²=18.88***)			(χ²=18.61***)								
모자녀	12.9	87.1	(722)	17.8	82.2	(629)	0.4	1.4	9.1	22.4	66.7	(517)
그 외	24.3	75.7	(263)	32.2	67.8	(199)	0.0	0.7	11.9	27.4	60.0	(135)
기초보장	(χ²=5.97*)			(χ²=1.76)								
비수급	18.6	81.4	(527)	23.1	76.9	(429)	0.3	1.2	7.0	23.9	67.6	(330)
수급	12.9	87.1	(458)	19.3	80.7	(399)	0.3	1.2	12.4	23.0	63.0	(322)
경제활동	(χ²=22.45***)			(χ²=35.69***)								
안 함	20.8	79.2	(552)	29.3	70.7	(437)	0.6	1.0	12.9	24.3	61.2	(309)
함	9.7	90.3	(433)	12.3	87.7	(391)	0.0	1.5	6.7	22.7	69.1	(343)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정책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각각 48.0%와 52.0%로 나타나 보육료 지원과 비교해 인지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용 경험에 있어서도 이용해 본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2.6%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97.7%가 보통 이상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 활용은 낮으나 혜택을 받으면 만족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 참여한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985명 중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비율이 9.0%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경험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엄마의 연령이 낮거나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는 유치원에 보낼 확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낮기 때문에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인지도나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보다는 재가인 경우에 자녀를 주간시간에 돌봄 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아학비 인지

도나 이용 경험에서도 거주 상황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자녀와 엄마 이외에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경우 유아학비를 인지하는 비율과 이용 경험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안에 엄마와 어린 자녀 이외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돌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정에서 돌보는 비율이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유아학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용 가능성이 낮아지는 현상에서 온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4-13〉 정부에서 지원하는 미취학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유아학비(유치원) 지원)

(단위: %, 명)

구분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명)
	모름	알고 있음	(명)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명)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체	52.0	48.0	(985)	62.6	37.4	(473)	1.1	1.1	14.1	27.7	55.9	(177)
모 연령	$(\chi^2=10.72^*)$			$(\chi^2=9.37^*)$								
만 15-19세	70.8	29.2	(48)	92.9	7.1	(14)	0.0	100.0	0.0	0.0	0.0	(1)
만 20-29세	54.0	46.0	(463)	66.2	33.8	(213)	1.4	0.0	11.1	29.2	58.3	(72)
만 30-39세	48.6	51.4	(399)	57.1	42.9	(205)	1.1	1.1	15.9	25.0	56.8	(88)
만 40세 이상	45.3	54.7	(75)	61.0	39.0	(41)	0.0	0.0	18.8	37.5	43.8	(16)
자녀 연령	$(\chi^2=21.46^{***})$			$(\chi^2=36.61^{***})$								
3세 미만	62.3	37.7	(334)	84.9	15.1	(126)	5.3	5.3	26.3	26.3	36.8	(19)
3세 이상	46.7	53.3	(651)	54.5	45.5	(347)	0.6	0.6	12.7	27.8	58.2	(158)
거주 상황	$(\chi^2=8.27^{**})$			$(\chi^2=20.74^{***})$								
시설	61.4	38.6	(189)	86.3	13.7	(73)	10.0	0.0	20.0	20.0	50.0	(10)
재가	49.7	50.3	(796)	58.3	41.8	(400)	0.6	1.2	13.8	28.1	56.3	(167)
가족 구성	$(\chi^2=16.64^{***})$			$(\chi^2=5.14^*)$								
모자녀	48.1	51.9	(722)	60.0	40.0	(375)	1.3	1.3	12.7	26.7	58.0	(150)
그 외	62.7	37.3	(263)	72.4	27.6	(98)	0.0	0.0	22.2	33.3	44.4	(27)
기초보장	$(\chi^2=0.40)$			$(\chi^2=0.72)$								
비수급	51.0	49.0	(527)	60.9	39.1	(258)	1.0	0.0	11.9	23.8	63.4	(101)
수급	53.1	46.9	(458)	64.7	35.3	(215)	1.3	2.6	17.1	32.9	46.1	(76)
경제활동	$(\chi^2=39.76^{***})$			$(\chi^2=5.09^*)$								
안 함	60.9	39.1	(552)	68.1	31.9	(216)	1.4	2.9	17.4	34.8	43.5	(69)
함	40.6	59.4	(433)	58.0	42.0	(257)	0.9	0.0	12.0	23.1	63.9	(108)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경우가 78.1%로 비교적 높지만, 그중 이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은 38.1%로 낮은 이용 경험을 보이고 있다. 낮은 이용 경험 비율이지만,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엄마들 중 이 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5.1%로 낮아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엄마의 연령별로 보면, 역시 미성년 미혼모 응답자의 경우 인지도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47.9%)으로 나타나 정책 정보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엄마의 직접 양육 비율이 높은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응답자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인지 비율이 3세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는 응답자보다 낮았다.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엄마들은 아이돌봄서비스 인지와 이용 비율이 재가 미혼모보다 높은 특성을 보여, 시설 거주 시 정책에 대한 정보력이 높을 수 있고, 인지하고 있는 엄마들 중에도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재가 미혼모가족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 받고 있지 않는 경우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고 있는 비율과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았다. 경제활동에 따른 특성에서 서비스 인지 여부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이용 경험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돌봄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그룹에서 이용 경험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은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조건을 생각한다면 경제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 조사 결과에서도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이 안 하는 그룹보다 이용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을 하게 되면 미혼모가족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바탕으로 확장되는 형태의 서비스가 필요해 보인다.

“아이가 입원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항상 옆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직장이건 학업이건 스탑이 돼요. 중단을 해야 해요. 그래서 하루이틀

이면 괜찮기는 한데 아이들이 만약에 입원할 정도로 아프게 되면 못해도 1-2주는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 그 공백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입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혼자 키우게 되면 아이가 뭐 감기거나 하면 어린이집에도 못 보내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 좀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서비스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돌봄은 아픈 아이들을 봐줄 수 있기는 한데 그게 금액이 정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택으로만 가능하고 병원으로는 못오니까..그리고 긴급 아이가 당장 오늘 아프데 나는 이걸 아이돌봄 신청을 못 했어, 근데 출근해야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긴급 서비스 신청할 수 있기는 한데 그것도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것도 부담이 되어서 그런 것도 지원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A2)

〈표 4-14〉 정부에서 지원하는 미취학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아이돌봄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명)
	모름	알고 있음	(명)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명)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전체	21.9	78.1	(985)	61.9	38.1	(769)	1.7	3.4	15.0	37.2	42.7	(293)
모 연령	$(\chi^2=30.82^{***})$			$(\chi^2=6.11)$								
만 15-19세	52.1	47.9	(48)	65.2	34.8	(23)	0.0	0.0	12.5	37.5	50.0	(8)
만 20-29세	22.7	77.3	(463)	57.3	42.7	(358)	1.3	2.6	15.7	36.6	43.8	(153)
만 30-39세	19.0	81.0	(399)	65.9	34.1	(323)	1.8	1.8	15.5	37.3	43.6	(110)
만 40세 이상	13.3	86.7	(75)	66.2	33.8	(65)	4.5	18.2	9.1	40.9	27.3	(22)
자녀 연령	$(\chi^2=11.4^{***})$			$(\chi^2=1.07)$								
3세 미만	28.1	71.9	(334)	64.6	35.4	(240)	2.4	0.0	17.6	34.1	45.9	(85)
3세 이상	18.7	81.3	(651)	60.7	39.3	(529)	1.4	4.8	13.9	38.5	41.3	(208)
거주 상황	$(\chi^2=22.85^{***})$			$(\chi^2=97.69^{***})$								
시설	9.0	91.0	(189)	29.7	70.3	(172)	0.8	3.3	13.2	33.1	49.6	(121)
재가	25.0	75.0	(796)	71.2	28.8	(597)	2.3	3.5	16.3	40.1	37.8	(172)
가족 구성	$(\chi^2=4.60^*)$			$(\chi^2=0.06)$								
모자녀	20.2	79.8	(722)	62.2	37.8	(576)	1.8	4.6	13.8	39.4	40.4	(218)
그 외	26.6	73.4	(263)	61.1	38.9	(193)	1.3	0.0	18.7	30.7	49.3	(75)

구분	인지 여부		(명)	이용 경험		(명)	도움 정도					(명)
	모름	알고 있음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기초보장	$(\chi^2=17.94^{***})$			$(\chi^2=5.17^*)$								
비수급	27.1	72.9	(527)	65.9	34.1	(384)	3.1	3.8	17.6	33.6	42.0	(131)
수급	15.9	84.1	(458)	57.9	42.1	(385)	0.6	3.1	13.0	40.1	43.2	(162)
경제활동	$(\chi^2=1.16)$			$(\chi^2=14.55^{***})$								
안 함	23.2	76.8	(552)	67.9	32.1	(424)	1.5	1.5	15.4	37.5	44.1	(136)
함	20.3	79.7	(433)	54.5	45.5	(345)	1.9	5.1	14.6	36.9	41.4	(15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는 다른 돌봄 관련 정책과 비교해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인지(26.8%)와 이용 경험(20.8%)이 낮은 편이다. 일단 이용 경험이 있는 엄마들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2%에 불과해 이용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 정도에 대한 응답자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통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낮기 때문에 특성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정책 인지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동육아나눔터도 10대 미성년 미혼모 응답자의 경우가 다른 연령의 응답자에 비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고, 엄마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이 그 외 형태의 가족보다 공동육아나눔터를 알고 있는 비율이 약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엄마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은 아동의 양육과 돌봄이 온전히 엄마의 몫이기 때문에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이 육아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표 4-15〉 정부에서 지원하는 미취학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공동육아나눔터)

(단위: %, 명)

구분	인지 여부		(명)	이용 경험		(명)	도움 정도					(명)
	모름	알고 있음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되지 않음	별로 도움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체	73.2	26.8	(985)	79.2	20.8	(264)	3.6	3.6	21.8	49.1	21.8	(55)
모 연령	$(\chi^2=9.54^*)$			$(\chi^2=0.42)$								
만 15-19세	85.4	14.6	(48)	85.7	14.3	(7)	0.0	0.0	0.0	100.0	0.0	(1)
만 20-29세	75.6	24.4	(463)	79.6	20.4	(113)	0.0	0.0	17.4	69.6	13.0	(23)
만 30-39세	70.7	29.3	(399)	77.8	22.2	(117)	7.7	3.8	26.9	30.8	30.8	(26)
만 40세 이상	64.0	36.0	(75)	81.5	18.5	(27)	0.0	20.0	20.0	40.0	20.0	(5)
자녀 연령	$(\chi^2=1.68)$			$(\chi^2=0.14)$								
3세 미만	75.7	24.3	(334)	77.8	22.2	(81)	5.6	5.6	16.7	61.1	11.1	(18)
3세 이상	71.9	28.1	(651)	79.8	20.2	(183)	2.7	2.7	24.3	43.2	27.0	(37)
거주 상황	$(\chi^2=3.11)$			$(\chi^2=2.09)$								
시설	78.3	21.7	(189)	70.7	29.3	(41)	0.0	8.3	25.0	58.3	8.3	(12)
재가	72.0	28.0	(796)	80.7	19.3	(223)	4.7	2.3	20.9	46.5	25.6	(43)
가족 구성	$(\chi^2=4.12^*)$			$(\chi^2=1.27)$								
모자녀	71.5	28.5	(722)	77.7	22.3	(206)	4.3	4.3	23.9	41.3	26.1	(46)
그 외	77.9	22.1	(263)	84.5	15.5	(58)	0.0	0.0	11.1	88.9	0.0	(9)
기초보장	$(\chi^2=0.38)$			$(\chi^2=0.03)$								
비수급	74.0	26.0	(527)	79.6	20.4	(137)	7.1	0.0	10.7	53.6	28.6	(28)
수급	72.3	27.7	(458)	78.7	21.3	(127)	0.0	7.4	33.3	44.4	14.8	(27)
경제활동	$(\chi^2=1.01)$			$(\chi^2=0.01)$								
안 함	74.5	25.5	(552)	79.4	20.6	(141)	3.4	3.4	27.6	51.7	13.8	(29)
함	71.6	28.4	(433)	78.9	21.1	(123)	3.8	3.8	15.4	46.2	30.8	(26)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힘든 점으로 응답한 것은 아이 양육비나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점으로 응답자 중 33.0%가 선택하였고, 그다음으로 많이 선택한 것은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으로 응답자의 24.0%가 선택하였다. 약 18.0%는 아이를 돌보거나 챙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선택하였고, 아이 생활 태도 지도나 훈육이 어렵다는 점도 응답자의 9.5%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미혼모 자녀라는 이유로 아이가 어린이집 등에서 차별이나 따돌림 받거나 적응을 못하

는 점, 아이에게 가족상황을 이해시키기 어려운 점을 꼽아서 미혼모 엄마가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데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응답한 미혼모도 응답자의 약 4.0%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이 3세 이상인 경우 아이를 돌보거나 챙길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와 응답 비율이 높은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경제활동 특성과 비슷한 양상인데, 경제활동을 하는 엄마들이 이 이유에 응답한 비율은 28.9%이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엄마들은 9.2%만이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즉, 자녀가 어려서 직접 돌보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에서는 아이 맡길 곳이나 양육비 부담의 걱정이 많았지만,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와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 그룹과 비교해 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에서 자녀와 엄마만 있는 가족이 다른 구성원이 있는 경우보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응답이 높아 다른 구성원의 존재가 자녀 맡길 곳에 대한 걱정을 약간은 덜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초보장 비수급의 경우는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는 것이 수급가족보다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수급가족은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에 비수급가족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4-16〉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1순위)

(단위: %, 명)

구분	아이 양육 비나 교육 비 부담	아이 돌보 거나 챙길 시간 부족	아이 맡길 곳이 마땅 치 않음	아이 생활 태도 지도 나 훈육	아이가 미혼모 자녀라고 어린이집(유 치원)에서 차별·따돌림 받거나 적응 못하는 것	아이에게 가족 상황을 설명하 거나 이해시 키는 것	기타	특별 히 어려 운 점 없음	계	(명)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33.0	17.9	24.0	9.5	6.1	4.4	1.1	4.1	100.0	(985)
모 연령										
만 15-19세	37.5	2.1	20.8	12.5	10.4	8.3	2.1	6.3	100.0	(48)
만 20-29세	32.6	19.7	22.5	9.9	5.8	3.5	0.9	5.2	100.0	(463)
만 30-39세	33.6	18.0	24.3	9.5	6.5	4.0	1.3	2.8	100.0	(399)
만 40세 이상	29.3	16.0	33.3	5.3	2.7	9.3	1.3	2.7	100.0	(75)
자녀 연령($\chi^2=50.93^{***}$)										
3세 미만	33.5	10.2	26.9	7.2	9.6	3.3	1.5	7.8	100.0	(334)
3세 이상	32.7	21.8	22.4	10.8	4.3	4.9	0.9	2.2	100.0	(651)
거주 상황($\chi^2=20.84^{**}$)										
시설	28.6	16.9	21.2	14.8	3.7	5.3	1.6	7.9	100.0	(189)
재가	34.0	18.1	24.6	8.3	6.7	4.1	1.0	3.1	100.0	(796)
가족 구성($\chi^2=20.48^{**}$)										
모자녀	34.3	17.5	25.6	8.9	5.3	3.6	1.5	3.3	100.0	(722)
그 외	29.3	19.0	19.4	11.4	8.4	6.5	0.0	6.1	100.0	(263)
기초보장($\chi^2=30.33^{***}$)										
비수급	31.9	22.8	19.9	9.7	7.2	4.7	0.8	3.0	100.0	(527)
수급	34.3	12.2	28.6	9.4	4.8	3.9	1.5	5.2	100.0	(458)
경제활동($\chi^2=70.99^{***}$)										
안 함	34.8	9.2	26.1	11.1	7.1	4.9	1.1	5.8	100.0	(552)
함	30.7	28.9	21.2	7.6	4.8	3.7	1.2	1.8	100.0	(433)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기타: '건강·체력적 한계', '아이의 건강 문제·장애 등', '일-양육 병행이 힘들',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 '혼자 경제적인 부분과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것'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가 자녀를 잘 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53.3%가 잘 기르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뿐 아니라 모든 미혼모 응답자의 결과와 비교해도 비슷했다.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빈도로 보았을 때 엄마가 미성년인 경우 미취학 자녀를 매우 잘 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0.4%로 다른 연령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 연령이 3세 미만이고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상대 그룹과 비교해 잘 기르고 있는 편이라는 응답과 매우 잘 기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양상으로, 10대의 경우 아직 자녀 연령이 3세 미만인 경우가 많고, 시설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이 드러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재가 미혼모인 경우, 잘 기르고 있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 그룹과 비교해 높은 결과를 보인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잘 기르고 있다와 전혀 잘 기르고 있지 않다라는 응답이 각각 상대 그룹보다 높아서 어린 자녀를 둔 그룹의 경우 자신의 양육에 대한 생각을 극단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녀와 엄마로 구성된 가족보다는 그 외 형태의 가족이 좀 더 잘 기르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보장 수급을 받고 있는 그룹이 받지 않고 있는 그룹보다 자녀를 잘 기른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경제활동 세부 그룹에 따른 차이를 보면, 시간제근로를 하고 있는 엄마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전일제근로를 하고 있는 엄마들보다 자녀를 잘 못 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는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가 많아 시간적으로 자녀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고, 전일제근로를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시간제근로의 경우 일을 하면서도 경제수준이 높지는 않을 수 있어 시간과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아쉬움이 드러난 결과로 보인다.

〈표 4-17〉 미취학 자녀 양육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전혀 잘 기르고 있지 않다	별로 잘 기르고 있지 않은 편이다	잘 기르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 기르고 있다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5.9	37.5	52.6	3.9	100.0	(1,247)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6.1	36.3	53.3	4.3	100.0	(985)
모 연령						
만 15-19세	4.2	27.1	58.3	10.4	100.0	(48)
만 20-29세	7.3	37.6	50.8	4.3	100.0	(463)
만 30-39세	5.3	34.8	55.9	4.0	100.0	(399)
만 40세 이상	4.0	42.7	52.0	1.3	100.0	(75)
자녀 연령($\chi^2=21.89^{***}$)						
3세 미만	8.4	27.5	57.8	6.3	100.0	(334)
3세 이상	4.9	40.9	51.0	3.2	100.0	(651)
거주 상황($\chi^2=15.13^{**}$)						
시설	3.2	29.6	59.3	7.9	100.0	(189)
재가	6.8	37.9	51.9	3.4	100.0	(796)
가족 구성($\chi^2=11.33^*$)						
모자녀	6.5	39.1	50.1	4.3	100.0	(722)
그 외	4.9	28.9	62.0	4.2	100.0	(263)
기초보장($\chi^2=13.16^{**}$)						
비수급	7.2	39.3	50.9	2.7	100.0	(527)
수급	4.8	33.0	56.1	6.1	100.0	(458)
경제활동($\chi^2=16.49^*$)						
안 함	5.1	36.4	53.4	5.1	100.0	(552)
시간제근로	10.0	40.2	47.3	2.5	100.0	(241)
전일제근로	4.2	31.3	60.4	4.2	100.0	(192)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앞의 응답에서 미취학 자녀를 잘 기르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조사 참여자들에게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미취학 자녀 미혼모의 경우 본인이 심리, 정서적으로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37.8%로 나타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는 이유가 24.9%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인의 체력 때문인 경우도 21.3%로 나타나 엄마의 심리적, 신체적인 요인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는 자녀와 함께할 시간이 부족한 점과 아버지의 부재 등이 이유로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의 결과에서도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모 연령, 자녀 연령, 거주 상황, 가족 구성의 특성에서는 기타에 해당하는 비율이 낮아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구분할 수는 없다. 빈도 결과로 특성을 살펴보면,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본인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66.7%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매우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미성년 청소년 미혼모는 자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엄마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와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모두 엄마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두드러져 연령이 낮은 엄마들에 대한 심리·정서 집중 관리가 요구된다. 기초보장 비수급가족의 경우 엄마의 체력적 어려움과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부족으로 인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수급가족의 경우 엄마의 심리·정서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높게 나타나 가족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경제활동을 안 하거나 시간제근로 일을 하는 경우 전일제근로를 하는 경우보다 엄마의 심리·정서적, 체력적 문제, 경제적 문제가 자녀 양육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꼽힌 반면, 전일제근로를 하는 엄마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자녀 양육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4-18〉 미취학 자녀 양육을 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엄마가 심리, 정서적 으로 힘들어서	엄마가 체력적 으로 힘들어서	자녀와 함께할 시간이 부족해서	경제적 으로 어려워서	아버지의 부재로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36.3	20.3	12.2	27.5	2.8	0.9	100.0	(1,247)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37.8	21.3	12.0	24.9	3.1	1.0	100.0	(418)
모 연령								
만 15-19세	66.7	26.7	0.0	6.7	0.0	0.0	100.0	(15)
만 20-29세	35.1	22.6	15.4	21.6	3.8	1.4	100.0	(208)
만 30-39세	38.8	16.9	10.0	30.6	3.1	0.6	100.0	(160)
만 40세 이상	37.1	31.4	5.7	25.7	0.0	0.0	100.0	(35)
자녀 연령								
3세 미만	40.0	27.5	7.5	21.7	3.3	0.0	100.0	(120)
3세 이상	36.9	18.8	13.8	26.2	3.0	1.3	100.0	(298)
거주 상황								
시설	50.0	14.5	11.3	22.6	1.6	0.0	100.0	(62)
재가	35.7	22.5	12.1	25.3	3.4	1.1	100.0	(356)
가족 구성								
모자녀	37.1	21.6	10.6	26.4	3.0	1.2	100.0	(329)
그 외	40.4	20.2	16.9	19.1	3.4	0.0	100.0	(89)
기초보장($\chi^2=38.81^{***}$)								
비수급	32.2	24.5	17.6	20.8	4.9	0.0	100.0	(245)
수급	45.7	16.8	4.0	30.6	0.6	2.3	100.0	(173)
경제활동								
안 함	43.7	23.1	2.2	27.5	2.2	1.3	100.0	(229)
시간제근로	38.0	21.5	13.2	23.1	3.3	0.8	100.0	(121)
전일제근로	17.6	14.7	42.6	19.1	5.9	0.0	100.0	(68)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기타: '아이 발달이 늦은 것이 자기 탓 같아서', '복합적인 이유', '아이의 건강상 문제'

미취학 자녀가 잘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응답자 중 43.4%가 양육·교육에 드는 비용 지원이라고 응답했고, 근무시간 유연화, 휴가 등 시간 확보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3.9%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아이돌봄 시설이나 서비스 지원이 12.1%, 아이 심리 상담 서비스 7.2%, 엄마 심리 상담 서비스 3.9%,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 없는 환경이 3.7%로 나타나 아동 양육비 및 돌봄 관련 시설과 시간 확보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뿐 아니라 모든 조사 대상 미혼모의 응답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미성년 미혼모는 양육비용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수로 나타났고, 자녀 연령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서는 근무시간 유연화 등 시간 확보 지원에 대한 욕구가 자녀 연령이 낮고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와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보다 재가 미혼모의 경우는 양육 및 교육에 드는 비용 지원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시설에 거주하면서 받게 되는 지원이 있을 수 있고 재가 미혼모가족의 자녀의 연령이 더 높을 수 있는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심층인터뷰를 통해서는 진심으로 아픔과 어려움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엄마의 심리·정서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알 수 있었다.

“제가 심리적으로 좀... 많이 불안정한 것 같아요. (눈물 흘리며)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건 한 번인가 가봤었는데, 정말 일적으로 하시고 안 들어 주신다는 게 눈에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가기 싫어도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요. 그런 귀찮아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B5)

〈표 4-19〉 미취학 자녀가 잘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단위: %, 명)

구분	양육·교육에 드는 비용 지원	아이 돌봄 시설·서비스	아이 심리 상담 서비스	엄마 심리 상담 서비스	아이 양육·교육 방법·도움에 대한 교육	양육·교육 유연화, 휴가 등 시간 확보 지원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 없는 환경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44.6	10.6	7.7	4.0	5.9	23.9	3.4	100.0	(1,247)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43.4	12.1	7.2	3.9	6.0	23.9	3.7	100.0	(985)
모 연령($\chi^2=28.31$)									
만 15-19세	54.2	12.5	2.1	4.2	8.3	12.5	6.3	100.0	(48)
만 20-29세	41.3	13.6	9.1	3.9	7.3	21.0	3.9	100.0	(463)
만 30-39세	44.6	11.3	5.8	4.0	5.0	26.8	2.5	100.0	(399)
만 40세 이상	42.7	6.7	6.7	2.7	1.3	33.3	6.7	100.0	(75)
자녀 연령($\chi^2=13.66^*$)									
3세 미만	47.3	14.4	5.7	3.9	5.4	18.6	4.8	100.0	(334)
3세 이상	41.3	10.9	8.0	3.8	6.3	26.6	3.1	100.0	(651)
거주 상황($\chi^2=13.99^*$)									
시설	35.4	15.9	7.9	5.8	9.5	21.7	3.7	100.0	(189)
재가	45.2	11.2	7.0	3.4	5.2	24.4	3.6	100.0	(796)
가족 구성($\chi^2=11.52$)									
모자녀	44.6	12.7	6.1	3.2	6.1	24.1	3.2	100.0	(722)
그 외	39.9	10.3	10.3	5.7	5.7	23.2	4.9	100.0	(263)
기초보장($\chi^2=12.42$)									
비수급	40.2	14.2	7.2	5.1	5.7	24.3	3.2	100.0	(527)
수급	46.9	9.6	7.2	2.4	6.3	23.4	4.1	100.0	(458)
경제활동($\chi^2=10.06$)									
안 함	45.1	12.3	6.5	3.8	6.3	21.7	4.2	100.0	(552)
시간제근로	42.7	12.9	7.9	5.0	4.6	24.1	2.9	100.0	(241)
전일제근로	39.1	10.4	8.3	2.6	6.8	29.7	3.1	100.0	(192)
경제활동($\chi^2=5.31$)									
안 함	45.1	12.3	6.5	3.8	6.3	21.7	4.2	100.0	(552)
함	41.1	11.8	8.1	3.9	5.5	26.6	3.0	100.0	(433)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2절 경제활동 및 소득·소비

이 절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경제활동 및 소득·소비에 대해 알아본다. 이 절은 제4장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특성을 알아보는 차원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데이터를 활용해 총 985명의 데이터를 분석한다.

1. 경제활동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면, 안 하는 경우가 56.0%,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중 시간제근로는 24.5%, 전일제근로는 19.5%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를 조사 대상자 전체와 비교해 보면,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경제활동을 안 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엄마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약 90.0%로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법적 기준에 따라 아르바이트 정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 연령이 3세 미만인 경우는 경제활동을 안 하는 비율이 74.3%로 높았고, 전일제근로를 하는 경우는 6.6%로 일을 하더라도 시간제근로를 더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재가 미혼모가족의 경우 시간제근로를 하는 비율이 27.5%로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의 11.6%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간 동안 자녀가 돌봄 시설에서 지내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반대로 경제활동을 함으로 인해 자녀를 시설에 보내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초보장 수급을 받는 경우는 제도의 특성상 경제활동을 안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20〉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제활동

(단위: %, 명)

구분	경제활동 안 함	경제활동 함		계	(명)
		시간제근로	전일제근로		
조사 대상 전체	49.7	26.2	24.1	100.0	(1,247)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56.0	24.5	19.5	100.0	(985)
모 연령($\chi^2=43.01^{***}$)					
만 15-19세	89.6	10.4	0.0	100.0	(48)
만 20-29세	58.5	25.7	15.8	100.0	(463)
만 30-39세	50.4	23.1	26.6	100.0	(399)
만 40세 이상	49.3	33.3	17.3	100.0	(75)
자녀 연령($\chi^2=78.90^{***}$)					
3세 미만	74.3	19.2	6.6	100.0	(334)
3세 이상	46.7	27.2	26.1	100.0	(651)
거주 상황($\chi^2=21.02^{***}$)					
시설	66.7	11.6	21.7	100.0	(189)
재가	53.5	27.5	19.0	100.0	(796)
주된 돌봄($\chi^2=92.53^{***}$)					
기관 돌봄	46.5	28.4	25.1	100.0	(697)
그 외	79.2	14.9	5.9	100.0	(288)
가족 구성($\chi^2=3.01$)					
모자녀	54.4	25.6	19.9	100.0	(722)
그 외	60.5	21.3	18.3	100.0	(263)
기초보장($\chi^2=89.86^{***}$)					
비수급	42.3	30.4	27.3	100.0	(527)
수급	71.8	17.7	10.5	100.0	(458)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는 근무시간이 유연한 일자리로 응답자의 29.0%가 선택하였고, 미혼모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없는 일자리가 25.7%, 급여가 높은 일자리가 22.1%로 나타났다. 동료들끼리 사이좋고 편안한 분위기의 일자리라고 선택한 경우도 14.1%로 편견 및 차별 없는 일자리라고 응답한 비율과 더해서 생각해 보면, 일자리의 분위기도 미혼모들이 희망

하는 일자리 조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엄마의 연령에 따라서 보면, 본인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에 대한 응답이 10대 미성년의 경우 12.5%, 40대 이상의 경우에서 14.7%로 20, 30대 응답에서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난 특성을 보인다. 반면, 20, 30대 미혼모의 경우 편견이나 차별 없는 일자리를 선택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30, 40대 이상에서는 유연한 근무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기초보장 비수급가족은 근무시간이 유연한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수급 가족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에 대한 편견 없는 일자리와 유연한 근무시간에 대한 욕구가 높고, 경제활동을 안 하는 그룹은 분위기 좋은 일자리와 급여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가 가장 희망하는 일자리(1순위)

(단위: %, 명)

구분	동료들끼리 사이좋고 편한 분위기 일자리	미혼모에 대한 편견/차별 없는 일자리	본인의 발전 가능성 높은 일자리	급여 높은 일자리	근무시간 유연한 일자리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15.3	24.1	9.8	22.2	28.2	0.4	100.0	(1,247)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14.1	25.7	8.7	22.1	29.0	0.3	100.0	(985)
모 연령								
만 15-19세	22.9	20.8	12.5	29.2	14.6	0.0	100.0	(48)
만 20-29세	14.7	28.3	7.3	22.7	27.0	0.0	100.0	(463)
만 30-39세	12.8	24.6	8.8	21.3	32.1	0.5	100.0	(399)
만 40세 이상	12.0	18.7	14.7	18.7	34.7	1.3	100.0	(75)
자녀 연령($x^2=3.10$)								
3세 미만	13.2	26.3	9.6	24.3	26.3	0.3	100.0	(334)
3세 이상	14.6	25.3	8.3	21.0	30.4	0.3	100.0	(651)
거주 상황($x^2=2.01$)								
시설	15.9	26.5	9.5	21.7	26.5	0.0	100.0	(189)
재가	13.7	25.5	8.5	22.2	29.6	0.4	100.0	(796)
가족 구성($x^2=6.57$)								
모자녀	15.5	26.1	8.3	22.1	27.5	0.4	100.0	(697)
그 외	10.8	24.7	9.7	22.2	32.6	0.0	100.0	(288)
기초보장($x^2=25.23^{***}$)								
비수급	13.3	24.5	8.7	22.3	30.7	0.4	100.0	(722)
수급	16.3	28.9	8.7	21.7	24.3	0.0	100.0	(263)

구분	동료들끼리 사이좋고 편한 분위기 일자리	미혼모에 대한 편견/차별 없는 일자리	본인의 발전 가능성 높은 일자리	급여 높은 일자리	근무시간 유연한 일자리	기타	계	(명)
경제활동($\chi^2=19.94^{**}$)								
안 함	17.6	22.4	9.3	24.5	25.6	0.6	100.0	(527)
함	10.0	29.5	8.1	19.4	33.0	0.0	100.0	(458)

-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기타: '안정적인 정년이 보장되는 일자리'

가.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는 상용근로자인 경우가 41.6%, 임시근로자인 경우 37.2%, 일용근로자는 15.0%, 자영업자는 4.6%, 무급가족종사자는 1.6%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에서는 임시근로자의 비율이 다른 연령 그룹보다 높게 나타난 편이고, 자녀 연령이 어린 경우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낮았다. 시설 생활을 하는 경우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더 높았고, 자녀를 주간에 기관에 맡기지 않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본인이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 보인다. 기초보장 지원을 받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표 4-22〉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46.4	32.5	14.5	4.9	1.6	100.0	(627)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41.6	37.2	15.0	4.6	1.6	100.0	(433)
엄마 연령							
만 15-19세	0.0	100.0	0.0	0.0	0.0	100.0	(5)
만 20-29세	39.6	43.8	12.0	2.1	2.6	100.0	(192)
만 30-39세	44.9	29.8	17.7	7.1	0.5	100.0	(198)
만 40세 이상	39.5	34.2	18.4	5.3	2.6	100.0	(38)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	(명)
자녀 연령							
3세 미만	23.3	47.7	18.6	8.1	2.3	100.0	(86)
3세 이상	46.1	34.6	14.1	3.7	1.4	100.0	(347)
거주 상황							
시설	55.6	30.2	7.9	4.8	1.6	100.0	(63)
재가	39.2	38.4	16.2	4.6	1.6	100.0	(370)
주된 돌봄							
기관 돌봄	42.6	37.8	13.9	4.3	1.3	100.0	(373)
그 외	35.0	33.3	21.7	6.7	3.3	100.0	(60)
기초보장							
비수급	45.4	38.2	10.9	4.3	1.3	100.0	(304)
수급	32.6	34.9	24.8	5.4	2.3	100.0	(129)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 중 일하는 경우 그 분야를 보면, 사무종사자와 서비스종사자의 비율이 각각 20.0% 이상으로 높은 편이고, 판매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각각 약 15.0% 비율이 차지했다.

40세 이상에서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는 단순노무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높게(24.4%) 나타났다.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높았고, 판매종사자의 비율은 낮은 경향이 있었다. 자녀를 기관에 맡기지 않는 경우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21.7%)과 판매종사자의 비율(21.7%)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기초보장 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높고, 사무종사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상황에 따라 일하는 분야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4-23〉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의 일자리 분야

(단위: %, 명)

구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 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15.3	24.0	26.9	15.3	2.7	1.1	14.7	100.0	(621)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15.1	22.3	27.9	16.0	2.6	1.4	14.7	100.0	(430)
모 연령									
만 15-19세	0.0	20.0	40.0	20.0	0.0	0.0	20.0	100.0	(5)
만 20-29세	14.7	22.6	26.3	16.3	1.6	1.6	16.8	100.0	(190)
만 30-39세	16.2	22.3	27.9	16.8	3.0	1.0	12.7	100.0	(197)
만 40세 이상	13.2	21.1	34.2	10.5	5.3	2.6	13.2	100.0	(38)
자녀 연령									
3세 미만	15.1	16.3	22.1	17.4	3.5	1.2	24.4	100.0	(86)
3세 이상	15.1	23.8	29.4	15.7	2.3	1.5	12.2	100.0	(344)
거주 상황($\chi^2=17.56^{**}$)									
시설	30.2	19.0	27.0	7.9	3.2	3.2	9.5	100.0	(63)
재가	12.5	22.9	28.1	17.4	2.5	1.1	15.5	100.0	(367)
주된 돌봄($\chi^2=7.33$)									
기관 돌봄	15.4	23.0	28.4	15.1	3.0	1.6	13.5	100.0	(370)
그 외	13.3	18.3	25.0	21.7	0.0	0.0	21.7	100.0	(60)
기초보장($\chi^2=15.14^*$)									
비수급	16.3	25.9	27.2	14.6	3.0	1.3	11.6	100.0	(301)
수급	12.4	14.0	29.5	19.4	1.6	1.6	21.7	100.0	(129)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에서 '관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타' 항목은 각각 0.2%(1명)로 표 항목에서 제외함(조사 대상 전체에서는, 관리자는 0.6%, 나머지 항목은 각각 0.2%로 응답).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는 미혼모 중 미성년의 경우 모두 임시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일자리 분야 또한 제한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종사상 지위와 일자리 분야 분석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의 분포를 제시하는 의미로 엄마의 연령별(모 연령) 분석을 포함하였다. 하지만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 중 미성년은 5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 연령의 분석에 무리가 있어, 이어지는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에 대한 분석에서는 모 연령 변수를 제외한다.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는 평균적으로 주당 30.1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가 31.2%로 가장 많았고, 20-40시간 미만이 25.6%, 40시간 초과는 24.2%로 나타났다. 주당 40시간 일하는 경우가 18.9%로 가장 낮았다.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 중 자녀가 3세 미만이면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자녀가 만 3세 미만인 경우는 2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가 39.5%이고, 자녀가 만 3세 이상이 되면 20-40시간 미만, 40시간, 40시간 초과 근로의 비율이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보다 고르게 분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자녀의 돌봄 방식과 기초보장 수급 여부이다. 주간에 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경우는 근로시간이 그 외의 방법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보다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이는 반대로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에 주간 동안 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비율이 나타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제도 조건상 기초보장 수급을 받는 경우는 일하는 시간이 20시간 미만인 경우가 46.5%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표 4-24〉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의 주당 근로시간

(단위: %, 명, 시간)

구분	20시간 미만	20-40시간 미만	40시간	40시간 초과	계	(명)	평균 (시간)
조사 대상 전체	27.3	26.3	20.1	26.3	100.0	(627)	31.5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31.2	25.6	18.9	24.2	100.0	(433)	30.1
자녀 연령($\chi^2=5.44$)							
3세 미만	39.5	27.9	14.0	18.6	100.0	(86)	26.8
3세 이상	29.1	25.1	20.2	25.6	100.0	(347)	30.9
거주 상황($\chi^2=2.94$)							
시설	30.2	19.0	25.4	25.4	100.0	(63)	30.3
재가	31.4	26.8	17.8	24.1	100.0	(370)	30.0

구분	20시간 미만	20-40시간 미만	40시간	40시간 초과	계	(명)	평균 (시간)
주된 돌봄($\chi^2=7.93^*$)							
기관 돌봄	29.8	24.4	19.8	26.0	100.0	(373)	30.7
그 외	40.0	33.3	13.3	13.3	100.0	(60)	26.2
기초보장($\chi^2=22.89^{***}$)							
비수급	24.7	28.0	19.1	28.3	100.0	(304)	32.6
수급	46.5	20.2	18.6	14.7	100.0	(129)	24.2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서 일을 하지만, 전일제근로를 하지 않고 시간제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엄마를 대상으로 전일제근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본 결과,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들은 71.4%가 육아 및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응답해 가장 많은 이유로 나타났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은 9.1%, 전일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7.5%로 나타났다. 다른 일자리와 병행을 하기 위해 전일제근로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본 조사 응답자 중 시간제 근로를 하는 모든 응답자 중에서는 2.1%였지만, 미취학 아동을 둔 엄마는 이러한 응답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가 육아나 자녀 교육 때문에 전일제근로를 하지 않는 비율이 조사 대상 전체보다 높았다.

전일제근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어 통계적 유의미성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다른 그룹과 비교해 육아 및 자녀교육 때문에 시간제근로를 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학업과 병행(13.6%) 또는 직업훈련과 병행(13.6%)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보장 수급을 받는 경우가 육아나 자녀 교육 때문에 전일제근로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4-25〉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가 전일제근로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집안 일이 많아서	육아/자녀 교육 때문	건강상 이유	여가를 즐기 위해	학업 병행을 위해	직업훈련 병행을 위해	전일제 직장 구하기 어려워서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1.8	66.7	9.2	0.6	5.2	2.8	8.9	2.8	100.0	(327)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2.5	71.4	9.1	0.8	5.0	2.5	7.5	1.2	100.0	(241)
자녀 연령										
3세 미만	3.1	75.0	10.9	0.0	1.6	3.1	6.3	0.0	100.0	(64)
3세 이상	2.3	70.1	8.5	1.1	6.2	2.3	7.9	1.7	100.0	(177)
거주 상황										
시설	0.0	59.1	4.5	0.0	13.6	13.6	9.1	0.0	100.0	(22)
재가	2.7	72.6	9.6	0.9	4.1	1.4	7.3	1.4	100.0	(219)
주된 돌봄										
기관 돌봄	3.0	71.2	8.6	1.0	5.6	2.5	7.1	1.0	100.0	(198)
그 외	0.0	72.1	11.6	0.0	2.3	2.3	9.3	2.3	100.0	(43)
가족 구성										
모자녀	2.7	71.9	9.2	0.5	3.8	2.2	8.1	1.6	100.0	(185)
그 외	1.8	69.6	8.9	1.8	8.9	3.6	5.4	0.0	100.0	(56)
기초보장										
비수급	3.8	68.8	9.4	1.3	4.4	2.5	10.0	0.0	100.0	(160)
수급	0.0	76.5	8.6	0.0	6.2	2.5	2.5	3.7	100.0	(81)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프리랜서로 일함', '부모님 병간호', '직장비수기'

3) 조사 대상 전체(327명)에서는 '다른 일자리와 병행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선택한 비율이 2.1%였으나,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에서는 0.0%로 나타나 제외(조사 대상 전체에서의 계 100.0% 중에는 2.1%가 제외된 수치임)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는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는 미혼모 응답자 중 52.2%가 대체로 어렵다고 응답했고, 32.1%는 매우 어렵다고 응답했다.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40.7%로 더욱 높은 경향이 있고,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자녀 돌봄 방식에서 나타났는데, 자녀를 시설에 맡기는 경우는 대체로 어렵다고 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매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는 그 외의 방식으로 돌보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26〉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의 일·가정 양립 어려운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음	별로 없음	대체로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1.4	15.3	54.2	29.0	100.0	(627)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1.8	13.9	52.2	32.1	100.0	(433)
자녀 연령($\chi^2=3.79$)						
3세 미만	1.2	12.8	45.3	40.7	100.0	(86)
3세 이상	2.0	14.1	53.9	30.0	100.0	(347)
거주 상황($\chi^2=5.34$)						
시설	4.8	15.9	55.6	23.8	100.0	(63)
재가	1.4	13.5	51.6	33.5	100.0	(370)
주된 돌봄($\chi^2=10.48^*$)						
기관 돌봄	1.9	14.8	54.0	29.3	100.0	(372)
그 외	1.6	8.2	41.0	49.2	100.0	(61)
가족 구성($\chi^2=4.05$)						
모자녀	1.8	14.9	49.5	33.7	100.0	(329)
그 외	1.9	10.6	60.6	26.9	100.0	(104)
기초보장($\chi^2=1.03$)						
비수급	2.0	13.5	53.6	30.9	100.0	(304)
수급	1.6	14.7	48.8	34.9	100.0	(129)
근로유형						
시간제	2.1	14.1	44.8	39.0	100.0	(241)
전일제	1.6	13.5	61.5	23.4	100.0	(192)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나.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지 않는 엄마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가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알아보면, 육아 때문이라고 응답한 조사 참가자가 5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건강, 학업 등이 이유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이 3세 미만인 경우는 육아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2.6%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자녀 연령이 3세 이상인 경우는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학업 때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와 자녀와 엄마 이외의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학업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6.7%, 13.2%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7〉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가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가사 때문	육아 때문	부모/ 가족 돌봄 때문	가족 반대 때문	건강상 이유	적당한 일자리 없어서	근처에 일자리 없어서	교육, 기술, 경험 부족	일할 필요 없어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	다니던 직장 휴업 등	미혼모 라는 이유로 관고 사직	학업 때문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0.3	53.1	1.5	0.8	12.6	10.2	1.8	2.9	0.3	0.0	1.9	0.3	8.4	6.0	100.0	(620)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0.4	57.2	1.4	0.9	8.9	9.8	1.8	3.3	0.4	0.0	1.4	0.2	8.3	6.0	100.0	(552)
자녀 연령																
3세 미만	0.0	72.6	1.2	1.2	2.0	5.2	2.0	3.6	0.8	0.0	0.8	0.4	6.0	4.0	100.0	(248)
3세 이상	0.7	44.7	1.6	0.7	14.5	13.5	1.6	3.0	0.0	0.0	2.0	0.0	10.2	7.6	100.0	(304)
거주 상황																
시설	0.0	54.0	0.0	0.0	4.0	7.9	0.8	7.9	0.0	0.0	0.0	0.0	16.7	8.7	100.0	(126)
재가	0.5	58.2	1.9	1.2	10.3	10.3	2.1	1.9	0.5	0.0	1.9	0.2	5.9	5.2	100.0	(426)
가족 구성																
모자녀	0.5	57.5	1.8	1.3	10.9	9.9	1.5	2.3	0.0	0.0	1.8	0.0	6.4	6.1	100.0	(393)
그 외	0.0	56.6	0.6	0.0	3.8	9.4	2.5	5.7	1.3	0.0	0.6	0.6	13.2	5.7	100.0	(159)
기초보장																
비수급	0.4	55.2	2.2	2.2	4.5	12.6	4.0	2.7	0.9	0.0	2.2	0.4	8.5	4.0	100.0	(223)
수급	0.3	58.7	0.9	0.0	11.9	7.9	0.3	3.6	0.0	0.0	0.9	0.0	8.2	7.3	100.0	(329)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자립·취업 준비 중', '수입 발생 시 수혜가 사라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 '미혼모 시설에서 지내고 있어서', '실업급여', '아이의 건강 문제·장애 등 때문에', '임신 중',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휴직 중'

3)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 항목은 응답 사례가 없으므로 제외(조사대상 전체인 경우에도 0.0%임.)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의 앞으로 취업 의향을 알아본 결과, 조사 응답자의 대부분(93.3%)이 취업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기초보장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취업 의향이 없다고 응답

한 비율이 12.6%로 수급자의 2.7%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28〉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지 않는 엄마의 향후 취업 의향

(단위: %, 명)

구분	의향 없음	의향 있음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6.9	93.1	100.0	(620)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6.7	93.3	100.0	(552)
모 연령				
만 15-19세	18.6	81.4	100.0	(43)
만 20-29세	6.6	93.4	100.0	(271)
만 30-39세	4.5	95.5	100.0	(201)
만 40세 이상	5.4	94.6	100.0	(37)
자녀 연령($\chi^2=1.34$)				
3세 미만	8.1	91.9	100.0	(248)
3세 이상	5.6	94.4	100.0	(304)
거주 상황($\chi^2=1.95$)				
시설	4.0	96.0	100.0	(126)
재가	7.5	92.5	100.0	(426)
주된 돌봄				
가족 구성($\chi^2=1.58$)				
모자녀	5.9	94.1	100.0	(393)
그 외	8.8	91.2	100.0	(159)
기초보장($\chi^2=20.50^{***}$)				
비수급	12.6	87.4	100.0	(223)
수급	2.7	97.3	100.0	(329)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지 않는 엄마가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정부지원금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5.1%였고, 가계 수입이 없어서가 27.2%,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22.9%,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10.7% 등으로 나타났다.

엄마의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 독립을 위해 취업하려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고, 엄마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계수입이 없어서라는 이유와 정부지원금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라는 이유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

향을 찾을 수 있다. 엄마의 연령에 따라 경제적 독립을 이룬 비율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 경제적 독립을 위해 취업하려 한다는 응답이 18.2%로 높게 나타난 것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아직은 독립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 연령이 낮은 미혼모가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향후 취업 의향에 대한 응답에서 일하지 않는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중 기초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안 받고 있는 경우보다 취업 의향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취업 의향과 취업하려는 이유는 자립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초보장 지원 수급 여부에 따른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보면, 기초보장 지원과 관계없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과 가계수입 부족, 정부지원금으로 부족의 이유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그 순위는 달랐는데, 기초생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취업을 하려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4.1%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가계수입이 없어서, 자녀 양육 및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급을 받지 않는 경우는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2.8%로 가장 높고, 가계수입이 없어서, 정부지원금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독립을 위해 취업하려 한다는 비율도 12.3%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계수입이 없다는 것은 공통이라 생각했을 때 기초보장 지원을 받는 경우는 현재 받는 지원금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취업을 하려 하고, 기초보장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는 자녀 양육비나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취업한다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기초보장 지원을 받으며 일하지 않는 경우 생활이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기초보장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는 국가적 지원 이외에 다른 수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는 최소한의 생계보다는 자녀 양육 및 교육비용이나 경제적 독립 등을 위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다른 양상임을 알 수 있다.

〈표 4-29〉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지 않는 엄마가 향후 취업하려는 가장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본인이 별지 않으면 가계 수입이 없어서	정부 지원금 으로 생활비 부족	자녀 양육/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서	집에 있는 것이 심심 하고 답답 해서	본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	자녀/ 가족 으로 부터 인정 받기 위해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후 대책 마련을 위해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28.2	35.5	21.8	0.5	1.7	1.9	10.1	0.2	100.0	(577)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27.2	35.1	22.9	0.4	1.4	2.1	10.7	0.2	100.0	(515)
모 연령										
만 15-19세	11.4	31.4	34.3	0.0	0.0	5.7	17.1	0.0	100.0	(35)
만 20-29세	25.3	32.4	25.3	0.0	2.4	2.4	12.3	0.0	100.0	(253)
만 30-39세	29.7	38.5	20.3	0.5	0.5	1.0	8.9	0.5	100.0	(192)
만 40세 이상	42.9	40.0	8.6	2.9	0.0	2.9	2.9	0.0	100.0	(35)
자녀 연령										
3세 미만	23.7	36.8	24.6	0.0	1.3	2.6	11.0	0.0	100.0	(228)
3세 이상	30.0	33.8	21.6	0.7	1.4	1.7	10.5	0.3	100.0	(287)
거주 상황										
시설	20.7	32.2	24.8	0.0	0.8	3.3	18.2	0.0	100.0	(121)
재가	29.2	36.0	22.3	0.5	1.5	1.8	8.4	0.3	100.0	(394)
기초보장										
비수급	29.7	20.5	32.8	1.0	1.5	2.1	12.3	0.0	100.0	(195)
수급	25.6	44.1	16.9	0.0	1.3	2.2	9.7	0.3	100.0	(320)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소득 및 소비

조사에 참여한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126만 2000 원으로 나타났다. 5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의 소득구간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9.6%로 나타났다.

엄마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월평균 소득액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0대 미혼모가족의 경우 월평균 소득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1.1%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이 3세 미만의 경우는 월소득이 105만 5000원인 데 반해, 자녀 연령이 3세 이상인 경우는 136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월평균 소득액이 낮았다.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가족 구성이 자녀와 엄마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보다 그 외 구성원이 있는 경우 오히려 월평균 소득이 작게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정부 및 기관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모두 포함한 월소득을 조사했기 때문에 그 외 가족이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분석과 해석이 요구된다. 조사된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 중 기초보장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는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가 22.0%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수급자 가족의 경우 50만~150만 원 미만 구간에 조사 응답자의 80.1%가 포함되어 있다. 수급가족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16만 9000원으로 비수급가족의 134만 8000원과 차이를 보였다. 경제활동에 따라서는 당연히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조사 응답자 가족 중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 월 100만 원이 안 되는 수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일을 하는 경우 162만 9000원의 월평균 수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의 월평균 소득액(경제적 지원 포함)

(단위: %, 명)

구분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계	(명)	평균 금액 (만 원)
조사 대상 전체	9.5	27.9	29.9	17.6	15.0	100.0	(1,196)	131.1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10.6	30.1	29.5	15.9	13.8	100.0	(941)	126.2
모 연령($\chi^2=40.67^{***}$)								
만 15-19세	31.1	24.4	40.0	2.2	2.2	100.0	(45)	79.7
만 20-29세	11.1	33.4	26.6	16.0	12.9	100.0	(443)	121.5
만 30-39세	8.5	27.2	30.8	16.8	16.6	100.0	(386)	134.8
만 40세 이상	6.0	28.4	34.3	19.4	11.9	100.0	(67)	138.6
자녀 연령($\chi^2=43.61^{***}$)								
3세 미만	17.0	32.7	32.7	9.0	8.7	100.0	(312)	105.5
3세 이상	7.5	28.8	28.0	19.4	16.4	100.0	(629)	136.4
거주 상황($\chi^2=26.01^{***}$)								
시설	17.8	38.9	21.1	11.7	10.6	100.0	(180)	117.2
재가	8.9	28.0	31.5	17.0	14.6	100.0	(761)	128.3
가족 구성($\chi^2=26.30^{***}$)								
모자녀	8.4	28.0	32.6	16.5	14.6	100.0	(693)	128.9
그 외	16.9	35.9	21.0	14.5	11.7	100.0	(248)	118.4
기초보장($\chi^2=159.94^{***}$)								
비수급	15.8	22.2	18.3	21.8	22.0	100.0	(487)	134.8
수급	5.1	38.5	41.6	9.7	5.1	100.0	(454)	116.9
경제활동($\chi^2=298.81^{***}$)								
안 함	16.3	43.1	33.2	5.4	1.9	100.0	(515)	95.7
함	3.8	14.3	25.1	28.6	28.2	100.0	(426)	162.9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무응답은 제외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알려져 있는 미혼모의 소득액보다 적어 경제적 어려움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신문에서 한부모들 평균소득이 219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 누가 219만 원을 버나요? 차라리 한부모랑 미혼모랑 구분 지었으면 좋겠어요.”(B3)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이 현재 저축을 하는지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53.1%는 저축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46.9%가 저축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저축을 안 하는 비율이 66.7%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이 3세 미만인 경우가 3세 이상인 경우보다 저축을 안 하고 있으며,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저축하고 있는 비율이 70.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시설 거주 시 저축을 필수 조건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 저축할 여유가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저축을 안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7%로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볼 수 있다.

〈표 4-31〉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의 현재 저축(예금, 적금 등)을 하고 있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저축 안 함	저축함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51.4	48.6	100.0	(1,247)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53.1	46.9	100.0	(985)
엄마 연령($\chi^2=5.03$)				
만 15-19세	66.7	33.3	100.0	(48)
만 20-29세	50.5	49.5	100.0	(463)
만 30-39세	54.4	45.6	100.0	(399)
만 40세 이상	53.3	46.7	100.0	(75)
자녀 연령($\chi^2=3.91^*$)				
3세 미만	57.5	42.5	100.0	(334)
3세 이상	50.8	49.2	100.0	(651)
거주 상황($\chi^2=54.07^{***}$)				
시설	29.1	70.9	100.0	(189)
재가	58.8	41.2	100.0	(796)
가족 구성($\chi^2=3.33$)				
모자녀	54.8	45.2	100.0	(722)
그 외	48.3	51.7	100.0	(263)

구분	저축 안 함	저축함	계	(명)
기초보장($\chi^2=1.38$)				
비수급	54.8	45.2	100.0	(527)
수급	51.1	48.9	100.0	(458)
경제활동($\chi^2=29.01^{***}$)				
안 함	60.7	39.3	100.0	(552)
함	43.4	56.6	100.0	(433)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 중 저축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엄마들에게 그 저축의 용도를 알아본 결과, 조사 응답자의 43.1%는 향후 자녀 양육 및 교육비를 위한 저축이라고 응답하였고, 38.3%는 거주지 마련을 위한 비용이라고 응답하였다. 비상시를 위한 비용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도 16.0%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 중 40세 이상에서는 향후 자녀 양육 및 교육비로 저축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에서는 거주지 마련 비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동일하게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40대 엄마의 저축 용도와 20대 엄마의 저축 용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대 이상이지만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는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현실을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거주지 마련 비용으로 저축하는 비율이 64.2%로 재가 미혼모의 경우보다 높고, 재가 미혼모의 경우는 20.7%가 비상시를 위한 비용이라고 응답해 시설 밖에서 자녀와 살고 있는 경우 비상 상황에 대한 불안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가족 구성이 엄마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자녀와 본인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를 스스로 더욱 철저히 해야 하는 심리적, 실제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초보장 수급가족의 경우 비상시를 위한 용도와 거주지

마련을 위한 용도의 비율이 비수급가족보다 높다. 비수급가족 과반수가 향후 자녀 양육 및 교육비로 저축을 하고 있다는 응답과 비교해 보면, 미취학 자녀를 둔 수급가족은 일상 생활에서 아직 안정되지 않은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비수급가족과 비교해 자녀의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4-32〉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의 현재 저축(예금, 적금 등)용도

(단위: %, 명)

구분	향후 자녀 양육 및 교육비	거주지 마련 비용	노후 준비 비용	비상시를 위한 비용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44.7	34.8	1.8	17.0	1.7	100.0	(606)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43.1	38.3	1.1	16.0	1.5	100.0	(462)
모 연령							
만 15-19세	43.8	37.5	0.0	18.8	0.0	100.0	(16)
만 20-29세	38.4	43.7	0.9	16.2	0.9	100.0	(229)
만 30-39세	46.7	33.0	1.6	15.9	2.7	100.0	(182)
만 40세 이상	54.3	31.4	0.0	14.3	0.0	100.0	(35)
자녀 연령							
3세 미만	46.5	36.6	0.7	14.1	2.1	100.0	(142)
3세 이상	41.6	39.1	1.3	16.9	1.3	100.0	(320)
거주 상황							
시설	31.3	64.2	0.0	4.5	0.0	100.0	(134)
재가	47.9	27.7	1.5	20.7	2.1	100.0	(328)
가족 구성							
모자녀	42.3	35.9	0.9	18.7	2.1	100.0	(326)
그 외	44.9	44.1	1.5	9.6	0.0	100.0	(136)
기초보장							
비수급	52.1	33.2	1.7	11.8	1.3	100.0	(238)
수급	33.5	43.8	0.4	20.5	1.8	100.0	(224)
경제활동							
안 함	44.2	35.9	0.5	16.6	2.8	100.0	(217)
함	42.0	40.4	1.6	15.5	0.4	100.0	(245)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주택청약저축', '대출금 상환을 위해', '자립자금', '특별한 목적 없음'

미취학 자녀를 둔 조사 대상자 가족 중 부채가 있는 비율은 57.6%이고 없는 비율은 42.4%로 나타났다.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부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3.3%로 매우 높았고, 30대 이상의 그룹 응답자들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5.0%로 높았다. 엄마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59.8%)이 그 외의 가족 구성(51.3%)보다 부채가 있는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기초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6.4%인 데 반해, 비수급가족의 경우는 49.9%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부채가 있어 소득이 있어도 그 소득금액이 본인 가족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상황도 있었다.

“빛이 엄청 많은데 300만 원 벌면 뭐해요. 다 빚 갚아야 하는데.”(B4)

〈표 4-33〉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의 부채(지인 또는 가족에게 빌린 비용 포함) 여부

(단위: %, 명)

구분	부채 없음	부채 있음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39.8	60.2	100.0	(1,247)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42.4	57.6	100.0	(985)
엄마 연령($\chi^2=45.70^{***}$)				
만 15-19세	83.3	16.7	100.0	(48)
만 20-29세	45.8	54.2	100.0	(463)
만 30-39세	34.8	65.2	100.0	(399)
만 40세 이상	36.0	64.0	100.0	(75)
자녀 연령($\chi^2=2.79$)				
3세 미만	46.1	53.9	100.0	(334)
3세 이상	40.6	59.4	100.0	(651)
거주 상황($\chi^2=0.001$)				
시설	42.3	57.7	100.0	(189)
재가	42.5	57.5	100.0	(796)
가족 구성($\chi^2=5.71^*$)				
모자녀	40.2	59.8	100.0	(722)
그 외	48.7	51.3	100.0	(263)
기초보장($\chi^2=27.21^{***}$)				
비수급	50.1	49.9	100.0	(527)
수급	33.6	66.4	100.0	(458)
경제활동($\chi^2=2.74$)				
안 함	44.7	55.3	100.0	(552)
함	39.5	60.5	100.0	(433)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의 부채 평균 금액은 2072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이 엄마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의 부채 평균 금액은 2275만 원 정도였고, 그 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족은 1420만 원 정도로 가족 구성 형태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이 안 하는 그룹보다 부채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의 부채 총액

(단위: %, 명, 만 원)

구분	평균 금액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2,124.5	100.0	(567)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2,072.2	100.0	(567)
자녀 연령($t=0.54$)			
3세 미만	2,186.6	100.0	(180)
3세 이상	2,019.0	100.0	(387)
거주 상황($t=-1.57$)			
시설	1,603.7	100.0	(109)
재가	2,183.7	100.0	(458)
가족 구성($t=3.43^{***}$)			
모자녀	2,275.5	100.0	(432)
그 외	1,421.8	100.0	(135)
기초보장($t=1.89$)			
비수급	2,367.6	100.0	(263)
수급	1,816.6	100.0	(304)
경제활동($t=-2.33^{*}$)			
안 함	1,745.8	100.0	(305)
함	2,452.2	100.0	(262)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에게 부채가 있는 이유는 임신 전부터 있던 부채라는 응답이 31.6%로 가장 많았고, 임신 기간 동안 일을 못하면서 학자금, 생활비 또는 의료비로 빌린 돈이라는 응답이 21.5%로 나타났다. 출산 후 거주지 마련 비용인 경우가 16.6%, 출산 후 생활비나 의료비로 사용이 13.8% 등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이 3세 미만인 경우는 임신 전부터 있던 부채라는 응답이 조사 대상자의 42.8%로 매우 높았고, 자녀 연령이 3세 이상인 경우는 거주지 마련 비용이라는 응답이 20.2%로 높게 나타났다.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임신 전부터 있던 부채의 비율이 56.0%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재가 미혼모의 경우 거주지 마련을 위한 부채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출산 후 생활비 및 의료비 때문에 생긴 부채에 대한 응답은 시설 거주 미혼모가족의 경우 3.7%였으나, 재가 미혼모가족의 경우는 16.2%로 거주 상황에 따라 부채의 사유도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엄마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은 거주지 마련 비용과 생활비 및 의료비로 인한 부채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거주지 마련 비용으로 인한 부채인 비율(22.1%)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11.8%)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35〉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의 부채 사유

(단위: %, 명)

구분	임신 전부터 있던 부채	임신 기간 동안 일 못하면서 학자금, 생활비, 의료비로 빌린 돈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출산 후 거주지 마련 비용	출산 후 생활비 및 의료비	출산 후 본인 학비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26.9	20.4	8.4	18.8	16.0	1.1	8.5	100.0	(751)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31.6	21.5	6.5	16.6	13.8	0.9	9.2	100.0	(567)
자녀 연령($\chi^2=27.95^{***}$)									
3세 미만	42.8	22.2	2.8	8.9	12.2	1.7	9.4	100.0	(180)
3세 이상	26.4	21.2	8.3	20.2	14.5	0.5	9.0	100.0	(387)
거주 상황($\chi^2=65.41^{***}$)									
시설	56.0	15.6	4.6	1.8	3.7	1.8	16.5	100.0	(109)
재가	25.8	22.9	7.0	20.1	16.2	0.7	7.4	100.0	(458)
가족 구성($\chi^2=29.82^{***}$)									
모자녀	29.4	20.6	6.9	20.1	15.0	0.9	6.9	100.0	(432)
그 외	38.5	24.4	5.2	5.2	9.6	0.7	16.3	100.0	(135)

구분	임신 전부터 있던 부채	임신 기간 동안 일 못하면서 학자금, 생활비, 의료비로 빌린 돈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출산 후 거주지 마련 비용	출산 후 생활비 및 의료비	출산 후 본인 학비	기타	계	(명)
기초보장($\chi^2=11.67$)									
비수급	28.1	23.6	6.1	21.3	11.4	0.8	8.7	100.0	(263)
수급	34.5	19.7	6.9	12.5	15.8	1.0	9.5	100.0	(304)
경제활동($\chi^2=17.94^{**}$)									
안 함	37.7	20.3	5.9	11.8	13.8	1.0	9.5	100.0	(305)
함	24.4	22.9	7.3	22.1	13.7	0.8	8.8	100.0	(262)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항목으로 '사기·명의도용(12명)', '통신요금(9명)',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사업자금', '생활비', '학자금대출', '임신중단을 위한 대출', '소송비용', '아이 친부로 인한 부채 발생', '채무상속', '카드빚'으로 응답함.

부채를 진 곳은 신용카드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캐피탈, 저축은행, 보험회사나 증권회사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이 27.7%로 가장 많고, 대부업체, 사채업체, 휴대전화 소액대출 등 사금융에서 빌린 경우도 23.3%로 비교적 높았다. 은행에서 빌린 경우는 15.0%였고, 16.0%는 친구나 지인 등 주변사람에게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 미혼모의 경우 부모님이나 형제 같은 가족에게 빌린 경우가 10.3%로 시설 거주 가족의 경우(2.8%)보다 높았고,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비은행 금융기관과 사금융에서 빌린 비율이 각각 30.3%와 39.4%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 구성이 엄마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족보다 그 외의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가 가족과 주변사람에서 빌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고, 엄마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은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사금융에서 빌린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보장 지원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 사금융에서 빌린 비율과 일반 은행에서 빌린 비율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일반 은행에서 빌린 비율은 수급을 받지 않는 가족이 21.3%로 수급을 받는 가족의 9.5%보다 높았고, 사금

용에서 빌린 경우는 수급을 받지 않는 가족이 17.5%인 데 반해, 수급을 받는 가족의 경우는 28.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 상황이 열악한 가족들이 금리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부터 부채를 빌리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가진 가족의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환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6〉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이 부채를 진 곳

(단위: %, 명)

구분	부모님, 형제 등 가족	친구나 지인 등 주변 사람	일반 시중/지방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사금융	지원기관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8.9	15.4	16.2	29.7	21.4	1.9	6.4	100.0 (751)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8.8	16.0	15.0	27.7	23.3	2.1	7.1	100.0 (567)
자녀 연령($\chi^2=4.92$)								
3세 미만	8.3	15.6	16.1	23.9	27.2	1.1	7.8	100.0 (180)
3세 이상	9.0	16.3	14.5	29.5	21.4	2.6	6.7	100.0 (387)
거주 상황($\chi^2=42.96^{***}$)								
시설	2.8	10.1	3.7	30.3	39.4	0.9	12.8	100.0 (109)
재가	10.3	17.5	17.7	27.1	19.4	2.4	5.7	100.0 (458)
가족 구성($\chi^2=16.71^*$)								
모자녀	8.3	15.7	16.4	28.0	24.3	2.3	4.9	100.0 (432)
그 외	10.4	17.0	10.4	26.7	20.0	1.5	14.1	100.0 (135)
기초보장($\chi^2=24.31^{***}$)								
비수급	7.2	18.6	21.3	27.0	17.5	2.3	6.1	100.0 (263)
수급	10.2	13.8	9.5	28.3	28.3	2.0	7.9	100.0 (304)
경제활동($\chi^2=8.29$)								
안 함	8.9	17.0	13.4	26.2	25.2	1.0	8.2	100.0 (305)
함	8.8	14.9	16.8	29.4	21.0	3.4	5.7	100.0 (262)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 '장학재단자금(17명)', '휴대전화요금(13명)', '국세체납', '근로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작업대출', '전세임대', '주민센터'

이번에는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에 대해 알아보았다. 평균 월 지출액은 약 103만 원으로 나타났다.

엄마의 연령이 낮을수록 지출액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미취

학 아동을 양육하는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월평균 지출액이 약 64만 원인데 반해, 40세 이상의 엄마인 경우는 약 121만 원으로 나타나 지출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본 분석에서 미취학 아동은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만 40세 이상의 엄마의 경우, 많지는 않지만 미취학 아동 이외의 자녀가 있을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녀 연령이 3세 미만인 경우보다 3세 이상인 그룹의 경우가 지출액이 높았고,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와 재가 미혼모가족의 경우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시설에 거주할 경우 평균 지출액이 약 61만 원인 데 반해, 재가 미혼모가족의 경우 약 113만 원의 월평균 지출액을 나타냈다. 시설 거주 가족의 50.3%는 월평균 50만 원 미만의 소비를 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적은 소비를 하며 살 수 있는 환경임을 알 수 있다. 시설에 거주하는 가족의 특성이 소비를 많이 할 수 없는 경제적 조건의 가족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엄마와 자녀 이외의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지출이 오히려 적었는데, 돌봄 비용의 측면에서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의 결과로 보인다. 기초보장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받는 경우보다 지출액이 크고,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이 안 하는 그룹보다 지출액이 큰 경향을 보였다.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경우 수입과 비교해 지출의 평균이 약간 더 낮기는 하지만, 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 매달 버시는 수입은 딱 맞게 쓰세요?) 아주 딱 떨어지지는 아니지만, 거의 딱 맞게 써요.”(B1)

〈표 4-37〉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의 월평균 지출액

(단위: %, 명, 만 원)

구분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계	(명)	평균 금액 (만 원)
조사 대상 전체	14.6	36.1	30.6	10.8	7.8	100.0	(1,218)	107.9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17.4	36.7	29.4	9.5	6.9	100.0	(958)	103.2
모 연령($\chi^2=56.11^{***}$)								
만 15-19세	28.6	54.8	14.3	2.4	0.0	100.0	(42)	64.2
만 20-29세	22.0	39.7	24.9	9.6	3.8	100.0	(446)	91.5
만 30-39세	12.9	31.6	34.7	10.1	10.6	100.0	(395)	117.0
만 40세 이상	8.0	36.0	37.3	9.3	9.3	100.0	(75)	121.7
자녀 연령($\chi^2=26.83^{***}$)								
3세 미만	26.0	35.9	25.7	7.3	5.1	100.0	(315)	91.0
3세 이상	13.2	37.2	31.3	10.6	7.8	100.0	(643)	109.1
거주 상황($\chi^2=179.16^{***}$)								
시설	50.3	33.5	11.2	2.8	2.2	100.0	(179)	61.1
재가	9.9	37.5	33.6	11.0	8.0	100.0	(779)	112.8
가족 구성($\chi^2=60.76^{***}$)								
모자녀	12.6	35.5	33.4	11.1	7.3	100.0	(712)	109.5
그 외	31.3	40.2	17.9	4.9	5.7	100.0	(246)	84.7
기초보장($\chi^2=32.44^{***}$)								
비수급	18.2	33.7	25.7	12.5	9.8	100.0	(510)	107.3
수급	16.5	40.2	33.7	6.0	3.6	100.0	(448)	98.4
경제활동($\chi^2=83.55^{***}$)								
안 함	25.5	37.8	27.4	4.9	4.3	100.0	(529)	88.7
함	7.5	35.4	31.9	15.2	10.0	100.0	(429)	121.0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소득과 관련된 정부지원에 대한 이용 경험과 도움 정도를 알아보았다.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 중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46.5%이고 과거에 받았던 경험이 있는 비율은 22.8%로 나타났다. 현재와 과거 중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의 도움 정도는 77.5%가 도움이

된다(다소 도움됨 + 매우 도움됨)고 응답했다.

자녀의 연령이 3세 미만의 경우는 과거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15.8%인데, 3세 이상인 경우의 과거 이용 경험은 26.5%로 나타났다. 과거 이용 경험은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는 가족 중에서 과거에는 수급자였지만, 현재는 수급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로 자녀가 3세 이상인 가족들이 과거에 수급자였던 경험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이 하는 그룹과 비교해 기초생활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양육비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으면 받을 수 없다.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은 22.1%, 과거에 받았던 경험이 있는 비율은 36.9%로 나타났다. 이 정책은 도움이 된다(다소 도움됨 + 매우 도움됨)고 응답한 비율이 65.6%로 나타났다. 보통은 22.2%, 도움이 되지 않는다(별로 도움 되지 않음 + 전혀 도움 되지 않음)고 응답한 비율은 12.2%로 나타났다.

기초보장 지원과 마찬가지로 자녀 연령이 3세 이상인 경우 과거에 받았던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받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자녀 연령이 3세 미만인 경우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는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이 16.8%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지원받고 있는 비율이 28.9%로 나타나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이 지원을 받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지원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4-38〉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의 정부 생활지원에 대한 이용 경험,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현재 이용			과거 이용 경험		도움 정도				
	지원 받고 있지 않음	지원 받고 있음	(명)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명)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전체	54.1	45.9	(1,247)	73.6	26.4	(675)	0.5	4.1	18.8	45.9
국민 기초생활보장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53.5	46.5	(985)	77.2	22.8	(527)	0.5	4.2	17.8	48.4
자녀 연령	$(\chi^2=0.51)$			$(\chi^2=7.90^{**})$						
3세 미만	55.1	44.9	(334)	84.2	15.8	(184)	0.6	3.9	16.8	50.8
3세 이상	52.7	47.3	(651)	73.5	26.5	(343)	0.5	4.3	18.3	47.4
경제활동	$(\chi^2=8.66^{***})$			$(\chi^2=8.39^{**})$						
안 함	40.4	59.6	(552)	83.4	16.6	(223)	0.3	3.3	17.8	49.7
함	70.2	29.8	(433)	72.7	27.3	(304)	0.9	5.7	17.9	46.2
전체	76.3	23.7	(1,247)	58.4	41.6	(952)	1.7	10.4	23.0	28.2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77.9	22.1	(985)	63.1	36.9	(767)	2.0	10.2	22.2	30.1
한부모 가족										
자녀 연령	$(\chi^2=2.59)$			$(\chi^2=31.15^{***})$			$(\chi^2=4.11)$			
3세 미만	80.8	19.2	(334)	76.3	23.7	(270)	2.3	7.0	27.3	28.1
3세 이상	76.3	23.7	(651)	55.9	44.1	(497)	1.9	11.3	20.4	30.8
경제활동	$(\chi^2=20.35^{***})$			$(\chi^2=3.56)$			$(\chi^2=5.08)$			
안 함	83.2	16.8	(552)	65.8	34.2	(459)	2.0	11.2	25.6	29.2
함	71.1	28.9	(433)	59.1	40.9	(308)	2.0	9.2	18.7	31.1

주: 1) *** p < .001, **p < .01,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정부 생활지원에서 엄마가 일을 하게 되어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지원에서 탈락이 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언급했다. 소득 기준과 유예기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소득 기준을 조금만 높여 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200만 원 선에서 아이와 둘이 살기에는 만약에 저축을 한다면, 100만 원씩 해야 하는데.. 나머지 100만 원으로 한 달 관리비도 내야 하고 하다 보면 힘들지 않을까.”(B1)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소득 기준이요. 왜냐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제 직업이 달라지거든요. 제 직장이 달라져요. 175만 원 넘으면 한부모지원

탈락이 되는데. 돈을 나라에서 20만 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한부모지원) 탈락해버리면 교육비부터 시작해서, 주거가 제일 문제죠. 임대주택 순위에서 멀어지니까.”(B3)

“수급권자가 되면 의료, 주거, 교육 다 지원되고, 임대주택 1순위에다가, 뭐든지 다 1순위고 스포츠 바우처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 받는 거랑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욕먹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 거랑, 아이랑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있는 거랑,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누가 돈 벌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지. 수급 안 끊기려고 저는 80만 원 벌고, 나라 모르게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든가, 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게 되는 거죠.”(B3)

“3개월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1~2달이라도 유예기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첫 월급 탔을 때 신고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제가 월급 타고 신고하면 안 되냐고 말했다가 안 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한부모 자격을 유지하려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선 임대주택 지원되는 순위이고, 그리고 교육비 지원 받는 것 있으니까요. 그거 유지 안 하면 못 살아요.”(B3)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이유는 소득 및 재산기준이 맞지 않아 수급 자격이 안 되기 때문이 54.5%로 과반수로 나타났고,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은 비율이 13.1%,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은 11.0%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 절차가 번거롭다고 응답한 비율도 8.9%에 이르렀다.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이 제도에 대해 모른다는 비율이 26.7%로 높았고, 30대는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이유와 40대는 지원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3세 미만은 기타의 비율이 높았는데, 기타 의견에는 수급권 신청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자녀가 만 3세 이상인 경우는 소득 기준 등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안 된다는 비율이 61.2%로 높게 나타났다.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기초생활 지원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시설 거주 미혼모의 연령이 낮은 경향이 이러한 결과

로 나타났을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소득 기준이 맞지 않아 수급을 못하게 되는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과 안 하는 그룹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은 이 제도에 대해 몰라서라는 이유를 선택한 비율이 7.9%로 낮고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는 15.2%로 나타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정보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4-39〉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 모름	소득 및 재산기준이 맞지 않아 수급 자격 안 됨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 신청 안 함	지원 절차 번거로 워서	필요 없어서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10.1	57.8	11.9	9.0	1.0	10.2	100.0	(675)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11.0	54.5	13.1	8.9	0.9	11.6	100.0	(527)
엄마 연령								
만 15-19세	26.7	30.0	20.0	3.3	10.0	10.0	100.0	(30)
만 20-29세	11.5	56.1	15.2	5.3	0.0	11.9	100.0	(244)
만 30-39세	9.6	56.6	11.4	11.4	0.9	10.0	100.0	(219)
만 40세 이상	2.9	50.0	2.9	23.5	0.0	20.6	100.0	(34)
자녀 연령($\chi^2=37.46^{***}$)								
3세 미만	12.5	41.8	15.2	7.6	2.7	20.1	100.0	(184)
3세 이상	10.2	61.2	12.0	9.6	0.0	7.0	100.0	(343)
거주 상황($\chi^2=36.30^{***}$)								
시설	22.1	41.6	3.9	5.2	1.3	26.0	100.0	(77)
재가	9.1	56.7	14.7	9.6	0.9	9.1	100.0	(450)
가족 구성($\chi^2=5.09$)								
모자녀	9.5	56.3	13.4	8.6	0.6	11.7	100.0	(359)
그 외	14.3	50.6	12.5	9.5	1.8	11.3	100.0	(168)
경제활동($\chi^2=32.99^{***}$)								
안 함	15.2	42.6	15.2	7.6	1.8	17.5	100.0	(223)
함	7.9	63.2	11.5	9.9	0.3	7.2	100.0	(304)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기타: '수급권 신청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경우(16명)', '기준에 맞지 않음',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미혼모시설 입소로 인한 자격 박탈',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어 신청 불가', '부모 소득 때문에', '부모·친지에게 아이에 대해 숨기고 있어서',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서류 작성을 기피', '사회복지사가 신청 요청을 거부함', '생계비보다 한부모수당이 많아 서', '시설수급자', '아이 출생신고를 못 해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현재 받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한 미취학 아동을 둔 미혼모가족의 응답은 51.4%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 중 21.3%는 소득 기준 등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안 된다고 응답하였다.

자녀의 연령이 3세 미만인 경우는 3세 이상인 경우와 비교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어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재가 미혼모가족의 경우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10.8%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시설 거주 가족의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지원을 안 받고 있는 비율이 62.3%로 매우 높았다. 자녀와 엄마로 이루어진 가족 구성 이외의 가족은 소득기준이 맞지 않아 받지 않고 있는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기초보장을 받고 있지 않는 가족 중에서 이 지원을 안 받는 이유는 소득기준이 안 맞아서가 48.5%,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신청 안했다는 응답이 21.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원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도 10.0%로 나타났다. 소득기준이 안 맞아서 못 받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생각해 보면, 이러한 지원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을까 봐 받지 않고, 지원 절차가 번거로워서 받지 않는 등 행정 처리상의 문제로 받지 않는 이유가 더러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에서도 기록에 대한 걱정과 절차에 대한 이유가 경제활동을 안 하는 그룹에서보다 높게 나타나 지원과 동시에 행정상 절차에서 낙인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 보인다.

〈표 4-40〉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이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한부모 가족 지원에 대해 모름	소득 및 재산기 준이 맞지 않아 수급 자격 안 됨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 신청 안 함	지원 절차 번거로 워서	국민기 초생활 보장 지원 받고 있어서	필요 없어서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6.3	22.6	8.9	5.7	50.5	0.5	5.5	100.0	(952)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6.4	21.3	8.9	5.6	51.4	0.5	6.0	100.0	(767)
엄마 연령									
만 15-19세	18.2	11.4	13.6	9.1	36.4	4.5	6.8	100.0	(44)
만 20-29세	6.6	20.2	8.9	4.6	53.3	0.6	5.8	100.0	(347)
만 30-39세	4.8	23.8	8.9	6.3	49.5	0.0	6.7	100.0	(315)
만 40세 이상	4.9	21.3	4.9	4.9	60.7	0.0	3.3	100.0	(61)
자녀 연령($\chi^2=22.83^{***}$)									
3세 미만	7.4	18.1	8.9	7.4	46.7	1.1	10.4	100.0	(270)
3세 이상	5.8	22.9	8.9	4.6	53.9	0.2	3.6	100.0	(497)
거주 상황($\chi^2=43.54^{***}$)									
시설	9.1	11.7	1.3	2.6	62.3	0.6	12.3	100.0	(154)
재가	5.7	23.7	10.8	6.4	48.6	0.5	4.4	100.0	(613)
가족 구성($\chi^2=20.26^{**}$)									
모자녀	5.8	19.5	9.1	4.9	55.3	0.2	5.3	100.0	(570)
그 외	8.1	26.4	8.1	7.6	40.1	1.5	8.1	100.0	(197)
기초보장($\chi^2=552.76^{***}$)									
비수급	9.7	48.5	21.4	10.0	1.6	0.6	8.1	100.0	(309)
수급	4.1	2.8	0.4	2.6	84.9	0.4	4.6	100.0	(458)
경제활동($\chi^2=104.55^{***}$)									
안 함	6.1	10.9	6.8	4.6	63.6	0.9	7.2	100.0	(459)
함	6.8	36.7	12.0	7.1	33.1	0.0	4.2	100.0	(308)

주: 1) *** p < .001, **p < .01,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기타: '신청 예정이거나 심사 중(12명)', '기준에 맞지 않음',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미혼모 시설 입소', '아파트 대출 때문에',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집 명의변경이 되지 않아서', '시설수급자', '아이 출생신고를 못 해서', '아이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미혼모가족 중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돌봄 및 양육, 경제활동 및 소득·소비, 주변관계 및 사회적 편견과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분석해 보았다. 살펴본 내용들에 대한 정리와 함께 기혼여성들과 미혼모의 상황을 비교하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특성

가. 돌봄 및 양육

미혼모가족의 미취학 아동은 현재 민간시설을 이용한 주간 돌봄 방식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본인이 직접 돌보는 경우는 응답자의 4분의 1 정도이다.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는 본인의 돌봄 비율이 절반 가까이로 매우 높아진다. 현재의 돌봄 방식에 대한 만족도에서 미혼모가족은 보통 수준의 만족 비율이 높았다.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돌보는 시간이 길다는 점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 이유는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가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여 어린 자녀를 직접 돌보고, 미혼모가족의 특성상 혼자 온종일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그 외 시간에는 혼자 돌봐야 하는 상황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희망하는 돌봄 방식으로는 국공립 시설과 민간시설이 가장 많은데,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는 본인 돌봄에 대한 희망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본인이 직접 돌보고자 하는 비율도 높고 현재 직접 돌보는 비율도 높아 희망과 실제 돌봄 사이의 일치도가 높았다. 하지만 혼자 온전히 돌봄을 책임진다는 것과 시설 이용 후 시간에

도 혼자 돌봐야 하는 상황은 미혼모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어 돌봄에 대한 만족이 낮아질 수 있다.

돌봄과 관련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를 보면, 아동수당이 가장 늦게 도입되었음에도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보편 지원으로 만 7세 미만 아동이 모두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유치원 이용률이 낮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유아학비 지원 인지도나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을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갖추었지만, 인지도에 비해 낮은 이용 경험 비율이 나타났다. 아이돌보미 공급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지적되어 왔고, 그에 따라 최근 인력 확대를 하고 있어 향후 이용 경험에서의 비율은 올해의 조사 결과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미혼모가족의 경우 직접 돌봄 방식의 비율이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는 인지도 및 이용 경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인지와 활용이 전반적으로 낮아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표 4-41〉 미취학 아동 돌봄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모름	알고 있음	(명)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명)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명)
아동수당	5.4	94.6	(985)	3.0	97.0	(932)	1.0	6.3	18.5	31.2	43.0	(904)
가정양육수당	14.7	85.3	(985)	14.5	85.5	(840)	1.4	7.4	21.6	31.1	38.6	(718)
보육료 지원	15.9	84.1	(985)	21.3	78.7	(828)	0.3	1.2	9.7	23.5	65.3	(652)
유아학비 지원	52.0	48.0	(985)	62.6	37.4	(473)	1.1	1.1	14.1	27.7	55.9	(177)
아이돌봄서비스	21.9	78.1	(985)	61.9	38.1	(769)	1.7	3.4	15.0	37.2	42.7	(293)
공동육아나눔터	73.2	26.8	(985)	79.2	20.8	(264)	3.6	3.6	21.8	49.1	21.8	(55)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모가족이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며 경험하는 어려움은 양육비 부담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 또는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엄마가 일을 하는 경우는 아이를 돌보거나 챙길 시간이 부족한 데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 설계에 있어 혼자 생계와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의 어려움이 큰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돌봄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엄마가 아이를 잘 기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서는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나타났지만, 엄마의 심리·정서적 이유가 가장 크게 부각되었다. 특히 10대 미혼모들의 심리·정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엄마들의 경우에도 단순히 경제활동을 강조하기보다 일단 엄마의 심리적 안정을 챙기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양육 및 교육비 지원과 일을 하는 경우 시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엄마 심리상담보다 아이의 심리상담에 대한 욕구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이를 잘 기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심리적인 상황이 불안정해서 잘 못 기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엄마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상담과 같은 지원보다는 당장 아이를 기르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을 엿볼 수 있다. 심리적 안정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일을 할 준비를 해가면서 경제력을 갖추게 되고, 생활이 안정되는 상황이 자녀를 잘 기르고 있다는 생각으로 연결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다시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경제활동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은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는 미혼모가족 중 10대 미혼모가족인 경우, 자녀 연령이 3세 미만인 경우,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기초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 비율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특히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는 70.0%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취학 자녀 중에도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는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울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자녀가 어린 경우는 임신 및 출산 과정의 어려움을 경험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황이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위축될 수 있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 모두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는 아직 아동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유연한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특히 미취학 자녀가 있는 미혼모 중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근무시간이 유연한 일자리에 대한 욕구만큼이나 급여가 높은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을 둔 미혼모의 경우는 급여보다는 근무시간 유연성과 편견과 차별 없는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진입 전과 후의 욕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현재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며 일을 하는 미혼모의 경우 주당 평균 약 30시간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는 약 27시간, 3세 이상인 경우는 약 31시간으로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주간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전일제근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70.0% 이상이 자녀 육아 및 교육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예상할 수 있듯이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는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응답 80.0% 이상으로 높았다. 그리고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는 어려움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을 하는 미혼모에게는 아동 돌봄까지 완전히 미혼모의 책임인 경우가 대부분이란 것이 좀 더 비중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며 현재 일을 하지 않는 미혼모는 대부분 역시 육아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는 이 이유가 매우 높지만, 자녀가 3세 이상인 경우는 건강상의 이유와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이유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승하는 특징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엄마들도 대부분 취업할 의향은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지원금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이 벌지 않으면 가계수입이 없어서,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서라는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리고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라는 응답도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본인이 벌지 않으면 수입이 없다는 이유와 정부지원금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에 대한 응답은 증가하고,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서와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다. 경제활동과 돌봄

미취학 자녀의 돌봄은 엄마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상황이 매우 다를 수 있다. 특히 같은 미취학 자녀라 해도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기 때문에 3세 미만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와 3세 이상 미취학 자녀

가 있는 경우도 나누어 정리하였다.

먼저, 3세 미만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를 보면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자녀를 돌봄 시설에 보내는 경우가(국공립 시설 + 민간 시설) 36.3%이고 과반수(55.6%)가 본인이 직접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을 하는 경우는 돌봄 시설 이용이 65.1%와 본인이 직접 돌보는 방식이 22.1%였다. 만족도는 보통 정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보통 수준이 조금 더 높았다.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는 대체로 만족이 높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대체로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만족도는 돌봄 방식에 따라서도 다를 텐데,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와 본인이 돌보는 경우에 보통 이상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

〈표 4-42〉 미혼모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3세 미만 미취학 아동 돌봄 방식과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민간시설	본인	친인척	기타	계	(명)
돌봄 방식	경제활동							
	안 함	8.1	28.2	55.6	3.6	4.4	100.0	(248)
	함	17.4	47.7	22.1	8.1	4.7	100.0	(86)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명)
	경제활동							
	안 함	4.0	11.7	44.9	31.9	7.7	100.0	(248)
	함	4.7	10.5	54.7	15.1	15.1	100.0	(86)
	돌봄 방식							
	국공립	0.0	8.6	57.1	22.9	11.4	100.0	(35)
	민간	4.5	14.4	39.6	27.9	13.5	100.0	(111)
	본인	5.1	9.6	51.0	28.0	6.4	100.0	(157)
	기타(친인척)	3.2	12.9	45.2	29.0	9.7	100.0	(31)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반면, 3세 이상의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돌보는 비율이 22.7%로 같은 조건에 대한 3세 미만의 아동을 양

육하는 미혼모의 비율인 55.6%보다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경우의 시설 이용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국공립 시설 이용 수가 크게 증가한다.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돌봄 방식 만족도를 크게 불만족-보통-만족의 분포로 보았을 때, 일을 하는 엄마 중 3세 이상의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가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약간 높았지만 돌봄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오히려 돌봄 방식에 따른 만족도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세 미만의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족 비율이 약 15.0%였지만, 3세 이상 미취학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불만족 비율이 약 30.0%에 달했다.

〈표 4-43〉 미혼모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3세 이상 미취학 아동 돌봄 방식과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민간시설	본인	친인척	기타	계	(명)
돌봄 방식	경제활동 안 함	23.4	52.6	22.7	0.3	1.0	100.0	(304)
	함	34.9	56.2	5.8	2.9	0.3	100.0	(347)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명)
	경제활동 안 함	3.6	15.1	48.4	28.0	4.9	100.0	(304)
	함	2.0	17.0	44.1	32.6	4.3	100.0	(347)
	돌봄 방식							
	국공립	1.6	13.5	50.5	28.6	5.7	100.0	(192)
	민간	2.0	16.9	45.9	30.7	4.5	100.0	(355)
	본인	9.0	20.2	38.2	30.3	2.2	100.0	(89)
	기타(친인척)	0.0	6.7	40.0	46.7	6.7	100.0	(15)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종합적으로, 경제활동을 안 하는 비율이 많은 자녀의 3세 미만 시기에는 본인의 돌봄 비율이 매우 높고,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상승하는 3세 이상 자녀의 미취학기에는 시설 돌봄이 많아진다. 일을 하는 경우는 시설 중에서도 국공립 시설의 이용 비율이 상승한다. 그리고 만족도 측면에서

는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돌봄 방식에서 오히려 변화가 나타난다. 특히 본인 돌봄 방식의 경우 3세 미만 자녀보다 3세 이상 미취학 자녀에서 불만 비율이 상승한다. 일을 안 하는 경우 자녀가 3세 이상이더라도 본인이 돌보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자녀의 영아기부터 계속되는 종일 돌봄이 3세 이상에도 이어지게 되면 24시간 홀로 돌봄을 감당하는 상황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지면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3세 이상이 되어도 엄마가 사회에 나아갈 준비가 부족하거나, 자녀 돌봄 체계가 본인의 생활에 알맞게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생계와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엄마의 직접 돌봄 기간은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체력적·정신적 소진과, 자산이 없을 경우는 생활고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미혼모가족의 어려움은 배가된다.

라. 소득 및 소비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조사 대상자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고, 미혼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입이 많았다. 미성년 미혼모는 법적으로도 일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다른 연령대와 수입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법적인 조건에 의해 나타나는 것일 수 있어 10대 미혼모 그룹을 제외하고 나면 엄마의 연령별 소득액 차이가 극심한 편은 아니다. 하지만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와 3세 이상인 경우는 소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 중에서도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 돌봄에 할애해야 할 시간이 더 필요해 근로시간이 적게 나타났고, 그 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미취학 아동을 둔 미혼모가족, 그중에서도 자녀가 3세 미

만인 경우 돌봄과 소득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 부딪힐 확률이 클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채가 있다면 빌린 곳이 비은행 금융기관이거나 사금융기관인 경우가 많아 더욱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빠질 위험성이 높을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을 둔 미혼모가족의 소비는 소득과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아 결국 여유 자금이 없거나, 저축을 할 여유가 없을 환경을 짐작할 수 있다.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 3세 이상의 아동이 있는 경우보다 소득이 낮았던 만큼 소비 또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 차이 폭이 지출에서는 수입에 서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 더 경제적 여유가 없을 확률이 높을 수 있다.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소득지원 관련 정책에 대한 이용 경험과 도움 정도에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이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이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은 5분의 1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지원은 동시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 중 약 70.0%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한부모가족 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생활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4〉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의 정부 생활지원에 대한 이용 경험,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현재 이용		(명)	과거 이용 경험		(명)	도움 정도					(명)
	지원 받고 있지 않음	지원 받고 있음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국민기초생활보장	53.5	46.5	(985)	77.2	22.8	(527)	0.5	4.2	17.8	29.1	48.4	(578)
한부모가족 지원	77.9	22.1	(985)	63.1	36.9	(767)	2.0	10.2	22.2	35.5	30.1	(501)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여성과의 비교

미혼모가족의 돌봄은 주 양육자가 1인인 동시에 그 한 명이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인 양육자가 돌인, 즉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의 돌봄 상황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 또한,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은 자녀 돌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기혼여성과의 돌봄 및 경제활동 상황 비교를 통해 미혼모가족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기혼여성 자료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이소영 외, 2018)에서 추출한 15~49세 여성이다. 이 중 현재 배우자가 있으며 미취학 아동이 있는 여성의 자료를 활용한다.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는 기혼 여성과 동일 조건의 미혼모를 비교하기 위해 기혼여성 데이터에서는 1명 이상의 미취학 자녀를 두고, 현재 배우자가 있는(이혼, 별거, 사별, 미혼 등 제외) 15~49세 여성으로 한정하여 4106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혼여성의 연령은 20대가 10.0%, 30대 71.4%, 40대 18.6%의 비율이었다. 이 중 일을 하는 경우는 46.9%,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53.1%로 나타났다. 기혼여성 분석에서 무응답은 제외하였고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미혼모 조사 데이터에서도 기혼여성과의 동일한 연령대 분석을 위해 엄마 연령이 15~49세인 경우만을 추출해 분석하였다.

가. 돌봄

이 연구의 조사에 참여한 미혼모 중 미취학 자녀가 있는 985명의 응답 결과, 응답자의 약 47.0%가 자녀가 현재 민간시설 보육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23.0%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고 응답하

였다. 즉, 아동이 주간 돌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약 70.0%로 나타났다. 기혼여성 중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는 4106명이 응답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기혼여성은 54.7%가 미취학 아동 주간 돌봄으로 민간시설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15.2%로 전체의 약 70.0%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시설 이용 비율이 미혼모가족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미혼모가족의 조사는 전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에 참여한 가족 중의 비율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하지만 경향성으로 보아 미혼모가족 아동의 경우 국공립 시설 입학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이의 효과로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출산력 조사의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기혼여성은 아동의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이 응답자의 25.5%로 나타났다. 부모가 돌본다고 응답한 경우는 가정양육방식을 택하고 있는 경우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미혼모 조사에서도 25.0%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가정양육 방식으로 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선택지 중 ‘본인(부모)’은 기혼여성은 유배우자인 경우이기 때문에 부모의 돌봄이 될 수 있고, 미혼모 대상 조사에서는 본인이 직접 돌본다는 선택지에 응답한 비율을 나타낸다.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는 부모/본인이 돌보는 비율이 두 조사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기혼여성: 50.3%, 미혼모: 47.0%), 3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 기혼여성의 1.4%만이 부모가 돌본다고 응답한 반면, 미혼모가족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3.7%가 본인이 돌본다고 응답해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방식에서 차이를 볼 수 있다. 기혼여성의 결과에서는 3세 이상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95.7%인 데 반해, 미혼모의 경우는 84.0%로 나타나 3세 이상 아동 돌봄을 시설에 맡기지 않는 비율이 기혼여성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표 4-45〉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미취학 자녀 실제 주간 돌봄 방식 비교

(단위: %, 명)

구 분	국공립시설	민간시설	본인 (또는 남편)	친인척	기타	계	(명)
전체	15.2	54.7	25.5	2.4	2.2	100.0	(4,106)
기혼여성	3세 미만	6.2	37.2	50.3	4.7	100.0	(2,026)
	3세 이상	24.0	71.7	1.4	0.2	100.0	(2,080)
미혼모	전체	23.0	47.3	25.0	2.7	100.0	(985)
	3세 미만	10.5	33.2	47.0	4.8	100.0	(334)
	3세 이상	29.5	54.5	13.7	1.7	100.0	(651)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여성, 미혼모 모두 엄마를 기준 다둥이인 경우 막내 자녀에 대해 분석하였음.

3) 기혼여성에서 '본인'은 '본인 또는 남편'을 의미함.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미혼모와 기혼여성은 전체적으로 아동 돌봄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비슷했지만, 시설 중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미혼모가 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돌봄 방식에 대한 만족 정도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은 미취학 자녀의 현재 돌봄 방식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미혼모는 보통 수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6〉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미취학 자녀 돌봄 방식에 대한 만족도 비교

(단위: %, 명)

구 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명)
기혼여성	전체	0.5	5.4	16.5	61.9	15.6	100.0	(4,106)
	3세 미만	0.6	5.7	16.7	60.9	16.2	100.0	(2,026)
	3세 이상	0.5	5.2	16.5	62.8	15.1	100.0	(2,080)
미혼모	전체	3.2	14.5	46.5	29.4	6.3	100.0	(985)
	3세 미만	4.2	11.4	47.3	27.5	9.6	100.0	(334)
	3세 이상	2.8	16.1	46.1	30.4	4.6	100.0	(651)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여성, 미혼모 모두 엄마를 기준 다둥이인 경우 막내 자녀에 대해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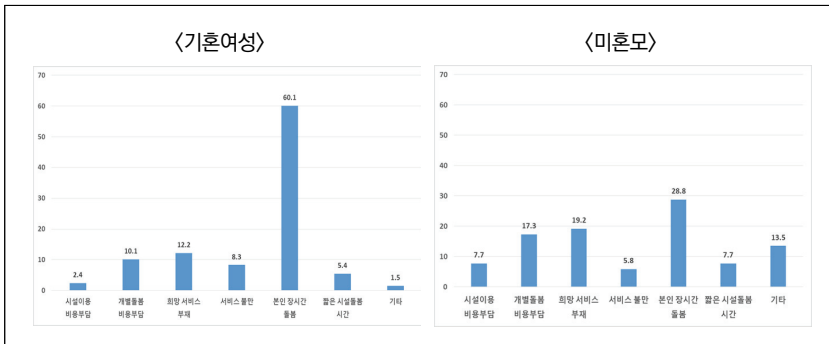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미혼모와 기혼여성의 미취학 자녀 돌봄 방식에 대한 만족 정도가 달랐는데,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본인이 장시간 돌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돌보는 비율이 미혼모가 유배우 기혼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서는 본인이 돌보는 시간이 길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기혼여성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가 미혼모는 골고루 분포해 있는 경향이 있지만,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시간 관련 불만족에 이유가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미혼모는 비용에 대한 이유와 그 밖의 특수한 상황들이 많아 기타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나타나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가 분포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4-1]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0~2세 자녀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비교

(단위: %)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여성, 미혼모 모두 엄마를 기준 다둥이인 경우 막내 자녀에 대해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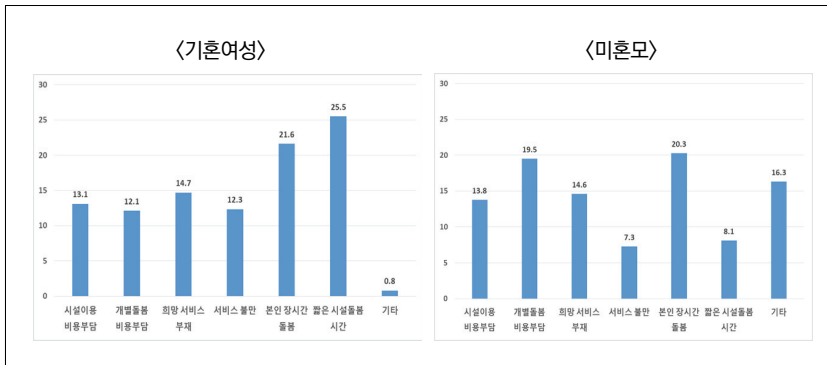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자녀가 3세 이상인 경우 현재의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보다는 한 가지 이유에 집중되는 현상이 덜한 것을 볼 수 있다. 미혼모의 경우 본인의 장시간 돌봄과 개별 돌봄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기혼여성의 경우 본인의 장시간 돌봄과 시설돌봄 시간이 짧은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미혼모의 경우 기타 다양한 이유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특징이 기혼여성과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미혼모의 경우 개별 상황이 매우 다양하고 유배우 기혼여성보다 감당해야 할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도 훨씬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4-2]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3세 이상 미취학 자녀의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비교

(단위: %)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여성, 미혼모 모두 엄마를 기준 다둥이인 경우 막내 자녀에 대해 분석하였음.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실제로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이 희망하는 주간 돌봄 방식은 기혼여성 과 미혼모 두 그룹 모두에서 국공립 시설 이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동일

한 경향을 보였다. 차이를 보인 부분은 본인이 직접 돌보는 방식에 대한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 미혼모보다 기혼여성이 부모의 직접 돌봄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혼모가족의 경우 아동이 주간에 시설 돌봄을 받는다 해도 하원 후에는 엄마가 혼자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 돌봄에 대한 희망이 기혼여성보다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자녀가 3세 이상이 되면 기혼여성의 경우 국공립에 대한 희망 비율이 과반수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어 기혼여성의 결과에서는 3세 미만과 3세 이상 자녀에 대해 희망하는 돌봄 방식이 미혼모가족 조사의 결과에서보다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났다.

〈표 4-47〉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희망하는 미취학 자녀 주간 돌봄 방식 비교

(단위: %, 명)

구 분	국공립	민간시설	본인 (또는 남편)	친인척	기타	계	(명)
전체	41.4	26.4	23.6	4.9	3.7	100.0	(4,106)
기혼여성							
3세 미만	29.1	20.3	40.0	7.2	3.5	100.0	(2,026)
3세 이상	53.2	32.4	7.7	2.8	3.9	100.0	(2,080)
미혼모							
전체	42.6	32.6	14.1	5.3	5.4	100.0	(985)
3세 미만	34.4	28.1	23.4	6.6	7.5	100.0	(334)
3세 이상	46.9	34.9	9.4	4.6	4.3	100.0	(651)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여성, 미혼모 모두 엄마를 기준 다둥이인 경우 막내 자녀에 대해 분석하였음.

3) 기혼여성에서 '본인'은 '본인 또는 남편'을 의미함.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이나 교육지원 정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기혼여성보다 미혼모가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받게 되는 보육료 지원과 가정 양육수당에 대한 인지도는 두 집단 모두에서 높은 비율

로 나타났으나,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미혼모가 기혼여성보다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4-48〉 미취학 자녀 대상 보육 및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율 및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 분	인지율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기혼여성	양육수당 지원	99.8	(4,106)	4.1	(3,947)
	보육료 지원	99.7	(4,106)	4.5	(3,424)
	유아교육비 지원	97.1	(4,106)	4.4	(1,773)
미혼모	양육수당 지원	85.3	(985)	4.0	(718)
	보육료 지원	84.1	(985)	4.5	(652)
	유아교육비 지원	48.0	(985)	4.4	(177)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도움 정도는 무응답은 제외하고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분석하였으며, '전혀 도움 받지 못함' 1점, '별로 도움 받지 못함' 2점, '보통' 3점, '다소 도움' 4점, '매우 도움'을 5점으로 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음.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나. 경제활동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가 전일제근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기혼여성과 미혼모를 비교해 보면, 육아 및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데, 기혼여성은 90.5%이고, 미혼모는 71.4%로 나타났다. 미혼모는 건강상 이유나 학업 및 직업훈련 과정 중이기 때문에, 또는 전일제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가 기혼여성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수와 비율은 모두 낮지만 미혼모의 경우는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9〉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전일제근로를 하지 않는 이유 비교

(단위: %, 명)

구 분	집안 일이 많아서	육아 /자녀 교육	건강상 이유	여가 즐기기 위해	학업 또는 직업 훈련 병행을 위해	다른 일자리 병행	전일제 직장 구직 힘들	기타	계	(명)
기혼여성	1.3	90.5	0.2	1.8	0.0	0.2	2.8	3.2	100.0	(706)
미혼모	2.5	71.4	9.1	0.8	7.5	0.0	7.5	1.2	100.0	(241)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여성은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응답하였고, 미혼모는 시간제근로(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 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인 경우 응답.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종사상 지위를 비교해 보면,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기혼여성이 과반수로 미혼모보다 높고, 미혼모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기혼여성보다 높았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에서는 기혼여성이 미혼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에서 계약직이나 일용직 형태로 근로하는 경우가 미혼모에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0〉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종사상 지위 비교

(단위: %, 명)

구 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	(명)
기혼여성	52.3	24.4	5.9	11.6	5.8	100.0	(1,922)
미혼모	41.6	37.2	15.0	4.6	1.6	100.0	(433)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직종을 비교해 보면,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37.1%)와 사무종사자(30.4%)의 비율이 높은 반면, 미혼모의 경우는 서비스종사자(27.8%)와 사무종사자(22.2%), 판매종사자(16.0%)의 비율이 높았다. 미혼모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15.0%였고, 단

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14.6%로 기혼여성의 4.8%와 비교해 높게 나타나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직종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4-51〉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직종 비교

(단위: %, 명)

구 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계	(명)
기혼여성	1.2	37.1	30.4	13.7	9.3	1.2	1.3	0.7	4.8	0.3	100.0	(1,922)
미혼모	0.2	15.0	22.2	27.8	16.0	0.2	2.5	1.4	14.6	0.0	100.0	(432)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근로시간의 차이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은 주당 40시간 근무가 47.3%로 가장 많았다. 상용직 비율이 높았던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미혼모의 경우는 20시간 미만이 31.2%로 가장 많았고, 40시간은 18.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오히려 40시간 초과로 근무하는 경우가 미혼모는 24.2%, 기혼여성은 16.0%로 나타나 미혼모는 상용직 비율은 낮지만 일하는 시간은 긴 여성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평균 근로시간으로 보면 기혼여성은 주당 35.4시간을 일하고 미혼모는 30.1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혼모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짧게 나타났다.

〈표 4-52〉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주당 근로시간 비교

(단위: %, 명, 시간)

구분	20시간 미만	20-40시간 미만	40시간	40시간 초과	계	(명)	평균(SD)
기혼여성	9.0	27.8	47.3	16.0	100.0	(1,922)	35.4(11.4)
미혼모	31.2	25.6	18.9	24.2	100.0	(433)	30.1(18.0)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일하는 엄마에게 일·가정 양립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에 대해 기혼 여성과 미혼모를 비교해 보면,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혼여성은 23.2%인 데 반해, 미혼모는 32.1%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미혼모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53〉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비교

(단위: %, 명)

구 분	매우 어려움	대체로 어려움	별로 어려움 없음	전혀 어려움 없음	계	(명)
기혼여성	23.2	50.0	25.1	1.6	100.0	(1,922)
미혼모	32.1	52.2	13.9	1.8	100.0	(433)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기혼여성과 미혼모에 대해서는 먼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비교해 보았다. 기혼여성의 대부분(92.3%)은 육아 때문에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미혼모는 기혼여성 보다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는데, 과반수(57.2%)는 기혼여성과 마찬가지로 육아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그 외 9.8%는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8.9%는 건강상 이유로, 8.3%는 학업 때문에 등의 이유들이 있었다.

〈표 4-54〉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비교

(단위: %, 명)

구분	가사 때문	육아 때문	부모/ 가족 돌봄 때문	가족 반대 때문	건강상 이유	적당한 일자리 없어서	근처에 일자리 없어서	교육, 기술, 경험 부족	일할 필요 없어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	다녔던 직장 휴업 등	미혼모 라는 이유로 권고 사직	학업 때문	기타	계	(명)
기혼여성	1.2	92.3	0.2	0.7	0.9	1.9	0.7	0.3	0.1	0.9	0.5	-	-	0.2	100.0	(2,182)
미혼모	0.4	57.2	1.4	0.9	8.9	9.8	1.8	3.3	0.4	0.0	1.4	0.2	8.3	6.0	100.0	(552)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여성의 항목에는 '미혼모라는 이유로 권고사직', '학업 때문'이라는 항목이 없음.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현재 일을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면, 기혼여성은 83.8%가 미혼모는 93.3%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미혼모가 취업하고자 하는 의향이 약간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4-55〉 일하지 않고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향후 취업 의향 비교

(단위: %, 명)

구분	의향 없음	의향 있음	계	(명)
기혼여성	16.2	83.8	100.0	(2,182)
미혼모	6.7	93.3	100.0	(552)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향후 취업을 할 의향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비교해 보았다. 기혼여성은 자녀 양육/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서가 39.2%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남편 수입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27.5%, 본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가 22.0%였다. 이에 반해, 미혼모는 정부 지원금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35.1%, 본인이 벌지 않으면 현재 가계 수입이 없어서가 27.2%, 그다음이 자녀 양육/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서가 22.9%였다. 그리고,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라는 이유도 10.7%나 나타났다. 본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 취업하고자 한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해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기혼여성과 큰 차이를 보였다.

〈표 4-56〉 일하지 않고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향후 취업하려는 가장 주된 이유 비교

(단위: %, 명)

구분	가계 수입이 없어서	남편 수입으로 생활비 부족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비 부족	자녀 양육/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서	집에 있는 것이 심심해서	본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	자녀/가족으로 부터 인정받기 위해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후 대책 마련을 위해	기타	계	(명)
기혼여성	0.3	27.5	-	39.2	3.5	22.0	0.2	4.0	3.1	0.1	100.0	(1,828)
미혼모	27.2	-	35.1	22.9	0.4	1.4	2.1	10.7	0.2	0.0	100.0	(515)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가계수입이 없어서' 항목은 기혼여성은 '현재 우리 집에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이고, 미혼모는 '본인이 벌지 않으면 현재 우리 집에 수입이 없어서'임.

3) '남편 수입으로 생활비 부족'은 기혼여성만 있는 항목이고, '정부지원금으로 생활비 부족'은 미혼모만 있는 항목임.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제 5 장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특성

제1절 돌봄·양육

제2절 경제활동 및 소득·소비

제3절 소결

5

초중고생 자녀를 둔 << 미혼모가족의 특성

이 장에서는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특성을 알아본다. 먼저 제1절에서는 돌봄 및 양육 분야에 대해 알아보는데, 이는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과 양육 내용이 주를 이루고,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양육 관련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 구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지,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이 장의 분석 대상이 된다. 초등학생 자녀와 중고등학생 자녀가 모두 있다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질문과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질문에 각각 응답하였다. 다만, 초등학생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는 더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질문에 한 번만 응답하였다. 최종적으로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질문에는 총 273명,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질문에는 총 50명이 각각 응답하였다. 제1절 돌봄·양육에서 초중고생 자녀 전체에 대한 몇몇 질문과 제2절 경제활동 및 소득·소비 부분에서는 초등학생 또는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기준으로 총 317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장의 분석 대상은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지와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이기 때문에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미혼모가족의 특성이고, 초중고생 자녀가 마지막 자녀인 가족의 특성은 아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 장의 목적은 초중고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가족의 특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분석에 포함한다.

이 장의 분석 대상인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317명 중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25사례, 가족 구성에서도 모자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외의 경우가 37사례에 불과해 이번 5장의 분석에서는 거주 상황과 가족 구성 특성에 따른 분석은 제외한다.

제1절 돌봄·양육

미혼모가족의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이 돌봄을 받는 곳은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가 48.7%, 공공인프라는 19.8%, 엄마 본인이 돌보는 경우는 14.3%, 사설교육기관은 11.7%,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는 3.3%로 나타났다.

자녀가 4학년 미만인 경우와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초등돌봄이나 방과후학교를 이용해 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4학년 이상인 경우는 사설교육기관에 다니는 비율이 다른 그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4학년 이상의 자녀 돌봄 방식에 대한 비율은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공공인프라, 사설교육기관, 본인이 돌보는 경우 각각에 균등하게 분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5-1〉 초등학생 자녀의 실제 주간 돌봄 방식

(단위: %, 명)

구분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공공 인프라	사설 교육기관	본인	친인척	기타	계	(명)
전체	48.7	19.8	11.7	14.3	3.3	2.2	100.0	(273)
자녀 학년								
4학년 미만	57.1	18.7	7.9	11.3	4.4	0.5	100.0	(203)
4학년 이상	24.3	22.9	22.9	22.9	0.0	7.1	100.0	(70)
기초보장								
비수급	50.4	17.1	10.9	14.7	4.7	2.3	100.0	(129)
수급	47.2	22.2	12.5	13.9	2.1	2.1	100.0	(144)

구분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공공 인프라	사설 교육기관	본인	친인척	기타	계	(명)
경제활동								
안 함	47.4	18.6	12.4	16.5	2.1	3.1	100.0	(97)
시간제근로	51.1	17.0	11.4	14.8	4.5	1.1	100.0	(88)
전일제근로	47.7	23.9	11.4	11.4	3.4	2.3	100.0	(88)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공공인프라는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복지관·주민센터·도서관 등이 해당되며, 사설교육기관은 사설 학원, 공부방, 방문교육 및 과외 등이 해당된다. 기타에는 친구나 지인,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 혼자 등이 포함됨.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1.4%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34.4%, 대체로 불만족은 10.3%, 매우 만족은 9.5%, 매우 불만족은 4.4%로 나타나 보통 수준과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4학년 미만인 경우는 대체로 만족과 매우 만족이 각각 36.5%, 11.3%인 데 반해, 동일한 응답에 대해 4학년 이상인 경우는 각각 28.6%와 4.3%로 나타나 4학년 이상의 그룹에서 자녀 돌봄 방식에 대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알아볼 수는 없지만, 엄마가 경제활동을 안 하거나 전일제근로를 하는 경우보다 시간제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돌봄 방식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돌봄 유형별 차이를 보면,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와 공공인프라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대체로 만족과 매우 만족에 응답한 비율이 사설교육기관이나 본인, 개인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해 높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표 5-2〉 초등학교생 자녀의 돌봄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명)
전체	4.4	10.3	41.4	34.4	9.5	100.0	(273)
자녀 학년($\chi^2=13.78^{**}$)							
4학년 미만	3.0	7.4	41.9	36.5	11.3	100.0	(203)
4학년 이상	8.6	18.6	40.0	28.6	4.3	100.0	(70)
돌봄 유형							
초등돌봄·방과후	3.8	5.3	41.4	37.6	12.0	100.0	(133)
공공인프라	1.9	7.4	40.7	38.9	11.1	100.0	(54)
시설교육기관	6.3	28.1	37.5	25.0	3.1	100.0	(32)
본인 및 개인돌봄	7.4	14.8	44.4	27.8	5.6	100.0	(54)
기초보장($\chi^2=2.06$)							
비수급	4.7	10.9	37.2	38.0	9.3	100.0	(129)
수급	4.2	9.7	45.1	31.3	9.7	100.0	(144)
경제활동							
안 함	4.1	13.4	45.4	28.9	8.2	100.0	(97)
시간제근로	4.5	5.7	36.4	38.6	14.8	100.0	(88)
전일제근로	4.5	11.4	42.0	36.4	5.7	100.0	(88)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돌봄유형 중 본인 및 개인돌봄에는 본인이 직접 돌보는 것을 포함하여, 친인척 돌봄, 친구나 지인,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 혼자있는 것이 포함됨.

현재 초등학교생 자녀의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 본 결과, 돌봄 공백 때문이라는 이유는 30.0%, 비용 부담 때문에는 27.5%,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22.5%,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는 20.0%로 나타났다.

〈표 5-3〉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비용 부담 때문에	돌봄 공백 때문에(아이 혼자 있는 시간)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	(명)
전체	27.5	30.0	22.5	20.0	100.0	(40)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모가 초등학생 자녀의 주간 돌봄 방식으로 희망하는 것은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가 37.0%, 공공인프라 20.1%, 본인 직접 돌봄이 18.7%, 사설교육기관은 15.8%, 친인척이 5.1%로 나타났다.

자녀가 4학년 미만인 경우는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를 원하는 비율이 42.9%로 4학년 이상의 그룹이 20.0%인 것과 비교해 차이를 보였다. 4학년 이상은 공공인프라나 사설교육기관에 대한 희망이 4학년 미만인 그룹과 비교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4〉 초등학생 자녀의 희망하는 주간 돌봄 방식

(단위: %, 명)

구분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공공 인프라	사설 교육기관	본인	친인척	기타	계	(명)
전체	37.0	20.1	15.8	18.7	5.1	3.3	100.0	(273)
자녀 학년($\chi^2=18.77^{**}$)								
4학년 미만	42.9	18.7	11.8	19.7	4.4	2.5	100.0	(203)
4학년 이상	20.0	24.3	27.1	15.7	7.1	5.7	100.0	(70)
기초보장($\chi^2=9.32$)								
비수급	36.4	17.1	14.0	24.0	7.0	1.6	100.0	(129)
수급	37.5	22.9	17.4	13.9	3.5	4.9	100.0	(144)
경제활동								
안 함	41.2	20.6	19.6	13.4	3.1	2.1	100.0	(97)
시간제근로	35.2	23.9	13.6	22.7	3.4	1.1	100.0	(88)
전일제근로	34.1	15.9	13.6	20.5	9.1	6.8	100.0	(88)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공공인프라는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복지관·주민센터·도서관 등이 해당되며, 사설교육기관은 사설 학원, 공부방, 방문교육 및 과외 등이 해당된다. 기타에는 친구나 지인,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 혼자 등이 포함됨.

현재 돌봄 방식에 대해 자녀 학년이 4학년 이상인 경우의 만족도가 4학년 미만인 경우보다 낮았기 때문에 고학년 자녀를 둔 미혼모의 희망하는 돌봄과 실제 돌봄 유형의 일치도를 보면, 사례 수가 작아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설교육기관에 대한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5〉 초등학교 4~6학년 자녀의 주간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돌봄 유형 일치도

(단위: %, 명)

구 분	실제				계	(명)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공공인프라	사설교육기관	본인		
전체	24.3	22.9	22.9	22.9	100.0	(61)
희망하는 곳 (사람)						
초등돌봄·방과후학교	50.0	14.3	21.4	14.3	100.0	(14)
공공인프라	17.6	52.9	11.8	11.8	100.0	(17)
사설교육기관	26.3	10.5	47.4	5.3	100.0	(19)
본인	9.1	9.1	9.1	63.6	100.0	(11)

주: 1) 음영 부분은 수급이 일치함을 의미함.

2)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3) 친인척 및 기타는 사례 수가 5 이하로 분석에서 제외함.

일주일 중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없는 경우는 응답자의 반 정도 되고, 1-2일 정도인 경우는 26.4%, 1주일에 5일 이상인 경우는 14.3%, 1주일에 3-4일 정도는 8.4%로 나타났다.

자녀가 고학년인 경우가 저학년인 경우와 비교해 혼자 있는 시간이 확연히 늘어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없다는 응답과 1주일에 5일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이 있다는 응답에서 상반되는 결과로 엄마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가족이 많은 미혼모가족의 특성상 저학년 자녀의 돌봄 계획이 어려울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엄마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없는 경우의 비율(62.9%)이 매우 높고, 전일제근로를 하는 엄마의 경우 1주일에 5일 이상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있다는 응답 비율(21.6%)이 높아 엄마의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5-6〉 일주일 중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단위: %, 명)

구분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없음	1주일에 1~2일 정도	1주일에 3~4일 정도	1주일에 5일 이상	계	(명)
전체	50.9	26.4	8.4	14.3	100.0	(273)
자녀 학년($\chi^2=23.87^{***}$)						
4학년 미만	57.6	26.6	5.9	9.9	100.0	(203)
4학년 이상	31.4	25.7	15.7	27.1	100.0	(70)
기초보장($\chi^2=5.06$)						
비수급	44.2	28.7	10.9	16.3	100.0	(129)
수급	56.9	24.3	6.3	12.5	100.0	(144)
경제활동($\chi^2=12.71^*$)						
안 함	62.9	21.6	6.2	9.3	100.0	(97)
시간제근로	44.3	33.0	10.2	12.5	100.0	(88)
전일제근로	44.3	25.0	9.1	21.6	100.0	(88)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시간 평균은 평일이 약 7시간 30분,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은 약 17시간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년에 따라서 평일 돌봄 시간에는 차이가 없었고, 토요일 돌봄 시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4학년 미만 저학년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17시간 이상이고, 4학년 이상 고학년 자녀에 대한 돌봄 평균시간은 약 14시간으로 나타났다. 기초보장 지원을 받는 경우와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가 기초보장 지원을 안 받는 경우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초등학생 자녀 돌봄 시간이 긴 특징을 보였다.

〈표 5-7〉 초등학생 자녀의 하루 평균 돌봄시간(평일, 토요일, 일요일)

(단위: 분, 명)

구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균 돌봄시간(분)	(명)	평균 돌봄시간(분)	(명)	평균 돌봄시간(분)	(명)
전체	444.6	(273)	993.6	(273)	1025.4	(273)
자녀 학년	($t=1.83$)		($t=3.11^{**}$)		($t=1.95$)	
4학년 미만	462.6	(203)	1044	(203)	1065	(203)
4학년 이상	392.4	(70)	847.2	(70)	910.2	(70)
기초보장	($t=-4.06^{***}$)		($t=-1.53$)		($t=-1.08$)	
비수급	359.4	(129)	945.0	(129)	994.2	(129)
수급	520.8	(144)	1036.8	(144)	1053	(144)
경제활동	($t=4.57^{***}$)		($t=0.54$)		($t=0.20$)	
안 함	578.4	(97)	1024.2	(97)	1047.6	(97)
함	370.8	(176)	976.2	(176)	1012.8	(176)

주: *** $p < .001$, ** $p < .01$, * $p < .05$

정부에서 초등학생 돌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대부분(96.3%) 알고 있었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있다는 응답이 77.2%로 나타났고,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다소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32.0%,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37.4%, 보통이라는 응답이 21.2%로 나타났다.

모 연령이 30대인 경우가 이용 경험이 가장 높았고(83.1%), 20대의 경우는 초등돌봄교실을 아는 엄마 중 58.7%가 이용했다고 응답해 다른 연령대보다 이용 경험이 낮았다. 전반적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도움 정도에 대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을 보면, 자녀가 4학년 이상인 경우 16.0%, 엄마의 연령이 20대인 경우는 14.8%, 엄마가 전일제근로를 하는 경우는 12.1% 등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거나 전일제근로 등으로 엄마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표 5-8〉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학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초등돌봄교실)

(단위: %, 명)

구분	인지 여부		(명)	이용 경험		(명)	도움 정도					(명)
	모름	알고 있음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전체	3.7	96.3	(273)	22.8	77.2	(263)	1.0	8.4	21.2	32.0	37.4	(203)
모 연령				$(\chi^2=11.75^{**})$								
만 20-29세	6.1	93.9	(49)	41.3	58.7	(46)	3.7	14.8	11.1	37.0	33.3	(27)
만 30-39세	3.4	96.6	(147)	16.9	83.1	(142)	0.8	7.6	22.9	30.5	38.1	(118)
만 40세 이상	2.6	97.4	(77)	22.7	77.3	(75)	0.0	6.9	22.4	32.8	37.9	(58)
자녀 학년				$(\chi^2=0.003)$								
4학년 미만	2.5	97.5	(203)	22.7	77.3	(198)	0.7	5.9	18.3	32.0	43.1	(153)
4학년 이상	7.1	92.9	(70)	23.1	76.9	(65)	2.0	16.0	30.0	32.0	20.0	(50)
기초보장				$(\chi^2=0.70)$								
비수급	5.4	94.6	(129)	20.5	79.5	(122)	1.0	9.3	14.4	30.9	44.3	(97)
수급	2.1	97.9	(144)	24.8	75.2	(141)	0.9	7.5	27.4	33.0	31.1	(106)
경제활동				$(\chi^2=0.07)$								
안 함	3.1	96.9	(97)	22.3	77.7	(94)	2.7	9.6	24.7	34.2	28.8	(73)
시간제근로	4.5	95.5	(88)	23.8	76.2	(84)	0.0	3.1	20.3	32.8	43.8	(64)
전일제근로	3.4	96.6	(88)	22.4	77.6	(85)	0.0	12.1	18.2	28.8	40.9	(66)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조사 대상자의 85.0%로 나타났다. 이용 경험은 없는 비율이 57.3%로 이용한 적이 있는 비율보다 많고, 이용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의 80.0% 이상이 보통 이상으로 도움이 됐다고 응답하였다.

모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엄마의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아동센터를 알고 있는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용 경험은 오히려 엄마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녀가 4학년 미만인 경우보다 4학년 이상인 경우에 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엄마의 경제활동에 따라서 보

면,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시간제근로를 하는 엄마의 경우 이용률이 36.7%로 전일제근로를 하는 엄마의 50.0%보다 낮게 나타났다. 엄마가 20대인 경우와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에 대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5.0%와 14.7%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는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는 응답과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는 응답을 더한 비율이 29.4%로 다른 그룹과 비교해 도움 정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심층인터뷰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방과후도 5시까지예요. 그 이후에 아이는 또 어떻게 해요. 사설학원 가게 되면 학원비 또 들어가고. 지역아동센터는 다 무료예요. 저녁 7시까지 아이를 봐줘요. 간식도 주고 밥도 주고.”(B2)

〈표 5-9〉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학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지역아동센터)

(단위: %, 명)

구분	인지 여부		(명)	이용 경험		(명)	도움 정도					(명)
	모름	알고 있음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전체	15.0	85.0	(273)	57.3	42.7	(232)	5.1	10.1	12.1	34.3	38.4	(99)
모 연령	$(\chi^2=5.47)$			$(\chi^2=6.18^*)$								
만 20-29세	22.4	77.6	(49)	47.4	52.6	(38)	15.0	5.0	10.0	25.0	45.0	(20)
만 30-39세	16.3	83.7	(147)	53.7	46.3	(123)	1.8	7.0	14.0	45.6	31.6	(57)
만 40세 이상	7.8	92.2	(77)	69.0	31.0	(71)	4.5	22.7	9.1	13.6	50.0	(22)
자녀 학년	$(\chi^2=1.86)$			$(\chi^2=5.87^*)$								
4학년 미만	16.7	83.3	(203)	62.1	37.9	(169)	4.7	6.3	12.5	32.8	43.8	(64)
4학년 이상	10.0	90.0	(70)	44.4	55.6	(63)	5.7	17.1	11.4	37.1	28.6	(35)
기초보장	$(\chi^2=3.65)$			$(\chi^2=1.37)$								
비수급	19.4	80.6	(129)	61.5	38.5	(104)	2.5	0.0	12.5	40.0	45.0	(40)
수급	11.1	88.9	(144)	53.9	46.1	(128)	6.8	16.9	11.9	30.5	33.9	(59)

구분	인지 여부		(명)	이용 경험		(명)	도움 정도					(명)
	모름	알고 있음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경제활동	$(\chi^2=2.44)$			$(\chi^2=2.75)$								
안 함	16.5	83.5	(97)	58.0	42.0	(81)	14.7	14.7	2.9	23.5	44.1	(34)
시간제근로	10.2	89.8	(88)	63.3	36.7	(79)	0.0	10.3	27.6	31.0	31.0	(29)
전일제근로	18.2	81.8	(88)	50.0	50.0	(72)	0.0	5.6	8.3	47.2	38.9	(36)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초등생 자녀를 둔 조사 대상 미혼모 중 85.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중 40.9%가 이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사용 경험에 대해서는 85.2%가 보통 이상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특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대부분 전체 응답 수준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도움 정도에서 엄마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와 자녀가 4학년 이상인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엄마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면 자녀가 4학년 이상일 비율이 높아 두 그룹이 같은 경향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5-10〉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학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아이돌봄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명)
	모름	알고 있음	(명)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명)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전체	15.0	85.0	(273)	59.1	40.9	(232)	4.2	10.5	20.0	32.6	32.6	(95)
모 연령	$(\chi^2=2.45)$			$(\chi^2=0.14)$								
만 20-29세	20.4	79.6	(49)	61.5	38.5	(39)	6.7	6.7	20.0	20.0	46.7	(15)
만 30-39세	15.6	84.4	(147)	58.9	41.1	(124)	3.9	3.9	21.6	39.2	31.4	(51)
만 40세 이상	10.4	89.6	(77)	58.0	42.0	(69)	3.4	24.1	17.2	27.6	27.6	(29)
자녀 학년	$(\chi^2=0.33)$			$(\chi^2=0.01)$								
4학년 미만	14.3	85.7	(203)	59.2	40.8	(174)	2.8	7.0	16.9	36.6	36.6	(71)
4학년 이상	17.1	82.9	(70)	58.6	41.4	(58)	8.3	20.8	29.2	20.8	20.8	(24)
기초보장	$(\chi^2=1.51)$			$(\chi^2=0.83)$								
비수급	17.8	82.2	(129)	62.3	37.7	(106)	2.5	12.5	20.0	27.5	37.5	(40)
수급	12.5	87.5	(144)	56.3	43.7	(126)	5.5	9.1	20.0	36.4	29.1	(55)
경제활동	$(\chi^2=0.74)$			$(\chi^2=0.32)$								
안 함	15.5	84.5	(97)	57.3	42.7	(82)	8.6	8.6	20.0	28.6	34.3	(35)
시간제근로	12.5	87.5	(88)	58.4	41.6	(77)	3.1	12.5	18.8	37.5	28.1	(32)
전일제근로	17.0	83.0	(88)	61.6	38.4	(73)	0.0	10.7	21.4	32.1	35.7	(28)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꼽은 것은 아이돌봄 비용 및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점이 28.6%, 아이를 돌보거나 챙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21.2%, 방과후 아이를 돌봐줄 곳이 마땅치 않는다는 점이 15.4%, 아이 학습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11.7%, 아이 생활 태도지도나 훈육이 어렵다는 점이 10.6%, 미혼모 자녀라고 아이가 학교에서 차별받거나 따돌림 당해 적응을 못하는 것이 걱정이라는 응답이 5.9%, 아이에게 가족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이 4.0%,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는 응답은 2.6%로 나타났다.

기초보장 지원을 받지 않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은 아이를 돌보거나 챙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힘든 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

고, 반대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아이 생활 태도 지도나 훈육이 어렵다는 응답과 아이 학습관리가 어렵다는 점, 아이가 학교에서 차별 및 따돌림을 받거나 적응을 못해 걱정이라는 점 등이 더 힘든 점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아이 돌보거나 챙기는 시간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1〉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1순위)

(단위: %, 명)

구분	아이 돌봄 비용 및 교육비 부담	아이를 돌보거나 챙길 시간 부족	방과 후 아이 돌보줄 곳이 마땅치 않음	아이 생활태도 지도나 훈육 어려움	아이 학습 관리 어려움	아이가 미혼모 자녀라고 학교에서 차별· 따돌림 받거나 적응 못하는 것	아이에게 가족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는 것	특별히 어려운 점 없음	계	(명)
전체	28.6	21.2	15.4	10.6	11.7	5.9	4.0	2.6	100.0	(273)
모 연령										
만 20-29세	22.4	24.5	16.3	4.1	16.3	8.2	6.1	2.0	100.0	(49)
만 30-39세	32.0	18.4	17.0	12.9	8.8	6.1	2.7	2.0	100.0	(147)
만 40세 이상	26.0	24.7	11.7	10.4	14.3	3.9	5.2	3.9	100.0	(77)
자녀 연령($\chi^2=10.82$)										
4학년 미만	28.6	23.6	17.2	10.8	9.9	4.4	3.4	2.0	100.0	(203)
4학년 이상	28.6	14.3	10.0	10.0	17.1	10.0	5.7	4.3	100.0	(70)
기초보장($\chi^2=23.57^{**}$)										
비수급	27.9	30.2	14.7	7.8	7.0	3.1	4.7	4.7	100.0	(129)
수급	29.2	13.2	16.0	13.2	16.0	8.3	3.5	0.7	100.0	(144)
경제활동($\chi^2=16.67^{*}$)										
안 함	29.9	10.3	16.5	11.3	17.5	7.2	6.2	1.0	100.0	(97)
함	27.8	27.3	14.8	10.2	8.5	5.1	2.8	3.4	100.0	(176)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다음은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50명에 대한 분석이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자녀에게 신경 써 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자녀의 생활 태도 지도나 훈육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다.

고등학생 자녀는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교육비 부담과 자녀의 진학

및 학습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중학생 자녀의 양육보다 어렵게 작용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기초생활 지원을 받는 경우보다 받지 않는 경우와 일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일을 하는 경우에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5-12〉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1순위)

(단위: %, 명)

구분	교육비 부담	자녀에게 신경 써 줄 시간 부족	자녀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 하지 못하는 것	자녀의 생활 태도 지도나 훈육 어려움	자녀의 진학 및 학습 관리 어려움	자녀에게 가족 상황을 설명 하거나 이해시키는 것	기타	특별히 어려운 점 없음	계	(명)
전체	54.0	12.0	4.0	12.0	10.0	4.0	2.0	2.0	100.0	(50)
자녀 연령										
중학교	52.9	14.7	2.9	14.7	5.9	2.9	2.9	2.9	100.0	(34)
고등학교	56.3	6.3	6.3	6.3	18.8	6.3	0.0	0.0	100.0	(16)
기초보장										
비수급	71.4	14.3	0.0	3.6	7.1	3.6	0.0	0.0	100.0	(28)
수급	31.8	9.1	9.1	22.7	13.6	4.5	4.5	4.5	100.0	(22)
경제활동										
안 함	26.3	10.5	5.3	31.6	10.5	10.5	0.0	5.3	100.0	(19)
함	71.0	12.9	3.2	0.0	9.7	0.0	3.2	0.0	100.0	(31)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자녀건강관리의 어려움'

이어지는 초중고생 자녀에 대한 부분은 이 장 서두에 설명했듯이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거나,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분석 대상이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자녀와 중고등학생 자녀가 모두 있어도 한 번만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 총 317명의 응답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자녀 학년은 더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초중고생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잘 기르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조사 응답자 중 51.4%였고, 별로 잘 기르고 있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한 비율은 40.1%로 나타났다. 이 응답을 부정적 응답과 긍정적 응답으로 비율을 나누어 보면, 긍정적인 응답(잘

기르고 있는 편이다 + 매우 잘 기르고 있다)은 54.6%, 부정적인 응답(별로 잘 기르고 있지 않은 편이다 + 전혀 잘 기르고 있지 않다)은 45.5%로 자신의 양육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비율이 약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성에 따른 차이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두 그룹)로 나누었을 때보다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 시간제근로와 전일제근로로(세 그룹) 구분했을 때 차이가 보였는데, 전일제근로를 하는 경우에 잘 기르고 있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7.2%) 나타났다.

〈표 5-13〉 초중고생 자녀 양육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전혀 잘 기르고 있지 않다	별로 잘 기르고 있지 않은 편이다	잘 기르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 기르고 있다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6.1	36.3	53.3	4.3	100.0	(985)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5.4	40.1	51.4	3.2	100.0	(317)
모 연령						
만 20-29세	2.0	38.0	56.0	4.0	100.0	(50)
만 30-39세	7.1	39.6	50.3	3.0	100.0	(169)
만 40세 이상	4.1	41.8	51.0	3.1	100.0	(98)
자녀 학년						
초등학생	3.7	39.2	54.2	2.9	100.0	(273)
중고등학생	15.9	45.5	34.1	4.5	100.0	(44)
기초보장($\chi^2=0.14$)						
비수급	5.1	41.0	50.6	3.2	100.0	(156)
수급	5.6	39.1	52.2	3.1	100.0	(161)
경제활동($\chi^2=0.17$)						
안 함	5.5	39.1	51.8	3.6	100.0	(110)
함	5.3	40.6	51.2	2.9	100.0	(207)
경제활동						
안 함	5.5	39.1	51.8	3.6	100.0	(110)
시간제근로	3.1	39.6	54.2	3.1	100.0	(96)
전일제근로	7.2	41.4	48.6	2.7	100.0	(111)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초중고생 자녀를 잘 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는 이유가 36.8%, 엄마가 심리·정서적으로 힘들어서라는 이유는 34.7%로 두 가지 이유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엄마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라는 이유는 14.6%, 자녀와 함께할 시간이 부족해서는 11.8%,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는 1.4% 등으로 나타났다. 이 초중고 자녀 미혼모들이 자녀를 잘 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을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들이 대답한 응답과 더한 전체의 응답과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응답에서는 엄마가 심리·정서적으로 힘들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초중고생 자녀를 둔 엄마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엄마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그룹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20대 엄마들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대 그룹은 30, 40대 그룹과 달리 조사 대상자 전체의 결과와 같이 엄마가 심리·정서적으로 힘들어서라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보다 여전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는 엄마가 심리·정서적으로 힘들어서라는 이유와 경제적 이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중고등학생인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가 여전히 가장 많지만, 엄마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라는 이유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져 엄마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는 엄마의 심리적 이유를 택한 비율이 과반수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경제적 이유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표 5-14〉 초중고생 자녀 양육을 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엄마가 심리·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엄마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자녀와 함께할 시간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버지의 부재로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37.8	21.3	12.0	24.9	3.1	1.0	100.0	(418)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34.7	14.6	11.8	36.8	1.4	0.7	100.0	(144)
모 연령								
만 20-29세	35.0	10.0	25.0	25.0	5.0	0.0	100.0	(20)
만 30-39세	36.7	11.4	11.4	40.5	0.0	0.0	100.0	(79)
만 40세 이상	31.1	22.2	6.7	35.6	2.2	2.2	100.0	(45)
자녀 학년								
초등학생	37.6	11.1	10.3	38.5	1.7	0.9	100.0	(117)
중고등학생	22.2	29.6	18.5	29.6	0.0	0.0	100.0	(27)
기초보장								
비수급	27.8	20.8	19.4	30.6	0.0	1.4	100.0	(72)
수급	41.7	8.3	4.2	43.1	2.8	0.0	100.0	(72)
경제활동								
안 함	53.1	10.2	4.1	30.6	2.0	0.0	100.0	(49)
함	25.3	16.8	15.8	40.0	1.1	1.1	100.0	(95)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엄마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초중고생 자녀가 잘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양육 및 교육에 드는 비용 지원이 53.0%로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은 근무시간 유연화, 휴가 등 시간 확보 지원이 20.5%, 아이 심리 상담 서비스는 10.7%, 아이돌봄 시설 및 서비스는 5.4%, 아이 양육·훈육·교육 방법에 대한 엄마 교육은 4.4%, 엄마 심리 상담 서비스는 3.8%,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 없는 환경은 2.2%로 나타났다.

자녀가 초등생인 경우보다는 중고등학생인 경우 양육 및 교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수급을 받는 경우, 경제

활동을 안 하는 경우에도 상대 그룹과 비교해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 지원을 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는 경제활동 시 시간 확보에 대한 욕구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5〉 초중고생 자녀가 잘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단위: %, 명)

구분	양육·교육에 드는 비용 지원	아이 돌봄 시설·서비스	아이 심리 상담 서비스	엄마 심리 상담 서비스	아이 양육·교육 방법에 대한 엄마 교육	근무 시간 유연화, 휴가 등 시간 확보 지원	미혼모 가족에 대한 편견 없는 환경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43.4	12.1	7.2	3.9	6.0	23.9	3.7	100.0	(985)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53.0	5.4	10.7	3.8	4.4	20.5	2.2	100.0	(317)
모 연령									
만 20-29세	64.0	10.0	6.0	0.0	6.0	12.0	2.0	100.0	(50)
만 30-39세	50.9	4.7	11.2	5.3	3.6	22.5	1.8	100.0	(169)
만 40세 이상	51.0	4.1	12.2	3.1	5.1	21.4	3.1	100.0	(98)
자녀 연령									
초등학생	51.3	5.9	11.4	3.3	4.4	22.0	1.8	100.0	(273)
중고등학생	63.6	2.3	6.8	6.8	4.5	11.4	4.5	100.0	(44)
기초보장($\chi^2=5.87$)									
비수급	48.7	5.8	9.6	3.8	3.8	25.6	2.6	100.0	(156)
수급	57.1	5.0	11.8	3.7	5.0	15.5	1.9	100.0	(161)
경제활동									
안 함	59.1	5.5	13.6	2.7	1.8	15.5	1.8	100.0	(110)
함	49.8	5.3	9.2	4.3	5.8	23.2	2.4	100.0	(207)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제2절 경제활동 및 소득·소비

이 절에서는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미혼모가족의 경제활동 및 소득과 소비 특성을 알아본다. 이 절도 제1절에 이어서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거나,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인 총 317명이 분석 대상이다.

1. 경제활동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의 경제활동을 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은 34.7%로 조사 대상 전체가 응답한 비율(49.7%)과 비교해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미혼모의 근로형태로 구분해 보면, 시간제근로는 하는 경우는 30.3%, 전일제근로를 하는 경우는 35.0%로 나타났다.

자녀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경우보다 경제활동을 안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가 많지 않지만 그중 52.3%가 전일제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이 기초보장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엄마가 전일제근로를 하는 비율이 59.0%인 데 반해, 기초보장 지원을 받는 경우는 엄마가 경제활동을 안 하는 비율이 54.0%로 나타났다.

〈표 5-16〉 초중고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제활동

(단위: %, 명)

구분	경제활동 안 함	경제활동 함		계	(명)
		시간제근로	전일제근로		
조사 대상 전체	49.7	26.2	24.1	100.0	(1,247)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34.7	30.3	35.0	100.0	(317)
모 연령($\chi^2=0.81$)					
만 20-29세	38.0	32.0	30.0	100.0	(50)
만 30-39세	33.7	30.8	35.5	100.0	(169)
만 40세 이상	34.7	28.6	36.7	100.0	(98)
자녀 학년($\chi^2=7.21^*$)					
초등학생	35.5	32.2	32.2	100.0	(273)
중고등학생	29.5	18.2	52.3	100.0	(44)
기초보장($\chi^2=87.23^{***}$)					
비수급	14.7	26.3	59.0	100.0	(156)
수급	54.0	34.2	11.8	100.0	(161)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초중고생 자녀를 둔 어머니가 가장 희망하는 일자리는 근무시간이 유연한 일자리로 28.1%가 응답하였고, 급여가 높은 일자리는 21.5%, 미혼모에 대한 편견·차별 없는 일자리는 19.2%, 동료들끼리 사이좋고 편한 분위기의 일자리는 17.7%, 본인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는 12.6% 등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이 20대인 경우 급여 조건과 근무시간 조건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중요한 조건으로 보인다. 유연한 근무시간에 대한 희망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30대와 40대 이상의 어머니 그룹에서는 동료 간 좋은 분위기나 편견 없는 일자리, 본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20대 그룹보다 조금 더 높은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표 5-17〉 초중고생 자녀를 둔 엄마가 가장 희망하는 일자리(1순위)

(단위: %, 명)

구분	동료들끼리 사이좋고 편한 분위기 일자리	미혼모에 대한 편견/차별 없는 일자리	본인의 발전가능성 높은 일자리	급여 높은 일자리	근무시간 유연한 일자리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15.3	24.1	9.8	22.2	28.2	0.4	100.0	(1,247)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17.7	19.2	12.6	21.5	28.1	0.9	100.0	(317)
모 연령($\chi^2=8.68$)								
만 20-29세	12.0	16.0	8.0	32.0	32.0	0.0	100.0	(50)
만 30-39세	18.3	20.1	13.0	21.3	26.6	0.6	100.0	(169)
만 40세 이상	19.4	19.4	14.3	16.3	28.6	2.0	100.0	(98)
자녀 학년($\chi^2=5.56$)								
초등학생	16.8	20.5	11.4	21.6	28.6	1.1	100.0	(273)
중고등학생	22.7	11.4	20.5	20.5	25.0	0.0	100.0	(44)
기초보장($\chi^2=7.63$)								
비수급	19.2	14.7	11.5	23.1	29.5	1.9	100.0	(156)
수급	16.1	23.6	13.7	19.9	26.7	0.0	100.0	(161)
경제활동($\chi^2=9.42$)								
안 함	22.7	23.6	9.1	16.4	28.2	0.0	100.0	(110)
함	15.0	16.9	14.5	24.2	28.0	1.4	100.0	(207)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안정적인 일자리', '양육병행이 가능한 직장'

가. 초중고생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

초중고생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상용근로자가 54.6%, 임시근로자가 23.2%, 일용근로자가 15.0%, 자영업자가 6.3%, 무급가족종사자가 1.0%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이 조사 응답자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보다 중고등학생인 경우 엄마가 상용근로자인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5-18〉 초중고생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46.4	32.5	14.5	4.9	1.6	100.0	(627)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54.6	23.2	15.0	6.3	1.0	100.0	(207)
모 연령							
만 20-29세	48.4	38.7	9.7	3.2	0.0	100.0	(31)
만 30-39세	54.5	22.3	15.2	7.1	0.9	100.0	(112)
만 40세 이상	57.8	17.2	17.2	6.3	1.6	100.0	(64)
자녀 학년							
초등학생	52.3	23.3	16.5	6.8	1.1	100.0	(176)
중고등학생	67.7	22.6	6.5	3.2	0.0	100.0	(31)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초중고생 자녀를 둔 엄마가 일하는 분야는 조사 대상자 전체의 응답과 비슷하게 사무종사자 26.6%, 서비스종사자 25.6%로 두 분야에서 일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엄마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인 경우의 비율이 상승하고, 판매종사자의 비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경우 초등학생인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과 사무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종사자의 비율은 초등생 자녀를 둔 엄마 그룹이 중고생 자녀를 둔 엄마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국 자녀가 성장하고 엄마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판매나 서비스직보다는 전문가 및 관련 직종이나 사무직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19〉 초중고생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의 분야

(단위: %, 명)

구분	관리 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 자	서비 스 종사 자	판매 종사 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 자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0.6	15.2	23.8	26.6	15.2	2.7	1.1	14.5	100.0	(627)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1.4	15.9	26.6	25.6	12.1	3.4	1.0	14.0	100.0	(207)
모 연령										
만 20-29세	0.0	9.7	22.6	32.3	19.4	0.0	0.0	16.1	100.0	(31)
만 30-39세	0.9	14.3	22.3	29.5	12.5	5.4	1.8	13.4	100.0	(112)
만 40세 이상	3.1	21.9	35.9	15.6	7.8	1.6	0.0	14.1	100.0	(64)
자녀 연령										
초등학생	0.6	14.2	24.4	27.3	14.2	4.0	1.1	14.2	100.0	(176)
중고등학생	6.5	25.8	38.7	16.1	0.0	0.0	0.0	12.9	100.0	(31)
기초보장										
비수급	2.3	17.3	31.6	27.8	9.8	2.3	0.8	8.3	100.0	(133)
수급	0.0	13.5	17.6	21.6	16.2	5.4	1.4	24.3	100.0	(74)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에서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타' 항목은 응답 사례가 없으므로 제외(조사 대상 전체는 각각 0.2%, 0.2% 응답)

초중고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33.5시간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 전체와 비교해 2시간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20-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비율이 30.0%로 가장 많고, 40시간 초과인 경우도 28.0%로 높았다. 그리고 40시간인 경우는 22.7%, 20시간 미만인 경우는 19.3%로 나타나 조사 대상 전체로 보면 20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과 다른 경향이 나타난다.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 어머니의 평균 일하는 시간은 32시간인 데 반해,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경우는 평균 42시간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는 40시간을 넘게 일하는 경우의 비율이 48.4%로 높게 나타났고, 2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는 9.7%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자녀의 학년에 따라 엄마의 근로시간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다. 기초보장 지원을 받는 경우는 20-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엄마의 비율이 40.5%로 가장 높았고, 수급을 받지 않은 경우는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가 34.6%로 가장 높아 차이를 보였다. 평균 시간으로 보더라도 기초생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약 24시간을 일하는 데 반해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엄마의 평균 일하는 시간이 약 39시간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5-20〉 초중고생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의 주당 근로시간

(단위: %, 명, 시간)

구분	20시간 미만	20-40시간 미만	40시간	40시간 초과	계	(명)	평균 (시간)
조사 대상 전체	27.3	26.3	20.1	26.3	100.0	(627)	31.5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19.3	30.0	22.7	28.0	100.0	(207)	33.5
모 연령($\chi^2=5.82$)							
만 20-29세	25.8	35.5	25.8	12.9	100.0	(31)	28.7
만 30-39세	19.6	30.4	22.3	27.7	100.0	(112)	33.1
만 40세 이상	15.6	26.6	21.9	35.9	100.0	(64)	36.5
자녀 학년($\chi^2=8.00^*$)							
초등학생	21.0	31.3	23.3	24.4	100.0	(176)	32.0
중고등학생	9.7	22.6	19.4	48.4	100.0	(31)	42.1
기초보장($\chi^2=27.46^{***}$)							
비수급	12.0	24.1	29.3	34.6	100.0	(133)	38.5
수급	32.4	40.5	10.8	16.2	100.0	(74)	24.4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중 일을 하기는 하지만 시간제근로를 하고 전일제근로를 하지 않는 엄마에게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응답자의 과반수(58.3%)가 육아 및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건강상의 이유

라고 응답한 비율은 11.5%, 다른 일자리와의 병행을 위해서와 전일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서는 각각 7.3%, 학업 병행을 위해서는 5.2%, 직업 훈련 병행을 위해서는 4.2%로 나타났다.

〈표 5-21〉 초중고생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가 전일제근로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육아/ 자녀 교육 때문	건강상 이유	학업 병행을 위해	다른 일자리와 병행을 위해	직업 훈련 병행을 위해	전일제 직장 구하기 어려워서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66.7	9.2	5.2	2.1	2.8	8.9	2.8	100.0	(327)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58.3	11.5	5.2	7.3	4.2	7.3	6.3	100.0	(96)
모 연령									
만 20-29세	56.3	6.3	18.8	12.5	0.0	6.3	0.0	100.0	(16)
만 30-39세	69.2	13.5	1.9	3.8	3.8	1.9	5.8	100.0	(52)
만 40세 이상	39.3	10.7	3.6	10.7	7.1	17.9	10.7	100.0	(28)
자녀 연령									
초등학생	62.5	9.1	5.7	5.7	4.5	5.7	6.8	100.0	(88)
중고등학생	12.5	37.5	0.0	25.0	0.0	25.0	0.0	100.0	(8)
기초보장									
비수급	51.2	14.6	2.4	9.8	4.9	7.3	9.8	100.0	(41)
수급	63.6	9.1	7.3	5.5	3.6	7.3	3.6	100.0	(55)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권고사직', '급여수준 불만족', '나이가 많아서', '소득인정액 내에서의 혜택 때문에', '전일제로 변경 예정'

3)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에서 '집안일이 많아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 항목은 응답 사례가 없으므로 제외(조사 대상 전체는 각각 1.8%, 0.6%로 응답)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미혼모 중 일하는 엄마는 일·가정 양립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 대상 전체와 비교하면 아주 약간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경우와 비교하면 아직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2〉 초중고생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어려운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어려움 없음	별로 어려움 없음	대체로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1.4	15.3	54.2	29.0	100.0	(627)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0.5	18.4	55.6	25.6	100.0	(207)
모 연령						
만 20-29세	0.0	12.9	74.2	12.9	100.0	(31)
만 30-39세	0.9	23.2	49.1	26.8	100.0	(112)
만 40세 이상	0.0	12.5	57.8	29.7	100.0	(64)
자녀 연령						
초등학생	0.6	16.5	56.8	26.1	100.0	(176)
중고등학생	0.0	29.0	48.4	22.6	100.0	(31)
기초보장						
비수급	0.8	20.3	54.1	24.8	100.0	(133)
수급	0.0	14.9	58.1	27.0	100.0	(74)
근로유형						
시간제	0.0	17.7	50.0	32.3	100.0	(96)
전일제	0.9	18.9	60.4	19.8	100.0	(111)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초중고생 자녀를 둔 일하지 않는 엄마

지금까지 초중고생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일하지 않는 엄마에 대해 알아본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엄마가 일하지 않는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가 34.5%로 가장 많고, 육아 때문이라는 이유도 33.6%로 비슷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엄마의 연령이 20대인 경우는 자녀 돌봄 때문이 36.8%이고, 학업 때문이 26.3%로 30대나 40대와 다른 이유로 현재 일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30대 엄마들의 경우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5.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40대 이상의 엄마들은 건강상의 이유가 47.1%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5-23〉 초중고생 자녀를 둔 엄마가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육아 (자녀 돌봄) 때문	부모/ 가족 돌봄 때문	건강상 이유	적당한 일자리 없어서	근처에 일자리 없어서	다니던 직장 휴업 등	미혼모 라는 이유로 권고 사직	학업 때문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53.1	1.5	12.6	10.2	1.8	1.9	0.3	8.4	6.0	100.0	(620)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33.6	0.9	34.5	10.0	1.8	4.5	0.9	8.2	5.5	100.0	(110)
모 연령											
만 20-29세	36.8	0.0	15.8	5.3	0.0	5.3	0.0	26.3	10.5	100.0	(19)
만 30-39세	35.1	0.0	33.3	15.8	1.8	3.5	0.0	5.3	5.3	100.0	(57)
만 40세 이상	29.4	2.9	47.1	2.9	2.9	5.9	2.9	2.9	2.9	100.0	(34)
자녀 연령											
초등학생	30.9	0.0	35.1	11.3	2.1	4.1	1.0	9.3	6.2	100.0	(97)
중고등학생	53.8	7.7	30.8	0.0	0.0	7.7	0.0	0.0	0.0	100.0	(13)
기초보장											
비수급	17.4	0.0	21.7	26.1	4.3	8.7	0.0	8.7	13.0	100.0	(23)
수급	37.9	1.1	37.9	5.7	1.1	3.4	1.1	8.0	3.4	100.0	(87)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에서 '가사 때문', '가족 반대 때문', '교육, 기술, 경험부족', '일할 필요가 없어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 항목은 응답 사례가 없으므로 제외(조사 대상 전체는 각각 0.3%, 0.8%, 2.9%, 0.3%, 0.0%로 응답)

초중고생 자녀를 둔 현재 일하지 않는 엄마의 향후 취업 의향은 90.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미혼모의 연령이 40대 이상이 되면서 향후 취업 의향이 약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4〉 초중고생 자녀를 둔 일하지 않는 엄마의 향후 취업 의향

(단위: %, 명)

구분	의향 없음	의향 있음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6.9	93.1	100.0	(620)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9.1	90.9	100.0	(110)
모 연령				
만 20-29세	5.3	94.7	100.0	(19)
만 30-39세	5.3	94.7	100.0	(57)
만 40세 이상	17.6	82.4	100.0	(34)
자녀 학년				
초등학생	8.2	91.8	100.0	(97)
중고등학생	15.4	84.6	100.0	(13)
기초보장				
비수급	8.7	91.3	100.0	(23)
수급	9.2	90.8	100.0	(87)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초중고생 자녀를 둔 일하지 않는 엄마가 앞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 이유는 정부지원금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라는 이유가 42.0%, 가계 수입이 없어서라는 이유는 36.0%,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서라는 이유는 12.0%,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6.0%, 본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3.0%, 집에 있는 것이 심심하고 답답해서라는 이유는 1.0% 등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중학생 이상이 되면 생활비가 부족해 엄마가 일하려는 상황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20대 미혼모와 기초보장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는 가계 수입 자체가 없어서 일을 하려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표 5-25〉 초중고생 자녀를 둔 일하지 않는 엄마가 향후 취업하려는 가장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본인이 벌지 않으면 가계 수입이 없어서	정부지원 금으로 생활비 부족	자녀 양육/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서	집에 있는 것이 심심하고 답답해서	본인의 자아실현 을 위해	경제적 독립을 위해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28.2	35.5	21.8	0.5	1.7	10.1	100.0	(577)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36.0	42.0	12.0	1.0	3.0	6.0	100.0	(100)
모 연령								
만 20~29세	50.0	22.2	16.7	0.0	0.0	11.1	100.0	(18)
만 30~39세	37.0	48.1	5.6	0.0	1.9	7.4	100.0	(54)
만 40세 이상	25.0	42.9	21.4	3.6	7.1	0.0	100.0	(28)
자녀 학년								
초등학생	37.1	39.3	13.5	1.1	2.2	6.7	100.0	(89)
중고등학생	27.3	63.6	0.0	0.0	9.1	0.0	100.0	(11)
기초보장								
비수급	66.7	9.5	14.3	4.8	0.0	4.8	100.0	(21)
수급	27.8	50.6	11.4	0.0	3.8	6.3	100.0	(79)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에서 '자녀/가족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후대책 마련을 위해', '기타' 항목은 응답 사례가 없으므로 제외(조사 대상 전체 100% 중에는 '자녀/가족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1.9%, '노후대책 마련을 위해' 0.2%, '기타' 0.0%가 포함(총 2.1%)되어 있으나 본 표에 제시하지 않음)

2. 소득 및 소비

이 연구의 조사에 참여한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의 한 달 평균 소득은 약 144만 원으로 나타났다. 100만~15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4.3%, 50만~100만 원 미만과 150만~200만 원 미만의 소득은 각각 20.7%, 2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18.1%, 50만 원 미만은 6.1%로 나타났다.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경우는 월평균 소득이 약 180만 원으로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의 약 139만 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가족의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중 200만 원 이상의 월 평균 수입이 있는 비율이 40.5%로 높게 나타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과 월평균 수입에서 차이를 보였다. 조사 대상자 중 기초보장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미혼모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약 176만 원이고, 기초보장 지원을 받는 가족은 약 114만 원으로 나타났다. 기초보장을 받고 있는 가족의 경우 월 100만~150만 원 미만의 구간에 응답자의 47.5%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의 월평균 소득액은 약 104만 원이었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약 165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50만~100만 원 미만 소득 구간에 41.0%가 집중되어 있어 소득이 낮은 그룹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6〉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의 월평균 소득액(경제적 지원 포함)

(단위: %, 명)

구분	50만 원 미만	50만~ 100만 원 미만	100만~ 150만 원 미만	150만~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계	(명)	평균 금액 (만 원)
조사 대상 전체	9.5	27.9	29.9	17.6	15.0	100.0	(1,196)	131.1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6.1	20.7	34.3	20.7	18.1	100.0	(309)	144.1
모 연령($\chi^2=3.48$)								
만 20~29세	8.0	18.0	40.0	16.0	18.0	100.0	(50)	133.9
만 30~39세	5.5	19.5	32.9	23.8	18.3	100.0	(164)	149.8
만 40세 이상	6.3	24.2	33.7	17.9	17.9	100.0	(95)	139.7
자녀 학년($\chi^2=16.81^{**}$)								
초등학생	6.4	22.1	35.2	21.7	14.6	100.0	(267)	138.5
중고등학생	4.8	11.9	28.6	14.3	40.5	100.0	(42)	179.7
거주 상황								
시설	4.2	29.2	33.3	12.5	20.8	100.0	(24)	151.9
재가	6.3	20.0	34.4	21.4	17.9	100.0	(285)	143.5
가족 구성($\chi^2=2.00$)								
모자녀	6.2	21.5	34.3	19.7	18.2	100.0	(274)	143.6
그 외	5.7	14.3	34.3	28.6	17.1	100.0	(35)	148.6
기초보장($\chi^2=84.01^{***}$)								
비수급	7.3	9.3	20.5	29.8	33.1	100.0	(151)	176.1
수급	5.1	31.6	47.5	12.0	3.8	100.0	(158)	113.6
경제활동($\chi^2=71.59^{***}$)								
안 함	12.4	41.0	34.3	9.5	2.9	100.0	(105)	103.7
함	2.9	10.3	34.3	26.5	26.0	100.0	(204)	164.9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무응답은 제외함.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이 현재 저축을 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저축을 안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8%,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9.2%로 나타났다.

기초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와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가 저축을 안 하는 비율이 각각 64.6%와 69.1%로 상대그룹과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그룹에서는 저축 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27〉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의 현재 저축(예금, 적금 등)을 하고 있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저축 안 함	저축함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51.4	48.6	100.0	(1,247)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50.8	49.2	100.0	(317)
모 연령($\chi^2=1.16$)				
만 20-29세	44.0	56.0	100.0	(50)
만 30-39세	52.7	47.3	100.0	(169)
만 40세 이상	51.0	49.0	100.0	(98)
자녀 학년($\chi^2=0.58$)				
초등학생	51.6	48.4	100.0	(273)
중고등학생	45.5	54.5	100.0	(44)
기초보장($\chi^2=24.96^{***}$)				
비수급	36.5	63.5	100.0	(156)
수급	64.6	35.4	100.0	(161)
경제활동($\chi^2=22.58^{***}$)				
안 함	69.1	30.9	100.0	(110)
함	41.1	58.9	100.0	(20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 중 저축을 한다고 응답한 가족이 어떠한 용도로 저축을 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절반 가까이(49.4%)가 향후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용도로 생각하고 저축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거주지

마련 비용이라는 응답은 25.6%, 비상시를 위한 비용이 20.5%, 노후 준비 비용이라는 응답은 1.9%로 나타났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을 포함한 조사 대상자 전체의 응답에서는 거주지 마련 비용이 34.8%를 차지했다. 자녀가 조금 성장한 그룹인 초중고생 자녀를 둔 그룹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낮고 재가 비율이 이미 주거 독립을 이룬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저축의 용도에서 거주지 마련 비용에 대한 비율이 조사 대상자 전체가 응답한 비율보다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5-28〉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의 현재 저축(예금, 적금 등) 용도

(단위: %, 명)

구분	향후 자녀 양육 및 교육비	거주지 마련 비용	노후 준비 비용	비상시를 위한 비용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44.7	34.8	1.8	17.0	1.7	100.0	(606)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49.4	25.6	1.9	20.5	2.6	100.0	(156)
모 연령							
만 20-29세	46.4	21.4	7.1	25.0	0.0	100.0	(28)
만 30-39세	48.8	27.5	0.0	21.3	2.5	100.0	(80)
만 40세 이상	52.1	25.0	2.1	16.7	4.2	100.0	(48)
자녀 학년							
초등학생	49.2	25.0	2.3	20.5	3.0	100.0	(132)
중고등학생	50.0	29.2	0.0	20.8	0.0	100.0	(24)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에게 부채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5%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전체에서는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2%였으나,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했을 때에는 그 비율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 기초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각각의 상대 그룹과 비교해 부채가 있는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자녀가 중고

등학생인 경우 부채가 없는 비율이 40.9%로 나타났다. 엄마의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자녀의 학년에 따른 차이만 나타났다. 엄마의 연령보다는 가족 주기 중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시기에 부채의 측면에서 보다 안정된 시기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5-29〉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의 부채(지인 또는 가족에게 빌린 비용 포함) 여부

(단위: %, 명)

구분	부채 없음	부채 있음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39.8	60.2	100.0	(1,247)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26.5	73.5	100.0	(317)
엄마 연령($\chi^2=0.67$)				
만 20-29세	28.0	72.0	100.0	(50)
만 30-39세	27.8	72.2	100.0	(169)
만 40세 이상	23.5	76.5	100.0	(98)
자녀 학년($\chi^2=5.45^*$)				
초등학생	24.2	75.8	100.0	(273)
중고등학생	40.9	59.1	100.0	(44)
기초보장($\chi^2=7.37^{**}$)				
비수급	33.3	66.7	100.0	(156)
수급	19.9	80.1	100.0	(161)
경제활동($\chi^2=3.65$)				
안 함	20.0	80.0	100.0	(110)
함	30.0	70.0	100.0	(20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조사 참여자 중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의 부채 총액 평균은 약 2308만 원으로 나타났다.

엄마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채의 평균 금액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엄마의 연령이 40대 이상인 그룹에서는 평균 금액이 약 3765만 원으로 나타나 20대 연령 그룹의 약 1280만 원과 차이를 보였다. 자녀의 학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 부채 총액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앞의 분석에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부채가 없다고 응답한 가족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났으나, 부채 총액의 결과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부채가 있는 경우 그 부채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채 여부에 대한 분석에서는 자녀의 학년 차이, 그리고 부채 총액에 대한 분석에서는 엄마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결국 엄마의 연령 증가와 자녀의 학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만 40세 이상의 엄마들이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었을 가능성이 높고, 부채를 가진 가족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부채가 있다면 그 규모가 클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5-30〉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의 부채 총액

(단위: %, 명, 만 원)

구분	평균 금액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2,124.5	100.0	(751)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2,308.2	100.0	(233)
모 연령($t=7.93^{***}$)			
만 20-29세	1,281.1	100.0	(36)
만 30-39세	1,716.0	100.0	(122)
만 40세 이상	3,764.6	100.0	(75)
자녀 학년($t=-1.44$)			
초등학생	2,110.5	100.0	(207)
중고등학생	3,882.1	100.0	(26)
거주 상황($t=-1.28$)			
시설	1,294.4	100.0	(23)
재가	2,419.3	100.0	(210)
가족 구성($t=0.67$)			
모자녀	2,369.3	100.0	(208)
그 외	1,799.7	100.0	(25)
기초보장($t=1.17$)			
비수급	2,650.2	100.0	(104)
수급	2,032.5	100.0	(129)
경제활동($t=-1.41$)			
안 함	1,835.8	100.0	(88)
함	2,594.9	100.0	(145)

주: *** $p < .001$, ** $p < .01$, * $p < .05$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에게 부채가 있는 이유를 알아보면, 거주비 마련 비용이라는 응답이 23.6%로 가장 높았고, 생활비 및 의료비라는 응

답은 21.5%, 임신 기간 동안 일을 못해 필요한 학자금, 생활비, 의료비였다는 응답이 19.7%, 임신 전부터 있던 부채라는 응답은 14.2%,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는 13.3%, 출산 후 본인 학비는 1.3%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결과에서는 임신 전부터 있던 부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으로 한정했을 때에는 거주비 마련 비용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아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 특성을 알 수 있다.

부채 여부와 평균 금액에서 차이를 보였던 모 연령과 자녀의 학년을 살펴보면, 부채 평균 금액이 높았던 40대 이상 그룹은 거주비 마련 비용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엄마 연령이 20대인 경우 생활비 및 의료비가 가장 높고, 30대의 경우는 임신 기간 동안 일을 못해서 필요했던 학자금, 생활비, 의료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은 생활비 및 의료비, 거주비, 임신 기간 동안 벌린 돈에 대한 응답 비율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중고생 자녀를 둔 경우는 여러 이유 중 거주비와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에 좀 더 집중되어 있어 가족 생활주기에 따라 부채가 생긴 이유가 약간씩 상이하다.

〈표 5-31〉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의 부채 사유

(단위: %, 명)

구분	임신 전부터 있던 부채	임신 기간 동안 일 못하면서 학자금, 생활비, 의료비로 벌린 돈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출산 후 거주지 마련 비용	출산 후 생활비 및 의료비	출산 후 본인 학비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26.9	20.4	8.4	18.8	16.0	1.1	8.5	100.0	(751)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14.2	19.7	13.3	23.6	21.5	1.3	6.4	100.0	(233)
모 연령									
만 20~29세	11.1	13.9	13.9	16.7	30.6	5.6	8.3	100.0	(36)
만 30~39세	16.4	23.0	15.6	18.0	21.3	0.8	4.9	100.0	(122)
만 40세 이상	12.0	17.3	9.3	36.0	17.3	0.0	8.0	100.0	(75)
자녀 학년									
초등학교	14.5	20.3	12.1	21.7	22.7	1.4	7.2	100.0	(207)
중고등학교	11.5	15.4	23.1	38.5	11.5	0.0	0.0	100.0	(26)

구분	임신 전부터 있던 부채	임신 기간 동안 일 못하면서 학자금, 생활비, 의료비로 빌린 돈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출산 후 거주지 마련 비용	출산 후 생활비 및 의료비	출산 후 본인 학비	기타	계	(명)
기초보장($\chi^2=11.33$)									
비수급	11.5	18.3	11.5	32.7	21.2	0.0	4.8	100.0	(104)
수급	16.3	20.9	14.7	16.3	21.7	2.3	7.8	100.0	(129)
경제활동($\chi^2=5.59$)									
안 함	17.0	21.6	10.2	20.5	19.3	2.3	9.1	100.0	(88)
함	12.4	18.6	15.2	25.5	22.8	0.7	4.8	100.0	(145)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기타: '사업자금', '자기·명의도용', '생활비', '복합적 이유', '통신요금', '보증', '차량 구입비', '카드빚'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이 부채를 진 곳은 비은행 금융기관이 34.3%, 사금융은 19.3%, 일반 은행은 18.9%, 친구나 지인은 13.3%, 가족은 9.0% 등으로 나타났다.

부채 금액이 높은 특징이 있는 엄마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는 사금융에서 빌린 비율이 6.7%로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낮고 가족에게 빌린 비율이 13.3%, 주변사람에게 빌린 비율이 16.0%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높았다. 보험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캐피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 등에서 부채를 빌린 비율은 30대와 40대 이상의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고, 엄마의 연령이 30대인 경우는 비은행 금융기관과 사금융 기관으로부터 부채를 진 비율이 높아 부채의 상황이 나아지기 어려운 환경에 있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5-32〉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이 부채를 진 곳

(단위: %, 명)

구분	부모님, 형제 등 가족	친구나 지인 등 주변 사람	일반 시중/지방 은행	비은행 금융 기관	사금융	지원 기관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8.9	15.4	16.2	29.7	21.4	1.9	6.4	100.0	(751)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9.0	13.3	18.9	34.3	19.3	0.9	4.3	100.0	(233)
모 연령									
만 20-29세	2.8	8.3	27.8	25.0	27.8	0.0	8.3	100.0	(36)
만 30-39세	8.2	13.1	11.5	38.5	24.6	0.8	3.3	100.0	(122)
만 40세 이상	13.3	16.0	26.7	32.0	6.7	1.3	4.0	100.0	(75)
자녀 학년									
초등학생	8.7	13.5	18.4	34.8	19.3	1.0	4.3	100.0	(207)
중고등학생	11.5	11.5	23.1	30.8	19.2	0.0	3.8	100.0	(26)
기초보장									
비수급	9.6	11.5	25.0	37.5	11.5	1.9	2.9	100.0	(104)
수급	8.5	14.7	14.0	31.8	25.6	0.0	5.4	100.0	(129)
경제활동									
안 함	11.4	17.0	18.2	28.4	18.2	0.0	6.8	100.0	(88)
함	7.6	11.0	19.3	37.9	20.0	1.4	2.8	100.0	(145)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교직원 공제회', '소상공인가게', '장학재단학자금'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월평균 지출액을 보면, 평균 약 130만 원으로 조사 대상 전체의 평균인 약 108만 원과 비교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 평균 지출액이 약 119만 원이지만,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약 207만 원으로 나타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의 지출액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을 둔 가족은 200만 원 이상 지출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기초보장 지원을 받지 않는 가족은 100만~150만 원 미만의 지출액 구간에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이 나타났

지만, 150만~200만 원 미만의 구간과 200만 원 이상의 구간에도 각각 20.0% 이상의 비율 분포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는 가족은 50만~100만 원 미만과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의 구간에 각각 40.0%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기초보장 수급과 비수급가족 사이의 차이가 분명하다.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 모두 100만~150만 원 미만의 그룹에 가장 많은 비율이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안 하는 그룹은 150만 원 이상과 200만 원 이상의 지출 그룹에 각각 9.2%, 6.4% 비율이 나타난 반면,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은 각각 18.9%, 15.5%로 나타나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지출액에서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5-33〉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의 월평균 지출액

(단위: %, 명, 만 원)

구분	50만 원 미만	50만~ 100만 원 미만	100만~ 150만 원 미만	150만~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계	(명)	평균 금액 (만 원)
조사 대상 전체	14.6	36.1	30.6	10.8	7.8	100.0	(1,218)	107.9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4.8	29.8	37.5	15.6	12.4	100.0	(315)	131.0
모 연령($\chi^2=9.79$)								
만 20-29세	6.0	38.0	30.0	22.0	4.0	100.0	(50)	113.9
만 30-39세	4.2	29.9	38.3	15.6	12.0	100.0	(167)	130.9
만 40세 이상	5.1	25.5	39.8	12.2	17.3	100.0	(98)	139.9
자녀 학년($\chi^2=44.79***$)								
초등학생	5.2	32.8	39.9	14.4	7.7	100.0	(271)	118.7
중고등학생	2.3	11.4	22.7	22.7	40.9	100.0	(44)	207.0
기초보장($\chi^2=40.27***$)								
비수급	3.9	18.8	33.8	23.4	20.1	100.0	(154)	150.1
수급	5.6	40.4	41.0	8.1	5.0	100.0	(161)	112.8
경제활동($\chi^2=14.47**$)								
안 함	7.3	36.7	40.4	9.2	6.4	100.0	(109)	120.4
함	3.4	26.2	35.9	18.9	15.5	100.0	(206)	136.6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무응답은 제외함.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이 정부의 생활지원 정책을 이용한 경험, 도움 받은 정도를 알아보았다. 미혼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 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는 현재 받고 있는 경우가 50.8%, 과거에 받았던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받고 있지 않은 경우는 41.0%로 나타났다. 지원받은 경험에 있어서 도움이 된 정도는 대부분이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특성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은 응답자의 약 79.0%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이용 전체 비율은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46.5%)보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52.7%)이 약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고생 자녀를 둔 경우는 38.6%로 이용률이 낮아졌다. 미취학부터 초·중·고·저학년까지는 엄마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되지 않는 특성 상 초·중·고·고학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와 중·고·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현재 수급을 받는 미혼모가족의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초·중·고·대학생 자녀를 둔 분석 대상 273명 중 4학년 이상 고·대학 자녀를 둔 경우는 70명이었고, 그중 현재 기초생활 지원을 받는 경우는 36명이었다. 이는 초·중·고·대학생을 둔 가족 전체로 보면 이용률이 52.7%이지만, 초·중·고·대학 고·대학 자녀를 기준으로 보면 25.6%로, 초·중·고·대학 저학년을 둔 가족의 이용률이 높아서 초·중·고·대학 전체가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엄마의 연령이 20대 2명, 30대 18명, 40대 16명이었다. 현재 수급을 받고 있는 초·중·고·대학 고·대학 자녀를 둔 미혼모 36명 중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17명, 시간제근로를 하는 경우는 14명, 전일제근로를 하는 경우는 5명으로 나타났다. 일을 안 하는 17명 중 7명은 건강상 이유, 6명은 자녀 돌봄, 2명은 본인 학업 때문에, 그리고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와 직장에서 미혼모라고 권고사직을 받아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경우

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경우는 분석 대상 44명 중 38.6%로 17명이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경제활동을 안하고 있는 비율이 12명으로 5명만 일하고 있었다. 일을 하지 않는 이유로 12명 중 7명은 자녀를 돌보느라 안한다고 응답하였고, 4명은 건강상 어려움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나머지 한 명은 부모나 가족 부양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자녀가 성장했지만, 현 분석이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이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 아동이 첫째 아이인 경우는 막내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응답이 있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과 동시에 수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 중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1%로 나타났다. 과거에 받았던 경험이 있는 비율은 63.6%였고, 이용을 한 경우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 제도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 받고 있는 비율이 35.3%로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는 비율의 14.5%보다 높아 차이를 보였다.

〈표 5-34〉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의 정부 생활지원에 대한 이용 경험,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현재 이용			과거 이용 경험			도움 정도						
	지원 받고 있지 않음	지원 받고 있음	(명)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명)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다소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명)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전체	54.1	45.9	(1,247)	73.6	26.4	(675)	0.5	4.1	18.8	30.7	45.9	(750)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49.2	50.8	(317)	59.0	41.0	(156)	0.4	3.6	21.8	33.3	40.9	(225)
	자녀 학년	(x ² =3.02)			(x ² =0.22)								
	초등학생	47.3	52.7	(273)	58.1	41.9	(129)	0.5	3.5	22.2	33.8	39.9	(198)
	중고등학생	61.4	38.6	(44)	63.0	37.0	(27)	0.0	3.7	18.5	29.6	48.1	(27)
	경제활동	(x ² =53.99***)			(x ² =0.07)								
	안 함	20.9	79.1	(110)	56.5	43.5	(23)	0.0	4.1	21.6	26.8	47.4	(97)
	합	64.3	35.7	(207)	59.4	40.6	(133)	0.8	3.1	21.9	38.3	35.9	(128)

구분	현재 이용		(명)	과거 이용 경험		(명)	도움 정도					(명)
	지원 받고 있지 않음	지원 받고 있음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도움 됨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전체	76.3	23.7	(1,247)	58.4	41.6	(952)	1.7	10.4	23.0	36.6	28.2	(691)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71.9	28.1	(317)	36.4	63.6	(228)	1.3	12.0	25.6	36.8	24.4	(234)
한부모 가족	$(\chi^2=2.48)$			$(\chi^2=2.16)$								
지원 가족	70.3	29.7	(273)	34.4	65.6	(192)	1.4	11.6	25.1	38.2	23.7	(207)
지원 중등학생	81.8	18.2	(44)	47.2	52.8	(36)	0.0	14.8	29.6	25.9	29.6	(27)
경제활동	$(\chi^2=15.27^{***})$			$(\chi^2=0.61)$								
안 함	85.5	14.5	(110)	39.4	60.6	(94)	2.7	13.7	24.7	35.6	23.3	(73)
합	64.7	35.3	(207)	34.3	65.7	(134)	0.6	11.2	26.1	37.3	24.8	(161)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미혼모 역시 수급과 경제활동 사이에서 갈등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났다.

“일하다가 그만두서 다시 수급자가 되려면 또다시 서류절차며 다 진행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엄마들이 오히려 일을 더 안 하게 돼요. 내가 다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일해서 또 (정책 지원이) 바로 끊기길 원하겠어요.”(B2)

“주민센터에서는 유예기간 주면 일을 안 하는 분들이 계속 생긴다고 하던데...”(B4)

“저는 오히려 그게 (유예기간 설정)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더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B2)

“(기초수급이랑 한부모지원 그 사이는 어때요? 기초수급 자격 넘어도 한부모지원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지금 한부모거든요. 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아이가 지역아동센터에 다녀요. 지역아동센터도 탈락돼요. 한부모가 아니면, 174만 원이 넘어버리면 한부모가 아니에요.

(지금 자격을 유지하고 계세요?) 네. 제가 지금은 한부모 자격 유지하고 있죠. 그 이상 별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통신비 할인되죠, 아이들 교육비 학교에서 지원되면, 지역아동센터에 우선 무료로 다니고, 학교 자체 프로그램 같은 것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아이돌보미나 방과후 돌봄 같은 거요. 내가 한부모 탈락이 되면, 그 모든 서비스를 내 돈 주고 다 해야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손해예요.”(B2)

“내 돈 들여 해 줄 수 없는 걸 학교에서 해 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가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서 차별받을 수 있다는 걱정은 들면서도 제가 못해 주니까.”(B2)

“110만 원 되면 생계, 의료급여 다 없어요… 그럼 수급비랑 의료 수급은 탈락되더라도 교육이랑 주거 한부모수당 받는 건 좀 올려줘야 하지 않을까. 그 기준액을 더 많이 벌어도 유지할 수 있게. 기준이 최저시급이랑 같이 간다고 하면 지금 최저시급으로 8시간, 한 달 일하면 160, 170 벌잖아요? 그렇게 올려줘야 하지 않을까. 소득이 이렇게 되자마자 방과후는 본인 부담이에요.”(B6)

“제가 지금 자활로 사무보조하는데 드는 생각이.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안 하려면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그냥 90 얼마 80 얼마 기준에 맞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50만 원 정도 맞추고 나머지 수급 받고 이렇게 할까.”(B15)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이유는 수급 자격에 맞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70.5%로 가장 높았다.

〈표 5-35〉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 모름	소득 및 재산기준이 맞지 않아 수급 자격 안 됨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 신청 안 함	지원 절차 번거로 워서	필요 없어서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10.1	57.8	11.9	9.0	1.0	10.2	100.0	(675)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3.8	70.5	5.8	10.9	1.3	7.7	100.0	(156)
엄마 연령								
만 20-29세	4.5	81.8	0.0	4.5	0.0	9.1	100.0	(22)
만 30-39세	4.7	64.0	8.1	12.8	2.3	8.1	100.0	(86)
만 40세 이상	2.1	77.1	4.2	10.4	0.0	6.3	100.0	(48)
자녀 학년								
초등학생	3.9	71.3	4.7	10.9	1.6	7.8	100.0	(129)
중고등학생	3.7	66.7	11.1	11.1	0.0	7.4	100.0	(27)
경제활동								
안 함	8.7	65.2	4.3	17.4	0.0	4.3	100.0	(23)
함	3.0	71.4	6.0	9.8	1.5	8.3	100.0	(133)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기준에 맞지 않음',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부모 소득 때문에',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서류 작성을 기피', '근로능력이 있어서'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어서가 56.6%로 가장 많았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중복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급 자격이 안 돼서라는 응답이 23.7%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않는 경우 중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소득액이 한부모가족 지원 수급 자격 기준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이 정책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36〉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이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한부모 가족 지원에 대해 모름	소득 및 재산기준이 맞지 않아 수급 자격 안 됨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 신청 안 함	지원 절차 번거로 워서	국민기 초생활 보장 지원 받고 있어서	필요 없어서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6.3	22.6	8.9	5.7	50.5	0.5	5.5	100.0	(952)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3.9	23.7	6.1	5.7	56.6	0.4	3.5	100.0	(228)
엄마 연령									
만 20-29세	5.7	22.9	0.0	0.0	68.6	0.0	2.9	100.0	(35)
만 30-39세	3.3	24.8	8.3	7.4	51.2	0.8	4.1	100.0	(121)
만 40세 이상	4.2	22.2	5.6	5.6	59.7	0.0	2.8	100.0	(72)
자녀 학년									
초등학생	2.1	20.3	4.7	6.3	62.5	0.5	3.6	100.0	(192)
중고등학생	13.9	41.7	13.9	2.8	25.0	0.0	2.8	100.0	(36)
기초보장									
비수급	0.0	71.6	14.9	9.0	1.5	1.5	1.5	100.0	(67)
수급	5.6	3.7	2.5	4.3	79.5	0.0	4.3	100.0	(161)
경제활동									
안 함	4.3	6.4	3.2	4.3	79.8	0.0	2.1	100.0	(94)
함	3.7	35.8	8.2	6.7	40.3	0.7	4.5	100.0	(134)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수급자로 신청하기 위해', '부양가족이 있어서'

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미혼모가족 중 취학자녀인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돌봄 및 양육, 경제활동 및 소득·소비, 주변관계 및 사회적 편견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이 절에서는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현황 분석 내용들에 대한 정리와 더불어 기혼여성들과 미혼모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이 장을 정리한다.

1. 초등생 이상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특성

가. 돌봄 및 양육

돌봄이 필요한 대상인 초등학생의 주간 돌봄 방식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였고, 그다음이 공공인프라와 본인, 사설교육기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3학년까지는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 이용이 과반수로 나타났지만, 고학년이 되면서는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가 약간 높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공공인프라, 사설교육기관, 본인 돌봄까지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돌봄 방식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재 돌봄 방식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만족 비율이 높았고, 대체로 만족한다는 비율도 약간 높아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돌봄 공백과 비용 부담 때문이었다. 가장 희망하는 돌봄 방식은 저학년은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이고 고학년은 사설교육기관으로, 희망하는 돌봄 방식 또한 달랐다. 일주일 중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은 고학년인 경우 더 자주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엄마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도 고학년이 되면서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고학년부터는 엄마가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초등돌봄과 관련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이용 경험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초등돌봄교실보다는 약간 낮았지만 높은 수준을 보였고, 알고 있는 응답자 중 직접 이용해 본 경험은 두 서비스 모두 절반이 되지 않았다. 즉, 각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초등돌

봄교실 이용이 가장 많았다. 만족도의 측면에서는 세 서비스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7〉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학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미혼모의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인지율 (명)	이용률 (명)	도움 정도					(명)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됨	매우 도움됨	
초등돌봄교실	96.3 (273)	77.2 (263)	1.0	8.4	21.2	32.0	37.4	(203)
지역아동센터	85.0 (273)	42.7 (232)	5.1	10.1	12.1	34.3	38.4	(99)
아이돌봄서비스	85.0 (273)	40.9 (232)	4.2	10.5	20.0	32.6	32.6	(95)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모가족이 취학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중 초등생 자녀 양육에 힘든 점은 돌봄 비용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고, 저학년의 경우는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고학년은 학습관리나 가족형태로 아이가 차별받을 것에 대한 걱정이 그다음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든 점은 교육비 부담이 과반수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보다 비용 부담에 대해 힘들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녀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교육비가 미혼모가족에게 힘든 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는 본인이 자녀를 잘 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그중 양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엄마의 심리 및 정서적 문제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혼모 전체로 보면 엄마의 심리 및 정서적 문제가 양육을 잘하고 있지 못한 이유로 가장 크지만,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는 경제적인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어 있다. 이는 앞

서 양육에서 가장 힘든 점이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와 같이 생각해 보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에 투자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 자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초중고생 자녀가 잘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서도 역시 양육 및 교육에 드는 비용 지원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시간 유연화나 휴가 등 시간 확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높게 나타났다. 미혼모가족 전체 결과에서보다 아이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약간 상승한 결과도 볼 수 있어 자녀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나. 경제활동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중 약 3분의 1은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을 하는 경우는 시간제근로보다 전일제근로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 전일제근로를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는 전일제근로가 과반수로 나타나 일과 돌봄을 모두 해야 하는 미혼모의 상황에서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전일제근로를 할 시간적 여건이 발생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가 가장 희망하는 일자리는 근무시간이 유연한 일자리로 나타났고, 초등생 자녀를 둔 경우보다 중고생 자녀를 둔 경우가 일자리의 분위기, 급여,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희망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하는 엄마는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그 비율은 더욱 높아져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엄마의 일자리도 안정을 찾는 시기임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엄마가 일하는 시간도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보다 주당 약 10시간

이상 상승하게 되어 일자리의 안정성과 더불어 소득의 안정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전일제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는 육아 및 자녀 교육 때문이라는 이유가 압도적이었으나,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다른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본 조사에 참여한 미혼모 중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전일제근로를 하지 않는 샘플이 작아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 일하는 엄마의 경우 일·가정 양립은 어렵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또한 자녀가 초등생인 경우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돌봄과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것에 대한 어려움, 특히 자녀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보인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가 중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자녀 돌봄과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많으나, 생활비가 부족하고 가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들 중 대부분은 앞으로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소득 및 소비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조사 대상 전체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와 중고등학생일 때의 소득 액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앞서 일하는 엄마의 비율과 근로시간 등의 차이로 인해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는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시간적으로 일에 집중할 여유가 생기고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소득을 발생시켜야만 하는 상황 등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경우 저축을 하는 비율과 안 하는 비율은 거의 반반으로 나타났는데, 자녀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 저축을 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에서의 차이가

저축에 대한 여유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저축의 용도는 자녀 교육비나 거주지 마련을 위한 용도가 높게 나타났고, 미혼모가족의 경우 아직 젊은 세대가 많기는 하지만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경우 부채가 있는 비율이 높고,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도 그 비율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과반수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부채가 있는 비율이 낮아지기는 하지만, 부채의 총액으로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보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났다. 부채 사유가 주거 마련 비용과 자녀 교육비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경우 월평균 지출액은 조사 대상 전체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는 지출액이 200만 원 이상으로 초등생 자녀를 둔 경우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축과 부채, 소득·소비 등의 상황으로 미루어보면, 미혼모가 일을 하면서 수입을 늘리고 당장의 생계가 해결된다 해도 결국 일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노후 준비에도 거의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생계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소득지원 관련 정책에 대한 이용 경험과 도움 정도에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이 과반수로 나타났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3분의 1이 안 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특성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다면 둘 중 하나를 받게 되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 중 80.0% 가까이가 정부 생활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38〉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의 정부 생활지원에 대한 이용 경험,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현재 이용		(명)	과거 이용 경험		(명)	도움 정도					(명)
	지원 받고 있지 않음	지원 받고 있음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도움 됨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국민기초생활보장	49.2	50.8	(317)	59.0	41.0	(156)	0.4	3.6	21.8	33.3	40.9	(225)
한부모가족 지원	71.9	28.1	(317)	36.4	63.6	(228)	1.3	12.0	25.6	36.8	24.4	(234)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라. 경제활동 및 소득·소비에 대한 미취학 자녀가 있는 미혼모가족과 초등학생 이상 자녀가 있는 미혼모가족 비교

제4장과 제5장은 미혼모가족 중 각각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분석과 초등학생 이상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분석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알아보았다. 돌봄 및 양육, 그리고 경제활동 및 소득·소비에 대해 각 장에서 각각 알아보았다면 주요 쟁점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자녀의 학령간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돌봄 및 양육 영역은 조사 내용이 달라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지만, 자녀를 기르면서 가장 힘든 점에 대해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 부담과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초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약간 줄어들지만 여전히 양육비 및 교육비와 아이를 챙길 시간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남아있다. 아이를 돌보거나 챙길 시간이 없는 것은 사실 자녀가 3세 이상이 되면서 엄마가 일을 하게 되는 시점부터 어려움이 부각된다. 그리고 방과후 아이를 봐줄 곳이 마땅치 않은 점, 특히 초등학생 저학년인 경우 큰 어려움이었다가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이에 대한 어려움은 차츰 감소한다. 그 대신 자녀 학습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고

학교에서 따돌림 받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커진다.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커진다는 점이 결과에서 드러나 자녀의 연령과 학령기마다 양육에 있어서 힘든 점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39〉 자녀 학년에 따른 양육 시 가장 힘든 점

(단위: %, 명)

구분	아이 양육비/교육비 부담	아이 돌보거나 챙길 시간 부족 (신경 써줄 곳)	아이 맡길 곳/방과후 돌보출 곳이 마땅치 않음	아이 생활 태도 지도 나 훈육	아이 학습 관리	아이가 미혼모 자녀라고 어린이집/학교에서 차별·따돌림 받거나 적응 못하는 것	아이에게 가족 상황을 설명 하거나 이해시키는 것	기타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	계	(명)
미취학	33.0	17.9	24.0	9.5	-	6.1	4.4	1.1	4.1	100.0	(985)
3세 미만	33.5	10.2	26.9	7.2	-	9.6	3.3	1.5	7.8	100.0	(334)
3세 이상	32.7	21.8	22.4	10.8	-	4.3	4.9	0.9	2.2	100.0	(651)
초등학생	28.6	21.2	15.4	10.6	11.7	5.9	4.0	0.0	2.6	100.0	(273)
4학년 미만	28.6	23.6	17.2	10.8	9.9	4.4	3.4	0.0	2.0	100.0	(203)
4학년 이상	28.6	14.3	10.0	10.0	17.1	10.0	5.7	0.0	4.3	100.0	(70)
중고등학생	54.0	12.0	0.0	12.0	10.0	4.0	4.0	2.0	2.0	100.0	(50)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미혼모자녀라고 따돌림 받거나 적응 못함'은 중고등학생에서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함'임.

제4장과 제5장에서 엄마의 경제활동과 소득 및 소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별개의 장으로 구성함에 있어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와 초등학생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로 나누었기 때문에 자녀가 둘 이상이면서 미취학자녀와 초등학생 이상 자녀가 모두 있었다면 각 장의 분류에 따라 두 장의 분석에 모두 포함되었다. 하지만 본 소절에서는 비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해 한눈에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엄마의 경제활동을 막내 자녀 연령별로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

증가에 따라 미혼모의 경제활동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막내 자녀가 미취학 자녀인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은 56.0%로 높고, 막내 자녀가 초중고생 이상이 되면 그 비율은 26.1%로 낮아진다. 세분해 보면, 3세 미만의 막내 자녀가 있는 경우는 74.3%가 일하지 않지만, 막내 자녀의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하게 된다. 전일제근로는 반대로 자녀의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그 비율도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막내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는 단 6.6%만이 전일제근로를 하지만, 막내 자녀가 중고등학생 이상이 되면 58.1%가 전일제근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40〉 미취학 자녀와 초중고생 이상 자녀가 있는 미혼모의 경제활동 비교

(단위: %, 명)

구분	경제활동 안 함	경제활동 함		계	(명)
		시간제근로	전일제근로		
조사 대상 전체	49.7	26.2	24.1	100.0	(1,247)
미취학 자녀	56.0	24.5	19.5	100.0	(986)
3세 미만	74.3	19.2	6.6	100.0	(334)
3세 이상	46.6	27.3	26.1	100.0	(652)
초중고생 이상 자녀	26.1	32.6	41.4	100.0	(261)
초등학생	28.0	33.9	38.1	100.0	(218)
중고등학생 이상	16.3	25.6	58.1	100.0	(43)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녀의 성장 시점에 따라 엄마의 경제활동에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근로소득은 엄마의 수입이 거의 전부인 경우가 많은 미혼모가족의 수입 변화도 경제활동과 같이 자녀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수입은 월평균 소득액으로 엄마의 순수 근로소득이 아닌 경제적 지원, 가족으로부터의 지원, 양육비 등도 포함된 결과이다.

막내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의 월평균 수입은 가장 낮는데 이 시기에

는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는 많고 일하는 비율은 낮은 특성이 있다. 막내 자녀가 3세 이상이 되고 엄마가 일을 하게 되는 시점부터 수입이 상승해 막내 자녀가 중고등학생 이상이 되면 더욱 상승한다. 하지만 막내 자녀가 중고등학생 이상인 경우는 샘플 수가 작아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자녀의 성장과 함께 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41〉 미취학 자녀와 초중고생 이상 자녀가 있는 미혼모가족의 수입 비교

(단위: %, 명, 만 원)

구분	50만 원 미만	50만 ~100만 원 미만	100만 ~150만 원 미만	150만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계	(명)	평균 금액 (만 원)
조사 대상 전체	9.5	27.9	29.9	17.6	15.0	100.0	(1,196)	131.1 (S.D. 89.2)
미취학 자녀	10.6	30.0	29.5	16.0	13.8	100.0	(942)	126.2
3세 미만	17.0	32.7	32.7	9.0	8.7	100.0	(312)	105.5
3세 이상	7.5	28.7	27.9	19.5	16.3	100.0	(630)	136.5
초중고생 이상 자녀	5.5	20.1	31.5	23.6	19.3	100.0	(254)	149.0
초등학생	5.7	22.2	32.1	24.5	15.6	100.0	(212)	142.8
중고등학생 이상	4.8	9.5	28.6	19.0	38.1	100.0	(42)	180.5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소득 항목 중 아이 아빠 쪽으로부터 현재 받는 양육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확인해 보면, 약 10.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초중고생 이상이 되면 그 비율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2〉 미혼모가족에 대한 비양육자(아이 아빠)의 양육비 지원

(단위: %, 명)

구분	양육비 안 받음	양육비 받음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89.9	10.1	100.0	(1,247)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	89.1	10.9	100.0	(986)
초중고생 이상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	92.7	7.3	100.0	(261)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소득에 이어 미혼모가족의 지출을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과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족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월평균 지출액 역시 자녀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막내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는 지출액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고, 중고등학생 이상의 자녀가 막내 자녀인 경우는 사례 수가 많지 않아 해석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5-43〉 미취학 자녀와 초중고생 이상 자녀가 있는 미혼모가족의 지출 비교

(단위: %, 명, 만 원)

구분	50만 원 미만	50만 ~100만 원 미만	100만 이상 ~150만 원 미만	150만 이상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계	(명)	평균 금액 (만 원)
조사 대상 전체	14.6	36.1	30.6	10.8	7.8	100.0	(1,218)	107.9 (S.D. 75.5)
미취학 자녀	17.4	36.7	29.5	9.5	6.9	100.0	(959)	103.2
3세 미만	26.0	35.9	25.7	7.3	5.1	100.0	(315)	91.0
3세 이상	13.2	37.1	31.4	10.6	7.8	100.0	(644)	109.1
초중고생 이상 자녀	4.2	34.0	34.7	15.8	11.2	100.0	(259)	125.4
초등학생	4.6	37.0	36.6	14.8	6.9	100.0	(216)	115.6
중고등학생 이상	2.3	18.6	25.6	20.9	32.6	100.0	(43)	174.9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여성과의 비교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비교를 위해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15~49세)과의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 대상 조사 결과 중 연령이 15~49세에 해당하는 미혼모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기혼여성은 이혼, 사별, 별거 상태 등이 아닌 현재 배우자가 있는 여성 3922명이며, 엄마를 기준으로 아동을 분석하였고 다둥이의 경우 막내 자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혼여성 데이터는 표본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대

상인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연령 분포는 20대가 1.0%, 30대가 41.3%, 40대가 57.7%로 나타났다. 이 중 일을 하는 기혼여성은 55.4%,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44.6%였다.

가. 돌봄 및 양육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실제 주간 돌봄 방식을 보면, 기혼여성 자녀의 경우 사설교육기관이 51.0%로 가장 높다. 하지만 미혼모 자녀의 경우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가 48.9%로 가장 높고 사설교육기관은 11.6%에 불과하다. 그리고 부모 즉, 미혼모의 경우 본인이 돌보는 비율은 14.6%로 기혼여성의 2.8%와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고학년 자녀의 경우 기혼여성의 자녀는 사설교육기관인 경우가 61.7%에 달하지만, 미혼모 자녀는 21.7%로 크게 차이가 났다.

〈표 5-44〉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초등학생 자녀 실제 주간 돌봄 방식 비교

(단위: %, 명)

구 분	초등돌봄 ·방과후 학교	공공 인프라	사설교육 기관	본인 (또는 남편)	친인척	기타	계	(명)
전체	43.2	2.2	51.0	2.8	0.3	0.6	100.0	(3,922)
기혼여성	1~3학년	50.6	2.2	44.0	2.5	0.2	100.0	(2,383)
	4~6학년	31.7	2.2	61.7	3.1	0.4	100.0	(1,539)
미혼모	전체	48.9	19.4	11.6	14.6	3.4	100.0	(268)
	1~3학년	57.3	18.1	8.0	11.6	4.5	100.0	(199)
	4~6학년	24.6	23.2	21.7	23.2	0.0	100.0	(69)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여성, 미혼모 모두 엄마를 기준 다둥이인 경우 막내 자녀에 대해 분석하였음.

3) 기혼여성에서 '본인'은 '본인 또는 남편'을 의미함.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현재 돌봄 방식 만족 정도는 기혼여성이 미혼모보다 대체로 만족과 매우 만족을 더한 만족하는 견해에 대한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혼모의 경우는 보통 수준의 만족 비율이 높았고, 대체로 만족의 비율도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고학년 자녀를 둔 미혼모의 경우는 대체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더한 불만족에 대한 견해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5-45〉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초등학생 자녀 돌봄 방식에 대한 만족도 비교

(단위: %, 명)

구 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명)
전체	0.7	7.6	19.1	63.6	9.1	100.0	(3,922)
기혼여성	1~3학년 0.8	7.5	18.3	63.4	10.1	100.0	(2,383)
	4~6학년 0.5	7.8	20.5	63.8	7.4	100.0	(1,539)
미혼모	전체 4.5	10.1	41.4	34.3	9.7	100.0	(268)
	1~3학년 3.0	7.5	41.7	36.2	11.6	100.0	(199)
	4~6학년 8.7	17.4	40.6	29.0	4.3	100.0	(69)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여성, 미혼모 모두 엄마를 기준 다둥이인 경우 막내 자녀에 대해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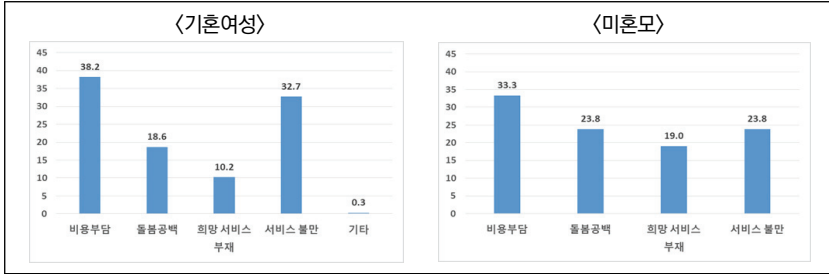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현재 돌봄 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두 그룹 모두 비용 부담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기혼여성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었으나, 미혼모의 경우 서비스 불만과 함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1~3학년 초등학교 자녀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비교

(단위: %)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여성, 미혼모 모두 엄마를 기준 다둥이인 경우 막내 자녀에 대해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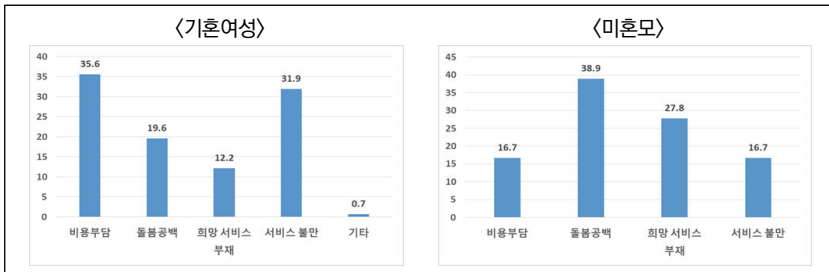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혼여성은 비용 부담과 서비스 불만이 가장 많았고, 미혼모의 경우는 돌봄공백과 희망 서비스의 부재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서 두 그룹의 경향이 차이를 보였다.

[그림 5-2]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4~6학년 초등학교 자녀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비교

(단위: %)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여성, 미혼모 모두 엄마를 기준 다둥이인 경우 막내 자녀에 대해 분석하였음.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실제 돌봄 방식이 아닌 희망하는 돌봄 방식을 비교해 보면, 기혼여성의 경우는 사설교육기관을 가장 높은 비율로 희망하고, 미혼모는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를 가장 높은 비율로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는 기혼여성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학년만 비교해 보면 모두 사설교육기관을 가장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실제 돌봄과 같이 생각해 보면, 기혼여성은 고학년 자녀가 방과 후에 사설교육기관에 다니기를 원하고 실제로도 가장 많은 비율이 사설교육기관에 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확인했다. 미혼모의 경우 고학년 자녀는 사설교육기관에 다니기를 가장 높은 비율로 희망하지만, 실제에서는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를 더 많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가족의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제적 환경 등은 교육열이 치열해지는 고학년이 되면서 희망과 실제의 괴리가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

〈표 5-46〉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희망하는 초등학생 자녀 주간 돌봄 방식 비교

(단위: %, 명)

구 분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공공 인프라	사설교육 기관	본인 (또는 남편)	친인척	기타	계	(명)
전체	38.8	6.9	40.3	10.8	2.4	0.8	100.0	(3,922)
기혼여성	1~3학년 44.2	6.1	35.0	11.6	2.4	0.8	100.0	(2,383)
	4~6학년 30.5	8.1	48.7	9.5	2.4	0.8	100.0	(1,539)
미혼모	전체 37.7	18.7	16.0	19.0	5.2	3.4	100.0	(268)
	1~3학년 43.7	17.1	12.1	20.1	4.5	2.5	100.0	(199)
	4~6학년 20.3	23.2	27.5	15.9	7.2	5.8	100.0	(69)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여성, 미혼모 모두 엄마를 기준 다둥이인 경우 막내 자녀에 대해 분석하였음.

3) 기혼여성에서 '본인'은 '본인 또는 남편'을 의미함.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나. 경제활동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며 현재 일을 하는 기혼여성과 미혼모 중 전일제 근로를 하지 않는 여성에게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기혼여성의 경우는 육아 및 자녀교육 때문이 84.0%이고, 미혼모는 동일한 이유에 대해 62.4%가 응답했다. 미혼모는 학업이나 직업훈련을 병행하기 위해서라는 비율이 10.5%로 나타났고, 건강상의 이유가 9.4%, 다른 일자리와 병행하기 위해서가 5.9%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은 하나의 이유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미혼모는 보다 다양한 이유로 분포되어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표 5-47〉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전일제근로를 하지 않는 이유 비교
(단위: %, 명)

구 분	집안 일이 많아서	육아 /자녀 교육	건강상 이유	여가 즐기기 위해	학업 또는 직업 훈련 병행을 위해	다른 일자리 병행	전일제 직장 구직 힘들	기타	계	(명)
기혼여성	3.4	84.0	1.1	3.0	0.4	0.5	5.3	2.3	100.0	(852)
미혼모	0.0	62.4	9.4	0.0	10.5	5.9	4.7	7.1	100.0	(85)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여성은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응답하였고, 미혼모는 시간제근로(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인 경우 응답함.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여성은 상용근로자인 경우가 43.1%, 임시근로자가 28.8%, 미혼모의 경우는 상용근로자가 53.2%, 임시근로자가 23.7%로 나타나 미혼모가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비율에서는 기혼여성이 7.2%, 미혼모가 15.0%로 나타

났고, 자영업자에서는 기혼여성이 13.5%, 미혼모가 6.9%로 나타나 종사상 지위에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5-48〉 초등학교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종사상 지위 비교

(단위: %, 명)

구 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	(명)
기혼여성	43.1	28.8	7.2	13.5	7.4	100.0	(2,168)
미혼모	53.2	23.7	15.0	6.9	1.2	100.0	(173)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초등학교 자녀를 둔 기혼여성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34.4%로 가장 높고, 미혼모는 서비스종사자가 27.2%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두 그룹 모두 사무종사자가 각각 24.9%로 그다음 높은 비율을 보였다. 미혼모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14.5%에 그쳤고,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13.9%로 기혼여성의 8.5%보다 높아 직종에서도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

〈표 5-49〉 초등학교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직종 비교

(단위: %, 명)

구 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계	(명)
기혼여성	1.4	34.4	24.9	16.6	10.2	1.8	1.4	0.7	8.5	0.2	100.0	(2,168)
미혼모	0.6	14.5	24.9	27.2	13.9	0.0	4.0	1.2	13.9	0.0	100.0	(173)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기혼 여성은 주당 평균 35.7시간으로 나타났고, 미혼모는 주당 32.3시간으로 나타났다. 미혼모는 2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비율이 약 20.0%로 기혼여성의 약 9.0%보다 높고, 40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은 미혼모는 약 25.0%이고 기혼여성은 약 18.0%로 차이를 보였다. 미혼모는 근무시간이 짧거나 긴 경우가 기혼여성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50〉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근로시간 비교

(단위: %, 명, 시간)

구분	20시간 미만	20-40시간 미만	40시간	40시간 초과	계	(명)	평균시간 (SD)
기혼여성	9.2	30.2	42.4	18.3	100.0	(2,168)	35.7(12.1)
미혼모	20.2	31.2	23.7	24.9	100.0	(173)	32.3(16.7)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 기혼여성보다 미혼모가 일·가정 양립에 있어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매우 어려움 + 대체로 어려움)이 미혼모는 82.6%이고, 기혼여성은 65.6%로 나타났으며,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미혼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1〉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비교

(단위: %, 명)

구분	매우 어려움	대체로 어려움	별로 어려움 없음	전혀 어려움 없음	계	(명)
기혼여성	15.8	49.8	32.0	2.4	100.0	(2,168)
미혼모	26.0	56.6	16.8	0.6	100.0	(173)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며,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기혼여성은 주로 자녀 돌봄 때문(72.4%)이라는 이유가 많았다. 하지만 미혼모의 경우는 건강상 이유가 34.7%, 자녀 돌봄 때문인 경우가 31.6%로 나타났다. 미혼모의 경우는 가사, 부모돌봄, 가족반대, 경험부족, 일할필요 없어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었다.

〈표 5-52〉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비교
(단위: %, 명)

구분	가사 때문	육아 때문	부모/ 가족 돌봄 때문	가족 반대 때문	건강상 이유	적당한 일자리 없어서	근처에 일자리 없어서	교육, 기술, 경험 부족	일할 필요 없어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	다녀던 직장 휴업 등	미혼모 라는 이유로 권고 사직	학업 때문	기타	계	(명)
기혼여성	5.6	72.4	1.1	1.5	4.0	7.8	1.8	1.1	0.7	3.1	0.8	-	-	0.4	100.0	(1,748)
미혼모	0.0	31.6	0.0	0.0	34.7	10.5	2.1	0.0	0.0	0.0	4.2	1.1	9.5	6.3	100.0	(95)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여성의 항목에는 '미혼모라는 이유로 권고사직', '학업 때문'이라는 항목이 없음.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현재 일하지 않는 기혼여성의 경우 향후 취업 의향이 있는 비율은 76.5%이고 미혼모는 91.6%로 미혼모의 취업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 5-53〉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일하지 않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향후 취업 의향 비교
(단위: %, 명)

구분	의향 없음	의향 있음	계	(명)
기혼여성	23.5	76.5	100.0	(1,748)
미혼모	8.4	91.6	100.0	(95)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앞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를 비교해 보면, 기혼여성은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서라는 이유가 40.5%로 가장 높고, 남편 수입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22.3%, 본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가 20.9%로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반면, 미혼모의 경우는 정부지원금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39.1%, 본인이 벌지 않으면 집에 수입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37.9%,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서 12.6%로 나타났다. 노후를 위해 일을 하려는 비율은 기혼여성에서는 6.1%로 나타났지만, 미혼모의 경우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본인 자아실현을 위해 일을 하려는 비율과 본인 아니면 돈 벌 사람이 없어서라는 비율의 차이가 매우 두드러진다.

〈표 5-54〉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일하지 않는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향후 취업하려는 가장 주된 이유 비교

(단위: %, 명)

구분	가계 수입이 없어서 ¹⁾	남편 수입으로 생활비 부족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비 부족	자녀 양육/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서	집에 있는 것이 심심하고 답답해서	본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자녀/가족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후 대책 마련을 위해	계	(명)
기혼여성	0.3	22.3	-	40.5	4.4	20.9	0.2	5.5	6.1	100.0	(1,337)
미혼모	37.9	-	39.1	12.6	1.1	2.3	0.0	6.9	0.0	100.0	(87)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가계수입이 없어서' 항목은 기혼여성은 '현재 우리 집에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이고, 미혼모는 '본인이 벌지 않으면 현재 우리 집에 수입이 없어서'를 대체한 항목임.

3) '남편 수입으로 생활비 부족'은 기혼여성만 있는 항목이고, '정부지원금으로 생활비 부족'은 미혼모만 있는 항목임.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제 6 장

미혼모가족의 주요 쟁점별 특성

제1절 학업·자립 준비

제2절 직업교육·일자리 경험

제3절 주거

제4절 건강

제5절 주변 관계·사회적 편견 및 국가 지원

제6절 소결

6

미혼모가족의 주요 쟁점별 《특성

이 장에서는 임신 및 출산기, 그리고 돌봄 내용이 다르거나 엄마의 일하는 환경이 영향을 크게 받는 아동의 미취학기 및 취학기 등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전체 미혼모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한 분야로 다룬다. 학업·자립 준비, 직업교육·일자리 경험, 건강, 주거, 주변 관계·사회적 편견 및 국가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게 된다. 이 분야는 가족 생애 중 한 시기에 일어나는 특징이 아니라 가족마다 다른 시기에 나타나거나 또는 경험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시기를 구분짓기 어려운 특징, 그리고 미취학과 취학기로 구분해도 별로 차이가 없는 분야들이라는 특징이 있다.

먼저 제1절에서는 학업과 자립 준비와 관련한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제2절에서는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직업교육 경험과 계획, 일자리 경험에서 구직 관련 어려움과 차별 경험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제3절에서는 주거의 형태와 만족도, 주거지원제도 이용 등 주거와 관련한 경험을 살펴보았다. 제4절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 스트레스 등 건강 경험을 분석하였고, 마지막 제5절은 주변 관계·사회적 편견과 국가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본다.

제6장의 분석 대상은 이 연구의 조사에 참여한 1247명 모두의 응답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제1절 학업·자립 준비

1. 학업

조사에 응답한 미혼모 중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5%로 고등학교 재학 비율은 1.8%, 대학교 재학 비율은 8.0%로 나타났다. 학교를 다니지 않지만,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비율은 2.6%였다.

10대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가 학업을 계속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31.3%가 고등학교 재학 중이고, 16.7%가 검정고시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자녀가 3세 이상 미취학인 경우,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기초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 시간제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표 6-1〉 미혼모의 현재 학업 지속 여부

(단위: %, 명)

구분	학교다님				검정고시 준비	학교 및 검정고시 안 함	계	(명)
	중	고	대	대학원				
조사 대상 전체	0.3	1.8	8.0	0.4	2.6	86.8	100.0	(1,247)
모 연령								
만 15-19세	2.1	31.3	6.3	0.0	16.7	43.8	100.0	(48)
만 20-29세	0.0	0.6	8.8	0.0	2.8	87.8	100.0	(500)
만 30-39세	0.4	0.9	7.5	0.6	1.3	89.2	100.0	(530)
만 40세 이상	0.6	0.0	7.7	1.2	1.8	88.8	100.0	(169)
자녀 연령								
3세 미만	0.3	4.5	3.3	0.3	3.3	88.3	100.0	(334)
3세 이상 미취학	0.3	1.1	10.0	0.5	2.9	85.3	100.0	(652)
초등학생	0.5	0.5	9.6	0.5	0.9	88.1	100.0	(218)
중고등학생 이상	0.0	0.0	7.0	0.0	0.0	93.0	100.0	(43)
거주 상황								
시설	1.0	2.9	12.0	0.0	2.4	81.8	100.0	(209)
재가	0.2	1.6	7.2	0.5	2.6	87.9	100.0	(1,038)
가족 구성								
모자녀	0.2	0.6	7.7	0.5	2.9	88.0	100.0	(950)
그 외	0.7	5.7	9.1	0.0	1.3	83.2	100.0	(297)

구분	학교다님				검정고시 준비	학교 및 검정고시 안 함	계	(명)
	중	고	대	대학원				
기초보장								
비수급	0.3	2.2	5.0	0.4	1.6	90.4	100.0	(675)
수급	0.3	1.4	11.5	0.3	3.7	82.7	100.0	(572)
경제활동								
안 함	0.5	3.2	8.4	0.3	3.5	84.0	100.0	(620)
시간제근로	0.0	0.6	10.4	0.3	2.4	86.2	100.0	(327)
전일제근로	0.3	0.3	4.7	0.7	0.7	93.3	100.0	(300)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현재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원동력은 미혼모 164명의 응답 중 가장 큰 요인은 본인이 학업을 마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5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 친지 및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인 경우도 12.8%로 나타났다.

이 중 대학교 이하의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10대 미혼모들의 응답에 집중해 보면, 고등학교 수준의 학업까지는 마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대안학교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계속 다니도록 지지하고 배려해 주었다는 응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 10대 미혼모의 경우 다니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졸업하는 것이 아직은 어려운 현실임을 알 수 있다. 10대 미혼모의 경우 기타 의견도 전혀 없었지만, 그 외 연령대에서는 다양한 기타 의견이 나타났다. 특히 취업이나 이직을 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학업을 지속한다는 기타 의견이 많았고, 아이를 위해서 학업을 계속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6-2〉 미혼모의 현재 학업을 지속하게 된 가장 큰 도움

(단위: %, 명)

구분	학업을 마치고자 하는 강한 본인 의지	가족, 친지 및 주변 사람들의 도와와 지지	대안 학교 이용 가능	원래 다니던 학교(선생님)에서 계속 다니도록 지지하고 배려해 주었기 때문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58.5	12.8	4.9	1.8	22.0	100.0	(164)
모 연령							
만 15-19세	70.4	18.5	11.1	0.0	0.0	100.0	(27)
만 20-29세	59.0	13.1	4.9	1.6	21.3	100.0	(61)
만 30-39세	54.4	12.3	1.8	3.5	28.1	100.0	(57)
만 40세 이상	52.6	5.3	5.3	0.0	36.8	100.0	(19)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취업·이직 의지(12명)', '아이를 위해서(8명)', '사이버 강의 수강이 가능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 '학비·교육비 지원', '무시받지 않기 위해', '헬로드림 사업', '노후대책',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업을 지속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학업과 양육 병행이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응답 30.5%,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28.7%, 그리고 학업 시간 동안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점이 22.0%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응답이 40대 이상에서 57.9%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에서도 높은 비율로 나타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연령대 중 4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에서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엄마의 연령이 20, 30대인 경우와 재가 미혼모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학업시간 동안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다른 그룹과 비교해 높은 특징도 발견할 수 있다.

〈표 6-3〉 미혼모의 현재 학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1순위)

(단위: %, 명)

구분	학업시간 동안 아이 보출 사람 없음	개인적 으로 공부할 시간 부족함	학업과 양육 병행이 체력적 으로 힘듦	교육 비용 부담	또래 차이 에서 오는 부적응	미혼모의 학업 지속에 대한 주변 편견과 차별적 시선	배우는 내용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22.0	28.7	30.5	11.0	1.2	1.8	3.0	1.8	100.0	(164)
모 연령										
만 15-19세	14.8	29.6	25.9	14.8	3.7	7.4	3.7	0.0	100.0	(27)
만 20-29세	21.3	27.9	27.9	14.8	1.6	0.0	3.3	3.3	100.0	(61)
만 30-39세	28.1	33.3	26.3	5.3	0.0	1.8	3.5	1.8	100.0	(57)
만 40세 이상	15.8	15.8	57.9	10.5	0.0	0.0	0.0	0.0	100.0	(19)
거주 상황										
시설	10.5	28.9	31.6	18.4	2.6	2.6	2.6	2.6	100.0	(38)
재가	25.4	28.6	30.2	8.7	0.8	1.6	3.2	1.6	100.0	(126)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안정적 양육 환경', '직업을 가지지 못함', '없음'

2. 자립 준비

자립을 위해 미혼모 본인의 현재 학력보다 높은 학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그렇다고 생각하는 비율(그렇다 + 매우 그렇다)이 60.8%로 나타났다.

미성년 10대 미혼모의 경우 최종 학력이 고졸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혼모의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현재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와 기초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자립을 위해 더 높은 수준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6-4〉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현재 학력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6.7	32.6	41.3	19.5	100.0	(1,247)
모 연령($\chi^2=17.68^*$)						
만 15-19세	4.2	18.8	50.0	27.1	100.0	(48)
만 20-29세	8.2	33.2	39.2	19.4	100.0	(500)
만 30-39세	4.5	33.4	41.3	20.8	100.0	(530)
만 40세 이상	9.5	32.0	45.0	13.6	100.0	(169)
자녀 연령($\chi^2=9.03$)						
3세 미만	7.2	33.5	38.3	21.0	100.0	(334)
3세 이상 미취학	6.3	32.2	42.5	19.0	100.0	(652)
초등학교	6.0	34.4	41.3	18.3	100.0	(218)
중고등학교 이상	11.6	20.9	46.5	20.9	100.0	(43)
거주 상황($\chi^2=3.75$)						
시설	6.7	32.5	36.8	23.9	100.0	(209)
재가	6.6	32.6	42.2	18.6	100.0	(1,038)
가족 구성($\chi^2=7.17$)						
모자녀	5.8	33.7	40.5	20.0	100.0	(950)
그 외	9.4	29.0	43.8	17.8	100.0	(297)
기초보장($\chi^2=6.89$)						
비수급	6.8	34.8	41.3	17.0	100.0	(675)
수급	6.5	29.9	41.3	22.4	100.0	(572)
경제활동($\chi^2=2.07$)						
안 함	6.9	31.3	43.1	18.7	100.0	(620)
함	6.4	33.8	39.6	20.3	100.0	(62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립을 위해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응답한 미혼모는 어느 수준의 학력을 최소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2-3년제 전문대 졸업(47.9%)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이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37.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도 괜찮다고 응답한 14.4%를 제외하고는 대학 졸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성년 10대 미혼모의 경우는 아직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학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의 미혼모와는 달리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비율이 35.1%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미혼모의 연령이 상승할수록,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6-5〉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력

(단위: %, 명)

구분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년제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14.4	47.9	37.7	100.0	(758)
모 연령($\chi^2=28.45^{***}$)					
만 15-19세	35.1	35.1	29.7	100.0	(37)
만 20-29세	14.7	52.9	32.4	100.0	(293)
만 30-39세	14.9	43.2	41.9	100.0	(329)
만 40세 이상	4.0	53.5	42.4	100.0	(99)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어서 더 높은 학력을 갖추기 위해 학업을 더 한다면 어떠한 유형의 교육을 원하는지 알아본 결과, 정규 학교교육은 44.5%, 원격교육기관은 42.5%로 이 두 유형의 교육에 대한 희망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독학이나 홈스쿨링 후 검정고시를 보는 것은 6.2%, 대안학교 교육을 받고 검정고시를 보는 것은 4.5%로 나타났다. 최근 사이버대학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원격교육 기관에 대한 희망이 높을 수 있고, 아이 양육으로 인해 물리적인 이동 및 시간 상 제약이 많은 미혼모의 특성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 응답은 현재 학력이 각기 다른 상태의 미혼모들이 응답한 결과로,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학력을 갖추고자 하는 10대 미혼모의 응답을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비록 그 수가 적기는 하지만, 10대 미혼모는 정규 교육을 받기를 가장 많이 바라고, 독학이나 홈스쿨 후 검정고시를 보는 것과 원격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희망 정도가 같은 수준(각 18.9%)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안학교 후 검정고시는 보는 것(16.2%)도 비슷하게 나타나 10대 미혼모 중 고

등학교 수준의 학력을 갖추기 위해 검정고시를 보는 것을 희망하는 비율이 약 35.0%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초보장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정규 학교교육을 받고 싶은 욕구가 높았고, 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는 원격교육기관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이는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는 결과로 이해된다. 경제활동에 따른 결과를 보면, 전일제근로를 하는 경우 원격교육기관에 대한 응답이 55.1%로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일을 하면서 학력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 시간 제약으로 원격교육을 통해 학력을 갖추기를 원하고 있다.

〈표 6-6〉 미혼모가 현재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갖추기 위해 학업을 더 할 경우 가장 받고 싶은 교육 유형

(단위: %, 명)

구분	정규 학교교육	대안학교 교육 후 검정고시	독학이나 홈스쿨 후 검정고시	원격 교육기관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44.5	4.5	6.2	42.5	2.4	100.0	(758)
모 연령							
만 15-19세	45.9	16.2	18.9	18.9	0.0	100.0	(37)
만 20-29세	47.4	4.1	7.2	39.2	2.0	100.0	(293)
만 30-39세	43.2	3.6	4.9	45.6	2.7	100.0	(329)
만 40세 이상	39.4	4.0	3.0	50.5	3.0	100.0	(99)
기초보장($\chi^2=10.00^*$)							
비수급	39.1	5.1	6.9	46.7	2.3	100.0	(394)
수급	50.3	3.8	5.5	37.9	2.5	100.0	(364)
경제활동($\chi^2=18.67^*$)							
안 함	48.3	5.0	5.7	38.6	2.3	100.0	(383)
시간제근로	44.7	5.1	9.1	38.6	2.5	100.0	(197)
전일제근로	36.0	2.8	3.9	55.1	2.2	100.0	(178)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기타: '기술, 자격증 교육', '국가고시', '직장-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학업환경', '야간학교', '전문학과 진학', '학원', '유학'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 시간 조정이 유연한 일 자리 확대가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학업 및 근무시간 동안 자녀 돌봄 서비스는 17.9%,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 제공은 15.0%, 학

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14.4% 등으로 나타났다.

미혼모의 연령에 따라 보면, 10대 미혼모의 경우 학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31.3%로 나타났고, 학업시간 동안 자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27.1%로 높게 나타나 20대 이상의 미혼모와 다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표 6-7〉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단위: %, 명)

구분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다양한 직업 훈련 과정 제공	근무 시간 조정/시간제 근무 가능한 일자리 확대	교육, 훈련, 일자리 등 정보 제공 서비스	학업이나 일하는 동안 자녀 돌봄 서비스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환경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14.4	15.0	42.8	5.8	17.9	3.8	0.4	100.0	(1,247)
모 연령									
만 15-19세	31.3	8.3	16.7	12.5	27.1	4.2	0.0	100.0	(48)
만 20-29세	15.8	16.2	43.8	4.6	17.0	2.2	0.4	100.0	(500)
만 30-39세	13.8	13.8	44.5	5.5	17.4	4.7	0.4	100.0	(530)
만 40세 이상	7.1	17.2	42.0	8.3	19.5	5.3	0.6	100.0	(169)
자녀 연령									
3세 미만	17.7	12.6	38.3	6.0	21.6	3.9	0.0	100.0	(334)
3세 이상 미취학	12.0	15.8	44.9	5.1	18.4	3.2	0.6	100.0	(652)
초등학생	16.1	15.6	45.0	6.0	12.4	4.6	0.5	100.0	(218)
중고등학생 이상	16.3	18.6	34.9	14.0	9.3	7.0	0.0	100.0	(43)
거주 상황($\chi^2=5.48$)									
시설	16.3	11.5	43.5	5.3	17.7	4.8	1.0	100.0	(209)
재가	14.0	15.7	42.7	5.9	17.9	3.6	0.3	100.0	(1,038)
가족 구성($\chi^2=19.55^{**}$)									
모자녀	13.5	15.4	43.9	5.7	18.4	2.6	0.5	100.0	(950)
그 외	17.2	13.8	39.4	6.1	16.2	7.4	0.0	100.0	(297)
기초보장($\chi^2=11.75$)									
비수급	13.6	16.4	42.5	6.7	17.9	2.7	0.1	100.0	(675)
수급	15.2	13.3	43.2	4.7	17.8	5.1	0.7	100.0	(572)
경제활동($\chi^2=6.68$)									
안 함	15.6	15.3	40.0	6.3	18.5	4.0	0.2	100.0	(620)
함	13.1	14.7	45.6	5.3	17.2	3.5	0.6	100.0	(62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기타: '금전적 지원', '주거환경지원', '창업지원', '정서적 지원', '육아지원'

제2절 직업교육·일자리 경험

이 절에서는 임신·출산 이후 자립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과 구직 과정에서의 도움 정도 및 어려움 등을 분석하였다.

1. 직업교육 경험

먼저,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직업교육(훈련)에는 취업, 창업 또는 업무능력 향상 목적의 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 목적의 연수 및 수강, 통신·교양강좌, 직업학교의 교육만 포함하였으며, 취미·여가 관련 교육은 제외하였다. 직업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조사 대상자 중 10명 중 3명(34.8%) 정도였다. 특히 미혼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40대 이상(41.4%)이 가장 많았고, 30대(36.4%), 20대(33.2%), 10대(10.4%) 순이었다.

〈표 6-8〉 임신·출산 이후 미혼모의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받은 적 없음	받은 적 있음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65.2	34.8	100.0	(1,247)
모 연령($\chi^2=17.02^{***}$)				
만 15-19세	89.6	10.4	100.0	(48)
만 20-29세	66.8	33.2	100.0	(500)
만 30-39세	63.6	36.4	100.0	(530)
만 40세 이상	58.6	41.4	100.0	(169)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미혼모 가운데 직업훈련 신청 개수와 과정을 끝까지 완료한 직업훈련 개수를 살펴보았다. 신청 직업훈련 수는 평

균 1.8개였는데, 1개(56.0%)를 신청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2개(27.2%), 3개 이상(16.8%) 순이었다. 끝까지 과정을 완료한 직업훈련 수는 평균 1.5개로 신청한 훈련수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신청한 직업훈련 가운데 1개를 완료했다는 응답(68.0%)이 가장 많았고 2개(19.8%), 3개 이상(12.2%) 순이었다.

〈표 6-9〉 신청-완료한 직업훈련 수

(단위: %, 명, 개)

구분	1개	2개	3개 이상	계	(명)	평균(개)
신청한 직업훈련 수	56.0	27.2	16.8	100.0	(434)	1.8
완료한 직업훈련 수	68.0	19.8	12.2	100.0	(434)	1.5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직업교육(훈련)을 여러 개 신청한 경우 교육을 완료한 과정, 완료한 과정이 없을 경우 가장 최근에 신청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직업훈련의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긍정 응답률(조금 만족하는 편이었음 + 매우 만족했음)이 74.4% 수준을 보였다.

〈표 6-10〉 직업훈련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았음	별로 만족하지 않는 편이었음	조금 만족하는 편이었음	매우 만족했음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6.2	19.4	52.3	22.1	100.0	(434)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직업훈련을 받을 때 가장 큰 어려움(1순위)을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훈련 및 교육과정 동안 생활비를 벌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35.7%)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아이를 돌봐줄 곳이 마땅치 않아 돌봄 문제가 어려웠다(28.3%), 비용이 부담되었다(11.8%) 순이었다.

〈표 6-11〉 직업훈련 받을 때 가장 큰 어려움(1순위)

(단위: %, 명)

구분	비용 부담	훈련 과정 중 아이 돌보줄 곳 없어 어려움	훈련 동안 생활비 벌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	체력 부담	프로그램 선택 어려움	선택한 과정이 적성에 맞지 않아 어려움	하고 싶은 것은 지원이 되지 않아 못함	교육 과정 어려움	교육 내용 쉽고 지루함	미혼모라는 이유로 부정적 시선 느낌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11.8	28.3	35.7	5.3	6.2	4.1	4.8	1.6	0.7	0.5	0.9	100.0	(434)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취업연계 어려움', '취직 시 학력', '직업으로 삼기에 부적절', '아이에게 소홀해짐', '교육과정 내용 부실', '짧은 교육기간', '남녀차별', '중도 종결', '교육 이수 등 교육 전 과정이 힘들', '기간이 너무 길었음', '설 시간이 없음'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직업훈련 이수 후 취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8%가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6-12〉 직업훈련 후 취업 여부

(단위: %, 명)

구분	일자리 구하지 않았음	일자리 구했음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60.8	39.2	100.0	(434)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직업훈련 이수 후 취업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일자리가 직업훈련과 관련된 분야인지 확인한 결과 75.3%가 관련 분야라고 응답하였다.

〈표 6-13〉 직업훈련과 관련된 일자리 여부

(단위: %, 명)

구분	관련 분야 아님	관련 분야임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24.7	75.3	100.0	(170)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본인이 희망하는 급여나 근로시간 등 조건이 맞지 않아서(25.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일할 상황이 아니어서 일자리를 알아보지 않았다(24.6%), 교육 받은 수준으로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15.9%), 기타(14.0%), 본인이 교육받은 분야의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또는 교육 연장 이수 중이라는 응답(각 9.8%) 순이었다. 특히 조건이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4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다.

〈표 6-14〉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일할 상황 아니어서 아보지 않았음	교육받은 분야 일자리 없어서	교육받은 수준으로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서	희망하는 급여나 근로시간 조건이 맞지 않아서	교육 연장 이수 중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24.6	9.8	15.9	25.8	9.8	14.0	100.0	(264)
모 연령								
만 15-19세	20.0	20.0	20.0	0.0	40.0	0.0	100.0	(5)
만 20-29세	32.4	6.7	8.6	27.6	12.4	12.4	100.0	(105)
만 30-39세	23.2	11.6	20.5	21.4	8.9	14.3	100.0	(112)
만 40세 이상	9.5	11.9	21.4	35.7	2.4	19.0	100.0	(42)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동료의 이간질', '건강상 문제', '교육 내용이 적성에 맞지 않음', '나이가 많아서 취업에 어려움', '대학 진학', '취업 실패', '조건 불일치', '자격증 취득 실패', '아이가 아파서', '아이 양육 때문에', '이사 준비 때문에', '즉시 취업해야 했기 때문에', '직업훈련과 무관한 일자리 구함', '가까운 일자리가 없어서', '추가 비용' '출산'

다음으로 임신·출산 후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확인하였다. 자녀를 돌보느라 시간을 내기 힘들었다(37.0%)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13.7%),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일을 쉬어야 하는데 돈을 벌어야 해서 일을 할 수 없었다(12.7%), 원래 하던 일이 있어서 직업훈련이 필요 없었다(8.1%) 순이었다. 미혼모의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10대의 경우 취업할 마음이 없

었다, 40대 이상은 생계 때문에 일을 해야 했다는 응답률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았다.

양육과 병행해 시간 부족 등 직업훈련을 마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인터뷰에서도 발견되었다.

“애가 아프면 정말 취성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B9) “맞아요. 한부모한테는 취성패를 할 때도 조금이라도 혜택 아닌 혜택을 주는 게 어떨까. 애기가 아파서 못 가는 상황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진단서 같은 서류 같은 건 끊어주면 되잖아요.”(B10) “반영이 안 돼요.”(B11) “맞아요.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일반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랑 똑같이 되어버리니까.”(B10). “제가 처녀일 적에도 취성패를 한 번 했어요. 애 낳기 전에 했었는데 그때도 취성패 스케줄이 너무 버거웠어요.”(B9) “혼자하기도 힘든데.”(B10)

〈표 6-15〉 임신·출산 후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직업 훈련에 대한 정보 부족	취업 훈련할 마음 없었음	취업 하고자 하는 분야 프로 그램 부족	직업 훈련이 취업에 도움될 것 같지 않음	돌봄 으로 시간 부족	비용 부담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해서	체력 부족	일을 하고 있어서 직업 훈련 불필요	직업 훈련 없이 취업 가능한 상태	각오나 용기 부족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13.7	2.0	5.8	2.3	37.0	5.9	12.7	2.3	8.1	3.7	4.3	2.2	100.0	(813)
모 연령														
만 15-19세	14.0	9.3	4.7	2.3	34.9	11.6	2.3	0.0	7.0	0.0	11.6	2.3	100.0	(43)
만 20-29세	15.3	1.8	6.3	3.3	36.8	5.4	11.4	1.5	5.7	5.4	5.4	1.8	100.0	(334)
만 30-39세	11.9	1.8	5.3	1.8	38.0	5.6	13.1	3.9	11.0	2.4	2.7	2.7	100.0	(337)
만 40세 이상	14.1	0.0	6.1	1.0	35.4	6.1	20.2	1.0	7.1	4.0	3.0	2.0	100.0	(99)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근처에 교육이수할 수 있는 곳이 없음’, ‘수업으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학업 중’, ‘건강상 문제’, ‘자녀 양육 때문에’, ‘곧바로 취업했어야 했기 때문에’,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음’, ‘학력미달’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향후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61.7%가 받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자녀 연령에 따라 응답률에 차이가 있었는데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다는 경우는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48.2%)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초등학생(40.0%), 3세 이상 미취학(32.0%), 중고등학생 이상(25.0%) 순이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에 따라 응답률에 차이를 보였는데 비수급자의 72.8%가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여 수급자(46.0%)보다 26.8%포인트 높았다. 반면, 미혼모의 연령대와 가족 구성에 따른 응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6-16〉 앞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 여부

(단위: %, 명)

구분	받을 계획 없음	받을 계획 있음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61.7	38.3	100.0	(813)
모 연령($\chi^2=2.73$)				
만 15-19세	69.8	30.2	100.0	(43)
만 20-29세	60.8	39.2	100.0	(334)
만 30-39세	63.2	36.8	100.0	(337)
만 40세 이상	56.6	43.4	100.0	(99)
자녀 연령($\chi^2=20.45^{***}$)				
3세 미만	51.8	48.2	100.0	(276)
3세 이상 미취학	68.0	32.0	100.0	(409)
초등학생	60.0	40.0	100.0	(100)
중고등학생 이상	75.0	25.0	100.0	(28)
거주 상황($\chi^2=10.65^{**}$)				
시설	47.1	52.9	100.0	(102)
재가	63.9	36.1	100.0	(711)
가족 구성($\chi^2=0.40$)				
모자녀	62.0	38.0	100.0	(594)
그 외	61.2	38.8	100.0	(219)
기초보급($\chi^2=60.04^{***}$)				
비수급	72.8	27.2	100.0	(478)
수급	46.0	54.0	100.0	(335)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일자리 경험

다음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일을 그만 둔 경험과 그 이유, 구직 과정에서 어려웠던 부분과 미혼모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소외나 차별을 당한 경험을 검토하였다. 먼저, 전체 응답자 가운데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79.4%에 달하였는데, 미혼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40대 이상의 경우 10명 중 8명 이상이 일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반면 10대는 10명 중 3명 이상이었다.

〈표 6-17〉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일을 그만둔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그만둔 경험 없음	그만둔 경험 있음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20.6	79.4	100.0	(1,247)
모 연령($\chi^2=80.67^{***}$)				
만 15-19세	62.5	37.5	100.0	(48)
만 20-29세	26.0	74.0	100.0	(500)
만 30-39세	14.7	85.3	100.0	(530)
만 40세 이상	11.2	88.8	100.0	(169)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앞에서 임신·출산 과정에서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일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를 확인한 결과 육아 및 양육 때문이라는 응답(44.1%)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임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불편해 동료들이 알기 전에 스스로 퇴직했다(33.3%), 직장에서 알고 그만둘 것을 강요해서(9.8%), 임신(또는 출산) 사실이 알려져 동료들이 수군거려서(7.4%), 기타(5.4%) 순이었다.

〈표 6-18〉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일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

(단위: %, 명)

구분	임신 사실 알려질까 봐 동료들 알기 전에 퇴직	직장에서 그만둘 것을 강요	임신(출산) 사실 알려져 동료들이 수군대서	몸조리, 육아 및 양육을 위해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33.3	9.8	7.4	44.1	5.4	100.0	(990)
모 연령($\chi^2=10.01$)							
만 15-19세	16.7	11.1	16.7	55.6	0.0	100.0	(18)
만 20-29세	32.7	9.5	6.2	45.4	6.2	100.0	(370)
만 30-39세	32.5	10.0	8.2	44.5	4.9	100.0	(452)
만 40세 이상	39.3	10.0	6.7	38.7	5.3	100.0	(150)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건강상 문제(11명)', '임신 중에 일하기 힘들어서(11명)', '이사(해외 이주 포함)계획 때문에', '미혼모시설 입소', '아이 친부가 관두게 함',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서', '계약만료로 인해', '입덧 때문에(12명)', '직장 폐업', '출산을 위해'

구직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또는 미혼모라는 사실)만으로 취직 자체가 힘들었다(30.2%)였다. 그 다음은 급여나 시간 등 근무조건이 맞는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다(26.8%), 임신·출산·가사·자녀 양육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려 다니기 힘들었다(15.6%), 요구되는 기술이나 자격이 부족했다(8.1%),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다(5.9%) 순이었다. 미혼모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의 경우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또는 미혼모라는 사실)만으로 취직 자체가 힘들었다(33.3%)가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은 근무조건이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과 가사·양육 등으로 구직하러 다니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6-19〉 일자리를 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1순위)

(단위: %, 명)

구분	혼자 양육하는 사실만 으로 취직 어려움	요구 되는 기술 및 자격 부족	자신감 부족	인근 지역 에서 일자리 찾기 힘들	근무 조건 맞는 일자리 찾기 힘들	가사 및 양육 등으로 일자리 구하려 다니기 힘들	어려움 경험 없음	해당 없음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30.2	8.1	5.5	5.9	26.8	15.6	2.2	5.7	0.2	100.0	(1,247)
모 연령($\chi^2=101.07^{***}$)											
만 15-19세	33.3	2.1	2.1	14.6	8.3	4.2	4.2	29.2	2.1	100.0	(48)
만 20-29세	30.2	8.4	5.0	4.6	26.6	16.2	2.4	6.6	0.0	100.0	(500)
만 30-39세	31.3	8.7	6.0	6.6	27.9	13.8	2.3	3.2	0.2	100.0	(530)
만 40세 이상	25.4	7.1	5.9	4.7	29.0	23.1	0.6	4.1	0.0	100.0	(169)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직장에서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린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알린 적 있다는 응답이 52.2%로 과반이었다. 특히 미혼모의 연령대별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린 적이 없는 비율은 10대가 75.0%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48.5%), 20대(47.0%), 30대(45.7%) 순이었다.

〈표 6-20〉 직장에서 미혼모임을 알림

(단위: %, 명)

구분	알린 적 없음	알린 적 있음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47.8	52.2	100.0	(1,246)
모 연령($\chi^2=15.29^{**}$)				
만 15-19세	75.0	25.0	100.0	(48)
만 20-29세	47.0	53.0	100.0	(500)
만 30-39세	45.7	54.3	100.0	(529)
만 40세 이상	48.5	51.5	100.0	(169)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직장에서 미혼모라는 이유로 소외나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차별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51.8% 수준이었다. 즉, 2명 가운데 1명 정도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동료들의 따돌림이나 수군거림(23.8%)을 경험했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승진이나 업무배치에서의 차별 및 불이익(7.5%), 모욕적인 언행(7.4%), 권고사직(6.0%), 성희롱(2.0%), 기타(1.5%) 순이었다.

40대 이상의 경우는 차별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가장 낮아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차별받은 경험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21〉 미혼모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소외나 차별당한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동료들의 따돌림/수군거림	권고사직	승진/업무 배치상 차별 및 불이익	성희롱	모욕적 언행	기타	차별 경험 없음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23.8	6.0	7.5	2.0	7.4	1.5	51.8	100.0	(651)
모 연령($\chi^2=26.03$)									
만 15-19세	8.3	25.0	0.0	0.0	8.3	0.0	58.3	100.0	(12)
만 20-29세	19.3	6.8	8.3	1.9	6.1	1.1	56.4	100.0	(264)
만 30-39세	25.7	4.9	7.3	1.7	7.3	1.7	51.4	100.0	(288)
만 40세 이상	33.3	4.6	6.9	3.4	11.5	2.3	37.9	100.0	(87)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혼자 아이를 양육하기 때문에 업무상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지적함', '직장에서 미혼모라는 사실을 숨길 것을 지시함', '취업 시 불이익', '부당행위를 당했음에도 보호받지 못함', '부정적 시선·인식', '급여 차별'

제3절 주거

이 절에서는 미혼모가족의 주거에 관련된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살펴보면, 자가·전세·월세 등 관계없이 내 집(45.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 등

가족 및 친인척 집(31.2%), 모자관련시설(19.2%), 친구 또는 지인 집(3.7%) 순이었다.

특히 미혼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내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부모 등 친·인척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낮았다.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내 집에서 거주하는 응답률이 높고, 부모 등 친·인척 집에서 거주하거나 모자관련시설에서 거주하는 응답률이 낮았다. 수급자의 경우 비수급자보다 부모 등 친인척 집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6-22〉 미혼모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단위: %, 명)

구분	나의 집	부모님 등 가족 및 친인척 집	친구 또는 지인 집	모자관련시설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45.9	31.2	3.7	19.2	100.0	(1,089)
모 연령($\chi^2=83.58^{***}$)						
만 15-19세	25.0	45.8	4.2	25.0	100.0	(48)
만 20-29세	32.8	36.1	4.6	26.5	100.0	(460)
만 30-39세	55.7	27.9	2.9	13.5	100.0	(445)
만 40세 이상	65.4	20.6	2.9	11.0	100.0	(136)
자녀 연령($\chi^2=63.80^{***}$)						
3세 미만	32.1	35.9	4.1	27.9	100.0	(315)
3세 이상 미취학	46.7	31.7	3.9	17.8	100.0	(568)
초등학생	62.7	23.1	2.4	11.8	100.0	(169)
중고등학생 이상	75.7	21.6	2.7	0.0	100.0	(37)
기초보장($\chi^2=75.20^{***}$)						
비수급	51.3	18.9	2.8	27.1	100.0	(472)
수급	41.8	40.7	4.4	13.1	100.0	(617)
경제활동($\chi^2=20.06^{***}$)						
안 함	41.3	30.5	4.0	24.2	100.0	(545)
함	50.6	32.0	3.3	14.2	100.0	(544)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 응답은 거주지로 구분하기 적절치 않아 제외하고 분석하여 총 수가 1,089명임.

미혼모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55.2%)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아파트(35.0%), 단독주택(8.2%),

기타(1.6%) 순이었다. 미혼모 본인의 연령, 자녀 연령, 수급자 여부, 경제 활동 여부에 따른 응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6-23〉 미혼모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유형

(단위: %, 명)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35.0	8.2	55.2	1.6	100.0	(500)
모 연령						
만 15-19세	41.7	25.0	33.3	0.0	100.0	(12)
만 20-29세	23.8	5.3	68.2	2.6	100.0	(151)
만 30-39세	37.9	8.1	52.8	1.2	100.0	(248)
만 40세 이상	44.9	11.2	42.7	1.1	100.0	(89)
자녀 연령						
3세 미만	31.7	6.9	57.4	4.0	100.0	(101)
3세 이상 미취학	33.6	6.8	58.5	1.1	100.0	(265)
초등학생	34.9	13.2	50.9	0.9	100.0	(106)
중고등학생 이상	60.7	7.1	32.1	0.0	100.0	(28)
기초보장						
비수급	30.2	9.1	59.1	1.7	100.0	(242)
수급	39.5	7.4	51.6	1.6	100.0	(258)
경제활동						
안 함	34.2	8.0	55.1	2.7	100.0	(225)
함	35.6	8.4	55.3	0.7	100.0	(275)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고시원', '기숙사', '조립식건물', '상가주택'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 형태를 보면,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가 과반(57.8%)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은 전세(27.6%), 자가(6.6%), 보증금 없는 월세(5.2%), 사글세·연세·일세 등(2.2%), 무상(0.6%) 순이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비수급자에 비해 자가 비율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였고, 비수급자의 경우 사글세·연세·일세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6-24〉 미혼모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소유 형태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 등	무상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6.6	27.6	57.8	5.2	2.2	0.6	100.0	(500)
모 연령								
만 15-19세	8.3	25.0	66.7	0.0	0.0	0.0	100.0	(12)
만 20-29세	2.0	25.2	64.9	6.6	0.7	0.7	100.0	(151)
만 30-39세	8.1	30.2	54.0	4.8	2.0	0.8	100.0	(248)
만 40세 이상	10.1	24.7	55.1	4.5	5.6	0.0	100.0	(89)
자녀 연령								
3세 미만	5.0	24.8	62.4	5.9	0.0	2.0	100.0	(101)
3세 이상 미취학	6.8	29.8	55.8	5.3	2.3	0.0	100.0	(265)
초등학생	5.7	28.3	59.4	4.7	0.9	0.9	100.0	(106)
중고등학생 이상	14.3	14.3	53.6	3.6	14.3	0.0	100.0	(28)
기초보장($\chi^2=34.00^{***}$)								
비수급	11.6	25.2	53.5	5.0	4.3	0.4	100.0	(258)
수급	1.2	30.2	62.4	5.4	0.0	0.8	100.0	(242)
경제활동								
안 함	3.1	31.6	58.2	5.3	0.4	1.3	100.0	(225)
함	9.5	24.4	57.5	5.1	3.6	0.0	100.0	(275)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미혼모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조금 만족하는 편이다 +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59.3% 수준이었다.

미혼모의 연령별로 보면 10대의 경우 긍정 응답률이 89.6%로 가장 높았고 40대 이상(53.2%)이 가장 낮았다. 시설에 거주하는 미혼모(83.2%)가 재가 미혼모(54.5%)보다 주거 만족도가 높았다. 이 외 자녀의 연령과 수급 여부에 따른 주거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6-25〉 미혼모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는 편	조금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11.7	28.9	44.3	15.0	100.0	(1,247)
모 연령($\chi^2=27.10^{**}$)						
만 15-19세	4.2	6.3	66.7	22.9	100.0	(48)
만 20-29세	9.6	31.8	43.4	15.2	100.0	(500)
만 30-39세	13.8	27.0	44.3	14.9	100.0	(530)
만 40세 이상	13.6	33.1	40.8	12.4	100.0	(169)
자녀 연령($\chi^2=15.08$)						
3세 미만	13.5	28.7	41.6	16.2	100.0	(334)
3세 이상 미취학	11.8	29.0	44.0	15.2	100.0	(652)
초등학생	9.2	26.1	52.8	11.9	100.0	(218)
중고등학생 이상	9.3	44.2	27.9	18.6	100.0	(43)
거주 상황($\chi^2=80.38^{***}$)						
시설	3.8	12.9	52.6	30.6	100.0	(209)
재가	13.3	32.2	42.7	11.8	100.0	(1,038)
기초보장($\chi^2=4.05$)						
비수급	10.8	31.1	43.9	14.2	100.0	(675)
수급	12.8	26.4	44.9	15.9	100.0	(572)
경제활동($\chi^2=0.73$)						
안 함	12.1	29.2	43.2	15.5	100.0	(620)
함	11.3	28.7	45.5	14.5	100.0	(62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유(1순위)를 살펴본 결과, 사는 집(시설)의 구조나 건물 낙후 등 시설적인 문제 때문에 불편하다(46.2%)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사는 집(시설)의 위치, 교통 때문에 불편하다(20.1%), (자녀 이외의)같이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불편하다(16.6%), 주거비용이 많이 들어서 불편하다(10.1%), 이웃과 주변 사람의 시선이 불편하다(4.1%), 기타(3.0%) 순이었다.

시설 거주자의 경우 재가 미혼모에 비해 같이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불편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수급자의 경우 현재 사는 곳의 시설적인 문제 때문에 불편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6-26〉 미혼모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사는 집 위치, 교통 불편함	사는 집 구조나 건물 낙후 등 사실적인 불편함	같이 사는 사람들 과의 관계로 불편함	주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불편함	이웃과 주변 사람들의 사선이 불편함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20.1	46.2	16.6	10.1	4.1	3.0	100.0	(507)
모 연령								
만 15-19세	60.0	40.0	0.0	0.0	0.0	0.0	100.0	(5)
만 20-29세	16.9	44.9	18.8	11.1	4.3	3.9	100.0	(207)
만 30-39세	24.1	48.1	14.8	6.9	4.2	1.9	100.0	(216)
만 40세 이상	15.2	44.3	16.5	16.5	3.8	3.8	100.0	(79)
자녀 연령								
3세 미만	20.6	38.3	24.1	7.8	4.3	5.0	100.0	(141)
3세 이상 미취학	22.2	49.6	15.0	7.5	3.4	2.3	100.0	(266)
초등학생	10.4	51.9	7.8	19.5	7.8	2.6	100.0	(77)
중고등학생 이상	26.1	34.8	17.4	21.7	0.0	0.0	100.0	(23)
거주 상황($\chi^2=24.36^{***}$)								
시설	8.6	37.1	34.3	0.0	14.3	5.7	100.0	(35)
재가	21.0	46.8	15.3	10.8	3.4	2.8	100.0	(472)
기초보장($\chi^2=17.50^{**}$)								
비수급	19.8	41.7	21.9	11.0	3.9	1.8	100.0	(283)
수급	20.5	51.8	9.8	8.9	4.5	4.5	100.0	(224)
경제활동($\chi^2=8.86$)								
안 함	22.7	44.5	16.0	8.6	3.5	4.7	100.0	(256)
함	17.5	47.8	17.1	11.6	4.8	1.2	100.0	(251)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기타: '공간이 좁음', '계약기간이 짧음', '아이에게 유해한 환경', '관리비 내기 어려움', '주변 인과의 관계 형성 어려움', '내 집이 아니어서 불편함', '이웃과 마찰, 층간소음, 담배 냄새 등', '소음이 심함', '계단이 없음', '집주인과 마찰', '평균급여가 낮음', '친부 주거지와 가까워 아이를 뺏기거나 해칠까 봐 불안함'

정부의 주거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를 살펴 보았다. 먼저, 본 조사 표본에서 임대주택지원제도(전세임대, 장기전세 등)의 인지율은 76.8%, 이용률은 36.2% 수준에 불과하였다. 미혼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제도에 대한 인지율이 높고 이용 경험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제도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움 정도를 확인한 결

과 긍정 응답(다소 도움됨 + 매우 도움됨)은 76.7% 수준을 보였는데, 10대는 100%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40대 이상(80.3%), 30대(76.6%), 20대(74.4%) 순이었다.

두 번째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디딤돌 내집마련 대출 포함)의 인지율은 48.0%, 이용률은 10.0% 수준에 불과하였다. 미혼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제도 인지율이 높은 반면, 이용률은 40대(17.2%)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10대(12.5%), 30대(11.9%), 20대(4.6%) 순이었다. 제도 이용 경험에 있는 경우 도움 정도에 대한 긍정 응답(다소 도움됨 + 매우 도움됨)은 88.3% 수준이었었는데, 30대(78.8%)를 제외한 전체 연령대의 긍정 응답률이 각각 100.0%를 기록하였다.

세 번째로, 맞춤형 급여에 따른 주거급여의 인지율은 81.7%로 대체로 높았고 이용률도 64.1%로 다른 주거지원제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미혼모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60.4%)를 제외한 전체 연령의 인지율이 82% 수준이었다. 주거급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도움 정도에 대한 긍정 응답(다소 도움됨 + 매우 도움됨)은 79.1%로, 전체 연령대별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보호·자립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모자관련시설에 대한 인지율은 82.6%로 다른 주거지원제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설 이용률은 46.9%로 절반 수준을 보였고, 시설 입소 유경험자의 도움 정도에 대한 긍정 응답(다소 도움됨 + 매우 도움됨)은 77.2%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85.7%)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40대 이상(80.3%), 20대(76.9%), 30대(75.6%) 순이었다.

요약하면 본 조사 표본에서 대표적인 4개 주거지원제도 가운데 대출제도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데 반해, 도움 정도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임대주택지원제도의 이용 경

험이 36.2% 수준에 불과하고, 조사 대상 미혼모 10명 중 6명 이상 (64.1%)이 주거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대주택과 같은 중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지원보다 주거환경개선 및 월세 등 임차료 지원을 받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27〉 미혼모가족의 주거 관련 지원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단위: %, 명)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도움 정도					(명)		
		모름	알고 있음	(명)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명)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임대 주택 지원	전체	23.2	76.8	(1,247)	63.8	36.2	(958)	0.6	4.6	18.2	27.1	49.6	(347)
	모 연령	$(\chi^2=42.50^{***})$			$(\chi^2=16.37^{***})$								
	만 15-19세	60.4	39.6	(48)	84.2	15.8	(19)	0.0	0.0	0.0	33.3	66.7	(3)
	만 20-29세	24.2	75.8	(500)	70.2	29.8	(379)	0.0	5.3	20.4	31.9	42.5	(113)
	만 30-39세	20.6	79.4	(530)	58.4	41.6	(421)	1.1	5.7	16.6	25.7	50.9	(175)
	만 40세 이상	17.8	82.2	(169)	59.7	40.3	(139)	0.0	0.0	19.6	21.4	58.9	(56)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전체	52.0	48.0	(1,247)	90.0	10.0	(598)	0.0	3.3	8.3	28.3	60.0	(60)
	모 연령	$(\chi^2=29.97^{***})$			$(\chi^2=13.64^{**})$								
	만 15-19세	83.3	16.7	(48)	87.5	12.5	(8)	0.0	0.0	0.0	0.0	100.0	(1)
	만 20-29세	56.2	43.8	(500)	95.4	4.6	(219)	0.0	0.0	0.0	40.0	60.0	(10)
	만 30-39세	47.5	52.5	(530)	88.1	11.9	(278)	0.0	6.1	15.2	27.3	51.5	(33)
	만 40세 이상	45.0	55.0	(169)	82.8	17.2	(93)	0.0	0.0	0.0	25.0	75.0	(16)
주거 급여	전체	18.3	81.7	(1,247)	35.9	64.1	(1,019)	0.6	3.8	16.5	30.2	48.9	(653)
	모 연령	$(\chi^2=15.24^{***})$			$(\chi^2=3.76)$								
	만 15-19세	39.6	60.4	(48)	34.5	65.5	(29)	0.0	0.0	21.1	21.1	57.9	(19)
	만 20-29세	17.8	82.2	(500)	35.8	64.2	(411)	0.8	4.5	15.9	30.3	48.5	(264)
	만 30-39세	17.2	82.8	(530)	38.3	61.7	(439)	0.4	4.1	17.0	28.8	49.8	(271)
	만 40세 이상	17.2	82.8	(169)	29.3	70.7	(140)	1.0	2.0	16.2	35.4	45.5	(99)
모자 관련 시설 입소	전체	17.4	82.6	(1,247)	53.1	46.9	(1,030)	2.5	4.8	15.5	35.0	42.2	(483)
	모 연령	$(\chi^2=11.66^{**})$			$(\chi^2=28.43^{***})$								
	만 15-19세	35.4	64.6	(48)	32.3	67.7	(31)	0.0	4.8	9.5	28.6	57.1	(21)
	만 20-29세	16.6	83.4	(500)	44.8	55.2	(417)	1.3	4.8	17.0	36.5	40.4	(230)
	만 30-39세	16.2	83.8	(530)	60.4	39.6	(444)	4.5	5.7	14.2	34.7	40.9	(176)
	만 40세 이상	18.3	81.7	(169)	59.4	40.6	(138)	1.8	1.8	16.1	32.1	48.2	(56)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정부 차원의 주거지원제도 운용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확인한 결과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한다(35.4%)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일반주택과 구분되지 않는 주거지원(35.0%), 저금리로 주거자금 대출 지원(17.2%), 미혼모가족이 오래 지낼 수 있는 시설 지원(9.4%), 기타(3.0%) 순이었다. 미혼모의 연령대별로 보면 1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지원받은 주거환경이 드러나지 않고 일반주택과 구분이 없어야 한다(45.8%)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 지원(12.5%)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반면 40대 이상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대출 지원에 대한 응답률(20.1%)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녀 연령별로 필요한 지원 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받은 주거환경이 드러나지 않고 일반주택과 구분이 없어야 한다(42.7%)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자녀가 3세 미만, 3세 이상 미취학인 경우 모두 임대주택 제공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중고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는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을 원하는 비율이 높아, 시설이나 제공하는 주택이 아닌 원하는 거주지를 마련하는 시기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시설 및 재가 미혼모 간의 지원 요구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시설 미혼모의 경우 (시설)주거환경이 일반주택과 구분되지 않아야 한다(37.8%)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재가 미혼모는 임대주택 제공(35.4%) 요구가 약간 더 많았다. 반면, 수급자 여부와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6-28〉 정부의 주거지원 중 미혼모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구분	미혼모가족이 오래 지낼 수 있는 시설 지원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 제공	저금리로 주거자금 대출 지원	지원 받는 주거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주거 지원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9.4	35.4	17.2	35.0	3.0	100.0	(1,247)
모 연령($\chi^2=21.65^*$)							
만 15-19세	12.5	37.5	4.2	45.8	0.0	100.0	(48)
만 20-29세	11.6	37.8	15.6	31.8	3.2	100.0	(500)
만 30-39세	8.5	33.8	18.9	35.7	3.2	100.0	(530)
만 40세 이상	4.7	33.1	20.1	39.1	3.0	100.0	(169)
자녀 연령($\chi^2=21.97^*$)							
3세 미만	12.3	38.6	12.3	33.5	3.3	100.0	(334)
3세 이상 미취학	8.4	36.0	19.8	33.1	2.6	100.0	(652)
초등학생	8.3	29.4	15.6	42.7	4.1	100.0	(218)
중고등학생 이상	7.0	32.6	23.3	34.9	2.3	100.0	(43)
거주 상황($\chi^2=46.06^{***}$)							
시설	18.7	35.9	4.8	37.8	2.9	100.0	(209)
재가	7.5	35.4	19.7	34.4	3.1	100.0	(1,038)
기초보장($\chi^2=5.89$)							
비수급	8.6	35.0	19.4	34.2	2.8	100.0	(675)
수급	10.3	36.0	14.5	35.8	3.3	100.0	(572)
경제활동($\chi^2=12.93$)							
안 함	9.7	37.1	13.5	37.1	2.6	100.0	(620)
함	9.1	33.8	20.7	32.9	3.5	100.0	(62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 '신용등급과 무관한 대출 서비스 지원', '소득수준 기준 완화', '경제적 자립을 위한 대책 마련', '금전적 지원', '미혼모 수급', '미혼모 시설지원', '법적 미혼부모 외 실제 미혼부모에 대한 대책 마련', '보증금 지원', '임대주택 제공 시 질적인 측면 고려',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지원이 제한됨', '생계관련 지원금 증대', '무상제공',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가산점 증대', '수요와 공급에 맞게 임대주택을 마련', '집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양육 환경 개선', '모두'

제4절 건강

이 절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전문가 상담 경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미혼모의 건강 관련 특성을 살펴해보았다. 먼저, 현재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생각(주관적 건강상태)을 질문한 결과 건강하다(매우 포함)는 응답은 26.6% 수준에 불과하였다. 특히 미혼모의 연령, 자녀의 연령, 시설 및 재가 생활 여부, 가족 구성, 수급자 및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미혼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자녀 연령별 긍정 응답(건강한 편이다 + 매우 건강하다)은 3세 미만(32.1%)에서 가장 높았고 중고등학생 이상(27.9%), 초등학생(25.3%), 3세 이상 미취학(24.2%) 순이었다.

시설 미혼모(35.0%)가 재가 미혼모(25.0%)보다 긍정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거주 상황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긍정 응답률을 보면 본인과 자녀만 생활하는 모자가구(25.1%)의 경우 기타 가족구성(31.3%)보다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건강에 대한 부정 응답률(건강이 매우 안 좋다 + 건강하지 않는 편이다)로 보면, 비수급자(29.5%)보다 수급자(43.2%)가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40.3%)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31.2%)보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근로 형태에 따른 응답률도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40.3%)나 시간제근로(39.5%)의 경우가 전일제근로(22.3%)보다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표 6-29〉 미혼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명)

구분	건강이 매우 안 좋음	건강하지 않은 편	보통	건강한 편	매우 건강함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5.3	30.5	37.6	21.5	5.1	100.0	(1,247)
모 연령($\chi^2=29.14^{**}$)							
만 15-19세	2.1	12.5	37.5	35.4	12.5	100.0	(48)
만 20-29세	4.8	30.4	37.0	22.0	5.8	100.0	(500)
만 30-39세	4.5	30.9	39.1	20.8	4.7	100.0	(530)
만 40세 이상	10.1	34.3	34.9	18.3	2.4	100.0	(169)
자녀 연령($\chi^2=21.54^*$)							
3세 미만	3.6	28.7	35.6	23.7	8.4	100.0	(334)
3세 이상 미취학	5.7	29.4	40.6	20.1	4.1	100.0	(652)
초등학생	6.9	35.3	32.6	22.5	2.8	100.0	(218)
중고등학생 이상	4.7	34.9	32.6	20.9	7.0	100.0	(43)
거주 상황($\chi^2=27.30^{***}$)							
시설	4.8	23.4	36.8	23.0	12.0	100.0	(209)
재가	5.4	31.9	37.8	21.2	3.8	100.0	(1,038)
가족 구성($\chi^2=10.52^*$)							
모자녀	5.9	32.1	36.8	20.5	4.6	100.0	(950)
그 외	3.4	25.3	40.1	24.6	6.7	100.0	(297)
기초보장($\chi^2=31.00^{***}$)							
비수급	3.3	26.2	40.1	24.9	5.5	100.0	(675)
수급	7.7	35.5	34.6	17.5	4.7	100.0	(572)
경제활동($\chi^2=38.36^{***}$)							
안 함	6.8	33.5	36.1	18.7	4.8	100.0	(620)
시간제근로	4.6	34.9	37.0	19.9	3.7	100.0	(327)
전일제근로	3.0	19.3	41.3	29.0	7.3	100.0	(300)
경제활동($\chi^2=14.31^{**}$)							
안 함	6.8	33.5	36.1	18.7	4.8	100.0	(620)
함	3.8	27.4	39.1	24.2	5.4	100.0	(62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지난 1주일 동안의 느낌과 행동을 토대로 우울 정도를 확인하였다. 우울증과 관련된 총 11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 표본에서 전체 응답자의 우울 정도의 평균은 27.1점으로, 16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우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3세 미만의 유아를 둔 미혼모의 우울 정도가 가장 심했고, 그다음은 초등학생, 3세 이상 미취학은 매우 비슷한 수

준이고, 중·고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경우 우울 정도가 가장 낮았다. 거주 상황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시설미혼모보다 재가미혼모의 우울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급자보다 비수급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하지 않는 경우 더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였고, 근로 형태 별로 보면 시간제근로자가 전일제근로자보다 우울 정도가 더 심했다.

〈표 6-30〉 미혼모의 우울 정도

(단위: %, 명)

구분	중위	평균	표준편차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27.3	27.1	14.7	100.0	(1,247)
모 연령($F=1.17$)					
만 15-19세	31.8	28.5	13.1	100.0	(48)
만 20-29세	27.3	27.8	15.0	100.0	(500)
만 30-39세	25.5	26.9	14.5	100.0	(530)
만 40세 이상	25.5	25.5	15.0	100.0	(169)
자녀 연령($F=3.17^*$)					
3세 미만	29.1	29.0	15.1	100.0	(334)
3세 이상 미취학	25.5	26.5	14.6	100.0	(652)
초등학생	26.4	26.7	14.9	100.0	(218)
중고등학생 이상	27.3	23.3	11.6	100.0	(43)
거주 상황($t=-3.15^{**}$)					
시설	21.8	24.2	14.8	100.0	(209)
재가	27.3	27.7	14.7	100.0	(1,038)
가족 구성($t=1.22$)					
모자녀	27.3	27.4	15.0	100.0	(950)
그 외	25.5	26.3	13.8	100.0	(297)
기초보장($t=-3.83^{***}$)					
비수급	25.5	25.7	14.2	100.0	(675)
수급	27.3	28.9	15.2	100.0	(572)
경제활동($F=21.86^{***}$)					
안 함	27.3	28.7	15.0	100.0	(620)
시간제근로	27.3	28.5	14.4	100.0	(327)
전일제근로	21.8	22.3	13.5	100.0	(300)
경제활동($t=3.83^{***}$)					
안 함	27.3	28.7	15.0	100.0	(620)
함	25.5	25.5	14.3	100.0	(62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우울정도는 기존의 '1. 극히 드물다', '2. 가끔 있었다', '3. 종종 있었다', '4. 대부분 그랬다'로 되어 있던 각 하위 문항의 응답을 0, 1, 2, 3으로 재점수화하고, 하위 문항 2, 7번은 역점수 처리하여 우울 총점을 계산함. 이 우울 총점에 20/11을 곱(만점은 60점임)하여 변수를 생성함.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으며, 계산된 값이 16보다 높으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우울증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는 미혼모의 입장에 서는 그 증상조차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아도 외면하고 지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우울한 경우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점진 차원에서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엿보였다.

“여기서 해주는 상담 한 번 받아봤어요. (시설관계자가) ‘여기 이런 거 지원해 주는데 어머니 한 번 받아보실래요?’ 하길래 ‘제가 이상해요?’ 했더니 ‘그건 아니고 애들이랑 받아보면 좋잖아요.’ 해서 한 번 ○○상담소인가? 거기서 받았는데, 저보고 되게 우울하대요. 그래서 ‘제가 우울해요?’ 했더니 그거를 제가 지금도 그렇고 우울증을 많이 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스스로 참고 견디고.(그게 테스트에서는 나타났나 봐요?) 그랬나 봐요. 눈물이 나네. 받아보니까 막상 제가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데 숨기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을 숨기는 게 나타났나 보다 했어요.”(B16)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조사 표본에서 응답자 10명 중 약 6명(60.5%)이 대단히 많이 느낀다는 응답을 포함해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응답률은 비수급자(55.5%)보다 수급자(66.5%)가 높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56.2%)보다 하지 않는 경우(64.9%)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근로 형태별 응답률도 차이를 보였는데, 시간제근로(58.8%)인 경우 전일제근로(53.4%)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혼모의 연령과 자녀 연령, 시설 거주 여부, 가족구성(모자가정 여부)에 따른 응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31〉 미혼모의 스트레스 정도

(단위: %, 명)

구분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끼는 편	많이 느끼는 편	대단히 많이 느낌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3.3	36.2	41.3	19.2	100.0	(1,247)
모 연령($\chi^2=14.90$)						
만 15-19세	2.1	29.2	52.1	16.7	100.0	(48)
만 20-29세	3.4	32.2	43.4	21.0	100.0	(500)
만 30-39세	3.6	37.7	41.1	17.5	100.0	(530)
만 40세 이상	2.4	45.6	32.5	19.5	100.0	(169)
자녀 연령($\chi^2=9.80$)						
3세 미만	3.9	35.0	42.5	18.6	100.0	(334)
3세 이상 미취학	3.2	35.7	41.3	19.8	100.0	(652)
초등학생	1.8	36.7	41.3	20.2	100.0	(218)
중고등학생 이상	7.0	51.2	32.6	9.3	100.0	(43)
거주 상황($\chi^2=3.27$)						
시설	3.8	40.2	40.7	15.3	100.0	(209)
재가	3.2	35.5	41.4	19.9	100.0	(1,038)
가족 구성($\chi^2=3.03$)						
모자녀	3.2	35.6	41.1	20.2	100.0	(950)
그 외	3.7	38.4	42.1	15.8	100.0	(297)
기초보장($\chi^2=19.48^{***}$)						
비수급	3.4	41.2	39.6	15.9	100.0	(675)
수급	3.1	30.4	43.4	23.1	100.0	(572)
경제활동($\chi^2=19.54^{**}$)						
안 함	3.1	32.1	42.3	22.6	100.0	(620)
시간제근로	2.4	38.8	40.1	18.7	100.0	(327)
전일제근로	4.7	42.0	40.7	12.7	100.0	(300)
경제활동($\chi^2=13.82^{**}$)						
안 함	3.1	32.1	42.3	22.6	100.0	(620)
함	3.5	40.4	40.4	15.8	100.0	(62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최근 1년 동안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전문가 상담(의료기관, 전문상담 기관, 보건소 등)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 조사 표본에서 응답자의 22.3%가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미혼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전문가 상담을 받은 경험이 많았는데, 40대의 경우 29.6%가 상담을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한 반면, 10대는 16.7%에 불과하였다.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 엄마

의 상담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31.7%), 그다음은 3세 이상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22.2%), 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17.1%), 중고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경우(16.3%) 순이었다. 거주 상황별로 보면, 시설 미혼모(34.9%)가 재가 미혼모(19.7%)보다 상담 경험이 많았다. 수급자(30.2%)의 경우 비수급자(15.6%) 보다 상담 경험이 거의 두 배에 달하였다.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전문가 상담 경험에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6.1%)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18.5%)보다 전문가 상담 경험이 많았고, 근로 형태별로 보면 시간제근로(19.9%)인 경우 전일제근로(17.0%)보다 전문가 상담 경험이 많았다.

〈표 6-32〉 미혼모의 최근 1년간 정신적 문제에 대한 전문가 상담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없음	있음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77.7	22.3	100.0	(1,247)
모 연령($\chi^2=12.18^{**}$)				
만 15-19세	83.3	16.7	100.0	(48)
만 20-29세	81.8	18.2	100.0	(500)
만 30-39세	75.7	24.3	100.0	(530)
만 40세 이상	70.4	29.6	100.0	(169)
자녀 연령($\chi^2=17.19^{***}$)				
3세 미만	82.9	17.1	100.0	(334)
3세 이상 미취학	77.8	22.2	100.0	(652)
초등학생	68.3	31.7	100.0	(218)
중고등학생 이상	83.7	16.3	100.0	(43)
거주 상황($\chi^2=23.14^{***}$)				
시설	65.1	34.9	100.0	(209)
재가	80.3	19.7	100.0	(1,038)
가족 구성($\chi^2=0.69$)				
모자녀	77.2	22.8	100.0	(950)
그 외	79.5	20.5	100.0	(297)
기초보장($\chi^2=38.57^{***}$)				
비수급	84.4	15.6	100.0	(675)
수급	69.8	30.2	100.0	(572)
경제활동($\chi^2=11.22^{**}$)				
안 함	73.9	26.1	100.0	(620)
시간제근로	80.1	19.9	100.0	(327)
전일제근로	83.0	17.0	100.0	(300)

구분	없음	있음	계	(명)
경제활동($\chi^2=10.47^{**}$)				
안 함	73.9	26.1	100.0	(620)
함	81.5	18.5	100.0	(62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를 7점(1~7점)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본 조사 표본에서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3.6점 수준으로 ‘다소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4점(28.2%)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3점(25.6%), 5점(19.1%) 순이었다. 보통(4점)을 제외하면 불만족(1~3점) 응답률(46.2%)이 만족(5~7점) 응답률(25.7%)보다 높았다.

현재 거주 상황별 응답률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시설 미혼모의 경우 만족(35.9%)과 불만족(36.9%)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재가 미혼모의 경우 불만족(48.0%)이 만족(23.6%) 응답보다 24.4%포인트 많았다.

수급자 여부에 따른 응답률도 차이를 보였는데,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만족보다 불만족 응답률이 높고, 수급자는 비수급자보다 보통 및 불만족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제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절반 이상(52.6%)이 불만족이었고, 만족은 21.6%에 불과하였다. 근로 형태별 응답률도 차이를 보였는데, 불만족 응답률은 시간제근로(40.7%)가 전일제근로(38.7%)보다 높았다. 반면, 미혼모의 연령, 자녀 연령, 가족구성(모자가정 여부)에 따른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33〉 미혼모의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계	(명)	평균(점)
	1	2	3	4	5	6	7			
조사 대상 전체	7.8	12.8	25.6	28.2	19.1	4.9	1.7	100.0	(1,247)	3.6
모 연령($\chi^2=18.50$)										
만 15-19세	2.1	18.8	27.1	29.2	20.8	2.1	0.0	100.0	(48)	3.5
만 20-29세	7.0	14.0	27.8	27.2	16.6	5.0	2.4	100.0	(500)	3.6
만 30-39세	9.2	10.8	24.2	28.5	21.3	4.5	1.5	100.0	(530)	3.6
만 40세 이상	7.1	13.6	23.1	30.2	18.9	6.5	0.6	100.0	(169)	3.6
자녀 연령($\chi^2=20.95$)										
3세 미만	8.7	10.5	29.0	26.9	17.7	4.8	2.4	100.0	(334)	3.6
3세 이상 미취학	7.4	14.7	24.2	27.6	19.8	4.8	1.5	100.0	(652)	3.6
초등학생	9.2	11.5	21.6	32.1	18.8	6.0	.9	100.0	(218)	3.6
중고등학생 이상	0.0	7.0	39.5	27.9	20.9	2.3	2.3	100.0	(43)	3.8
거주 상황($\chi^2=23.14^{***}$)										
시설	5.3	7.7	23.9	27.3	25.4	6.7	3.8	100.0	(209)	4.0
재가	8.3	13.8	25.9	28.4	17.8	4.5	1.3	100.0	(1,038)	3.5
가족 구성($\chi^2=1.27$)										
모자녀	8.0	12.3	25.8	28.5	18.9	4.7	1.7	100.0	(950)	3.6
그 외	7.1	14.1	24.9	27.3	19.5	5.4	1.7	100.0	(297)	3.6
기초보장($\chi^2=17.95^{**}$)										
비수급	5.3	13.0	27.4	26.7	21.0	5.0	1.5	100.0	(675)	3.7
수급	10.7	12.4	23.4	30.1	16.8	4.7	1.9	100.0	(572)	3.5
경제활동($\chi^2=37.36^{***}$)										
안 함	9.4	15.6	27.6	25.8	15.5	4.0	2.1	100.0	(620)	3.4
시간제근로	8.3	10.7	21.7	32.1	19.6	6.1	1.5	100.0	(327)	3.7
전일제근로	4.0	9.0	25.7	29.0	26.0	5.3	1.0	100.0	(300)	3.8
경제활동($\chi^2=28.02^{***}$)										
안 함	9.4	15.6	27.6	25.8	15.5	4.0	2.1	100.0	(620)	3.4
함	6.2	9.9	23.6	30.6	22.6	5.7	1.3	100.0	(627)	3.8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1점: 매우 불만족 ~ 7점: 매우 만족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함.

제5절 주변 관계·사회적 편견 및 국가 지원

이 절에서는 미혼모의 부모와의 관계 및 주변의 지원, 편견 및 차별 경험, 그리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 알아본다.

조사 응답자 중 50.4%는 본인의 부모와 연락하며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고, 20.9%는 연락하지 않고 지낸다고 응답하였다. 부모님과 연락만 가끔하고 잘 만나지는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7.6%이고, 11.1%는 연락을 아주 끊은 것은 아니지만 잘 연락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미혼모 중 10대의 경우 부모와 잘 지내는 비율이 68.8%로 비교적 높았다. 10대 미혼모는 아직 성인이 아닌 만큼 미혼모도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측면이 발견되었다. 40세 이상의 그룹은 연락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재가 미혼모보다 부모와 잘 지내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비율은 시설 거주 미혼모가 재가 미혼모보다 높게 나타나 부모와의 단절된 경우는 시설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엄마와 자녀 이외의 가족 구조를 가진 경우 그 안에 부모가 있을 가능성으로 인해 부모와 잘 지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62.0%로 높게 나타났다. 기초보장 지원을 받는 경우는 부모와 연락하지 않고 지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28.5%로 비수급가족의 경우인 14.4%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가 하는 경우의 미혼모보다 부모와의 단절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6-34〉 미혼모 당사자와 부모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연락하지 않고 지냄	연락을 끊지 않았지만 잘 연락하지 않음	연락은 가끔 하지만 잘 만나지는 않음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잘 지냄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20.9	11.1	17.6	50.4	100.0	(1,247)
모 연령($\chi^2=15.96$)						
만 15-19세	12.5	2.1	16.7	68.8	100.0	(48)
만 20-29세	19.6	12.4	19.4	48.6	100.0	(500)
만 30-39세	21.5	10.9	15.3	52.3	100.0	(530)
만 40세 이상	24.9	10.7	20.1	44.4	100.0	(169)
자녀 연령($\chi^2=19.06^*$)						
3세 미만	26.0	11.7	15.0	47.3	100.0	(334)
3세 이상 미취학	18.4	12.3	17.0	52.3	100.0	(652)
초등학생	22.0	7.8	21.6	48.6	100.0	(218)
중고등학생 이상	11.6	7.0	27.9	53.5	100.0	(43)
거주 상황($\chi^2=27.80^{***}$)						
시설	33.5	9.1	19.1	38.3	100.0	(209)
재가	18.3	11.6	17.3	52.8	100.0	(1,038)
가족 구성($\chi^2=36.68^{***}$)						
모자녀	22.0	12.5	18.7	46.7	100.0	(950)
그 외	17.2	6.7	14.1	62.0	100.0	(297)
기초보장($\chi^2=38.68^{***}$)						
비수급	14.4	11.3	18.8	55.6	100.0	(675)
수급	28.5	11.0	16.3	44.2	100.0	(572)
경제활동($\chi^2=20.24^{***}$)						
안 함	26.0	10.6	15.6	47.7	100.0	(620)
함	15.8	11.6	19.6	53.0	100.0	(62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잘 지낸다'는 같이 사는 경우를 포함함.

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거나 잘 만나지 않고 지낸다고 응답한 미혼모 (619명)에게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임신 및 출산을 계기로 사이가 멀어졌다는 응답이 33.8%로 나타났다. 어릴 때부터 떨어져 자랐다는 응답은 24.2%, 바쁘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졌다는 응답은 22.6%로 나타났다. 질문 보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이유도 다양했는데, '부모

님이 돌아가셔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27명, '가정불화'로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16명 등으로 다수로 나타났고, 그 외에도 사례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매우 다른 이유들이 있었다.

〈표 6-35〉 미혼모 당사자가 부모와 연락을 잘하지 않거나 잘 만나지 않고 지내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어릴 때부터 떨어져서 자라서	학업·취업 등으로 집을 나와 살게 되어서	본인의 임신·출산을 계기로	아이 기르면서 바쁘게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24.2	5.8	33.8	22.6	13.6	100.0	(619)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부모의 사망(27명)', '가정불화(16명)', '가정폭력', '거리가 멀어서', '부모의 이혼 및 재혼', '본받고 싶지 않아서', '북한에 형제자매가 살고 있음', '부모가 아이 키우는 것을 반대해서', '연고 없음·관계단절', '부모의 알코올중독', '여건상 연락하고 지내지 못함', '경제적 어려움', '출산 사실을 숨기고 있음'

현재 미혼모가 고민을 가장 많이 털어놓고 의지하는 사람은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이 29.0%로 나타났고, 친구나 지인이 25.8%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미혼모 당사자에게 의지한다는 응답은 13.4%로 나타났고, 복지사나 미혼모단체 관계자에게 의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9%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3.8%나 나타났다.

10대 미혼모는 부모님과 잘 지내는 비율도 높았던 만큼 가족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높고, 20, 30대는 같은 미혼모 당사자와 서로 의지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40대 이상은 의지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비율과 복지사나 미혼모 단체 관계자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재가 미혼모의 경우 시설 거주 미혼모보다 가족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동시에 전혀 의지하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재가 미혼모의 경우가 시설 거주 미혼모보다 높은 특성을 보였다. 시설 거주 미혼모

의 경우 시설에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나 가까이 지내는 관계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특성으로 같은 미혼모나 복지사 등에게 의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재가 미혼모의 경우보다 높았다. 가족 구성 특성상 보면, 엄마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보다 그 외 구성원이 있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가족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보다 시간제근로를 하는 경우 적고, 시간제근로를 하는 경우보다는 전일제근로를 하는 경우 더 적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미혼모가 일을 하는 데 이미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일을 하게 되거나 일을 하면서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생기는 현상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전일제근로를 하는 경우 가족에게 의지한다는 응답이 경제활동을 안 하거나 시간제근로를 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가족의 지지나 지원이 미혼모의 경제활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친구에 대한 의지도 가족에 대한 의지 다음으로 높았지만, 젊은 미혼모의 경우 학창시절 친구의 상황과 본인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친구는 의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고립감을 느끼기도 했다.

“왜냐면 친구들은 아직 대학생이고 젊고 하니까. 제 얘기를 걸으로는 공감 해주는데, 완전 공감해준다는 느낌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상황을) 잘 모르니까요. 또래가 오히려 너무 힘들어요.”(B1)

“남자 애들에 비해 여자 애들끼리 더 수군거리는 게 많다 보니까. 그때 임신을 했을 때부터 아무랑도 연락을 안 했었어요. 1년 동안은 친했던 친구들이랑 아무도 연락을 안 했어요. 제가 연락이 안 되어도 꾸준히 찾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몇 년이고 걱정을 해주는 그런 친구들 몇 명만 연락을 해요.”(B5)

“의지할 데가 없다 보니까 고민 상담할 사람이 없어요. 죄송해요. [눈물 흘리는] 그게 이런 상황이… 몇 년이 지나도 울컥울컥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할 사람이 없는 게 제일 힘들었구요. 고민 이야기를 못 한다는 게….(B5)”

〈표 6-36〉 미혼모가 고민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의지하는 사람

(단위: %, 명)

구분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은 미혼모 당사자	복지사나 미혼모 단체 관계자	현재 이성 친구나 애인	친구나 지인	아이 아빠나 그 가족	기타	전혀 없음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6.3	29.0	13.4	6.9	3.4	25.8	0.4	0.9	13.8	100.0	(1,247)
모 연령											
만 15-19세	2.1	47.9	6.3	6.3	8.3	20.8	2.1	0.0	6.3	100.0	(48)
만 20-29세	5.4	27.6	15.0	8.4	3.6	25.6	0.6	0.0	13.8	100.0	(500)
만 30-39세	7.4	29.1	13.2	3.8	3.6	27.5	0.0	1.9	13.6	100.0	(530)
만 40세 이상	7.1	27.8	11.2	12.4	1.2	22.5	0.6	0.6	16.6	100.0	(169)
자녀 연령											
3세 미만	3.9	30.8	13.5	8.7	3.0	26.9	1.2	0.6	11.4	100.0	(334)
3세 이상 미취학	5.7	30.4	12.3	6.6	3.7	25.9	0.2	0.9	14.4	100.0	(652)
초등학생	11.0	23.4	16.5	6.4	4.1	21.6	0.0	1.4	15.6	100.0	(218)
중고등학생 이상	11.6	23.3	14.0	0.0	0.0	37.2	0.0	0.0	14.0	100.0	(43)
거주 상황($\chi^2=58.23^{***}$)											
시설	7.2	21.5	19.6	16.3	3.3	21.5	1.4	0.5	8.6	100.0	(209)
재가	6.2	30.5	12.1	5.0	3.5	26.7	0.2	1.0	14.8	100.0	(1,038)
가족 구성($\chi^2=42.23^{***}$)											
모자녀	7.9	26.3	14.1	6.1	3.1	26.5	0.2	1.2	14.6	100.0	(950)
그 외	1.3	37.7	11.1	9.4	4.7	23.6	1.0	0.0	11.1	100.0	(297)
기초보장($\chi^2=21.19^{**}$)											
비수급	4.6	33.2	12.9	6.1	3.9	25.9	0.4	0.9	12.1	100.0	(675)
수급	8.4	24.1	14.0	7.9	3.0	25.7	0.3	0.9	15.7	100.0	(572)
경제활동($\chi^2=31.16^*$)											
안 함	6.3	27.9	12.7	8.7	3.5	24.8	0.5	0.3	15.2	100.0	(620)
시간제근로	5.5	25.7	12.2	7.0	3.4	30.6	0.6	1.8	13.1	100.0	(327)
전일제근로	7.3	35.0	16.0	3.0	3.3	22.7	0.0	1.0	11.7	100.0	(300)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기타: ‘인터넷’, ‘종교’, ‘홈스쿨선생님’

미혼모가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본 결과, 별로 없는 편이라는 응답이 57.3%로 가장 높았고, 전혀 없다는 비율도 15.0%로 나타나 둘을 더해 보면,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2.3%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0대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7%로 다른 연령 그룹과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엄마의 연령이 40대 이상의 그룹에서는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7.8%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거주 상황별로 보면,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많은 편 + 매우 많음)이 34.9%였으나 재가 미혼모의 경우 26.3%로 나타나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재가 미혼모보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많다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엄마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족보다는 그 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많다고 응답하였고,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그룹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1.3%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따라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안 하는 그룹과 비교해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더 많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표 6-37〉 미혼모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있는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음	별로 없는 편	많은 편	매우 많음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15.0	57.3	24.8	3.0	100.0	(1,247)
모 연령($\chi^2=23.80^{**}$)						
만 15-19세	4.2	54.2	41.7	0.0	100.0	(48)
만 20-29세	14.6	53.4	27.6	4.4	100.0	(500)
만 30-39세	15.5	60.6	21.7	2.3	100.0	(530)
만 40세 이상	17.8	59.2	21.3	1.8	100.0	(169)
자녀 연령($\chi^2=7.94$)						
3세 미만	18.3	52.1	25.7	3.9	100.0	(334)
3세 이상 미취학	14.3	58.6	24.5	2.6	100.0	(652)
초등학생	13.3	59.6	24.3	2.8	100.0	(218)
중고등학생 이상	9.3	65.1	23.3	2.3	100.0	(43)
거주 상황($\chi^2=10.51^*$)						
시설	12.4	52.6	29.2	5.7	100.0	(209)
재가	15.5	58.2	23.9	2.4	100.0	(1,038)
가족 구성($\chi^2=26.59^{***}$)						
모자녀	16.7	58.5	22.6	2.1	100.0	(950)
그 외	9.4	53.2	31.6	5.7	100.0	(297)
기초보장($\chi^2=36.98^{***}$)						
비수급	9.6	59.0	28.4	3.0	100.0	(675)
수급	21.3	55.2	20.5	3.0	100.0	(572)
경제활동($\chi^2=23.38^{***}$)						
안 함	18.7	57.6	20.2	3.5	100.0	(620)
함	11.3	56.9	29.3	2.4	100.0	(62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우리 사회에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5.7%, 매우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1.7%로 응답자의 87.4%가 우리 사회가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 편견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서 유의미한 특성별 차이를 알아볼 수 없지만, 막내 자녀가 중고등학생 이상인 경우 편견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많은 편 + 매우 많음)로 보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와 비슷한 비율로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보다는 높게 나타

났다. 하지만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편견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65.1%,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25.6%로 자녀가 미취학이거나 초등학생인 경우보다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높지만 매우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재가 미혼모의 경우 시설 거주 중인 미혼모보다 우리 사회에 편견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기초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매우 많다는 비율이 46.5%로 비수급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기초보장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편견이 있을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미취학 자녀보다는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우리 사회에 편견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전체 조사 결과와 함께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 다니면서 자녀가 경험할 편견에 대한 걱정이 인터뷰에서 나타났고, 이는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교과과정에서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다.

“차별당한 건 없었는데 가족에 대해 배울 때 가족사진을 갖고 오라든지 하면 그럴 때가 좀….”(B6)

“저희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첫 사회생활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면 더 심해지잖아요. 뿌리 찾기라고 4학년 때 받아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가족 다 쓰기를 해놓은 거예요. 모든 게 결혼 중심이니까 저희는 없는 가족, 정말 정말 이상한 가족, 있긴 있는데 없는 가족인 거예요. 제 딸은 심지어 제 성으로 돼있으니까. 아이 아빠 성은 이씨로 해서 이름 뭐뭐 가짜로 다 적어놨더라고요.”(B12)

“인식 개선 쪽에 교과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C1. 미혼모단체 대표)

교과과정뿐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는 활동들이 미혼모가

족에게 불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비단 미혼모가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차별을 경험하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애기 어린이집에서) 엄마 아빠 결혼식을 색칠해 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결혼식장을. 결혼식 안 한 부부들도 있잖아요.”(B9)

“아빠 참여수업하면 학교 안 보내는 게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B12) 학교 안 보내고 다른 데 갈 일 만들거나.”(B13)

“의심존하고도 안 된대요.”(B14)

교육과정에서뿐 아니라 교육자의 편견 제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3, 4학년 상담 때 ‘어디까지 오픈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했더니 ‘학교 생활만 얘기하고 가정생활은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5학년 담임은) ‘어떻게 하다가 미혼모가 되셨어요?’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항상 그런 뉘앙스 있잖아요. ‘혼자 키우신 것 치고 참 밝습니다’라고 해서 진짜 차별이라고 느꼈어요.”(B14)

“(아빠가 일하러 외국에 있는 줄 알고 있는 미취학 아이에게 어린이집에서) 가족 그려 보라 그래서 엄마(미혼모), 할아버지, 할머니, 나(아이), 제(엄마) 동생, 제(엄마) 동생 아들. 쪽 그랬더니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아빠는?’ 그래서 아빠는 외국 갔다고 했대요.”(B11)

〈표 6-38〉 미혼모가족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음	별로 없는 편	많은 편	매우 많음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2.2	10.3	45.7	41.7	100.0	(1,247)
모 연령($\chi^2=9.84$)						
만 15-19세	0.0	14.6	37.5	47.9	100.0	(48)
만 20-29세	3.0	11.4	47.2	38.4	100.0	(500)
만 30-39세	2.1	9.4	46.0	42.5	100.0	(530)
만 40세 이상	1.2	8.9	42.6	47.3	100.0	(169)
자녀 연령($\chi^2=14.81$)						
3세 미만	3.0	12.6	41.6	42.8	100.0	(334)
3세 이상 미취학	2.3	10.3	46.6	40.8	100.0	(652)
초등학생	1.4	7.3	45.4	45.9	100.0	(218)
중고등학생 이상	0.0	9.3	65.1	25.6	100.0	(43)
거주 상황($\chi^2=9.82^*$)						
시설	4.8	11.5	39.7	44.0	100.0	(209)
재가	1.7	10.1	46.9	41.2	100.0	(1,038)
가족 구성($\chi^2=7.49$)						
모자녀	2.4	10.3	47.6	39.7	100.0	(950)
그 외	1.7	10.4	39.7	48.1	100.0	(297)
기초보장($\chi^2=13.79^{**}$)						
비수급	2.1	12.4	47.9	37.6	100.0	(675)
수급	2.4	7.9	43.2	46.5	100.0	(572)
경제활동($\chi^2=6.28$)						
안 함	2.9	11.5	42.9	42.7	100.0	(620)
함	1.6	9.3	48.5	40.7	100.0	(62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시설 거주 경우 편견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도 재가 미혼모보다 높았지만, 매우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재가 미혼모보다 약간 높았다. 미혼모가족을 가까이에서 상대하는 기관에서부터 편견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관계자의 교육이 필수적으로 보인다.

“미혼모가 양육할 수 있는 2차 시설이 있어서 거기를 잠깐 갔는데, 거기서 초기에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는데, ‘뭐 꼭 아빠, 부모님한테 맞고 자란 애들은 꼭 남자도 그런 사람 고르더라’라고 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B5)

미혼모라는 이유로 차별당한 경험이 어느정도 인지 알아본 결과, 직접 차별을 당한 경험은 우리 사회의 편견이 많다고 생각한 것만큼 많지는 않았다. 별로 없는 편이라는 응답이 54.8%, 전혀 없다는 응답이 11.8%로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6.6%로 나타났다.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의 미혼모가족의 차별 경험이 비교적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경우가 24.4%, 별로 없는 편은 46.9%로 차별 경험이 없는 비율이 71.3%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기초보장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차별 경험이 많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앞의 조사 결과에서 우리 사회에 편견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도 기초보장 수급가족과 비수급가족 사이에 차이를 보였는데, 차별 경험 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기초보장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미혼모가족들이 실제로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안 하는 경우보다 차별을 많이 경험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6-39〉 미혼모가족이 미혼모라는 이유로 차별 경험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음	별로 없는 편	많은 편	매우 많음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11.8	54.8	23.7	9.7	100.0	(1,247)
모 연령($\chi^2=16.58$)						
만 15-19세	14.6	37.5	37.5	10.4	100.0	(48)
만 20-29세	14.6	52.2	23.6	9.6	100.0	(500)
만 30-39세	9.4	59.1	22.3	9.2	100.0	(530)
만 40세 이상	10.1	53.8	24.9	11.2	100.0	(169)
자녀 연령($\chi^2=23.26^{**}$)						
3세 미만	17.1	50.3	23.4	9.3	100.0	(334)
3세 이상 미취학	10.9	57.4	23.2	8.6	100.0	(652)
초등학생	8.3	51.4	26.6	13.8	100.0	(218)
중고등학생 이상	2.3	67.4	20.9	9.3	100.0	(43)
거주 상황($\chi^2=43.00^{***}$)						
시설	24.4	46.9	23.9	4.8	100.0	(209)
재가	9.2	56.4	23.7	10.7	100.0	(1,038)
가족 구성($\chi^2=10.93^*$)						
모자녀	10.1	55.7	24.2	10.0	100.0	(950)
그 외	17.2	51.9	22.2	8.8	100.0	(297)
기초보장($\chi^2=10.57^*$)						
비수급	11.6	58.7	21.6	8.1	100.0	(675)
수급	12.1	50.2	26.2	11.5	100.0	(572)
경제활동($\chi^2=11.84^{**}$)						
안 함	14.5	55.3	21.3	8.9	100.0	(620)
함	9.1	54.2	26.2	10.5	100.0	(62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모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가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전혀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응답이 47.2%로 가장 높고,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응답도 매우 비슷한 비율(45.6%)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응답이 92.8%로 나타나 의견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견해에 대한 생각 또한 대다수의 응답이 집중되어 유의미한 특성별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좋다는 응답이 재가 미혼모와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경험에서도 비교적 경험이 낮

은 것과 종합해 보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미혼모가족의 경우 재가 미혼모 가족보다 일정 부분 보호를 받는 환경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6-40〉 미혼모가족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가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어떤 환경인지'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전혀 좋은 환경이 아님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님	조금 좋은 환경	매우 좋은 환경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47.2	45.6	6.5	0.7	100.0	(1,247)
모 연령						
만 15-19세	45.8	37.5	16.7	0.0	100.0	(48)
만 20-29세	46.0	47.4	5.6	1.0	100.0	(500)
만 30-39세	48.3	44.2	7.0	0.6	100.0	(530)
만 40세 이상	47.3	47.3	4.7	0.6	100.0	(169)
자녀 연령						
3세 미만	46.4	44.6	8.1	0.9	100.0	(334)
3세 이상 미취학	46.5	47.1	6.0	0.5	100.0	(652)
초등학생	53.7	39.0	6.0	1.4	100.0	(218)
중고등학생 이상	30.2	65.1	4.7	0.0	100.0	(43)
거주 상황($\chi^2=17.99^{***}$)						
시설	42.1	44.0	12.0	1.9	100.0	(209)
재가	48.2	46.0	5.4	0.5	100.0	(1,038)
가족 구성($\chi^2=7.17$)						
모자녀	46.0	47.5	5.8	0.7	100.0	(950)
그 외	50.8	39.7	8.8	0.7	100.0	(297)
기초보장						
비수급	43.6	50.1	5.9	0.4	100.0	(675)
수급	51.4	40.4	7.2	1.0	100.0	(572)
경제활동						
안 함	46.9	45.2	7.1	0.8	100.0	(620)
함	47.4	46.1	5.9	0.6	100.0	(62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앞의 질문에서 우리 사회가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응답한 미혼모(1157명)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장 많은 비율로(39.1%) 응답한 것은 혼자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기

힘들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미혼모에 대한 국가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26.0%였고,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22.0%, 아이에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12.0%로 나타났다.

엄마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자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기 힘들다는 이유를 선택한 비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이유는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높은 이유를 차지해 자녀 연령에 따른 변화가 경미하다. 반면,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까지는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미혼모에 대한 국가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자녀가 중고등학생 이상이 되면, 이 응답에 대한 비율은 낮아지고 아이에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엄마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은 그 외 가족이 있는 경우보다 혼자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기 힘들다는 이유를 선택한 비율이 높고,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비율은 더 낮은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아이에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보다 다소 높다.

〈표 6-41〉 미혼모가족이 우리 사회가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명)

구분	혼자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기 힘들기 때문에(아이 맡길 시설 및 서비스 부족)	아이에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 기 때문에	미혼모에 대한 국가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39.1	12.0	26.0	22.0	1.0	100.0	(1,157)
모 연령							
만 15-19세	20.0	25.0	27.5	27.5	0.0	100.0	(40)
만 20-29세	37.7	8.6	30.0	23.3	0.4	100.0	(467)
만 30-39세	40.2	13.1	24.9	20.4	1.4	100.0	(490)
만 40세 이상	44.4	15.6	17.5	21.3	1.3	100.0	(160)
자녀 연령							
3세 미만	37.8	12.8	27.0	22.0	0.3	100.0	(304)
3세 이상 미취학	40.8	9.2	27.5	21.3	1.1	100.0	(610)
초등학생	35.6	14.9	22.3	25.7	1.5	100.0	(202)
중고등학생 이상	39.0	34.1	14.6	12.2	0.0	100.0	(41)
거주 상황($\chi^2=9.49$)							
시설	35.6	7.2	28.3	28.3	0.6	100.0	(180)
재가	39.7	12.9	25.6	20.8	1.0	100.0	(977)
가족 구성($\chi^2=14.88^{**}$)							
모자녀	40.3	13.1	26.1	19.7	0.8	100.0	(888)
그 외	34.9	8.6	25.7	29.4	1.5	100.0	(269)
기초보장($\chi^2=5.41$)							
비수급	37.0	13.8	26.1	22.0	1.1	100.0	(632)
수급	41.5	9.9	25.9	21.9	0.8	100.0	(525)
경제활동($\chi^2=11.92^{*}$)							
안 함	39.1	8.9	28.5	22.4	1.1	100.0	(571)
함	39.1	15.0	23.5	21.5	0.9	100.0	(586)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기타: '본질적인 문제 해결 의지 결여', '전부', '양육 환경이 원래 좋지 않은데, 한부모가족정은 그 어려움이 배가됨', '한부모가족정일 경우 취업이 어려움', '본인의 삶이 힘들', '한부모가족정에 대한 차별',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위협'

미혼모가족의 현재 가장 큰 고민은 양육비, 생활비, 주거문제 등 경제적인 고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없이

성장할 자녀의 장래에 대한 고민이 6.7%, 주변이나 사회의 편견, 차별 및 부정적 시선 등 인식과 차별에 대한 고민이 4.7%, 본인의 학업이나 일 등과 관련된 자기 발전에 대한 고민은 4.4%, 본인 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은 3.0%, 자녀의 현재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의 부적응에 대한 고민은 1.7%, 본인의 이성관계나 결혼 등 개인적인 고민은 1.3%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고민에 대한 응답이 경제적 이유로 집중되는 경향으로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10대 미혼모의 경우 본인의 개인적 고민, 또는 자기 발전에 대한 고민에 대한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 그룹보다 높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엄마의 연령이 40대 이상인 그룹, 자녀가 중고등학생 이상인 경우, 기초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그룹이 특히 가장 큰 고민으로 경제적인 고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도 찾아볼 수 있다.

경제적 고민 중에서도 주거 마련이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인터뷰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제일 큰 건 집값이에요. 집이 우선 안정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B7)

〈표 6-42〉 미혼모가족의 가장 큰 고민(1순위)

(단위: %, 명)

구분	양육비, 생활비, 주거 문제 등 경제적인 고민	본인 부모나 형제 자매 등 가족들과의 관계 고민	주변이나 사회의 편견, 차별 및 부정적 시선 등 인식과 차별에 대한 고민	본인의 이성 관계나 결혼 등 개인적인 고민	본인의 학업이나 일 등과 관련된 자기 발전에 대한 고민	자녀의 현재 보육 시설이나 학교에서의 부적응에 대한 고민	아버지 없이 성장할 자녀의 장래에 대한 고민	기타	특별히 고민 없음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77.1	3.0	4.7	1.3	4.4	1.7	6.7	0.5	0.6	100.0	(1,247)
모 연령											
만 15~19세	75.0	4.2	4.2	6.3	6.3	0.0	2.1	0.0	2.1	100.0	(48)
만 20~29세	75.2	3.0	5.2	1.0	5.8	1.4	7.2	0.6	0.6	100.0	(500)
만 30~39세	78.5	3.2	5.7	1.3	2.6	1.5	7.0	0.2	0.0	100.0	(530)
만 40세 이상	79.3	1.8	0.6	0.6	5.3	3.6	5.9	1.2	1.8	100.0	(169)
자녀 연령											
3세 미만	74.3	4.8	3.6	2.1	6.3	1.5	6.6	0.0	0.9	100.0	(334)
3세 이상 미취학	77.8	2.6	6.1	0.8	3.4	1.7	6.9	0.6	0.2	100.0	(652)
초등학생	78.4	1.4	3.2	1.8	4.1	2.3	6.9	0.9	0.9	100.0	(218)
중고등학생 이상	83.7	2.3	0.0	0.0	7.0	0.0	4.7	0.0	2.3	100.0	(43)
거주 상황											
시설	77.0	2.4	2.4	1.4	7.2	1.0	7.7	0.5	0.5	100.0	(209)
재가	77.2	3.1	5.2	1.3	3.9	1.8	6.6	0.5	0.6	100.0	(1,038)
가족 구성											
모자녀	78.8	2.6	4.3	1.1	3.6	1.7	6.7	0.5	0.6	100.0	(950)
그 외	71.7	4.0	6.1	2.0	7.1	1.7	6.7	0.3	0.3	100.0	(297)
기초보장											
비수급	71.9	4.0	5.3	1.9	5.2	1.8	8.7	0.4	0.7	100.0	(675)
수급	83.4	1.7	4.0	0.5	3.5	1.6	4.4	0.5	0.3	100.0	(572)
경제활동											
안 함	77.4	2.7	4.8	1.1	5.6	1.5	6.0	0.3	0.5	100.0	(620)
함	76.9	3.2	4.6	1.4	3.2	1.9	7.5	0.6	0.6	100.0	(627)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아이양육 전반', '본인건강', '주거 자립', '회사의 업무량증가'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이 최근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기관은 구청 및 주민센터가 24.5%, 모자관련시설이 22.1%, 미혼모 단체는 12.7%,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은 7.7%, 지역복지시설은 5.1%, 고용지원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3.0%, 보건소는 1.1% 등으로 나타났고, 도움 받은

기관이 없다는 응답은 19.0%로 나타났다.

10대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모자관련시설이 41.7%, 고용지원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응답이 12.5%로 다른 연령 그룹과 비교해 이 두 기관에서 도움 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엄마의 연령이 낮을수록 모자관련시설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혼모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자녀 연령이 3세 미만인 경우 모자관련시설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1.4%로 높았고, 예상할 수 있듯이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모자관련시설에서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비율은 78.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10대 미성년 미혼모는 3세 미만 자녀를 두었을 확률과 시설에 거주할 확률이 다른 연령의 미혼모 그룹보다 높기 때문에 시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움 받은 기관이 없다는 응답은 엄마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그룹(23.7%)과 막내 자녀가 중고등학생 이상인 경우(46.5%)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엄마와 자녀의 연령이 높은 경우는 자립을 했거나 비교적 안정된 생활로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재가 미혼모가족의 경우에도 도움 받은 기관이 없다는 비율이 22.4%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엄마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도움과 미혼모단체로부터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그 외 구성원이 있는 가족보다 많은 특성이 나타났다. 이 두 기관은 재가 미혼모의 경우에도 높은 응답률을 보여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미혼모가족이 많은 도움을 받는 기관·기구임을 알 수 있다. 가족 구성에서 엄마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족 이외의 가족이 모자관련시설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시설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이 이외의 가족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기초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32.5%가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고, 기초보장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는 도움을 받은 기관이 없다는 비율이 27.9%로 기초보장 수급 여부에 따라 도움을 받은 기관에 차이가 있었다.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비율이 높고,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은 안 하는 그룹과 비교해 도움받은 기관이 없다는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기초보장을 받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또한 구청 및 주민센터의 도움 비율이 상대 그룹보다 높은 것은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 구청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6-43〉 미혼모가족이 최근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기관

(단위: %, 명)

구분	구청·주민센터	지역 복지 시설	고용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모자 관련 시설	미혼모 부자거점기관	미혼모 단체	보건소	학교	기타	도움 받은 기관 없음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24.5	5.1	3.0	22.1	7.7	12.7	1.1	1.4	3.4	19.0	100.0	(1,247)
모 연령												
만 15-19세	20.8	2.1	12.5	41.7	6.3	8.3	2.1	0.0	0.0	6.3	100.0	(48)
만 20-29세	27.2	2.8	2.0	27.8	8.4	7.8	1.6	0.6	2.8	19.0	100.0	(500)
만 30-39세	24.5	6.4	3.0	18.1	7.4	14.9	0.9	2.3	3.8	18.7	100.0	(530)
만 40세 이상	17.2	8.3	3.6	12.4	7.1	21.3	0.0	1.8	4.7	23.7	100.0	(169)
자녀 연령												
3세 미만	24.9	3.0	3.9	31.4	6.6	10.5	0.6	0.3	1.8	17.1	100.0	(334)
3세 이상 미취학	26.1	5.7	2.8	19.6	9.2	11.7	1.7	0.5	3.7	19.2	100.0	(652)
초등학생	18.8	7.3	1.8	19.3	6.0	19.3	0.5	5.5	5.5	16.1	100.0	(218)
중고등학생 이상	25.6	0.0	7.0	2.3	2.3	11.6	0.0	4.7	0.0	46.5	100.0	(43)
거주 상황($\chi^2=476.316^{***}$)												
시설	4.8	1.0	0.5	78.9	4.3	6.7	0.0	0.5	1.4	1.9	100.0	(209)
재가	28.4	5.9	3.6	10.7	8.4	13.9	1.3	1.6	3.8	22.4	100.0	(1,038)
가족 구성($\chi^2=52.54^{***}$)												
모자녀	27.3	5.2	2.8	17.8	8.2	13.4	1.2	1.5	3.8	18.9	100.0	(950)
그 외	15.5	4.7	3.7	36.0	6.1	10.4	1.0	1.3	2.0	19.2	100.0	(297)
기초보장($\chi^2=117.36^{***}$)												
비수급	17.6	5.3	4.6	20.3	6.5	10.8	1.8	1.9	3.3	27.9	100.0	(675)
수급	32.5	4.7	1.2	24.3	9.1	14.9	0.3	0.9	3.5	8.6	100.0	(572)

구분	구청·주민센터	지역 복지 시설	고용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모자 관련 시설	미혼모 부자거점기관	미혼모 단체	보건소	학교	기타	도움 받은 기관 없음	계	(명)
경제활동($\chi^2=37.58^{***}$)												
안 함	28.7	3.7	3.1	24.2	7.7	12.6	0.6	0.6	2.3	16.5	100.0	(620)
함	20.3	6.4	3.0	20.1	7.7	12.8	1.6	2.2	4.5	21.5	100.0	(62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기타: '친구, 동료', '교회', '나눔재단', '대한사회복지회', '드림센터', '드림스타트', '인터넷 사이트', '무료상담', '새생명지원센터', '어린이재단', '유치원어린이집', '자조모임', '자활센터', '전세임대', '지역자활센터', '초록우산재단', '직장'

일부 지역에서는 한부모지원 센터가 생활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때 제일 도움 됐던 게 아기가 36개월 될 때까지 한 달에 10만 원 선에서 물품을 제가 장바구니에 담으면 그걸 이제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이면 되게 큰 거거든요. 기저귀나 분유 같은 거, 애기 옷 이런거.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놓으면 그걸 지원해줬어요. 그리고 36개월까지여서 저는 2년 동안 지원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도움이 됐고, 거기서 부모교육이나 자조모임이나 상담 같은 것도 많이 있어서 서울시 한부모센터를 자주 갔었죠.”(B1)

“(서울시 한부모가정센터 가셨어요?) 네. 거기도 한 번씩 가서 가사지원서비스 받고 있어요. (가사지원서비스가 좋아요?) 네. 좋아요. 정말 바닥 기어 다니면서 청소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져 있어요. 1회에 5천 원씩이요. 일반인 엄마랑 이야기 한 적 있는데, 너보다 내가 더 그런 서비스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하더라고 요. 솔직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B5)

한편으로는 이렇게 미혼모가족을 자주 접하는 관련 종사자의 태도에 대한 필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차별에 대한 경험의 결과와 미혼모가족이 자주 이용하는 기관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관공서

나 주민센터는 미혼모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동시에 아픔을 주는 곳일 수도 있다. 일선에서 미혼모가족을 직접 대하는 관계자는 미혼모가 우리 사회를 경험하는 축소판으로, 미혼모를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힘을 줄 수 있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입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는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동사무소 ○○동 직원 분들은 되게 다 착하시고.”(B6)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하신 미혼모가 계세요. 이번에도 한 번 더 놀란 게 저희가 동사무소 가면 항상 놀라는 게 ‘왜? 신청해요?’ 내지는 면박을 당하고 오는 수준이에요 사실. 거기서 똑같이 사유서를 아이 아빠와 왜 헤어졌는지에 대해 써야 한다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대충 썼대요. 일하다가 만났고, 현재는 나 혼자 키우려고 하는 중이다, 라고 딱 적었는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하나요, 언제 몇 번 만났고 다 쓰라고.”(B11).

“수급자 신청을 하는데 한부모가 된 사유서를 적어 오래요. 일하는 분들이 읽고 거기서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읽어야 한대서 써갔는데 거기서 또 물어봐요. 어떻게 만나게 됐고 그걸 또 구구절절, 상담실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창구 옆에 사람이 있는데 고개 떨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기 안고.”(B9)

미혼모가족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적 지원으로는 아이와 일상 생활을 하기 위한 생활 보조금 지원이 38.2%로 가장 많았고, 주거 지원에 대한 욕구도 20.3%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엄마가 일하면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는 업무환경은 12.8%, 임신 기간 동안 생활 지원과 아이 양육 및 교육비는 각각 9.9%로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 생활 보조금에 대한 필요가 42.2%로 매우 높

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생활 보조금에 대한 욕구는 점차 낮아지는 반면, 자녀가 3세 이상이 되면서는 돌봄과 일이 가능한 시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주거 지원에 대한 욕구도 얼마나 자녀의 연령 상승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임신기간 동안의 생활을 위한 지원에 대한 응답이 초등생 자녀를 둔 경우는 6.9%이지만,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는 11.6%로 높아진다.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생활이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경향을 앞의 결과들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은 현재의 어려움보다 전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나 시기를 생각해 보면서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표 6-44〉 미혼모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국가 지원

(단위: %, 명)

구분	임신 기간 동안의 생활을 위한 지원	아이와 일상 생활을 위한 보조금 지원	주거 지원	의료 지원	양육·교육비 지원	영아의 학습(비) 지원	일과 돌봄 시간 확보 되는 업무 환경 제공	출산·양육에 필요한 정보·교육 제공	저축·목돈 마련 등 금융 관련 정보 및 교육 제공	엄마의 취업 지원	자녀의 학습 및 진학 지원	엄마의 자녀의 심리 상담 서비스 지원			기타	계	(명)
												미혼모	대한 인식	개선			
조사 대상 전체	9.9	38.2	20.3	1.6	9.9	0.7	12.8	0.1	1.3	2.2	0.5	0.5	0.2	1.5	0.5	100.0	(1,247)
모 연령																	
만 15~19세	18.8	35.4	25.0	4.2	8.3	0.0	4.2	0.0	0.0	4.2	0.0	0.0	0.0	0.0	0.0	100.0	(48)
만 20~29세	10.0	41.6	18.8	1.0	9.0	1.2	11.8	0.2	1.6	1.8	0.8	0.2	0.2	1.8	0.0	100.0	(500)
만 30~39세	9.1	36.0	21.7	2.3	10.6	0.4	13.8	0.0	1.5	2.5	0.0	0.8	0.2	0.6	0.8	100.0	(530)
만 40세 이상	9.5	35.5	18.9	0.6	11.2	0.6	14.8	0.0	0.0	1.8	1.2	0.6	0.0	4.1	1.2	100.0	(169)
자녀 연령																	
3세 미만	12.6	42.2	20.4	2.1	7.2	0.6	9.3	0.3	0.9	1.8	0.0	0.3	0.3	1.5	0.6	100.0	(334)
3세 이상 미취학	9.4	36.8	19.8	1.1	10.6	0.8	14.9	0.0	1.7	2.6	0.5	0.5	0.2	1.1	0.3	100.0	(652)
초등학교	6.9	38.5	21.1	2.3	11.5	0.5	11.5	0.0	0.5	1.4	1.4	0.9	0.0	2.8	0.9	100.0	(218)
중고등학교 이상	11.6	25.6	23.3	2.3	14.0	2.3	14.0	0.0	2.3	2.3	0.0	0.0	0.0	2.3	0.0	100.0	(43)
거주 상황																	
시설	5.3	33.5	29.7	1.0	9.1	1.0	12.0	0.5	2.4	2.9	0.5	0.0	0.5	1.4	0.5	100.0	(209)
재가	10.8	39.1	18.4	1.7	10.1	0.7	12.9	0.0	1.1	2.0	0.5	0.6	0.1	1.5	0.5	100.0	(1,038)
가족 구성																	
모자녀	10.1	37.9	20.0	1.6	10.2	0.7	13.4	0.0	1.2	2.0	0.6	0.4	0.1	1.3	0.5	100.0	(950)
그 외	9.1	39.1	21.2	1.7	9.1	0.7	10.8	0.3	1.7	2.7	0.0	0.7	0.3	2.4	0.3	100.0	(297)

구분	임신 기간 동안의 생활을 위한 지원	아이와 일상 생활을 위한 생활 보조금 지원	주거 지원	의료 지원	양육· 교육비 지원	엄마의 학습 (비) 지원	일과 돌봄 시간 확보 되는 업무 환경 제공	출산· 양육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 제공	저축· 목돈 마련 등 금융 관련 정보 및 교육 제공	엄마의 취업 지원	자녀의 학습 및 진학 지원	엄마의 심리 상담 서비스 지원	자녀의 심리 상담 서비스 지원	미혼모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기타	계	(명)
기초보장																	
비수급	11.0	37.8	19.0	1.8	9.5	1.0	13.8	0.0	1.2	2.5	0.6	0.1	0.1	1.3	0.3	100.0	(675)
수급	8.6	38.6	21.9	1.4	10.5	0.3	11.5	0.2	1.4	1.7	0.3	0.9	0.2	1.7	0.7	100.0	(572)
경제활동																	
안	11.3	39.5	18.5	1.6	9.4	0.5	11.8	0.2	1.3	3.2	0.3	0.5	0.3	1.3	0.3	100.0	(620)
합	8.5	36.8	22.0	1.6	10.5	1.0	13.7	0.0	1.3	1.1	0.6	0.5	0.0	1.8	0.6	100.0	(627)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전부', '양육비 지급 강제집행', '소득 기준완화', '창업지원'

일하고 있는 미혼모는 일단 경제적 능력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을 받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한부모가정 양육비를 조금 올려 주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나 이런 게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돈만 탈 수는 없잖아요. 양육비만 올릴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냥 당장 이 사람이 생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만 도와준다고 느낀 거죠 저는.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하려면 아기가 클 때까지 아기 아빠한테 양육비 받을 수 있게, 아기 아빠 월급을 차압해서라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나 아기에 관해서는 아기 아빠를 찾는 것도 많이 도움을 줘야 하고, 아기 아빠한테도 역할을,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인식 개선보다는, 인식이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가 중요해요. 제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아님 관련된 교육 같은 거 있으면 좋겠어요. (금융 관련된 교육이요?) 네. 한부모만을 위한 전용 저축 통장이나, 차라리 35만 원을 주는 대신 그 통장에 저축되게 해주면 좋겠어요. 현금으로 줘서 쓰게 만드느니, 지원을 해줘도 저축하는 방식이면 좋겠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든 (돈을) 쓸 텐데, 아이를 위해 쓰는 건 맞지만, 저는 저축이 잘 안 돼서요. 중간중간 힘들 때마다 빼서 써요. 제가 아직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런 부분도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프로그램에서도 1:1로 금융 케어 해 주는 선생님이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집 구하는 방법 이런 거.”(B1)

미혼모가족이 국가 지원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가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이 30.5%로 나타났다. 지원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응답은 22.6%, 지원 신청을 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응답은 21.9%로 나타났다. 지원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18.8%이고,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시선이나 편견을 느낀다는 응답은 5.5%로 나타났다.

10대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신청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의

견과 정보 습득에 대한 어려움이 각각 33.3%, 27.1%로 다른 연령대 그룹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는 지원 내용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율이 39.5%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다른 그룹과 견해가 다른 특징을 보였다. 기초보장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는 본인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응답이 36.0%로 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의 24.0%보다 높게 나타나 수급 시도를 했지만 어려움을 경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또한,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보다 본인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많이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6-45〉 미혼모가족이 생각하는 국가 지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1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원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	지원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움 (대상자 여부 이해 어려움)	지원 신청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함	국가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되기 어려움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시선이나 편견을 느낌	기타	계	(명)
조사 대상 전체	22.6	18.8	21.9	30.5	5.5	0.8	100.0	(1,247)
모 연령								
만 15-19세	27.1	14.6	33.3	22.9	0.0	2.1	100.0	(48)
만 20-29세	24.8	20.8	22.2	27.6	4.0	0.6	100.0	(500)
만 30-39세	21.9	16.0	20.9	33.8	6.8	0.6	100.0	(530)
만 40세 이상	17.2	22.5	20.7	30.8	7.1	1.8	100.0	(169)
자녀 연령($\chi^2=27.24^*$)								
3세 미만	22.5	21.0	24.9	26.0	4.5	1.2	100.0	(334)
3세 이상 미취학	23.2	17.5	20.7	32.8	5.2	0.6	100.0	(652)
초등학생	20.6	15.1	22.9	32.6	7.8	0.9	100.0	(218)
중고등학생 이상	25.6	39.5	11.6	18.6	4.7	0.0	100.0	(43)
거주 상황($\chi^2=7.85$)								
시설	24.9	22.0	20.1	26.3	4.8	1.9	100.0	(209)
재가	22.2	18.1	22.3	31.3	5.6	0.6	100.0	(1,038)
가족 구성($\chi^2=11.09$)								
모자녀	23.3	18.7	20.8	30.9	5.8	0.4	100.0	(950)
그 외	20.5	18.9	25.3	29.0	4.4	2.0	100.0	(297)

구분	지원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듦	지원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움 (대상자 여부 이해 어려움)	지원 신청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함	국가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되기 어려움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시선이나 편견을 느낌	기타	계	(명)
기초보장($\chi^2=26.54^{***}$)								
비수급	19.3	18.1	21.2	36.0	4.4	1.0	100.0	(675)
수급	26.6	19.6	22.7	24.0	6.6	0.5	100.0	(572)
경제활동($\chi^2=40.69^{***}$)								
안 함	24.4	19.7	24.7	24.5	6.3	0.5	100.0	(620)
시간제근로	23.5	18.3	22.9	30.9	3.1	1.2	100.0	(327)
전일제근로	18.0	17.3	15.0	42.3	6.3	1.0	100.0	(300)
경제활동($\chi^2=24.07^{***}$)								
안 함	24.4	19.7	24.7	24.5	6.3	0.5	100.0	(620)
함	20.9	17.9	19.1	36.4	4.6	1.1	100.0	(62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기타: '소득 발생 시 수급비에서 차감되는 점이 아쉬움', '지원 예산 부족', '법정 한부모 소득 기준이 너무 낮음',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은 부적절함'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결과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초보장 지원을 받는 경우, 받지 않는 그룹과 비교해 신청하거나 지원받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시선 및 편견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에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 역시 차별 경험 및 도움 받는 기관에서의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곳의 중요성과 환경 개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심층 인터뷰에서도 주민센터에서의 경험이 여러 번 공유되었고, 환경 개선에 대한 제안도 다양했다.

“(현재 한 아이를 양육 중이면서 임신 중인 미혼모에게) 일하시는 분이 큰소리로 ‘미혼모인데 어떻게 임신을 해요?’ 그러시더라고요..(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아무래도 보겠죠? 들리니까? (본인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태연하게 반응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자괴감보다 자존감이 낮아지

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원체 둘째가 있었으면 좋겠었고, 물론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면 좋겠지만, 애가 둘이 됐잖아요. 저는 외동이어서 나름 꿈을 이룬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깐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에도 갔었어요?) 계속 가죠. 동사무소… (지금은 달라졌어요?) 아뇨, 그냥… 최근에 갔었는데 또 그러시더라고요.”(B9)

“동사무소나 시청 갈 때 항상 용기가 필요해요. 거기에 갈 때는. 그들 앞에서 얘기할 때는 항상 일반적으로 만나면 엄마들이 항상 우울하고 힘들어요. 슬픈 게 아닌데 그들 앞에만 가면 불쌍해져야 하고 내 상황이 비참해져야 하는 상황이 너무…”(B10) “난 울었다.”(B11) “우는 엄마도 많을 거고 멘탈과 마음이 나간 상태에서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러면 확 무너지고. 잘못된 행동 같아요.”(B10) “당당해지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시선이라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당당히 이겨내고 싶는데 그런 시선을 받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데서는 소곤소곤 얘기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뭐요? 한부모요? 애 아빠는?’ 그 놈의 애 아빠.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멘탈이 와르르 지하 끝까지. 그래서 그런 사생활을 말해야 하면 최소한 옆에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안 들리게 칸막이 같은 거 있으면 좋겠어요.”(B9)

또한, 본인은 충분히 어려운 상황이고 정책도 있지만 지원 대상이 되기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많아 결국 수급권자가 되기 어려워져 현실적으로 살기 위해 시설에 간다는 미혼모도 있었다. 그리고 수급을 받기는 어렵고 탈락 조건에서는 빠르게 처리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설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면, 수급권자가 된다면 말이에요. 근데 그 수급권자 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굳이 시설로 간 거는 수급권자를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병원비도 없고, 생활비도 없고, 돈은 별써 없고… 그리고, 가져가는 것은 오래 안 걸려요. (지원금) 주는 것은 엄청 오래 걸리지만…”(B3)

제6절 소결

이 절에서는 미혼모의 학업 및 자립 준비, 직업교육 및 일자리 경험, 주거, 건강, 주변 관계·사회적 편견과 국가적 지원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알아보았다.

1. 학업 및 자립 준비

현재 학교를 다니는 비율은 조사에 응답한 미혼모 중 10.5%,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경우는 2.6%였지만, 10대 미혼모에 한해서 보면 56.4%가 학업(학교 또는 검정고시 준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을 지속하는 원동력은 학업을 마치고자 하는 강한 자신의 의지가 작동하는 경우가 과반수였고, 특히 10대 미혼모의 경우는 그 비율이 70.0% 이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열의를 가지고 학업을 마치려 하지만, 학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 어려움도 다양했다. 학업과 양육 병행이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응답이 전체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40대 이상에서의 높은 비율이 전체 비율에 영향을 미친 결과이고 주로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20, 30대 미혼모의 경우는 학업 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도 10대나 40대에서보다 어려운 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학업 후 취직을 하는 등 과업이 많이 남아 있지만, 자녀 돌봄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미혼모가족의 특성을 고려해 학업을 하고 있는 엄마들을 위한 자녀 돌봄도 일하는 엄마들에 대한 자녀 돌봄과 함께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력은 자립과도 매우 연관이 깊다. 이와 관련해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현재 본인이 가진 학력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

율이 60.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직 고졸의 학력을 갖추지 못한 비율이 높은 10대 미혼모의 경우 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고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자립을 위해 최소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력은 대다수가 대학 졸업이었다. 하지만 10대 미혼모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일단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학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때 미혼모들이 희망하는 교육 유형은 정규 학교교육이나 원격교육기관이 많았다. 우선적으로 10대 미혼모들의 희망을 살펴보면, 정규교육 및 원격교육기관과 함께 대안학교, 독학 후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학력을 갖추는 것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에서도 10대의 경우 학력을 갖추는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매우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2. 직업교육 및 일자리 경험

직업교육(훈련) 경험을 보면 본 조사 표본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미혼모는 10명 중 약 3명(34.8%) 수준이었는데, 미혼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훈련) 경험이 많았다. 직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미혼모의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 비율은 74.4%로 높은 수준이었다. 어려운 점은 훈련 기간 동안 생활비를 벌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직업훈련 이수 이후 취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매우 다양하였다. 희망하는 급여나 근로시간 조건이 맞지 않아서라는 이유와 일할 상황이 아니라 알아보지 않았다는 이유가 과반수를 차지했고, 교육받은 수준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서라는 이유에 이어 교육받은 분야에 일자리가 없거나 교육을 연장해서 이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나

타났다.

한편, 직업훈련 계획은 자녀의 연령, 시설 거주 여부, 수급자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자녀가 3세 미만 유아이거나 초등학생인 경우, 재가보다는 시설 거주자, 수급자인 경우 향후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모의 직업교육(훈련) 지원 시 미혼모의 본인의 연령보다 자녀의 연령과 수급자 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일부 시사한다.

일자리 경험과 관련하여 본 조사 표본에서 10명 중 약 8명(79.4%)이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미혼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경험률이 높았다. 일을 그만둔 주된 이유는 육아 및 양육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동료들이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스스로 퇴직한 경우도 10명 중 3명(33.3%) 이상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직장에서도 알고 그만둘 것을 강요했다는 경우도 10명 중 1명(9.8%)에 달하였고, 구직 과정에서도 미혼모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취직이 어려웠다는 응답도 10명 중 3명에 달하였다(30.2%).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직장에서도 미혼모라는 이유로 소외와 차별을 경험한 경우도 2명 중 1명(48.2%)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미혼모의 구직활동을 돕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직장 내의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 전반의 낙인을 해소하는 정책적인 접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3. 주거

현재의 주거상태와 주거지원제도의 이용 경험을 살펴본 결과, 현재 거주하는 곳은 미혼모 본인의 연령과 자녀 연령, 수급자 여부,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응답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본 조사 표본에

서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거주 비율은 55.2%, 아파트 거주 비율은 35.0% 수준이었다.

기혼여성과의 비교를 위해 15~49세 조건을 맞추어 비교해 보았다. 미혼모가족 조사 결과에서 현재 '나의 집'에 살고 있다고 응답한 미혼모 중 50.8%가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형태에 거주하는 반면,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거주 비율은 9.6%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주 비율은 미혼모가족의 경우 34.1%였으나, 기혼여성의 응답에서는 78.6%가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응답해 미혼모가족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기혼여성 가족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표 6-46〉 주택 유형

(단위: %, 명)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기타	계	(명)
기혼여성	9.3	78.6	9.6	2.5	100.0	(11,207)
미혼모	8.1	34.1	50.8	7.1	100.0	(496)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여성의 기타는 '연립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이 포함됨.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미혼모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 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가 절반 이상(58.1%)인 데 반해 자가 비율은 6.7% 수준이었다.

이 역시 우리나라 기혼여성(15~49세)과 연령을 맞추어 비교해 보면, 기혼여성 가족의 경우 10명 중 약 6명 이상이 자가(65.6%) 소유이므로 미혼모가족의 자가 비율이 6.7%와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47〉 거주 주택 소유형태

(단위: %, 명)

구 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무상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계	(명)
기혼여성	65.6	17.0	13.2	3.7	0.4	100.0	(11,207)
미혼모	6.7	27.8	58.1	0.6	6.8	100.0	(496)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미혼모가족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만족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사는 집(시설)의 구조나 건물 낙후 등 시설적인 문제(46.2%)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거지원제도 중 대출제도의 경우 인지율과 이용 경험의 상대적으론 낮은데 반해 도움 정도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가장 높았다. 또한, 임대주택지원제도 이용 경험은 36.2%, 주거급여 이용 경험은 64.1%로 큰 차이를 보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미혼모들이 가장 원하는 주거지원은 임대주택 지원(35.4%)과 지원 받는 주거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지원(35.0%)이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받은 주거환경이 일반주택과 구분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기적인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지원제도의 수혜율을 개선함과 동시에 주거지원 시 낙인 요소를 배제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 건강

미혼모의 건강 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 본 조사 표본에서 주관적으로 볼 때 ‘건강하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26.6%) 수준에 불과하고, 우울증을 의심할 정도로 우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미혼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모자가구와 수급자 가구, 미혼모의 연령이 많을

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부정적이었고, 3세 미만의 유아를 둔 미혼모와 재가 미혼모의 우울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수급자 가구인 경우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했다. 한편, 최근 1년 동안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받은 경험은 10명 2명(22.3%) 수준이었는데 미혼모의 연령이 많거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시설미혼모, 수급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은 경험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엄마의 심각한 우울감은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미혼모를 대상으로 우울감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치료적 상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지난 1주일 동안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수급 미혼모와 3세 미만의 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경우 오히려 최근 1년간 전문가 상담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집중적이고 우선적인 정신건강 지원이 요구된다.

5. 주변 관계·사회적 편견 및 국가 지원

미혼모 중 절반 정도는 본인의 부모와 현재 잘 만나지 않거나 연락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본인의 임신·출산을 계기로 멀어지는 경우가 많고 어릴 때부터 떨어져 자란 경우, 그리고 바쁘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졌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자녀가 어리거나 시설에 거주할 경우 전혀 연락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임신과 출산을 계기로 연락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가족의 관심과 지원이 많은 임신 및 출산 시기에 미혼모는 오히려 가족의 지원이 단절되는 상황을 경험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미혼모가 고민을 가장 많이 공유하는 대상은 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 친구나 지인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같은 미혼모 당사자인 경우의 비율이 10.0% 이상으로 나타나 미혼모가 되면서 새롭게 관계를 가진 대상에게 의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특히, 20, 30대 미혼모의 경우 다른 미혼모들과의 관계를 많이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의지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약 14.0%로 비교적 높았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은 전반적으로 많지 않아 보였고, 미혼모의 연령이 높은 경우 더욱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응답이 높았다. 의지하고 지내는 대상이 전혀 없다는 응답률과 도움 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약 14.0~15.0%비율로 높게 나타난 결과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조사에 응답한 미혼모 중 차별을 많이 경험한 비율은 33.4%이지만, 다수는 우리 사회가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87.4%)하고 있어 직간접적으로 차별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 사회는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92.8%)하는 경우가 많고,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힘든 상황이 그렇게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이유(39.1%)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이 부족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도 우리 사회 환경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주요 이유로 드러났다.

미혼모가족에게는 다른 고민이 많지만 가장 큰 고민은 양육비·생활비·주거문제 등 경제적인 고민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모가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적 지원 또한 일상생활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주거 지원이 부각되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절실해 보인다. 동시에 일하면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업무 환경을 요구한 비율도 높았다. 미혼모가족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일을 해야 하고, 양육자가 주로 혼자인 미혼모가족의 특성을 고려해 일과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또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곳은 구청 및 주민센터와 모자관련시설인 점을 생각한다면, 이 시설들을 통한 정보 공유와 종사자 및 관계자들의 차별 없는 태도 등이 이러한 시설들을 중심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10대 미혼모는 시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미혼모단체에서 도움을 받는 비율은 미혼모의 연령이 30, 40대 이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생활주기에 따라 필요한 정보나 도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 놓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의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비율과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듯이, 도움 받은 기관 또한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도움이 필요한데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제 7 장

미혼모가족에 대한 국민인식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결과

제3절 소결

7

미혼모가족에 대한 국민인식 <<

이 장에서는 일반 국민이 미혼모가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였다.

제1절 조사 개요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5세에서 79세 이하 남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은 총 1000명으로 행정안전부의 ‘2019년 7월 말 주민등록인구통계’ 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을 시행하였다. 표집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포인트를 적용하였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전문조사원의 일대일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하였다.

〈표 7-1〉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내용

구분	내용
선정 문항	거주지역, 성별, 연령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에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이 있다 본인 스스로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가족 유형 미혼인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 미혼인 남성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 미혼인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다 미혼인 남성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다 주변 지인 중 미혼모가족 유무

구분	내용
	미혼모가족에 대한 지원 수준은 다른 가족보다 어떠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미혼인 여성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기에 어떠한 환경인가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미혼모가족의 안정된 삶을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 20대 이상 성인 여성이 미혼인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면 그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이 당연하다 미성년 여자 청소년이 임신을 했다면 그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이 당연하다 내 가족이 미혼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면 그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에 찬성할 것이다 미혼모가 아이를 낙태나 입양 보내기보다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사항	학력, 혼인상태, 자녀수

조사 결과는 시도별, 성별, 연령별로 2019년 7월 ‘주민등록인구통계’ 분포 반영 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중치(weighting)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W_{ijk} = \frac{N_{ijk}}{n_{ijk}} \times \frac{n}{N}$$

- i: 시/도를 나타내는 첨자(i = 1(서울), 2(부산), ..., 16(제주))
- j: 성별을 나타내는 첨자(j = 1(남), 2(여))
- k: 연령 그룹을 나타내는 첨자(k = 1(15~19세), 2(20대), ..., 7(70대))
- N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모집단 인구수
- n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조사된 응답자 수
- n: 조사된 전체 응답자 수
- N: 모집단 전체 인구수
- W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가중치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조사 응답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50.6%(506명), 여성이 49.4%(4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2.4%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0.0%, 40대가 19.5%,

30대가 16.3%, 20대가 15.7%, 10대가 6.1%순이었다. 주변에 알고 있는 미혼모가족이 있는가에 대한 문항에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84.2%,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5.8%이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미혼이 33.5%였고,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자는 66.5%이다. 자녀수를 살펴보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가, 50.1%로 절반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이 ‘자녀 없음’이 37.5%, 1명인 경우가 12.4%순이었다. 최종 학력으로는 대학 재학에서 졸업까지가 52.5%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가 39.8%, 대학원 이상이 7.7%순이었다.

〈표 7-2〉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조사’의 응답자 일반 특성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1,000)
성별		
남자	50.6	(506)
여자	49.4	(494)
연령		
15-19세	6.1	(61)
20-29세	15.7	(157)
30-39세	16.3	(163)
40-49세	19.5	(195)
50-59세	20.0	(200)
60세 이상	22.4	(224)
주변 미혼모가족		
없음	84.2	(842)
있음	15.8	(158)
혼인상태		
미혼	33.5	(335)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66.5	(665)
자녀수		
없음	37.5	(375)
1명	12.4	(124)
2명 이상	50.1	(501)
최종 학력		
고졸 이하	39.8	(395)
대학 재학~대학 졸업	52.5	(521)
대학원 이상	7.7	(77)

주: 결측값은 제외됨.

자료: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조사」.

제2절 조사 결과⁹⁾

먼저 알아본 것은 미혼모가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이다. 전반적으로는 약간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5.3%, 편견이 매우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36.3%로 81.6%가 우리 사회에는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생각은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학력이 높은 그룹일수록 우리 사회에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이 매우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편견이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편견이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전혀 없다+거의 없는 편이다)이 여성은 13.8%인 데 반해, 남성은 23.0%로 나타났다. 두 그룹 모두 우리 사회에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이 없지는 않다고 공통적으로 생각하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우리 사회에 대한 시각이 조금 긍정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대학원 이상의 그룹에서는 편견이 약간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른 그룹보다 낮았지만, 편견이 매우 많다는 응답 비율이 55.6%로 나타나서 우리 사회가 미혼모가족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 어느 그룹보다 강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우리 사회에 편견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고졸 이하의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9) 이 장에서 제시된 결과표는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한 결과로 자료 출처가 동일하기 때문에 각 표마다 자료 출처 제시를 생략함.

〈표 7-3〉 미혼모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 편견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다	거의 없는 편이다	약간 있는 편이다	매우 많다	계	(명)
전체	8.6	9.9	45.3	36.3	100.0	(1,000)
성별($\chi^2=23.294^{***}$)						
남자	10.3	12.7	46.9	30.1	100.0	(506)
여자	6.8	7.0	43.6	42.6	100.0	(494)
연령($\chi^2=21.333$)						
15-19세	11.4	11.7	53.0	23.9	100.0	(61)
20-29세	7.4	12.6	46.7	33.3	100.0	(157)
30-39세	5.9	7.2	40.6	46.2	100.0	(163)
40-49세	6.4	7.3	44.9	41.4	100.0	(195)
50-59세	8.7	9.2	45.9	36.2	100.0	(200)
60세 이상	12.4	12.3	45.5	29.9	100.0	(224)
주변 미혼모가족($\chi^2=3.104$)						
없음	8.0	9.9	46.0	36.2	100.0	(842)
있음	11.8	9.8	41.7	36.8	100.0	(158)
혼인상태($\chi^2=0.653$)						
미혼	8.5	10.9	45.6	35.0	100.0	(335)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8.6	9.4	45.1	36.9	100.0	(665)
자녀수($\chi^2=7.167$)						
없음	8.4	10.5	44.0	37.1	100.0	(375)
1명	7.2	9.1	38.3	45.4	100.0	(124)
2명 이상	9.1	9.6	48.0	33.3	100.0	(501)
최종 학력($\chi^2=43.761^{***}$)						
고졸 이하	13.8	11.0	48.1	27.1	100.0	(395)
대학 재학 이상	5.2	9.9	44.6	40.3	100.0	(521)
대학원 이상	2.6	3.9	37.9	55.6	100.0	(7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결측값은 제외됨.

앞서 우리 사회가 미혼모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응답자 본인은 과연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보았다.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큰 차이는 우리 사회에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0% 이상이었으나, 본인이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편견이 약간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36.6%와 매우 편견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 5.3%를 더해 41.9%만이 본인이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응답했다. 즉, 본인은 편견이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많은 것이다.

여성은 편견이 약간 있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8%로 남성보다 여성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볼 수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편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는데, 강한 편견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그룹은 60세 이상이었다. 본인은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9.8%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변에 미혼모가족이 있는 경우 편견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8.0%로 높게 나타나 주변에 해당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미혼보다는 기혼이 편견이 많다고 응답했으며, 자녀가 1명인 그룹이 자녀가 없거나 2명 이상인 경우보다 편견을 가진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편견 정도를 평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편견 정도에서도 대학원 이상의 그룹이 편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학력 그룹과 비교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본인의 편견 정도에는 모든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났지만, 앞서 분석한 우리 사회의 편견에서는 특성별 차이가 드물게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응답자들이 우리 사회의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일률적으로 부정적이라

고 판단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 주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은 미혼모가족에 대해 편견이 덜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표 7-4〉 미혼모가족에 대한 개인의 편견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다	거의 없는 편이다	약간 있는 편이다	매우 많다	계	(명)
전체	28.8	29.2	36.6	5.3	100.0	(1,000)
성별($\chi^2=22.141^{***}$)						
남자	34.2	29.6	30.5	5.6	100.0	(506)
여자	23.3	28.9	42.8	5.0	100.0	(494)
연령($\chi^2=28.972^*$)						
15-19세	33.9	37.3	25.6	3.3	100.0	(61)
20-29세	32.3	32.0	33.3	2.4	100.0	(157)
30-39세	29.5	33.1	33.8	3.6	100.0	(163)
40-49세	25.8	30.0	37.7	6.5	100.0	(195)
50-59세	29.4	26.1	41.2	3.4	100.0	(200)
60세 이상	26.7	24.5	39.0	9.8	100.0	(224)
주변 미혼모가족($\chi^2=9.492^*$)						
없음	27.1	29.4	38.3	5.2	100.0	(842)
있음	37.9	28.4	27.8	5.9	100.0	(158)
혼인상태($\chi^2=19.659^{***}$)						
미혼	34.4	33.2	28.6	3.8	100.0	(335)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26.0	27.2	40.7	6.1	100.0	(665)
자녀수($\chi^2=28.218^{***}$)						
없음	35.0	32.2	29.4	3.4	100.0	(375)
1명	23.4	25.2	41.5	9.9	100.0	(124)
2명 이상	25.6	28.0	40.8	5.6	100.0	(501)
최종 학력($\chi^2=17.921^{**}$)						
고졸 이하	33.2	26.1	33.6	7.1	100.0	(395)
대학 재학 이상	26.6	31.6	38.6	3.1	100.0	(521)
대학원 이상	21.7	30.8	38.8	8.7	100.0	(7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결측값은 제외됨.

우리 사회에 나타난 다양한 가족 유형 중 어떤 가족 유형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에서는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높게 지목된 가족 유형은 미혼모·부가족이다.

성별에 따라 알아본 결과에서, 여성은 미혼모·부가족이 가장 차별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 40대와 60세 이상 그룹도 미혼모·부가족이 가장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는 다문화가족이 37.5%, 미혼모·부가족이 37.3%로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을 볼 때, 높은 연령대에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많은 차이로 미혼모·부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가족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혼인상태에서 보면, 기혼인 경우도 다문화가족과 미혼모·부가족을 매우 유사한 수준에서 차별받는 가족으로 지목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자녀가 많을수록 미혼모·부가족이 가장 차별받는 가족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그룹에서는 다문화가족이 아닌 미혼모·부가족이 가장 차별받는 가족 유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원 이상의 그룹은 가장 차별받는 가족으로 미혼모·부가족을 매우 높은 수준(41.3%)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문화가족이 가장 차별받는 가족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특성별로 보면 여성, 높은 연령, 기혼, 자녀가 많은 그룹, 학력이 높은 그룹에서는 미혼모·부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5〉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가족 유형(1순위)

(단위: %, 명)

구분	미혼 모부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동거 가족	입양 가족	기타	계	(명)
전체	33.1	7.8	8.8	40.0	6.6	3.6	0.2	100.0	(1,000)
성별($\chi^2=32.561^{***}$)									
남자	27.3	8.1	9.9	45.5	4.6	4.6	0.0	100.0	(506)
여자	39.0	7.6	7.6	34.3	8.6	2.5	0.4	100.0	(494)
연령($\chi^2=61.906^{***}$)									
15-19세	21.2	18.4	6.7	44.6	5.7	3.3	0.0	100.0	(61)
20-29세	27.8	4.5	11.2	46.3	4.5	5.8	0.0	100.0	(157)
30-39세	26.9	6.8	3.0	51.1	6.4	5.3	0.6	100.0	(163)
40-49세	36.1	7.2	10.8	35.3	8.6	1.5	0.5	100.0	(195)
50-59세	37.3	8.3	10.7	37.5	2.4	3.8	0.0	100.0	(200)
60세 이상	38.1	8.2	8.5	32.5	10.3	2.4	0.0	100.0	(224)
주변 미혼모가족($\chi^2=8.412$)									
없음	33.2	7.0	9.1	40.6	6.6	3.3	0.1	100.0	(842)
있음	32.4	12.0	7.2	36.8	6.2	4.9	0.6	100.0	(158)
혼인상태($\chi^2=18.786^{**}$)									
미혼	26.8	6.9	8.8	47.2	5.2	5.0	0.0	100.0	(335)
기혼(이혼/별거/사별포함)	36.2	8.3	8.8	36.3	7.3	2.8	0.3	100.0	(665)
자녀수($\chi^2=25.769^{*}$)									
없음	26.9	6.7	8.4	47.3	5.7	5.0	0.0	100.0	(375)
1명	32.1	9.6	11.0	35.9	7.3	3.2	0.8	100.0	(124)
2명 이상	37.9	8.2	8.6	35.5	7.0	2.6	0.2	100.0	(501)
최종 학력($\chi^2=20.696^{*}$)									
고졸 이하	33.8	11.6	8.5	35.7	7.2	3.0	0.3	100.0	(395)
대학 재학 이상	31.3	5.1	9.2	44.8	5.8	3.6	0.2	100.0	(521)
대학원 이상	41.3	6.4	7.8	30.6	8.7	5.2	0.0	100.0	(7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결측값은 제외됨.

다음으로는 ‘미혼인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 ‘미혼인 남성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 ‘미혼인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다’, ‘미혼인 남성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다’라는 네 가지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미혼인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견해에 대해 적극 동의하는 입장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그룹까지는 이 행동이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는 견해에 90% 이상이 동의하고 있고, 60대 이상의 그룹은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약 25%로 다른 그룹과 비교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 견해에 대해 20대와 30대 그룹에서는 적극 동의하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미혼 그룹보다는 기혼 그룹이 이 견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자녀가 없는 그룹보다 있는 그룹에서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자녀가 1명인 그룹보다는 2명인 그룹이 이 견해에 적극 동의하는 비율이 낮은 것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력별 차이에서는 대학원 이상의 그룹은 이 견해에 매우 적극 동의(61.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미혼인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쉬운 결정은 아니다. 과거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미혼모를 책임감 있는 여성이라고 보기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많이 가지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연령대가 높은 그룹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보는 비율이 낮은 결과에서 그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

동이라는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낮은 그룹에서 그 비율이 높다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보는 인구가 앞으로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기혼인 경우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그룹일수록 이 견해에 적극 동의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실제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현실을 경험한 결과,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7-6〉 '미혼인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라는 견해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7.5	8.9	30.1	53.5	100.0	(1,000)
성별($\chi^2=8.867^*$)						
남자	9.4	7.9	30.9	51.9	100.0	(506)
여자	5.6	9.9	29.4	55.2	100.0	(494)
연령($\chi^2=61.098^{***}$)						
15-19세	3.3	6.2	40.3	50.2	100.0	(61)
20-29세	2.3	4.4	27.7	65.6	100.0	(157)
30-39세	2.4	6.0	28.8	62.8	100.0	(163)
40-49세	10.7	6.5	26.6	56.2	100.0	(195)
50-59세	7.3	14.8	28.5	49.4	100.0	(200)
60세 이상	13.3	11.6	34.5	40.6	100.0	(224)
주변 미혼모가족($\chi^2=1.971$)						
없음	7.7	8.9	30.8	52.6	100.0	(842)
있음	6.6	8.5	26.8	58.2	100.0	(158)
혼인상태($\chi^2=17.207^{***}$)						
미혼	4.0	5.5	31.4	59.1	100.0	(335)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9.3	10.5	29.5	50.7	100.0	(665)
자녀수($\chi^2=23.966^{***}$)						
없음	3.3	6.2	31.6	58.9	100.0	(375)
1명	10.2	7.9	27.4	54.5	100.0	(124)
2명 이상	10.0	11.1	29.7	49.2	100.0	(501)
최종 학력($\chi^2=22.379^{**}$)						
고졸 이하	9.9	9.3	35.8	45.0	100.0	(395)
대학 재학 이상	5.8	8.9	26.2	59.1	100.0	(521)
대학원 이상	4.9	6.1	27.9	61.1	100.0	(7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결측값은 제외됨.

미혼인 남성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남성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는 견해에 대한 생각 또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여성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것보다 남성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는 견해에 적극 동의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은 현상을 볼 수 있다.

남성이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20~40대의 그룹에서 모두 63.0% 이상이 적극 동의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이 견해에 대해 미혼인 그룹이 기혼인 그룹보다 동의하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그룹에서 가장 동의하는 것은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는 견해에 대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녀수에 따른 차이에서는 자녀가 1명인 그룹이 이 견해에 대해 적극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일이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는 견해에서는 자녀가 없는 그룹이 자녀가 1명이거나 2명인 그룹보다 적극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남성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일에 대해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는 것에 적극 동의하는 비율은 자녀가 1명인 그룹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자녀가 없는 그룹은 양육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거나 여성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직접 양육을 경험한 그룹에서는 남성이 혼자 양육할 때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고 응답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혼자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의 책임감에 대해 다르게 느끼고 응답한 결과일 수 있다.

〈표 7-7〉 ‘미혼인 남성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라는 견해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6.6	7.4	29.5	56.4	100.0	(1,000)
성별($\chi^2=5.792$)						
남자	7.2	6.6	32.2	54.0	100.0	(506)
여자	6.0	8.2	26.8	58.9	100.0	(494)
연령($\chi^2=63.319^{***}$)						
15-19세	1.6	6.2	45.2	46.9	100.0	(61)
20-29세	3.0	1.8	32.1	63.1	100.0	(157)
30-39세	0.6	7.9	28.3	63.2	100.0	(163)
40-49세	8.1	5.5	23.1	63.4	100.0	(195)
50-59세	8.5	8.2	26.8	56.5	100.0	(200)
60세 이상	12.0	12.3	32.4	43.4	100.0	(224)
주변 미혼모가족($\chi^2=1.330$)						
없음	6.5	7.6	30.1	55.8	100.0	(842)
있음	7.1	6.2	26.7	60.0	100.0	(158)
혼인상태($\chi^2=13.630^{**}$)						
미혼	3.2	5.3	32.5	59.0	100.0	(335)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8.4	8.5	28.0	55.1	100.0	(665)
자녀수($\chi^2=22.524^{***}$)						
없음	3.4	5.5	32.9	58.3	100.0	(375)
1명	8.7	3.1	27.5	60.7	100.0	(124)
2명 이상	8.6	9.9	27.5	54.0	100.0	(501)
최종 학력($\chi^2=15.007^*$)						
고졸 이하	7.7	8.9	33.4	49.9	100.0	(395)
대학 재학 이상	6.2	6.4	27.6	59.9	100.0	(521)
대학원 이상	3.6	6.2	24.1	66.1	100.0	(7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결측값은 제외됨.

미혼인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전반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미혼인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다’라는 견해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는 반응이 응답자의 38.7%로 가장 높았고,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29.5%,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0.4%,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11.5%로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이 이 견해에 대해 긍정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견해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연령 그룹에서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60대 이상의 그룹에서는 이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이 과반수로 나타나 이 견해에 대한 세대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미혼 그룹은 이 견해에 적극 동의하는 비율이 8.1%로 낮게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그룹 또한 적극 동의하는 비율이 8.3%로 나타났다. 미혼과 자녀가 없는 그룹이 동일한 응답자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그룹은 이 견해에 대해 적극 동의하는 비율이 그 어떤 그룹보다 높게 (20.2%) 나타났다.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그룹들에서는 이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이 과반수로 나타나 우리 사회를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7-8〉 '미혼인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다'라는 견해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20.4	29.5	38.7	11.5	100.0	(1,000)
성별($\chi^2=8.210^*$)						
남자	23.2	28.4	38.6	9.9	100.0	(506)
여자	17.5	30.6	38.8	13.2	100.0	(494)
연령($\chi^2=31.782^{**}$)						
15-19세	16.9	41.9	38.3	3.0	100.0	(61)
20-29세	26.7	30.7	36.9	5.7	100.0	(157)
30-39세	18.9	26.0	45.5	9.7	100.0	(163)
40-49세	22.7	30.9	35.8	10.5	100.0	(195)
50-59세	17.5	26.8	40.7	15.1	100.0	(200)
60세 이상	18.6	28.7	35.7	16.9	100.0	(224)
주변 미혼모가족($\chi^2=1.226$)						
없음	20.1	30.2	38.4	11.3	100.0	(842)
있음	22.1	25.7	39.9	12.2	100.0	(158)
혼인상태($\chi^2=6.918^*$)						
미혼	22.3	30.0	39.6	8.1	100.0	(335)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19.4	29.2	38.2	13.2	100.0	(665)
자녀수($\chi^2=10.144$)						
없음	22.0	30.9	38.8	8.3	100.0	(375)
1명	15.4	25.1	44.0	15.4	100.0	(124)
2명 이상	20.4	29.5	37.2	12.9	100.0	(501)
최종 학력($\chi^2=9.463$)						
고졸 이하	20.4	30.8	36.7	12.1	100.0	(395)
대학 재학 이상	20.5	29.3	41.0	9.2	100.0	(521)
대학원 이상	18.0	25.3	36.5	20.2	100.0	(7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결측값은 제외됨.

미혼 여성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면, 반대로 미혼 남성이 양육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미혼인 남성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다’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36.0%,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8.6%,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9%, 매우 그렇다는 비율은 14.5%로 나타나 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팽팽한 것을 볼 수 있다.

남성보다 여성이 이 견해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그룹에서는 이 견해에 적극 동의하는 비율이 20.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20대 이하의 그룹에서는 적극 동의하는 비율이 7.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 세대 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미혼인 그룹은 기혼인 그룹과 비교해 이 견해에 적극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높은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7-9〉 '미혼인 남성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다'라는 견해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20.9	28.6	36.0	14.5	100.0	(1,000)
성별($\chi^2=7.572^*$)						
남자	24.0	27.1	35.1	13.8	100.0	(506)
여자	17.6	30.1	37.0	15.3	100.0	(494)
연령($\chi^2=39.109^{***}$)						
15-19세	20.1	41.5	33.7	4.6	100.0	(61)
20-29세	27.4	28.9	37.5	6.3	100.0	(157)
30-39세	22.6	25.7	39.9	11.8	100.0	(163)
40-49세	22.7	28.0	37.2	12.1	100.0	(195)
50-59세	16.0	28.6	33.1	22.3	100.0	(200)
60세 이상	18.1	27.5	34.3	20.1	100.0	(224)
주변 미혼모가족($\chi^2=2.852$)						
없음	20.2	29.5	36.1	14.3	100.0	(842)
있음	24.6	23.9	35.7	15.7	100.0	(158)
혼인상태($\chi^2=10.783^*$)						
미혼	25.3	29.6	34.9	10.2	100.0	(335)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18.6	28.1	36.6	16.7	100.0	(665)
자녀수($\chi^2=14.117^*$)						
없음	24.9	30.3	34.7	10.1	100.0	(375)
1명	17.9	24.6	41.6	15.9	100.0	(124)
2명 이상	18.6	28.3	35.6	17.5	100.0	(501)
최종 학력($\chi^2=7.414$)						
고졸 이하	19.1	29.9	34.3	16.8	100.0	(395)
대학 재학 이상	21.8	28.7	37.5	12.0	100.0	(521)
대학원 이상	19.4	22.8	38.9	18.8	100.0	(7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결측값은 제외됨.

20대 이상의 성인 여성이 미혼인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면 낳아서 양육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에 대해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견해와 대체로 그렇다는 견해에 대한 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적극 동의하는 비율과 적극 반대하는 비율은 각각 23.0%, 14.9%로 적극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의 견해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은 이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이 과반수인 데 반해 여성은 반대하는 비율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남성과 달리 여성은 본인의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고 응답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여성이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 낳고 양육하는 것을 남성보다 여성이 어렵게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그룹에서 이 견해에 적극 찬성하는 비율이 35.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높은 연령대에서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30대에서는 40.0% 이상이 이 견해에 대해 별로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고, 20대 그룹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20.0%로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적극 반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변에 미혼모가족이 있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과 비교해 이 견해에 적극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미혼인 그룹과 자녀가 없는 그룹과 비교해 기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그룹에서 이 견해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 양육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양육할 확률이 있는 그룹은 자녀의 상황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택에 대한 응답을 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7-10〉 '20대 이상 성인 여성이 미혼인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면 그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14.9	31.2	31.0	23.0	100.0	(1,000)
성별($\chi^2=16.926^{***}$)						
남자	12.4	27.0	34.1	26.5	100.0	(506)
여자	17.5	35.4	27.8	19.3	100.0	(494)
연령($\chi^2=66.534^{***}$)						
15-19세	11.9	36.2	48.3	3.5	100.0	(61)
20-29세	20.0	36.5	33.6	9.9	100.0	(157)
30-39세	15.8	40.1	23.6	20.5	100.0	(163)
40-49세	14.9	27.9	29.4	27.8	100.0	(195)
50-59세	11.1	32.9	33.5	22.5	100.0	(200)
60세 이상	15.0	20.8	28.9	35.4	100.0	(224)
주변 미혼모가족($\chi^2=9.614^*$)						
없음	15.3	31.5	31.9	21.2	100.0	(842)
있음	12.9	29.1	25.7	32.3	100.0	(158)
혼인상태($\chi^2=23.473^{***}$)						
미혼	16.4	34.9	35.1	13.6	100.0	(335)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14.2	29.3	28.9	27.7	100.0	(665)
자녀수($\chi^2=25.702^{***}$)						
없음	16.2	34.7	34.9	14.2	100.0	(375)
1명	14.9	29.1	30.4	25.5	100.0	(124)
2명 이상	14.0	29.0	28.2	28.9	100.0	(501)
최종 학력($\chi^2=7.847$)						
고졸 이하	13.2	29.4	31.9	25.4	100.0	(395)
대학 재학 이상	16.1	33.4	30.2	20.3	100.0	(521)
대학원 이상	13.3	25.2	33.3	28.2	100.0	(7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결측값은 제외됨.

성인인 미혼여성은 임신한 아이를 낳아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 많았다면, 이 상황이 미성년 여자 청소년에게 해당될 경우는 어떠한 입장인지 알아보았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조사 응답자의 70.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조사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성보다 여성이 이 견해에 대해 더욱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80.0% 가까이가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세대 간의 차이도 보였는데, 60대 이상의 연령그룹에서는 17.5%가 이 견해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자신의 입장을 상상해 보고 응답했을 그룹인 10대 그룹의 응답을 보면, 34.7%가 이 견해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해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혼보다는 기혼 그룹이 이 견해에 대해 적극 부정하거나 적극 찬성하는 비율이 약간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수가 1명인 경우 조사 응답자의 40.0% 이상이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자녀가 많을수록 이 견해에 적극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앞선 질문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성인인 미혼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에는 낳아 기르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 많은 반면, 미성년 청소년이 임신했을 때에는 낳아 기르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 많아 미성년 미혼모와 성인 미혼모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표 7-11〉 '미성년 여자 청소년이 임신을 했다면 그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35.5	37.6	17.7	9.1	100.0	(1,000)
성별($\chi^2=21.352^{***}$)						
남자	30.1	37.2	21.6	11.2	100.0	(506)
여자	41.1	38.1	13.7	7.1	100.0	(494)
연령($\chi^2=50.135^{***}$)						
15-19세	21.8	37.8	34.7	5.7	100.0	(61)
20-29세	36.0	46.2	14.2	3.6	100.0	(157)
30-39세	38.5	41.7	13.3	6.5	100.0	(163)
40-49세	39.6	32.2	19.7	8.5	100.0	(195)
50-59세	41.4	35.0	15.8	7.9	100.0	(200)
60세 이상	28.0	35.7	18.8	17.5	100.0	(224)
주변 미혼모가족($\chi^2=4.583$)						
없음	36.7	37.4	17.5	8.5	100.0	(842)
있음	29.6	38.8	18.9	12.7	100.0	(158)
혼인상태($\chi^2=8.499^*$)						
미혼	32.6	41.8	19.4	6.1	100.0	(335)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37.0	35.5	16.8	10.6	100.0	(665)
자녀수($\chi^2=12.814^*$)						
없음	33.5	41.8	18.4	6.3	100.0	(375)
1명	40.6	37.2	15.2	7.0	100.0	(124)
2명 이상	35.8	34.6	17.8	11.8	100.0	(501)
최종 학력($\chi^2=8.972$)						
고졸 이하	32.3	38.3	19.1	10.4	100.0	(395)
대학 재학 이상	38.3	37.1	17.5	7.1	100.0	(521)
대학원 이상	31.8	38.9	13.9	15.3	100.0	(7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결측값은 제외됨.

내 가족이 미혼인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면 그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에 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 이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은 51.7%, 그렇지 않은 비율은 48.3%로 나타나 동의와 비동의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 적극 반대의 의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50대 그룹은 찬성의 입장보다 반대의 입장에 더 많이 응답해 다른 연령 그룹과 다른 특성을 보였다. 60대 그룹은 이 견해에 대해 적극 동의하는 비율이 약 30.0%로 다른 연령대보다 그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그리고 주변에 미혼모가족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이 견해에 대해 적극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과 자녀가 없는 그룹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이 견해에 대해 동의는 하지만, 매우 적극적인 동의가 아닌 태도를 볼 수 있다. 학력별 특성에서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그룹은 이 견해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의 비율이 다른 그룹과 비교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적극 찬성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조사한 성인 미혼 여성이 임신을 하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에 대한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의하는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 자기 가족인 경우에 더욱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과반수인 것은 비슷하지만, 자신의 가족이라면 반대하는 입장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7-12〉 '내 가족이 미혼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면 그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에 찬성할 것이다'라는 견해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25.2	23.1	31.1	20.6	100.0	(1,000)
성별($\chi^2=42.161^{***}$)						
남자	18.5	20.8	33.9	26.8	100.0	(506)
여자	31.9	25.6	28.1	14.3	100.0	(494)
연령($\chi^2=44.410^{***}$)						
15-19세	9.8	28.0	45.8	16.3	100.0	(61)
20-29세	18.3	28.3	37.5	15.9	100.0	(157)
30-39세	19.5	26.1	32.0	22.4	100.0	(163)
40-49세	27.7	20.8	33.3	18.2	100.0	(195)
50-59세	34.2	21.3	28.0	16.5	100.0	(200)
60세 이상	28.1	19.6	22.7	29.6	100.0	(224)
주변 미혼모가족($\chi^2=8.591^*$)						
없음	25.1	23.8	32.0	19.1	100.0	(842)
있음	25.3	19.6	26.3	28.8	100.0	(158)
혼인상태($\chi^2=34.007^{***}$)						
미혼	15.1	24.9	40.7	19.3	100.0	(335)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30.2	22.2	26.2	21.3	100.0	(665)
자녀수($\chi^2=52.116^{***}$)						
없음	14.8	25.0	41.1	19.1	100.0	(375)
1명	28.2	28.3	28.3	15.2	100.0	(124)
2명 이상	32.2	20.4	24.3	23.1	100.0	(501)
최종 학력($\chi^2=13.934^*$)						
고졸 이하	25.0	22.5	28.4	24.2	100.0	(395)
대학 재학 이상	25.8	23.1	34.2	16.9	100.0	(521)
대학원 이상	18.1	28.2	25.6	28.1	100.0	(7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결측값은 제외됨.

다른 가족 유형과 비교해서 미혼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동등해야 하는지 더 많아야 하는지 알아본 결과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이 72.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보면, 30-40대 그룹에서는 미혼모가족이나 다른 가족에 대한 지원이 동등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견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미혼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야 한다는 의견에 치우쳐 있어서, 다른 특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13〉 ‘다른 가족 대비 미혼모가족에 대한 지원 수준’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 분	다른 가족과 미혼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동등해야 한다	다른 가족보다 미혼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야 한다	계	(명)
전체	28.0	72.0	100.0	(1,000)
성별($\chi^2=1.349$)				
남자	29.8	70.2	100.0	(506)
여자	26.2	73.8	100.0	(494)
연령($\chi^2=10.232^*$)				
15-19세	24.1	75.9	100.0	(61)
20-29세	30.9	69.1	100.0	(157)
30-39세	33.1	66.9	100.0	(163)
40-49세	32.6	67.4	100.0	(195)
50-59세	21.3	78.7	100.0	(200)
60세 이상	25.5	74.5	100.0	(224)
주변 미혼모가족($\chi^2=0.069$)				
없음	27.9	72.1	100.0	(842)
있음	28.8	71.2	100.0	(158)
혼인상태($\chi^2=1.536$)				
미혼	30.0	70.0	100.0	(335)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27.0	73.0	100.0	(665)
자녀수($\chi^2=3.194$)				
없음	30.6	69.4	100.0	(375)
1명	28.5	71.5	100.0	(124)
2명 이상	26.0	74.0	100.0	(501)
최종 학력($\chi^2=0.704$)				
고졸 이하	27.3	72.7	100.0	(395)
대학 재학 이상	28.7	71.3	100.0	(521)
대학원 이상	29.1	70.9	100.0	(7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결측값은 제외됨.

미혼인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기에 우리 사회의 환경은 좋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고, 매우 좋지 않다는 의견은 37.5%, 좋은 편이라는 의견은 6.3%, 매우 좋다는 의견은 0.7%에 그치고 있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매우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견해에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자녀를 기를 확률이 높은 연령대로 생각되는 30-40대 또한 매우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다른 질문과 달리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매우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0.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인 경우와 자녀가 1명인 경우, 그리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우리 사회가 미혼 여성이 혼자 아이를 기르기에 매우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대학원 이상의 그룹은 그 비율이 52.3%로 나타나 학력에 따른 생각 차이가 두드러졌다.

〈표 7-14〉 ‘미혼인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기에 우리 사회의 환경 수준’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계	(명)
전체	37.5	55.6	6.3	0.7	100.0	(1,000)
성별($\chi^2=8.033^*$)						
남자	34.4	57.6	6.9	1.1	100.0	(506)
여자	40.6	53.6	5.6	0.2	100.0	(494)
연령($\chi^2=33.804^{**}$)						
15-19세	22.8	70.8	6.5	0.0	100.0	(61)
20-29세	26.4	64.4	6.8	2.4	100.0	(157)
30-39세	44.7	50.0	5.3	0.0	100.0	(163)
40-49세	42.9	50.5	6.6	0.0	100.0	(195)
50-59세	40.3	53.4	6.3	0.0	100.0	(200)
60세 이상	36.7	55.7	6.4	1.3	100.0	(224)
거주지역($\chi^2=17.394^{**}$)						
수도권	41.6	52.6	5.2	0.6	100.0	(506)
광역시	32.8	58.9	6.3	1.9	100.0	(197)
그 외지역	33.4	58.5	8.1	0.0	100.0	(297)
주변 미혼모가족($\chi^2=2.270$)						
없음	36.8	56.4	6.2	0.6	100.0	(842)
있음	40.8	51.3	6.8	1.2	100.0	(158)
혼인상태($\chi^2=15.608^{**}$)						
미혼	30.6	61.8	6.1	1.4	100.0	(335)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40.9	52.5	6.4	0.3	100.0	(665)
자녀수($\chi^2=12.272^*$)						
없음	31.9	60.5	6.3	1.3	100.0	(375)
1명	41.7	52.9	5.4	0.0	100.0	(124)
2명 이상	40.5	52.6	6.5	0.4	100.0	(501)
최종 학력($\chi^2=19.086^{**}$)						
고졸 이하	33.0	57.3	8.8	1.0	100.0	(395)
대학 재학 이상	38.7	55.9	5.0	0.4	100.0	(521)
대학원 이상	52.3	45.3	1.3	1.1	100.0	(7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결측값은 제외됨.

미혼모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 거라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 등 인식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0.4%,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양육 부담이 17.2%로 나타났다. 그 외에 심리적 문제와 진로 및 경력 관련 문제 등이 뒤를 이었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는 0.6%로 나타나 대부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일 것이라는 응답이 55.0% 이상으로 높았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약 25.0%가 인식문제를 꼽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대학원 이상의 그룹에서는 인식문제와 진로 및 경력 관련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른 학력 그룹과 비교해 높게 나타나고 고졸 이하의 그룹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다른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표 7-15〉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사회적 차별과 편견 등 인식 문제	경제적 부담감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양육 부담	학업이나 취업 활동의 단절 등 진로 및 경력 관련 문제	우울 증상,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 등의 심리적 문제	특별한 어려움 없음	계	(명)
전체	20.4	52.1	17.2	4.2	5.5	0.6	100.0	(1,000)
성별($\chi^2=2.866$)								
남자	21.2	50.1	18.9	4.2	5.0	0.6	100.0	(506)
여자	19.5	54.2	15.5	4.2	5.9	0.7	100.0	(494)
연령($\chi^2=24.91$)								
15~19세	33.7	42.7	13.8	6.6	1.6	1.6	100.0	(61)
20~29세	21.4	51.0	16.9	5.8	4.4	0.5	100.0	(157)
30~39세	23.3	43.1	21.2	5.7	6.7	0.0	100.0	(163)
40~49세	19.5	58.0	13.8	4.1	4.7	0.0	100.0	(195)
50~59세	19.7	53.2	17.1	2.3	6.7	1.0	100.0	(200)
60세 이상	15.3	55.9	18.5	3.1	6.0	1.1	100.0	(224)
주변 미혼모가족($\chi^2=5.548$)								
없음	20.7	52.6	17.0	4.3	4.9	0.5	100.0	(842)
있음	18.5	49.4	18.5	3.7	8.6	1.1	100.0	(158)
혼인상태($\chi^2=7.044$)								
미혼	23.3	47.9	17.6	5.9	4.4	0.8	100.0	(335)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18.9	54.2	17.0	3.3	6.0	0.5	100.0	(665)
자녀수($\chi^2=16.609^*$)								
없음	24.8	46.9	17.3	5.8	4.4	0.8	100.0	(375)
1명	17.4	56.1	15.6	6.2	4.7	0.0	100.0	(124)
2명 이상	17.8	55.0	17.6	2.5	6.4	0.7	100.0	(501)
최종 학력($\chi^2=17.859^*$)								
고졸 이하	14.6	57.5	17.5	3.5	5.9	0.9	100.0	(395)
대학 재학 이상	23.9	49.5	16.7	4.3	5.3	0.4	100.0	(521)
대학원 이상	25.2	44.6	17.7	7.6	3.8	1.1	100.0	(7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결측값은 제외됨.

미혼모가족의 안정된 삶을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점은 경제적 어려움일 것이라 예상했던 대로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다음은 일·가정 양립 지원이 30.0%, 주거 지원이 14.9%로 나타났다. 이어서 사회적 인식 개선, 학습권 보장, 심리 및 정서 상담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10대 그룹에서 미혼모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는 응답에 10% 이상 응답했다는 점과 학습권 보장에 대해서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응답을 보였다는 점이다. 30대는 다른 그룹보다 주거 지원과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40대와 60대 이상은 일·가정 양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징을 보인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주거비용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듯 수도권 지역의 거주자들이 주거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 외 지역의 거주자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혼보다 기혼 그룹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꼽은 경우가 많았다. 자녀가 없는 그룹은 자녀가 있는 그룹에 비해 인식개선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7-16〉 ‘미혼모가족의 안정된 삶을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학습권 보장	사회적 인식 개선	심리· 정서 상담 지원	기타	계	(명)
전체	41.2	14.9	30.0	4.0	7.4	2.1	0.4	100.0	(1,000)
성별($\chi^2=8.615$)									
남자	39.8	15.3	30.3	2.8	8.7	2.7	0.6	100.0	(506)
여자	42.6	14.6	29.7	5.2	6.2	1.6	0.2	100.0	(494)
연령($\chi^2=48.406^*$)									
15~19세	46.5	14.9	16.5	9.5	10.9	1.6	0.0	100.0	(61)
20~29세	37.9	17.9	27.3	5.1	8.2	3.2	0.5	100.0	(157)
30~39세	33.4	19.9	31.7	3.6	7.2	4.1	0.0	100.0	(163)
40~49세	39.0	14.8	33.0	3.0	7.5	2.5	0.0	100.0	(195)
50~59세	46.2	16.3	25.9	1.2	8.9	1.0	0.5	100.0	(200)
60세 이상	45.1	8.0	35.3	5.4	4.7	0.8	0.8	100.0	(224)
거주지역($\chi^2=18.889^*$)									
수도권	42.2	17.0	28.2	3.6	7.7	1.2	0.2	100.0	(506)
광역시	44.0	10.6	32.2	1.5	7.9	3.0	0.8	100.0	(197)
그 외지역	37.6	14.3	31.6	6.3	6.7	3.3	0.3	100.0	(297)
주변 미혼모가족($\chi^2=4.427$)									
없음	41.5	14.1	30.8	4.1	7.2	2.0	0.3	100.0	(842)
있음	39.5	19.0	25.9	3.5	8.5	3.1	0.5	100.0	(158)
혼인상태($\chi^2=14.324^*$)									
미혼	39.6	16.5	25.1	5.9	9.4	3.0	0.5	100.0	(335)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42.0	14.1	32.4	3.0	6.4	1.7	0.3	100.0	(665)
자녀수($\chi^2=23.558^*$)									
없음	37.6	17.6	26.3	5.5	9.4	3.1	0.5	100.0	(375)
1명	38.9	15.7	34.8	0.6	6.8	3.1	0.0	100.0	(124)
2명 이상	44.4	12.7	31.5	3.7	6.1	1.2	0.4	100.0	(501)
최종 학력($\chi^2=15.788$)									
고졸 이하	43.3	13.3	29.1	5.7	6.1	1.8	0.7	100.0	(395)
대학재학 이상	41.0	16.0	29.9	2.4	8.7	2.0	0.0	100.0	(521)
대학원 이상	33.0	17.4	35.7	3.8	5.1	3.8	1.1	100.0	(7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결측값은 제외됨.

미혼모가 아이를 포기하기보다는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사회적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85.0%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특성을 보면, 10대 응답자는 이 견해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40대 그룹은 다른 그룹과 비교해 반대의 입장이 조금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0대는 동시에 적극 찬성하는 비율도 높은 특징을 보였다. 기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가 이 견해에 대해 적극 동의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높았다.

〈표 7-17〉 ‘미혼모가 아이를 낙태나 입양 보내기보다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5.8	8.4	25.3	60.5	100.0	(1,000)
성별($\chi^2=1.606$)						
남자	4.7	8.6	25.0	61.7	100.0	(506)
여자	7.0	8.3	25.5	59.1	100.0	(494)
연령($\chi^2=42.391^{***}$)						
15-19세	0.0	0.0	42.7	57.3	100.0	(61)
20-29세	3.8	14.0	33.6	48.6	100.0	(157)
30-39세	6.8	7.4	25.1	60.8	100.0	(163)
40-49세	4.9	12.8	21.8	60.6	100.0	(195)
50-59세	8.0	5.4	20.8	65.8	100.0	(200)
60세 이상	7.1	6.5	21.8	64.5	100.0	(224)
주변 미혼모가족($\chi^2=0.972$)						
없음	5.9	8.3	25.7	60.1	100.0	(842)
있음	5.3	9.2	23.0	62.5	100.0	(158)
혼인상태($\chi^2=14.829^{**}$)						
미혼	4.2	9.8	31.7	54.3	100.0	(335)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	6.7	7.7	22.0	63.6	100.0	(665)
자녀수($\chi^2=13.408^*$)						
없음	4.0	9.6	29.8	56.6	100.0	(375)
1명	3.9	6.7	26.1	63.3	100.0	(124)
2명 이상	7.7	8.0	21.6	62.7	100.0	(501)
최종 학력($\chi^2=2.148$)						
고졸 이하	5.6	8.4	25.9	60.2	100.0	(395)
대학 재학 이상	5.7	8.5	25.9	59.9	100.0	(521)
대학원 이상	4.9	9.0	19.3	66.8	100.0	(77)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결측값은 제외됨.

제3절 소결

미혼모가족에 대한 국민인식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미혼모가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진 편견의 정도와 본인 스스로가 가진 편견의 정도가 확연하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의 분위기는 개인이 모여서 만들어 내는 것이지만, 미혼모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 정도와 본인의 편견 정도에 대한 생각은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뒤에는 조사 응답 시의 도덕적인 태도가 어느 정도는 반영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본인은 편견이 없다는 쪽의 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결과는 사회 구성원들의 편견을 줄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 정도에 대해 미혼모가 직접 생각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미혼모가 편견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국민 인식 조사에서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두 그룹 모두 편견이 많다는 의견에 집중된 것으로 우리 사회를 비슷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7-18〉 미혼모가족과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 정도 비교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음	별로 없는 편	많은 편	매우 많음	계	(명)
국민인식 조사	8.6	9.9	45.3	36.3	100.0	(1,000)
미혼모가족 조사	2.2	10.3	45.7	41.7	100.0	(1,247)

자료: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조사」와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미혼모·부가족은 다문화가족에 이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가족 유형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하지만 미혼인 여성이, 또는 남성이 혼자 아

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을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는 견해에 대체로 동의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에 현재 받아들여지는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분되었다.

하지만 미성년 미혼모에 대한 생각에서는 분명한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20대 이상 성인 여성이 미혼인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면 낳아 양육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도 동의하는 비율이 54.0%로 반대하는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내 가족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에 찬성할 것이라는 비율이 51.7%로 의견이 양분되었다. 하지만 미성년 여자 청소년의 상황이라면 반대하는 비율이 73.1%로 분명하게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 미혼모와 성인 미혼모에 대한 견해차를 볼 수 있었다.

일반 국민은 현재 우리 사회는 여성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기에는 좋지 않은 사회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 또한 미혼모가 응답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역시 미혼모가 일반 국민보다 매우 안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아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 정도 비교에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표 7-19〉 미혼모가족과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미혼인)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데 있어 우리 사회의 환경 수준에 대한 정도 비교

(단위: %, 명)

구분	전혀 좋은 환경이 아님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님	조금 좋은 환경	매우 좋은 환경	계	(명)
국민인식 조사	37.5	55.6	6.3	0.7	100.0	(1,000)
미혼모가족 조사	47.2	45.6	6.5	0.7	100.0	(1,247)

주: 국민인식 조사는 '미혼인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기에 우리 사회의 환경 수준'에 대한 응답이고, 미혼모가족 조사는 '우리 사회가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어떠한 환경인지'에 대한 응답.

자료: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조사」와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일반 국민은 다른 가족과 비교해 미혼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에 70.0% 이상이 동의하고 있으며, 미혼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꼽았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 등 인식 문제를 그다음으로 꼽았다. 미혼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는 먼저 경제적 지원(41.2%)과 일·가정 양립 지원(30.0%), 주거 지원(14.9%)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일을 통해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지원도 필요하며, 또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주거 지원도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응답한 정부의 노력 1, 2, 3위는 모두 경제적 부담 완화와 관련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이 결과는 미혼모가족에 대한 조사에서 미혼모가 경제적인 문제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결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그 방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 다음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 사회적 인식 개선(7.4%)으로 나타났다. 앞서 미혼모가족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부담 다음으로 사회적 차별과 편견 등 인식 문제를 지정한 것과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의 순위가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통해 미혼모가 낙태나 입양을 선택하지 않고 직접 양육하는 것을 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85.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미혼모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사회는 여전히 미혼모가족이 차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기는 하지만, 개개인은 미혼모의 선택에 대해 비난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미혼모가족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또는 사회적 차원의 지원에 동의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제III부 결론부

제 8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8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제1절 결론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분절된 연령, 또는 영역으로 연구되어 온 최근의 미혼모가족 실태를 파악하였다. 미혼모가족에 대한 이전 연구들은 시기적인 측면에서 임신기나 출산 전후 상황에 집중하거나, 다루는 분야의 측면에서는 직업훈련이나 교육, 경제활동 등을 제외한 출산 및 양육 분야에 집중하는 등 제한된 영역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대상의 측면에서는 청소년 미혼모만 또는 성인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미혼모가족의 임신·출산 및 양육기를 생애적 관점으로 접근해 관련 영역을 다양하게 나누어 살펴보고, 미성년 미혼모부터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경우의 미혼모까지 아이 중심인 동시에 엄마 또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그동안의 연구가 소규모의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로 많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모수가 정확치 않은 미혼모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수를 확보한 데이터를 생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해, 비교가 가능한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유배유자 기혼여성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미혼모가족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1. 미혼모의 임신·출산기 특성

먼저 임신·출산기는 모든 미혼모가 경험을 한 시기로, 이 시기에는 미성

년 미혼모와 성인 미혼모의 경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혼모의 출산 당시 연령에 따른 구분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에 참여한 미혼모는 현재 결과적으로 출산을 하고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경우이다. 임신 기간 동안 이들의 출산에 대한 생각을 보면 44.8%가 출산 후 직접 양육을 생각을 한 반면, 이와 동시에 낙태를 고려한 비율은 38.3%, 입양을 생각한 비율은 32.4%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낮고 최근에 출산을 경험한 집단일수록 직접 양육에 대한 생각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미혼모의 자녀 양육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제도적 환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경험 중 특히, 산전·산후 진찰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은 기혼여성(15~49세)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산전 진찰 여부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산전 진찰률은 100%에 달하는 데 반해, 이 연구의 조사에 참여한 미혼모의 약 10.0%는 산전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 진찰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혼여성에서는 전혀 없으나 미혼모 조사에서는 약 10.0%가 산전 진찰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해 미혼모의 산전 진찰에서의 취약성이 나타났다. 기혼여성과 비교(2016년 이후 출산 경험자)한 산전 진찰 횟수에서도 미혼모의 경우 평균은 9.1회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기혼여성 평균인 13.5회와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 미혼모의 산전 진찰에 대한 도움이나 관리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미혼모 조사 표본에서 2016년 이후 출산한 미혼모의 초진 시기는 평균 11.0주로, 우리나라 기혼여성이 산전관리를 목적으로 초진을 받는 시기가 평균 5.4주임을 감안하면 매우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이후 출산한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는 초진 시기가 평균 12.2주로 나타났다. 산전 진찰 시기나 횟수는 엄마와 아이의 건강과 직

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미혼모의 산전 진료에 대한 안내와 관리가 매우 필요해 보인다.

산전 관리뿐 아니라 산후의 관리에서도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차이를 알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혼여성이 산후에 진찰을 받은 비율은 94.7%에 달하지만 조사에 참여한 미혼모의 산후 수진율은 64.7%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미성년 미혼모 중 2016년 이후 출산을 경험한 경우 산후 진찰 경험 이 없는 비율이 약 40.0%에 달해 산전 및 산후 진찰에서 미성년 미혼모에 대한 관심이 특히 요구된다.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임신·출산 환경에 대한 절대적인 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여성의 연령과 출산 시기를 맞추어 비교해 본 결과, 산전 및 산후 관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미혼모가 취약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미성년 미혼모의 취약성이 크게 발견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미혼모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공적 지원체계(미혼모시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점도 찾아볼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출산 당시 미혼모시설에 거주했다고 응답한 미혼모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하고 40대 이상은 0.0%였는데, 30대(7.4%), 20대(14.5%), 미성년 미혼모(18.4%) 등 연령이 낮을수록 출산 시 시설에 거주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2016년 이후에 출산한 미성년 미혼모 10명 중 2명(20.9%)이 출산 당시 시설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모시설이 사적인 네트워크가 미흡한 미혼모에게 임신·출산 단계에서 안전망의 기능을 하고 있고, 특히 미성년 미혼모에게 보호체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미혼모의 출산 관련 지원 정책별로 인지율, 이용률, 이용자의 도움 정도에서는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엽산·철분제 지원 제도를 알고 있고 이용한 경험도 있는 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

업,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의 경우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러 정책에서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일단 받은 지원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성인 미혼모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제외하고는 미성년 미혼모가 성인 미혼모보다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있는 정책을 알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는 정책이 없도록 홍보하는 방안, 특히 미성년 미혼모들이 접하기 쉬운 창구를 통한 정보 전달이 필요해 보인다.

미성년 미혼모가 성인 미혼모보다 산후우울감 경험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 이 문제로 상담을 받아 본 비율은 미성년 미혼모가 성인 미혼모보다 낮았다. 즉, 미성년 미혼모가 산후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지만 전문적인 진단이나 상담을 받는 기회는 더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미혼모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특히 금전적으로 어려운 경험이 가장 많았다.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자신의 상황을 말할 곳이 없었던 점에 대한 어려움이 성인 미혼모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심리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혼모의 특성상 임신·출산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임신·출산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에 대해 현금지원(진료비, 생활비), 현물지원(비용 및 물품 지원), 서비스 지원(산후조리, 긴급상담전화) 등 다양한 형태 및 종류의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우선, 미성년 미혼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준비 비용 및 물품 지원이었다. 성인 미혼모의 경우는 역시 임신·출산 진료비를 가장 필요로 하긴 했지만, 임신·출산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 또한 필요로 하고 있었다.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존재했다. 즉, 현금, 물품을 가장 필요

로 하지만 수요에 따라 지원방식을 현금, 현물, 서비스로 다원화할 필요가 있고, 이 외에 임신 및 출산기간 동안 거처를 위한 긴급주거 지원과 생필품 지원, 산후조리를 포함한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의 확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의 조사에 참여한 미성년 미혼모가 임신·출산과정에서 학교를 중단한 경험은 약 74.0%였고, 그 이유로는 임신·출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라는 응답이 과반수였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와 주변의 차별과 편견을 견디기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각각 10.6% 수준으로 나타나 미혼모가 최소한의 학력을 갖추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돌봄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미성년 미혼모의 학력이 주로 초졸 또는 중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양육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돕는 지원뿐 아니라 학력 취득을 포함하여 청소년기 발달과업 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미성년 미혼모가 학업 지속과 관련해 가장 원하는 지원은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휴학 보장, 학업과 양육이 가능하도록 대안학교 운영, 검정고시 학원이나 온라인 교육이용 지원, 미혼모시설에 교사를 파견하여 학업을 이수하고 학력을 인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미혼모가족의 미취학 자녀 양육기 특성

1) 돌봄 및 양육

미취학 아동을 둔 미혼모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돌봄 문제이다. 미혼모가족의 현재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방식은 민간시설 이용-본인 돌봄-국공립시설 이용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돌보는 시간이 길다는 점이 가장 많았다. 예상할 수 있듯이 현재 본인이 돌보고 있는 경우는 이 이유에 대해 더 높은 응답 경향을 보였고, 미혼모가족의 특성상 혼자 온종일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가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그 외 시간에는 혼자 돌봐야 하는 상황의 어려움이 분석 결과에서 드러났다. 본인이 직접 돌보는 경우, 본인 돌봄 시간에 대한 불만이 과반수 수준으로 높아서 전체 비율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한다면 개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현재 돌봄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즉, 혼자 온전히 돌봄을 책임진다는 것과 시설 이용 후 시간에도 혼자 돌봐야 하는 상황은 미혼모가 직접 감당하거나 비용을 들여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심리적, 체력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어 돌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 기혼여성과 미혼모를 비교해 보아도 미혼모는 본인이 돌보는 비율이 더 높다. 특히, 자녀가 3세 이상인 경우에 기혼여성은 본인의 돌봄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데 반해(50.3%→1.4%), 미혼모(47.0%→13.7%)는 자녀가 3세가 넘어도 본인이 돌보는 비율이 기혼여성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과 관련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대부분 잘 알고 있고, 사용한 경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이나 보육료 지원 등 현금성 정책에 대해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고,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인지도가 낮은 유아학비 지원이나 공동육아나눔터를 제외하고 인지도가 높은 정책 중에서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경험이 낮았다. 결국 아이돌봄서비스는 만족도가 높지만, 이용하기까지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심층인터뷰의 결과에서도 다수 발견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미혼모가족의 돌봄공백

을 채울 수 있는 좋은 서비스임에도 그 혜택을 원할 때 바로 받는 것, 응급 시 받는 것에 대한 제약이 많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용욕구와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인 만큼 돌봄공백이 이슈인 미혼모가족에게 특히 서비스가 더욱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여러 정책들에 대한 인지도에서 미성년 미혼모의 인지율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특히나 어려움이 많은 미성년 미혼모가 이미 있는 정책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달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 연구의 조사에 참여한 미혼모 중 현재 미성년인 미혼모는 모두 미취학 자녀 양육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양육한 시기가 비교적 짧아 정보가 부족할 수 있지만 특히 10대인 경우에 정책인지도가 낮다는 점은 반드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기혼여성과 비교했을 때에도 정책 인지도가 미혼모가 더 낮은 경향이 나타나 미혼모가족이 정보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혼모가족이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며 경험하는 어려움은 양육비 부담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 또는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엄마가 일을 하는 경우는 아이를 돌보거나 챙길 시간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쩔 수 없이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 어린 자녀까지 돌봐야 하는 이중고에 대해 정책을 설계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미혼모가 아이를 잘 기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서는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나타났지만, 엄마의 심리·정서적 이유도 크게 부각되었다. 특히, 10대 미혼모들의 심리·정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엄마들의 경우에도 단순히 경제활동을 강조하기보다 일단 엄마의 심리적 안정을 챙기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양육 및 교육비 지원과 일을 하는 경우 시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엄마의 심리상담보다 아이의 심리상담에 대한 욕구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이를 잘 기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심리적인 상황이 불안정해서 잘 못 기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엄마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상담과 같은 지원보다는 당장 아이를 기르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한 것을 엿볼 수 있다. 심리적 안정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일을 할 준비를 해가면서 경제력을 갖추게 되고, 생활이 안정되는 상황이 자녀를 잘 기르고 있다는 생각으로 연결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다시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경제활동 및 소득·소비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또 다른 문제는 경제상황이다.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은 44.0%, 시간제근로는 24.5%, 전일제근로는 19.5%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는 70.0%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취학 자녀 중에도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는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자녀가 어린 경우는 임신 및 출산 과정의 어려움을 경험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황이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위축될 수 있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 모두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는 아직 아동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유연한 일자리에 대한 욕구와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현재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며 일을 하는 미혼모의 경우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41.6%, 임시근로자 37.2%, 일용근로자 15.0%로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기혼여성은 상용근로자가 52.3%, 임시근로자 24.4%, 일용근로자 5.9%인 것과 비교하면 기혼여성의 상용근로자 비율이 더 높다. 주간 근로시간은 미혼모의 경우 주당 평균 약 30시간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미취학 아동이 있는 기혼여성이 35.4시간인 것과 비교해 짧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는 약 27시간으로 더 짧은 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확보와 돌봄시간 확보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는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응답도 80.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경우도 일하는 경우 일·가정 양립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73.2%), 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기혼여성은 23.2%, 미혼모는 32.1%로 미혼모가 더욱 더 심하게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 중에서도 특히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는 그 어려움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을 하는 미혼모에게는 시간을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며 현재 일을 하지 않는 미혼모는 대부분 역시 육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때문에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기혼여성의 응답에서 더 많았다. 반면, 미혼모는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경우와 건강상 못하고 있다는 이유, 그리고 학업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육아 이외에 중요한 이유로 나타나 기혼여성과 일을 하지 않는 이유의 경향이 달랐다. 즉, 미혼모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더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현재 일하지 않는 미혼모도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취업할 의향은 가지고 있다. 미

혼모는 일하고자 하는 의향이 93.3%로 기혼여성(83.8%)보다 높았다. 일하려는 이유도 기혼여성에서는 본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가 22.0%나 나타났다지만, 미혼모 중에는 단 1.4%만이 나타났다. 그리고 미취학 자녀를 둔 젊은 미혼모가족은 경제적 독립이라는 과업과도 같은 일을 앞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을 하려는 의향은 짙으나 앞서 논의했듯이 일을 하기에 힘든 상황이 겹쳐 있어 경제적 독립에 대한 욕구만큼 환경이 맞추어 주지는 않는 상황이다.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조사 대상자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고, 미혼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입이 많았다. 미성년 미혼모는 법적으로도 일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다른 연령대와 수입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특히,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 중에서도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 돌봄에 할애해야 할 시간이 더욱 필요해 근로시간이 짧게 나타났고, 그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미취학 아동을 둔 미혼모가족, 그중에서도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 돌봄과 소득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 부딪힐 확률이 클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채가 있다면 빌린 곳이 비은행 금융기관이거나 사금융기관인 경우가 많아 더욱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빠질 위험성이 높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을 둔 미혼모가족의 소비는 소득과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아 결국 저축을 할 여유가 없는 현실이 드러났고,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 더 경제적 여유가 없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 중 약 70.0%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한부모가족 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생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매우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혼모가족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수입이 없거

나 낮은 가족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제도 안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다가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수입으로 인한 수급권 탈락이 되는 것에 대한 딜레마가 많은 것을 심층인터뷰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일하는 것을 원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우선적으로 어렵고, 일하게 되더라도 수급의 혜택보다 더 높은 수입을 첫 노동시장 진입에서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했을 때 결과가 수급의 혜택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수급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대한 정책 개선의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3. 미혼모가족의 취학 자녀 양육기 특성

1) 돌봄 및 양육

자녀가 취학하게 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돌봄이 여전히 필요하고 고학년이 되면서, 또는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자녀 교육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이 문제로 나타났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인 초등학생의 주간 돌봄 방식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41.8%)-공공인프라-본인-사설교육기관(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3학년까지는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 이용이 과반수로 나타났지만, 고학년이 되면서는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가 약간 높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공공인프라, 사설교육기관, 본인 돌봄까지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돌봄 방식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초등학생 자녀는 사설교육기관이 52.4%로 가장 높아 미혼모의 초등학생 자녀 돌봄 방식과 큰 차이를 보인다. 미혼모가 현재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과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았다. 가장 희망하는 돌봄 방식은 저학년은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43.7%)이고, 고학년은 사설교육기관(27.5%)으로 희망하는 돌봄 방식 또한 달랐다. 기혼여성과 비교해 보면, 기혼여성이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방식으로 가장 희망하는 것은 사설교육기관(40.3%)으로 미혼모의 사설교육기관 희망 비율(16.0%)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기혼여성의 경우는 저학년 자녀에 대해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를 가장 많이 희망(44.2%)하기는 하지만, 그다음 사설교육기관을 희망하는 비율(35.0%)도 높다. 하지만 저학년 자녀를 둔 미혼모의 경우는 초등돌봄 및 방과후교실을 기혼여성과 비슷한 비율(43.7%)로 가장 많이 희망하기는 하지만, 그다음 희망순위는 본인(20.1%), 공공인프라(18.7%) 다음이 사설교육기관으로 12.1%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에서의 희망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혼모의 경우, 고학년 자녀 돌봄 방식에 대한 만족이 상대적으로 낮아 희망하는 돌봄과 실제 사이의 일치도를 확인한 결과, 사설교육기관에 대한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일주일 중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은 고학년인 경우 더 자주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엄마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도 고학년이 되면서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나 고학년부터는 엄마가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초등 돌봄과 관련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중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이용 경험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의 측면에서는 세 서비스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가족이 취학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중 초등학생 자

녀 양육에 힘든 점은 돌봄 비용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컸다. 저학년의 경우는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고학년은 학습관리나 가족형태로 아이가 차별받을 것에 대한 걱정이 그다음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든 점은 교육비 부담이 과반수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보다 비용 부담에 대해 힘들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녀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교육비가 미혼모가족에게 힘든 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는 본인이 자녀를 잘 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그중 양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는 이유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엄마의 심리 및 정서적 문제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혼모 전체로 보면 엄마의 심리 및 정서적 문제가 양육을 잘하고 있지 못한 이유로 가장 크지만,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는 경제적인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어 있다. 이는 앞서 양육에서 가장 힘든 점이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와 같이 생각해보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에 투자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 자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초중고생 자녀가 잘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서도 역시 양육 및 교육에 드는 비용 지원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시간 유연화나 휴가 등 시간 확보에 대한 지원 필요도 높게 나타났다. 미혼모가족 전체 결과에서보다 아이 심리 상담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약간 상승한 결과도 볼 수 있어 자녀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2) 경제활동 및 소득·소비

돌봄, 교육과 관련해 학령기에는 자녀에게 비용이 더욱 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보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는 일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중 약 3분의 2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안 하는 비율 34.7%), 일을 하는 경우는 시간제근로(30.3%)보다 전일제근로(35.0%)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는 전일제근로가 과반수로 나타나 일과 돌봄을 모두 해야 하는 미혼모의 상황에서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전일제근로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가 가장 희망하는 일자리는 근무시간이 유연한 일자리로 나타났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보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가 일자리의 분위기, 급여,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희망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하는 엄마는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그 비율은 더욱 높아져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엄마의 일자리도 안정을 찾는 시기임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엄마가 일하는 시간도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보다 주당 약 10시간 이상 상승하게 되어 일자리의 안정성과 더불어 소득의 안정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만일 전일제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는 육아 및 자녀 교육 때문이라는 이유가 압도적이었으나,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다른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본 조사에 참여한 미혼모 중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전일제근로를 하지 않는 샘플이 작아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혼모가 전일제근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육아나 자녀

교육(62.45%)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학업 또는 직업 훈련 병행을 위해서가 10.5%, 건강상의 이유가 9.4%로 많다. 하지만 기혼여성의 경우는 대부분(84.0%)이 육아 및 자녀교육의 이유에 응답이 집중되어 있어 미혼모과 기혼여성 간 차이를 보인다. 일하는 미혼모의 경우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경우가 많았는데,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와 초중고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비교하면, 초등생 자녀를 둔 미혼모가 어렵다는 응답이 84.3%,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는 81.2%로 약간 차이가 난다. 하지만 매우 어려움에 응답한 비율을 비교하면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는 32.1%이고,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는 25.6%로 자녀가 성장하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조금 줄어드는 양상이다. 이러한 경향은 초중고생 자녀 사이에서도 나타났는데, 자녀가 초등생인 경우 중고생 자녀를 둔 경우보다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돌봄과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것에 대한 어려움, 특히 자녀가 어려서 돌봄이 필요한 시기일수록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보인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중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건강상의 이유(34.5%)와 자녀 돌봄의 이유(33.6%)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와 학업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가 일하지 않는 이유에서보다 건강상의 이유(미취학 자녀 미혼모 8.9%, 초중고생 자녀 미혼모 34.5%)가 많아져, 결국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 여성과 미혼모를 비교해 보면, 기혼여성은 미취학 아동 양육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육아 때문에(72.4%)의 이유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미혼모는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일을 안 하거나 못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하고 가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 대부분(90.9%)은 앞으로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미혼모의 취업 의향은 91.8%로 기혼여성의 76.5%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를 보면, 초중고생 자녀를 둔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생활비 부족(42.0%)-본인이 안 별면 가게수입이 없어서(36.0%)-자녀 양육 및 교육비에 돈이 많이 들어서(12.0%) 등의 순으로 나타나, 미취학 아동을 둔 경우의 결과인 정부지원금으로 생활비 부족(35.1%)-본인이 안 별면 가게수입이 없어서(27.2%)-자녀 양육 및 교육비에 돈이 많이 들어서(22.9%)와 순서상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이 경제적인 이유에 대한 응답을 더해 보면,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는 90.0%이고 미취학 자녀를 둔 미혼모는 85.2%로 모두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을 원하고 있으며, 초중고생 자녀를 둔 경우 이러한 경제적 이유가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미혼모를 비교해 보면, 기혼여성은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서(40.5%)-남편의 수입으로 생활비 부족(22.3%)-본인의 자아실현을 위해(20.9%)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수입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미혼모에서는 ‘정부지원금으로 생활비 부족’에 해당하지만, ‘본인이 별지 않으면 가게 수입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기혼여성의 경우 0.3%로 거의 없다. 그리고 미혼모는 자신을 위해 일하는 비율은 2.3%로 기혼여성의 20.9%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앞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노후대책 마련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기혼여성은 6.1%였으나, 미혼모에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미혼모가족의 현재 경제적 상황과 향후 노후 생활에 있어서도 취약해질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조사 대상 전체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와 중고등학생일 때의 소득액

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앞서 일하는 엄마의 비율과 근로시간 등의 차이로 인해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는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시간적으로 일에 집중할 여유가 생기고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소득을 발생시켜야만 하는 상황 등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 것이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경우 저축을 하는 비율과 안 하는 비율은 거의 반반으로 나타났는데, 자녀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 저축을 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에서의 차이가 저축에 대한 여유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축의 용도는 자녀 교육비나 거주지 마련을 위한 용도가 높게 나타났고, 미혼모가족의 경우 아직 젊은 세대가 많기는 하지만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경우 부채가 있는 비율이 높고,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도 그 비율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과반수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부채가 있는 비율이 낮아지기는 하지만, 부채의 총액으로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보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났고, 부채 사유가 주거 마련 비용과 자녀 교육비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경우 월 평균 지출액은 조사 대상 전체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는 지출액이 200만 원 이상으로 초등생 자녀를 둔 경우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축과 부채, 소득·소비 등의 상황으로 미루어보면, 미혼모가 일을 하면서 수입을 늘리고 당장의 생계가 해결된다 해도 결국 일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노후 준비에도 거의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생계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의 소득지원 관련 정책에 대한 이용 경

힘과 도움 정도에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이 과반수로 나타났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3분의 1이 안 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특성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다면 둘 중 하나를 받게 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초중고생 자녀를 둔 미혼모가족 중 80.0% 가까이가 정부 생활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미혼모가족의 주요 쟁점별 특성

학업 및 자립의 측면에서는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미혼모에 대해 어려움을 제거해줄 필요가 드러났다. 미혼모의 학업 지속은 이후 미혼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업을 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줄 곳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갖추지 못한 10대 미혼모의 경우에는 자립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미성년 미혼모들이 희망하는 교육 방법과 그에 적절한 돌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직업교육 및 일자리 경험에서는 직업교육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어려운 점은 교육을 받는 동안의 경제적 부담과 돌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훈련 후 약 40.0%는 일자리를 구했으나 나머지는 취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 큰 것은 희망하는 급여나 근로시간 조건이 맞지 않은 경우와 일할 상황이 아니어서 알아보지 않았다는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일을 한 경우는 직업훈련 관련 분야에서 일한 비율이 75.0% 이상이었다. 직업 훈련 기간 동안과 일자리를 알아보는 기간 동안 돌봄 지

원을 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받은 직업훈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혼모는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일을 그만둔 경험이 많았고 주로 육아를 위해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신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까 봐 스스로 알아서 그만둔 경우도 30.0% 이상이었고, 직장에서 그만둘 것을 강요한 것도 약 10.0%로 나타났다. 구직 과정에서는 미혼모라는 사실만으로 취직이 안 되는 경우가 30.0% 이상이었고, 직장을 다닌다 해도 미혼모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50.0% 가까이 나타나 미혼모의 구직이나 직장에서의 여건은 매우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주거 상황은 기혼여성과 비교한 것을 위주로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미혼모가 상대적으로 낮고,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비율은 높았다. 주거 환경 마련은 목돈이 들어가는 일로 미혼모가족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였는데, 임대주택 제공에 대한 욕구와 지원받는 주거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주거 환경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자녀가 학령기가 되면 더욱 주거로 인해 차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드러나지 않는 주거 지원 욕구가 높아졌다. 주거 환경에 대한 낙인이 심각한 수준인 상황에서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까지 더해 차별을 경험하는 일이 없도록 주거 지원에 있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건강에 대해서는 미혼모 스스로 본인이 건강하다고 판단하는 비율이 30.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정신적인 건강 측면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은 본인뿐 아니라 자녀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혼자 육아와 생계를 감당해야 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을 위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전문가와의 상담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할 것이다.

미혼모가족의 주변 관계를 보면, 가족과 친구가 지지가 되어 주는 경우

와 함께 새롭게 맞은 다른 미혼모들과의 관계에서 지지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의지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비율과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비율이 낮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가족이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가까이 도움을 주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직간접적 차별을 경험하고 우리 사회가 여성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일과 양육을 혼자 한꺼번에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혼모가족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많았고,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혼모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나 구청의 역할이 커 보였으며, 미혼모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측면에서 미혼모시설이나 단체의 도움 또한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관, 시설이나 단체에서부터 미혼모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지지와 자신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각각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환경 마련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 준다.

5. 미혼모가족에 대한 국민인식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에는 아직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이 많다고 보는 분위기였으나, 개개인 본인은 편견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미혼모의 응답과 비슷하게 미혼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일반 국민도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 우리 사회는 여성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기에 좋지 않은 사회라고 판단해 국민들이 미혼모가족에 대한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다른 가족보다 미혼모가족에게는 지원이 더 많아야 한다고 응답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면 미혼모가족을 위한 공공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일정 수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 청소년이 임신을 했다면 낳아서 양육해야 한다는 대한 견해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70.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미혼모의 응답에서도 미성년 시기에 출산을 한 미혼모의 경우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았다는 의견이 성인 미혼모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인 미혼모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인식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2절 정책적 제언

이 절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미혼모가족을 위한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연구 목적에 따라 미혼모와 자녀의 발달과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주요 정책분야를 임신·출산, 돌봄·양육, 경제활동 및 소득, 학업 및 자립 준비, 주거, 건강, 사회적 인식, 정책 홍보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1. 임신·출산기

이 연구는 출산 후 직접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기간 동안의 갈등이나 감정 상황에 대해 집중하기보다 임신기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임신·출산기는 미혼모가 가장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며, 신체적·심리적·관계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시기로 도움이 매우 필요한 시

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혼모의 임신·출산기는 축복과 기대 속에 보내기보다 많은 갈등과 어려움의 연속인 경우가 많다. 같은 여성의 출산과 아이의 출생이 혼인 여부에 따라 매우 다른 시기가 된다는 것이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임신과 출산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금, 모든 여성과 아동이 보다 안정적인 임신·출산기를 보낼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임신기 상담 지원 체계

미혼모는 일반 기혼여성과 비교할 때 임신을 인지한 순간부터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수많은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로 인해 본 조사에 참여한 미혼모의 70.0% 이상이 인공임신중절(낙태) 또는 입양을 생각(충복 응답)했던 적이 있고, 2016년 이전보다 그 이후에 출산한 경우 처음부터 직접 양육을 고려한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인터뷰를 통한 결과에서도 온전히 혼자 결정하거나 또는 주변의 반응은 부정적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는 부모의 판단에 의해 상황이 진행 또는 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임신·출산으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도 단절되는 모습을 확인했다.

따라서 일단 임신 사실을 인지하면, 임신 유지, 인공임신중절(낙태), 입양 등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의 고민을 진지하게 함께해 줄 수 있는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미혼모뿐 아니라 원하는 경우 부모나 가족도 함께 전문가 상담에 참여해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임신기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여러 상황에 대한 결과를 고민하면서 각 상황에 알맞게 이용 가능한 정책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해 주는 종합적인 국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2) 산전·산후 관리 시스템 및 교육 강화

임신 사실 인지와 산전·산후 진찰 등은 우리 사회의 임신부들에게 어느 정도 안정화된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기혼여성과 비교해 본 미혼모의 산전·산후 관리는 매우 취약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기혼여성보다 미혼모는 임신 사실을 늦게 지각하는 경우가 많고, 초진 시기가 늦으며, 산전 및 산후 진찰 수진율이 낮고, 산후우울감을 호소하는 비율은 높은 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다. 특히, 미성년 미혼모 중에는 임신 사실을 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의 조사에 참여한 미성년 미혼모 중 4분의 1은 16주 이후에 임신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 스스로 임신 사실을 늦게 알게 되면 아이와 엄마의 건강 확인이 늦어지게 되고, 어떠한 판단이나 고민을 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임신 사실을 너무 늦게 인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교육 등 학교에서 필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미성년 미혼모 경우의 취약성을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자신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잘 파악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또한 임신 사실을 인지하면 산전 진찰을 받아야 하는데, 2016년 이후 출산한 기혼여성의 산전 진찰횟수 평균 13.5회와 조사에 참여한 미혼모 평균 9.1회인 것만 비교해도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산전 진찰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가 기혼여성에서는 없었으나 미혼모 조사 결과에서는 약 10.0%가 산전 진찰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산전 진찰 경험 없음’의 제로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는 다시 임신 사실 인지 시기와의 연관될 것이다. 교육을 통해 인지 사실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며, 사각지대 없이 산전 진찰을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기부터 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을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진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혼모는 출산의 과정까지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더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산후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 산후조리원과 같은 시설 이용은 낮은 편으로 나타나 건강관리 측면에서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 신체뿐 아니라 심리적 우울감 등 미혼모에게는 산후에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또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위기 임신·출산 지원 체계

미혼모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지원이 더욱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안정되게 지낼 곳이 없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필요한 지원에서도 경제적인 지원 이외에 지낼 곳에 대한 지원, 산후조리 서비스, 긴급 상담 전화 등에 대한 욕구가 나타났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지낼 곳이 없다는 것은 다른 부족함보다 더욱 엄마와 아이에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일이 전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핫라인의 활성화와 함께 필요한 당일이라도 임시로 지낼 곳을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 또한 미혼모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닐 수 있으며, 여러 갈등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여성에 대한 상담과 임시 보호는 필수적인 것이다.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거나 대기 시간이 필요한 경우,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당장 여유가 없는 임신부나 엄마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현재, 시설이 응급시 보호체계의 역할을 일부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혼모만을 위한 시설이

따로 있는 것 보다, 모든 위기 임신·출산에 대한 상담, 지원, 임신 보호 및 일시 거주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을 옮기거나 시설을 찾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임신기를 맞이하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응급 임신이나 출산에 대한 대책이 지역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취약한 상황에 따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설 입소를 선택해야만 하는 현실이 미혼모 앞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하는 경우 지역사회에서 처음부터 정착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임신·출산기의 위기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말 그대로 위기 상황에서 조건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기출산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지 않지만 미혼 상태를 포함하여 각종 위기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맞이해야 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즉, 한부모가족뿐 아니라 미혼, (사실혼 포함) 배우자의 사망과 학대 등 각종 위기상황에서 임신·출산하는 모(母)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위기임신·출산지원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기능을 강화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포함하여 개별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지원제도에 미혼모가족이 배제되지 않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 돌봄·양육

돌봄과 양육의 어려움이 큰 시기는 미혼모가족이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이다.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돌봄이 필요하지만, 양육 초기이

면서 처음 자녀를 시설에 보내야 하거나, 엄마는 일을 하게 되는 등 여러 변화가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자녀가 3세 이상이 되면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 어려운 점은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과 자녀를 돌보고 챙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또한 돌봄 방식에 있어서 미취학 아동을 둔 미혼모가족은 본인이 직접 돌보는 비율이 높은 수준이고, 이 경우 미혼모가족의 특성상 엄마 혼자 아이를 계속해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시설을 이용하면서 돌봄 방식에 불만이 있는 이유는 개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이 가장 많았고, 본인이 직접 돌보는 방식을 택한 미혼모는 본인의 직접 돌봄 시간이 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돌봄 방식이 본인 일 경우뿐 아니라 자녀가 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오더라도 그 외 시간이 모두 엄마가 돌봐야 하는 시간으로 돌아오는 가족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의 직접 돌봄 시간에 대한 부담은 여전했다. 미취학 자녀에 대해 과반수가 시설에서 돌봄을 희망하며, 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본인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미혼모가족은 엄마 혼자 생계와 돌봄을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가족의 특성으로 미혼모가 돌봄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1) 영유아 자녀 양육 시기 성인 양육자가 1인임을 고려한 돌봄 지원

미혼모가족의 돌봄은 우리 사회 모든 가족과 비슷하게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를 마칠 때까지 쉽지 않은 일이다. 그중에서도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는 미혼모에게 양육 경험 초기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기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방식 중에서 본인 돌봄이 많은 시기이고, 미혼모가족에게 이 본인 돌봄의 의

미는 24시간 단독 돌봄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미혼모가 소진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서비스 이용에도 최대 한도가 있는 경우가 많아 미혼모의 소진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 미혼모의 우울 정도가 가장 높았는데, 전문가 상담 경험 비율은 가장 낮았다. 즉, 돌봄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또는 아이를 위한 활동 이외의 활동은 자제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돌봄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다 보니, 돌봄 비용을 절약하거나 가정수당을 선택하게 되어 다시 본인 돌봄이 증가하게 되는 일을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돌봄 비용 절약을 위한 본인 돌봄을 방지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거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 미혼모가 필요시 서비스 지원을 받거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단독 돌봄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응급 및 위탁 돌봄

아이가 아프거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갑자기 요청할 자원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으로 응급 시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가 미혼모가족에게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대기시간이 길거나 미리 신청을 해야 하는 서비스로 갑작스러운 상황에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긴급한 상황에 아이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미 펼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확장판이면서, 기본적으로 급한 일이 생긴 위킹맘을 지원하는 성격이다. 큰 틀에서 보면 이 정책 안에서 일하는 미혼모에게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급한 일이 생겨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거나, 즉

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 주변에 부족한 미혼모가족에게 서비스가 그 공백을 메꾸어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간 홀로 육아나 불안감, 스트레스, 우울로 인해 미혼모가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았는데, 당장의 생계와 육아로 엄마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기회는 많지 않아 보였다. 이러한 때에 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엄마의 스트레스 증가 및 우울 심화, 또는 아동학대 상황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엄마나 아이 모두 점점 더 악화된 상황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엄마가 치료를 받거나 상황이 회복되는 기간 동안 가정위탁 등과 연계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아이를 돌봐주어 엄마와 아이가 도움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학업 및 구직기간 동안의 돌봄

미성년 미혼모는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후에는 직업훈련을 받거나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 일단 일을 하게 되면 입소 우선순위 적용 등으로 돌봄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이 용이할 수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 단계에서는 어렵게 된다. 하지만 학업과 구직기간이 선행되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돌봄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4) 병원 돌봄

심층인터뷰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으로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미혼모가족에게는 위기 상황이 되기 일쑤였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으로의 방문만 이루어진다. 하지만 병원아동보호사가 전문적으로 간병과

돌봄을 제공하는 병원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긴급돌봄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집단이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일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미혼모에게 더욱 필요할 수 있지만, 결국 아이를 기르는 모든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 돌봄과 관련해 일상적으로 필요한 돌봄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추고 있지만, 긴급할 때 발생하는 돌봄공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긴급 돌봄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미혼모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에서부터 발전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선택지 다양화

돌봄 문제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집중되기는 하지만, 엄마가 일을 하게 되면 사실 이 문제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더욱 심각해지기도 한다. 엄마가 확실히 일을 많이 하는 시기인데, 학교에서 수업이 일찍 끝나는 시기인 자녀의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미혼모의 돌봄과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이 많이 나타났다. 초등학생 자녀 양육에서 힘든 점 중 방과후 아동을 돌봐줄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에 대해 자녀가 저학년인 경우에 비율이 더 높았다. 돌봄을 제공하더라도 대부분 저녁시간까지 돌봐주지는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취학기이지만 아직 어린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를 택하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미혼모가족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도움도 많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이용률은 낮았지만,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늦게까지도 아이가 머무를 수 있어 만족도가 더 높아 보였다. 현재 다함께 돌봄 등 더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가 종류가 다양해진 만큼 그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선택 또한 다양화되는 방안을 마련해 자녀가 초등학생 이상이 되면 원하는 경우 엄마가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6) 초등학생 이상 학습지원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양육에 힘든 점 중 학습관리에 대한 비율이 높아진다. 그리고 4학년 이상의 경우 희망하는 돌봄 방식으로 사설교육기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는 4학년 이상의 경우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공공인프라, 사설교육기관, 본인의 돌봄이 모두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혼여성의 자녀와 비교해도 사설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초등학생 고학년에 대해 사설교육기관 희망비율이 높지만 이용비율이 낮다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이유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설교육기관 이용이 힘든 아동에 대한 수준있는 학습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미혼모가족의 아동뿐 아니라 학습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경제 상황에 따른 차별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3. 경제활동 및 소득

이 연구 결과, 자녀가 3세 미만인 미혼모의 경우는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지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자녀가 돌봄시설을 가거나 취학을 하는 시기에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시

작한다고 해서 바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거나 자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단지, 자녀 돌봄 시간이 줄어드는 시기가 도래하면 자립을 위해 애쓰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때 지원을 받고 있었다면, 받고 있던 지원과 발생하는 소득 사이에서 딜레마가 가장 크게 작동하게 된다.

이 연구 결과 상당수의 미혼모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호소하였다. 본 조사 표본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거나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와 수급자인 경우 경제활동 비율이 낮았고, 3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미혼모의 70%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 않는 미혼모 대다수가 취업 의향을 나타내어, 집중 양육 시기를 제외하고 적극적 취업 지원을 통해 자립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혼모 가운데 직업훈련(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취업은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많았다. 물론 양육부담이 가장 큰 이유이긴 했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우려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따라서 미혼모의 근로유인을 높이면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종자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산형성지원제도에 미혼모를 적극 포함하거나, 미혼모 대상 신규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영유아 자녀 양육기의 생활 지원

미혼모가족은 자녀가 3세 미만으로 어릴 때에는 거의 일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이 시기는 수입 또한 너무 낮아 안정된 생활 자체가 힘든 상황에 있는 미혼모가족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린 자녀가 있어 일을 할 수도 없고, 일을 안 하면 소득이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자

녀가 너무 어릴 때에는 미혼모에게 일을 하도록 권장하는 대신 양육에 집중하고 단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돌봄과 함께 생활 지원이 필요해 보였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방식을 바꾸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기본수당과 같은 개념으로 두어 자녀의 일정 연령까지(3세 미만)는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지원 급여 및 서비스의 단계적인 일몰 운영

미혼모가족은 국가의 생활지원 대상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 그리고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자립을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다가 일을 하게 되면서 일정 소득이 발생해 갑자기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다. 이는 미혼모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가구인 만큼 한순간에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단계적 탈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기준을 차별해 설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에게는 추가적인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현금급여가 일시에 중단 또는 삭감되는 방식을 지양하고,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자립 준비를 도모하고 박탈감을 희석시키는 방안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급여를 일시에 중단 또는 삭감하는 방식은 미혼모의 근로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 3세 미만 영

유아를 둔 미혼모의 근로시간이 가장 적었는데, 이 기간에는 근로보다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고 이후 급여는 줄여 나가면서 자립 준비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연속적·단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수당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그 외 교육비나 기타 요금 감면 혜택은 유지되는 형식으로서의 개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미혼모의 연령뿐 아니라 시설 입소자와 재가 입소자의 서비스도 ‘all or nothing’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시설 입소자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상당수는 퇴소 시 모두 중단되기 때문에 입소 기간을 연장하는 요인이 되므로 자녀의 발달 단계와 자립 정도를 고려하여 시설을 퇴소하더라도 일부 서비스를 유지하다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시설거주 기간에 일자리 확보와 주거 마련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갖추어 퇴소 후 실질적인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혼모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혼자의 생계나 성인의 생계로 인한 어려움보다 어린 아동 양육이라는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서 오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차별 없는 성장을 위해 아동 양육에 대한 보편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

3) 자산형성 지원 확대를 통한 근로유인 강화

미혼모가족은 자립 자체가 삶의 큰 목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녀가 어릴 때에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자녀가 성장해 일을 하게 되더라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드는 주거 마련 등에 어

려움이 따른다. 일을 해도 저축할 여유가 없거나 빚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경우 근로를 해도 희망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 여유 자금이 조금씩이라도 발생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일에 대한 보람과 삶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를 근거로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 이외에도 근로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 등을 운용 중이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미만의 아동과 수급자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도 있다. 이에 미혼모의 근로동기를 강화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자녀 교육비 등 생활비,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미혼모의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형성 지원제도에서 미혼모 혹은 그 자녀의 참여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즉, 2년 또는 3년 등 일정 기간 동안만 중위소득 기준 일정 수준 이하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면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미혼모’에 특화하여 이들의 경제활동과 소득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다만 미혼모가족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 비양육 부모의 책임과 역할 강화 및 양육비 대지급제 적극 검토

미혼모 자녀의 비양육 부모인 아이 아빠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조사 참여 미혼모가족 중 약 10.0%였다.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2010년 미혼모 대상 조사에서 양육비를 받는 미혼모가 약 5%로 나타났던

결과(김혜영 외, 2010)와 비교하면 양육비를 받는 비율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받고 있는 비율은 낮다. 즉, 미혼모가족 자녀의 양육은 여성 혼자 책임지는 비율이 매우 높은 현실로 비양육 부모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재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양육비 이행을 위해서는 비양육자의 정보를 우선 알아야 한다. 이혼 한부모와 달리 미혼모는 아이 아빠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이 정보를 알아내고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양육비는 아이의 성장 과정에 필수적인 것으로 필요한 시기에 받아야 하는데 양육비 이행 확보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양육비 이행이 확보되더라도 현재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비양육자의 생계비가 월 185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에 따라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받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 된다. 이 생계비 기준 185만 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저생계비를 감안한 기준인데, 이 연구의 조사에 참여한 미혼모가족의 월평균 수입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조차 2019년 3월에 개정되어 4월부터 시행된 상황이고 이전에는 월 150만 원이 기준이었다.

이렇게 양육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의 경제적 어려움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우선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후에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대지급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출생아 수 감소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태어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측면에서 양육비 대지급제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학업 및 자립 준비

본 조사 표본에서 미성년 미혼모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다니던 학교를 중단(자퇴)한 경험은 74.2%에 달하였다. 이 가운데 임신 5주 이내와 21주 이후에 절반 이상이 학교를 탈락하였는데 이들의 학력이 주로 초졸 또는 중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중등학력을 갖추지 못한 비숙련 상태의 근로자가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기는 결코 쉽지 않으므로,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원하지 않는 학업 중단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18세 미만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아동이 아동을 양육하는 상황’이므로 이들에게 양육자의 역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력 취득 등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이행하고 바람직한 성인기로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병행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마련하고 촘촘한 양육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립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 미성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 및 성인기 이행 지원

본 조사 표본에서 임신·출산으로 학교를 이탈한 미성년 미혼모의 상당수가 원적학교로 복귀를 희망하였고,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휴학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10명 중 3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듯 최근 일부 지자체는 ‘미혼모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임신·출산을 이유로 학교 이탈을 예방하고,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학업을 이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성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노력은 청소년기 발달과업 이행을

지원할 뿐 아니라 이후의 자립 준비 등 성인기 이행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육부가 운영 중인 위탁 교육기관에 대한 미혼모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광역시·도별로 설치·운영 하기보다 권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절해 보인다. 소규모 기관의 경우 생활공간이 ‘소속사’라는 분명한 장점이 있는 반면, 교사 파견 등 교육활동지원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혼모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생활한 후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2차 시설로 이동하기 때문에 원거주지와의 접근성보다 양질의 특화된 교육지원을 집중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2) 20대 미혼모(부)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 대상 편입

24세 이하 미성년 미혼모는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 ‘청소년 한부모’에 해당하므로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조사 표본에서 일부 확인되었듯이 갓 성인기에 진입한 20대 미혼모의 경우 미성년 미혼모 못지않게 지원제도의 인지율과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시설에서 임신·출산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20대 미혼모는 본 조사 표본의 성인 미혼모 가운데 임신 중 낙태, 출산 후 입양을 고려한 비율이 가장 높고 처음부터 양육을 고려한 비율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고려에도 결국 아이를 낳아서 직접 양육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최근 사회·경제적으로 자립 기반이 취약한 20대 청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가 확장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현행 ‘청소년 한부모’를 24세 이하가 아닌 29세 이하 즉, 20대 청년층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세대가 취직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서 미혼모는 홀로 책임지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그 시기가 20대라고 생각한다면 만 25세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현재 연령 기준이 낮다고 판단된다. 20대 초반과 상황은 마찬가지로 20대 중반에 지원 금액이 감소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층이라는 차원에서 현재보다 연령 기준을 높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자립기반 마련 시간을 확보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3)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확대 및 직업 훈련 시 돌봄 지원

본 조사 표본에서 직업훈련(교육)에 참여한 미혼모의 상당수가 2개 이상의 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반면, 이를 기반으로 취업 등 근로활동으로 연결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직업훈련을 받은 직종의 급여 등 처우가 기대에 미치지 않거나 직업훈련 이수 후 구직활동을 하고 싶어도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다는 응답도 많았다. 이에 미혼모가 참여 가능한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직업 훈련 참여 시나 구직활동 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일정 부분 할인해 주는 등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현실적으로 직업훈련 과정 이수와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자신에게 적합한 훈련 분야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진로적성검사 등 본인의 인·적성과 특기를 고려하여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주거

본 조사 표본에서 미혼모가족의 주거 형태는 우리나라 기혼여성과 큰 차이를 보였다. 즉, 전체 응답자 가운데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거주 비율이 절반을 넘었고, 아파트 거주 비율은 기혼여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절반 수준이었다. 특히, 재가 미혼모 10명 중 3명 이상이 집의 구조나 건물 낙후 등 시설적인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주거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가족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였는데, 미혼모가족은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 제공’과 ‘지원받는 주거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주거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아 주거 지원 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1) 아동이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미혼모가족에게 주거비는 생활비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혼모가 시설에 입소하고, 퇴소를 망설이게 되는 핵심 요인도 안정적인 거주지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혼모가 낙후되고 취약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거주할 경우 아동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미혼모 가구를 주거취약계층에 준하여 공공임대주택 지원, 주거환경개선 시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기반으로 공용 아이돌봄시설 설치 등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거나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주거지원 및 자립지원정책 간의 연계가 요구된다. 이 경우 미혼모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써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2) 미혼모의 시설 이용 특례 범위 확대

본 조사 표본에서 미성년 및 20대 미혼모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시설에서 출산을 맞이한 비율이 높았다. 즉, 복지시설이 취약·위기 상황에 있는 미혼모들에게 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의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동법 제5조 제2항), 이를 ‘미혼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거나 양육하고 있지 않은 미혼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즉, 기혼인 적이 있었으나 현재 혼인관계가 없거나 미혼인 경우 등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할 경우 안전한 분만과 회복지원, 일시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위기 상황이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일을 하는 중 임신으로 인해 1차 시설에 입소하려 해도 최근 발생된 수입이나 일자리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아이의 출생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첫째 아이와 동반 입소가 안 되는 등 다양한 조건으로 입소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응급 시 시설 이용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사업지침에서 이미 이혼 또는 미혼 임신부의 시설 입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령 개정으로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 미혼모의 임신·출산·회복지원, 일시적 주거지원과 출산 직후 자녀의 양육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의 명칭과 기능, 역할을 재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긴급 일시보호 공간

임신 및 출산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 외에 지낼 곳이 없어 힘들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 시 거주 공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임신기가 출산 초기뿐 아니라 일자리 상황 등으로 인해 갑자기 생활이 불안정해지면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 환경을 마련하거나 유지하는 일이 어려워지기 쉽다. 따라서 긴급·응급 상황에 미혼모가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보호 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6. 건강

미혼모들은 연령이 많을수록, 수급자인 경우, 재가 미혼모인 경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본 조사 표본에서 상당수의 미혼모가 매우 높은 수준의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모성보건의 측면뿐 아니라 신체·정신건강 전반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심리·정서·정신건강 수단을 다양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1) 건강관리지원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산후진찰률이 100%에 달하는 반면, 본 조사에 참여한 미혼모의 산후수진율은 62.9%에 불과하였다. 또한, 미혼모 10명 중 8명이 산후우울감을 경험하고 우울 정도가 매우 심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도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특히,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지

원(1순위)'으로 진료비 지원 요구가 가장 많았다.

다행히 2018년 12월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동법 제17조의 6),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건강관리 지원제도를 면밀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즉, 산전·분만·산후관리뿐 아니라 우울과 스트레스 관리 등 정신건강 상담·심리치료, 질병 예방 목적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미혼모 특수치료비' 항목으로 시설 입소 미혼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시 자녀를 포함하도록 한다. 특히,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경우 '보장시설'에 준하여 미혼모와 자녀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되, 시설 퇴소 후 모든 지원이 일시에 중단되는 방식을 지양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건강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령(시행규칙)과 조례에서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 심리·정서·정신건강 지원 수단 다각화

본 조사에 참여한 미혼모 10명 중 1명 이상이 병원에 동행할 사람이 없거나 자신의 상황과 고민을 말할 상대가 없어서 매우 힘들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별로 고민이 없다는 응답은 매우 낮은 데(0.6%) 비해, 의지하는 사람이나 도움 청할 사람, 도움 받은 기관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모두 15.0~20.0% 내외로 나타나 도움이 필요한데 못 받는 사각지대를 더욱 꼼꼼히 채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2-1) 자조집단 및 당사자 상담가 활동 지원

이에 상담과 치료지원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자조집단(self-help group)

을 조직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원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면접 조사에 참여한 미혼모들 가운데에는 같은 처지에 있는 미혼모들과의 만남이 심리·정서 안정과 다양한 정보 공유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도 만남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가장 많이 의지하는 사람 중 가족, 친구를 제외하고는 같은 미혼모 당사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도움 받은 기관에 있어서도 구청·주민센터나 미혼모자 시설 등 기관을 제외하고는 미혼모단체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혼모 당사자는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에서 오는 공감대 형성이 바탕을 이루기 때문에 필요한 것에 대한 조언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의견이 인터뷰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조건을 활용해 미혼모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하거나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 등 당사자가 상담가가 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상담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미혼모 당사자는 안정된 일자리를 갖게 되고, 미혼모는 심리·정서적으로 더욱 효과적인 상담을 받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사자 단체 및 자조집단의 활동은 미혼모가족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를 통해 지역사회 미혼모가족이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 미혼모가족의 특성상 외부의 접근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경향으로 미혼모 당사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2) 다양한 상담 서비스 선택권 제공

한편, 시설 입소자보다 재가 미혼모가 우울,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상태 등 건강 관련 지표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다만 자녀의 연령이나 근로

활동 여부, 수급자 여부 등 개인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미혼모를 하나의 정책대상으로 간주하여 획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보다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정신 건강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특정 시설과 기관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혼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하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지원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7. 사회적 인식

이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미혼모가족에게 여전히 높은 수준의 편견과 낙인, 차별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혼모·부가족은 다문화가족 다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가족 유형임이 확인되었다. 미혼모가족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구성되는 한부모가족과 가족 구조는 동일할 수 있으나 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인식은 매우 다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어떤 가족 형태보다 심리적 소외감 경험이 크다는 선행연구(김영신, 2011)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미혼인 여성 또는 남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을 대체로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에서 용인되는 행동인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특히, 성인 여성에 비해 미성년 청소년이 임신하여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 많았고 고학력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꾸준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민 대다수가 미혼모가족에 대한 지원에 찬성한 반면,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은 전반적으로 녹록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미혼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주거 지원이 가장 필요할 것이라 응답하여 미혼모의 욕구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혼모가족이 다른 가족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비율이 70.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은 미혼모가족 대상 경제적 지원과 양육 지원, 주거 지원 제도 확대 등 미혼모가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미혼모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와 이해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일반 국민 개개인의 응답에서 나타나는 포용적인 태도뿐 아니라, 국민이 생각하는 미혼모를 둘러싼 사회 환경이나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필요한 지원 등에서 미혼모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사회적 이해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나 미혼모가족은 여전히 차별과 편견에 스스로 맞서며 지내는 모습도 발견되었다. 미혼모가족이 경험하는 차별적 인식은 물론 다수의 미혼모가족이 직접 경험하는 타인의 언행이나 태도는 아직 변화할 것이 많이 남아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미혼모가족에 대해서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세심한 배려가 기본이 되는 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1)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모니터링 및 상담부스 마련

공공기관 종사자의 역할은 미혼모가족이 사회를 이해하는 척도로도 매우 중요해 보인다. 용기를 가지고 지원을 받으려 처음 찾는 곳에서의 경험은 다음 행동과 단계로의 이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공공기관에서 업무 처리 시 미혼모에게 사생활이나 가족 상황이 노출되는 이야기를 큰소리로 말하는 등의 문제는 심층 인터뷰 사례나 뉴스기사(남형도, 2017. 12. 6.)에서도 쉽게 마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들은 미혼모가 지원을 찾

아가는 과정에 있어 매우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각 지방 공공기관에 전달한 상태이다. 이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혼모가족이 가장 많이 도움을 받는 곳 중 하나도 바로 주민센터나 구청이었다. 많은 도움을 받는 만큼 미혼모가족과의 접촉이 많은 곳이기도 할 것이다. 도움을 주는 가운데 차별적 언어나 행동으로 그 도움이 미혼모가족이 편견이나 차별을 경험하는 과정이 되어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혼모뿐 아니라 아이를 안고 있는 경우나 공개된 공간에서 필요한 업무처리가 불편한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공공기관 한쪽에 간이 부스(booth)가 있어서 행정처리나 상담이 길어지는 경우, 또는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몸이 불편하거나 아이를 안고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형 창구가 아닌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행정기관 이용자들의 신체적·심리적 불편함을 덜어 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보육·교육 분야 종사자 인식개선 및 교육과정 점검

미혼모는 본인이 경험하는 차별보다 아이가 경험할 차별에 더욱 민감했다. 빠르게는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서부터 차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며, 자녀가 초등학교에 가면 그 고민이 분명해졌다. 여전히 결혼, 양부모 가족 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아이를 대하는 교사의 사소한 언행과 태도에 쉽게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물론 과거에 비해 개선된 점도 있었지만, 가족 그림 그리기나 아빠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증가로 인해 미혼모가족 아이들은 자신의 가족 상황이 친구들과는 다른 것을 더욱 확실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거나 이 시간을 피하는 방식으로 지내는 경우도 많았다.

아동기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어린 시절부터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습득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 포용적인 사고를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보육 시설 프로그램 및 학교 교과과정에서 가족의 다양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을 정상가족으로 그리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의 감수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전히 가족은 남녀의 결혼을 통해 형성되고 가족 안에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아동 및 학생을 대하는 교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상 차별 금지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낙인은 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경우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보육·교육에 있어 차별 금지,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한부모가족지원법」에도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마련하였다(동법 제17조 제7항). 다만 차별 금지를 위한 교육지원 대책 마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일절 위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여 보육·교육상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8. 기타: 정책 정보 홍보 방안 다양화

최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확대되면서 임신·출산 관련 지원 제도가 상당부분 개선된 반면, 여전히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혼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제도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지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에서도 지원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더욱 정보의 측면에서 취약해 보였다. 본인 연령대에서 관심사가 아닌 부분에 대한 정보 접근 차원에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고, 정책이라는 것 자체를 직접적으로 찾고 활용해 본 경험 부족에서 온 결과일 수도 있다. 또는 정책 홍보가 청소년들이 정보를 취하는 방식으로의 접근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

미혼모 출산지원제도 각각의 인지율과 이용률의 편차를 보더라도 미성년 미혼모 및 20대 미혼모의 경우 다른 연령대의 성인 미혼모보다 지원제도의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출산지원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도움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인지율을 높이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청소년,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정보 접근성이 높은 반면, 면접조사에서도 일부 확인된 바와 같이 인적 네트워크가 취약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스스로 파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의 설명이 장황하거나 지문이 긴 경우 제대로 읽지 않거나 이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 시설에 입소한 이후 시설 종사자의 설명을 듣고서야 관련 제도를 숙지했다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청소년, 청년을 포함하여 전 연령층에서 범용하는 인터넷 포털을 활용한 카드뉴스 제작, 유튜브(YouTube)용 짧은 홍보 영상 제작, 애플리케이션 등 홍보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미혼모 당사자의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이러한 정책 홍보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 관련 제도에 관한 정보는 보건소와 병·의원을 통해 취득했다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병·의원 종사자의 안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신청 과정에서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건소, 병·의원, 시설 등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미혼모의 연령과 소득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문자로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및 상담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미혼모가족임이 드러나게 되면 편견이나 차별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혼모가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익명성이 중요해 보인다. 정책 지원을 받는 과정에 있어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정책 홍보에 그 사실을 포함해 정책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 경기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경기도조례 제4737호. 2014. 4. 4 제정.
- 교육부. (2019).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 안내**.
- 국토교통부. (2019). **2019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 권정미. (2016).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삶의 경험: 질적해석적메타통합 적용. **한국 사회복지질적연구**, 10(2), 77-103.
- 김영미, 이화영. (2018). 양육 청소년 미혼모의 적응유연성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편견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7), 153-164.
- 김영신. (2011). 생애사적 접근을 통한 비혼모의 출산과 양육경험. **한국사회복지 질적 연구**, 5(1), 27-58.
- 김유경, 조애저, 노충래. (2006). **미혼모의 출산·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희, 김향미. (2018). 청소년미혼모의 사회적 인정과 법정책. **사회복지법제연구**, 9(3), 109-132.
- 김지연, 황여정, 이준일, 방은령, 강현철, 곽종민, 박민영. (2013). **청소년 한부모 가족 종합대책 연구II: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혜. (2013). 미혼모의 현황과 정책 과제. **지역사회**, 69, 100-106.
- 김지혜, 김희주. (2018). 여성 한부모의 자립 경험과 강점 자원에 대한 연구: 사별, 이혼, 미혼모 가족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9(4), 159-193.
- 김지혜, 조성희. (2016). 양육미혼모의 자립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2), 149-180.
- 김혜순, 이명희. (2012).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상태불안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1), 225-235.

- 김혜영, 안상수, 이미정, 선보영. (2009). **미혼부모와 그들 자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서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김혜영. (2010). 십대 청소년 미혼모의 출산 및 양육경험: 주체와 타자의 경계에 서. **한국여성학**, 26(4), 101-131.
- 김혜영, 이미정, 이택면, 김은지 선보영, 장연진, 박은정, 이재경. (2010).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 (2013).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차별의 기제와 특징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6(1), 7-41.
- 김희주, 권종희, 최형숙. (2012). 양육미혼모들의 차별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6, 121-155.
- 김희주, 성경현. (2018). 미혼모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원가족 수용 차이와 지역 사적 배경. **지방사와 지방문화**, 21(2), 283-313.
- 김희주, 조성희, 김지혜. (2017). 미혼모 차별 경험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6, 169-19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16367호. 2019. 4. 23. 일부개정.
- 남미애. (2013).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우울과 전반적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44, 91-125.
- 남형도. (2017. 12. 6.). “미혼모라고요?” 다 들리게 소리친 동주민센터 공무원.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20610561341471> 에서 2019. 11. 1. 인출.
- 노경란, 김숙이. (2018). 10대 미혼모 인권 존중을 위한 교육지원 실태 국가 간 비교 연구: 미국, 영국,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11(1), 99-123.
-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 15204호. 2018. 6. 13. 일부개정.
- 대한민국정부. (2015).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9603호, 2019.4.1. 일부개정.
- 박현미, 최한나. (2016). 청소년미혼모가 지각하는 학업복귀의 장애요인. **청소년학연구**, 23(4), 1-24.
- 박혜경, 고문희. (2017). 시설거주 청소년 미혼모의 엄마 되어가는 과정의 경험.

대한질적연구학회지, 2, 1-22.

백혜정, 김지연, 김혜영, 방은령. (20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1: 총
팔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변수정, 박종서, 오신희, 김혜영. (2017).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방안**.
세종: 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19a). **2019 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9b). **201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9c). **2019 아동분야사업안내(1)**.

보건복지부. (2019d).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9e).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9f).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9).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여성 어린이 특화)**.

성정현, 김지혜, 신옥주. (2015). 미혼모의 임신출산위기 경험과 위기해소를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방안.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2)**, 277-309.

성정현, 김희주, 이미정, 박영미. (2016). 미혼모들의 경험을 통해 본 공공서비스
전문가들의 미혼모들에 대한 인식: 임신과 출산, 보육 과정에서 경험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8)**, 404-418.

성정현, 김희주, 김지혜, 장명선, 박영미. (2017). **한부모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 서울: 여성가족부.

손승영. (2017). 양육미혼모의 당사자조직 참여 경험과 인식 변화. **여성학연구,
27(1)**, 35-66.

신승렬, 이승희. (2016). 모의 양육효능감과 놀이신념 및 모-자녀 상호작용행동
의 관계: 양육미혼모 가적과 양부모 가정을 중심으로. **재활심리연구,
23(6)**, 547-567.

신필식. (2017). 1970년대 신문기사를 통해 본 한국 미혼모 보호사업과 미혼모의
사회적 재현 변화 연구: 경제적 모성에서 배제된 여성으로. **한국여성학,
33(3)**, 323-357.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6085호. 2019. 6. 25.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2016).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여성가족부. (2019a). **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 (2019b). **2019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2018).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안내**.
- 윤정혜. (2014). 원가족과 미혼모자의 합가 경험과 의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259-291.
- 이미정. (2011). 미혼모의 자녀양육 의지와 현황. **이화젠더법학**, 2(2), 79-107.
- 이미정, 김혜영, 선보영. (2010). **양육미혼모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서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미정. (2015). 양육미혼모의 자립과 양육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 양육모자립 세미나 & 해피맘 박람회. **동방사회복지회**, 1(2), 9-25.
- 이미정, 정지연, 구미영, 정수연, 김희주, 박종석. (2018). **임신기 및 출산 후 미혼모 지원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운정. (2017).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스트레스가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 아동양육비 및 돌봄 지원 한부모가족 정책의 조절효과 검증.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5(4), 363-383.
- 이은주, 최규련. (2014). 시설미혼모의 양육/입양 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5(2), 247-260.
- 임혜영, 이혁구. (2013). 미혼모의 입양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5(3), 53-78.
-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용우. (2017). 한국사회 미혼모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사회정책**, 24(1), 97-115.
- 이중삼. (2018. 8. 23.). 미혼모, 한 달 92만 원 벌어 양육비로 66만 원 쓴다. **베이비뉴스**.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sView.html?dxno>

- =67773 에서 2019. 4. 1. 인출.
- 인구보건복지협회. (2018. 8. 22.).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조사 발표 토론회**.
- 장상천. (2010). **한국의 양육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부모 가족 복지사업
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울.
- 정해숙, 최윤정, 최지은. (2014).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황정임, 김은지, 남원석. (2013).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도시지역의 비혼1인가구 및 저소득 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통계청. (2019a). “2019. 8. 29. 보도자료 첨부자료”, 24쪽.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7115. (검색일 2019. 10. 15.)
- 통계청. (2019b). “연령별 미혼모, 미혼부” 인구 총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I1601&conn_path=I2. (검색일 2019. 10. 15.)
- 통계청. (2019c). “ 시도 법적 혼인상태별 출생 ” 인구 동향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6&conn_path=I2. (검색일 2019. 10. 15.)
-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 15989호. 2019.6.19. 일부개정.
- 홍봉선, 남미애. (2011).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자녀양육과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방안. **청소년학연구**, 18(9), 19-52.
- 홍봉선. (2013). 양육경험이 있는 청소년미혼모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우울, 불안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2), 43-72.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support/list4do>) (정책자료>분야별정책>취업지원>취업성공패키지)에서 2019. 6. 9. 인출.

대한미국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1.predident.go.kr/petitions/148613>)
(국민청원)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에서 2019.

5. 3.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1&PAGE=1&topTitle=긴급복지지원) (정책>복지>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에서 2019. 9. 16. 인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에서 2019.
8. 26. 인출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buseo.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94&bbsBean.bbsSeq=7360&ctgCd=209>) (민주시민생활교육과>부서업무방>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1))에서 2019. 9. 16. 인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sejong.go.kr/cms/mntsKeywordViewer.do?#pos1>) (제43회 제2차 본회의회의록)에서 2019. 6. 12. 인출.

아동수당홈페이지 (ihappy.or.kr)에서 2019. 6. 8. 인출.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pinacho1/>)에서 2019.
9. 16. 인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a (http://www.mogef.go.kr/sf/fam/sf_fam_f002.do)
(정책>가족>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서 2019. 9. 16. 인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b (http://www.mogef.go.kr/sf/fam/sf_fam_f005.do)
(정책>가족>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2019. 9. 16. 인출.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irgd/introduce.do?MnLv1=3&MnLv2=1>) (예방접종 길라잡이>어린이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에서 2019. 9. 2. 인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https://www.easylaw.go.kr>)에서 2019. 6. 8.
인출.

〈데이터〉

- 이소영 외. (2018). 2018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기혼여성).
원자료[데이터파일]. 보건복지데이터포털 <http://hawelsis.kihasa.re.kr/index.jsp>에서 2019. 8. 20. 인출.
- 행정안전부. (2019). 주민등록 인구통계[데이터파일]. <http://27.101.213.4/>에서
2019. 8. 5. 인출.

부 록 <<

부록1.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 연구기관으로 현재 미혼모가족이 경험하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태 등을 파악하여 관련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 미혼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요시간은 약 30분 내외로 예상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 미혼모가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통계법』제33조, 제34조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확실하게 보장되며, 통계 산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가 정부정책 수립과 추진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 참여를 거절할 수 있고, 응답 도중에 설문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참여 및 거절, 참여 중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 조사의 자발적 참여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흥식

연구책임자 : 인구정책연구실 변수정 연구위원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응답자 일반 사항, 출산 및 양육 경험, 주거 관련 사항, 경제 관련 사항, 개인 및 가족 관련 사항, 정책욕구

[개인정보 수집 목적]

미혼모가족의 출산과 양육 관련 경험,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 및 보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상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들을 이해하였고,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의 조사 대상으로 참여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본 조사는 미혼모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이신 분만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솔직한 답변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2019년 월 일 조사 대상자 : _____

Screening Questions				
SQ1-1)	[QUOTA] 귀하는 미혼인 상태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조사 중단			
SQ1-2)	[QUOTA] 그 자녀를 현재 배우자 없이 양육하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 조사 중단			
SQ2)	[QUOTA] 귀하가 현재 함께 생활하며 기르는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총 _____ 명 → 0이면 조사 중단			
SQ3)	[QUOTA] 귀하의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년 _____ 월 (만 _____ 세) → 만 15세 미만이면 조사 중단			
SQ4)	[QUOTA] 귀하가 현재 기르는 자녀의 성별과 출생연도를 적어주십시오.			
	구분	성별	출생연도	자녀 취학 상태
	첫째아	1. 여자 2. 남자	_____ 년 _____ 월	1. 미취학아동 2. 초등학생 3. 중학생 4. 고등학생 5. 기타(대학생 포함)
	둘째아	1. 여자 2. 남자	_____ 년 _____ 월	1. 미취학아동 2. 초등학생 3. 중학생 4. 고등학생 5. 기타(대학생 포함)
	셋째아	1. 여자 2. 남자	_____ 년 _____ 월	1. 미취학아동 2. 초등학생 3. 중학생 4. 고등학생 5. 기타(대학생 포함)
	...			

1. 주거 관련 사항

◆ 다음은 주거와 관련된 사항을 묻는 문항입니다.

A1) 귀하는 현재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1. 나의 집(자가, 전세, 월세 등 관계없이)

2.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 등 가족 및 친인척 집

3. 친구 또는 지인 집

4. 모자관련시설(미혼모자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등)

5. 기타(적을 것: _____)

A2)로 갈 것

★A1-1) [A1의 1 응답자만]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집의 유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1. 아파트

2. 단독주택

3.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4. 고시원 및 기숙사

5. 기타(적을 것: _____)

★A1-2) [A1의 1 응답자만]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집의 소유 형태는 무엇이며, 주택의 시가 혹은 임차비용은 얼마입니까?

소유 형태	시가 혹은 임차비용	
1) 자가 ⇒	시가 금액	()만원
2) 전세(월세 없음)(정부지원 전세 포함) ⇒	전세보증금	지원보증금 ()만원 자부담 ()만원
3)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	보증금	()만원
	월세	월 ()만원
4) 보증금 없는 월세 ⇒	월세	월 ()만원
5) 사글세, 년세, 일세 등 ⇒	월세(한 달분)	월 ()만원
6) 무상		

496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A2) 귀하는 현재 살고 계신 곳(주거시설, 위치, 환경 등)에 만족하십니까?

-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별로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3. 조금 만족하는 편이다

4. 매우 만족한다

A2-1) [A2의 1, 2 응답자만]

귀하가 현재 사는 곳에 만족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1. 사는 집(시설)의 위치, 교통 때문에 불편함
2. 사는 집(시설)의 구조나 건물 낙후 등 시설적인 문제 때문에 불편함
3. (자녀 이외의) 같이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불편함
4. 주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불편함
5. 이웃과 주변 사람의 시선이 불편함
6. 기타(적을 것: _____)

A3) 정부의 주거관련 지원에 대한 인지도부, 이용경험, 도움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	A3-1) 인지 여부		A3-2) 이용 경험 [A3-1의 2 응답자만]		A3-3) 도움 정도 [A3-2의 2 응답자만]				
	모름	알고 있음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됨	매우 도움됨
1) 임대주택 지원 (전세임대, 장기전세 등)	1	2	1	2	1	2	3	4	5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	1	2	1	2	1	2	3	4	5
3)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1	2	1	2	1	2	3	4	5
4) 모자관련시설 입소 (보호시설, 자립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1	2	1	2	1	2	3	4	5

A4) 귀하는 정부의 주거 지원 중 어떠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미혼모가족이 오래 지낼 수 있는 시설 지원
2.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 제공
3. 저금리로 주거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지원
4. 지원 받는 주거환경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일반주택과 구분되지 않는 주거 지원
5. 기타(적을 것: _____)

2. 경제 관련 사항

◆ 다음은 경제와 관련된 사항을 묻는 문항입니다.

〈B. 경제활동 관련 사항〉

B1) 귀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1. 예 2. 아니오 → B2-1)로 갈 것

일하는 사람만 응답

〈B1-1~B1-3 응답 가이드〉

* 일자리가 한 개 이상인 경우 주 수입원이 되는 일자리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B1-1)

[B1의 1 응답자만]

귀하의 근로시간 형태는 무엇입니까?

〈응답 가이드〉

* **시간제 근로:**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전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1. 시간제 근로(파트타임/아르바이트) → B1-1-1)로 갈 것

2. 전일제 근로 → B1-2)로 갈 것

B1-1-1)

[B1-1의 1 응답자만]

귀하가 현재 전일제 근로를 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집안일이 많아서 2. 육아 또는 자녀교육 때문에
3. 건강상 이유 때문에 4. 여가를 즐기 위해
5. 학업 병행을 위해 6. 다른 일자리와 병행하기 위해
7. 직업훈련을 병행하기 위해
8. 전일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사업부진, 조업중단, 노사분규 등 포함)
9. 기타(적을 것: _____)

498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B1-2) [B1의 1 응답자만]

귀하가 하시는 일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응답 가이드〉

- * **상용 근로자:**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 **임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 **일용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는 경우
- * **자영업자:**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 **무급가족 종사자:**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 | | | |
|-----------|-------------|-----------|
| 1. 상용 근로자 | 2. 임시 근로자 | 3. 일용 근로자 |
| 4. 자영업자 | 5. 무급가족 종사자 | |

B1-3) [B1의 1 응답자만]

귀하는 어떠한 분야의 일을 하십니까?

〈응답 가이드〉

- * **관리자:** 행정 및 경영 관리자 등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교사(보조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위생사, 안마사, 부동산중개인, 비서 등
- * **사무종사자:** 일반사무원, 회계·급여·통계자료집계·조사사무원, 판매·분양·임대사무원, 마케팅사무원, 안내·접수 사무원 등
- * **서비스 종사자:** 미용사, 이용사, 피부미용사, 간병인, 예식종사원, 조리사 등
- * **판매 종사자:** 영업직, 매장 판매직, 방문 판매원, 텔레마케터 등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 가공직(제빵원, 제과원, 김치 및 반찬제조 종사원), 의복(재봉사 등), 가구, 기계, 전기, 건설 관련 기능직, 정비원 등
-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식품, 섬유, 화학, 금속 및 비금속, 기계, 전기 관련 기계 조작직, 택시 버스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등
- * **단순노무 종사자:** 우편물 집배원, 택배원, 음식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가사 도우미, 주방 보조원, 주유원, 세탁원, 기계 및 가스 점검원 등

- | | |
|-------------------|---------------------|
| 1. 관리자 |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 3. 사무 종사자 | 4. 서비스 종사자 |
| 5. 판매 종사자 |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9. 단순노무 종사자 | 10. 군인 |

B1-4)

[B1의 1 응답자만]

귀하는 1주일에 총 몇 시간 일하십니까?

〈응답 가이드〉

* 일자리가 2개 이상이면 일하는 모든 시간을 더해서 응답해 주세요.

주당 _____ 시간

B1-5)

[B1의 1 응답자만]

귀하는 요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 | | |
|--------------|--------------|
| 1. 매우 어려움 | 2. 대체로 어려움 |
| 3. 별로 어려움 없음 | 4. 전혀 어려움 없음 |

일 안하는 사람만 응답

B2-1)

[B1의 2 응답자만]

귀하가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가사 때문에
2. 육아 때문에
3. 부모 혹은 기타 가족 부양(돌봄) 때문에
4. 가족의 반대 때문에
5. 건강상(신체적, 심리적) 어려움 때문에
6.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나이, 전공, 경력 등과 원하는 근로조건 불일치)
7. 근처(주변)에 일자리가 없어서
8.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9. 일할 필요가 없어서
10. 일하고 싶지 않아서
11. 다니던 직장의 휴업, 폐업, 사업부진, 정리해고 때문에
12. 직장에서 미혼모라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아서
13. 학업때문에
14. 기타(적을 것: _____)

B2-2)

[B1의 2 응답자만]

귀하는 향후 취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

B3)로 갈 것

B2-2-1)

[B2-2의 1 응답자만]

귀하가 취업하려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500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1. 본인이 벌지 않으면 현재 우리 집에 수입이 없어서
2.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생활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어서
3.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서
4. 집에 있는 것이 심심하고 답답해서
5. 본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6. 자녀나 가족들로부터 인정(존경)을 받기 위해서
7.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8. 노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9. 기타(적을 것: _____)

모두 응답

B3) 귀하는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B4)로 갈 것

B3-1) **[B3의 1 응답자만]**

그 때 일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임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불편해 동료들이 알기 전에 스스로 퇴직
2. 직장에서 알고 그만둘 것을 강요해서
3. 임신(또는 출산) 사실이 알려져 동료들이 수군거려서
4. 몸조리, 육아 및 양육을 위해
5. 기타(적을 것: _____)

B4) 귀하는 일자리를 구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습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1.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또는 미혼모라는 사실)만으로 취직 자체가 힘들었다
2. 요구되는 기술이나 자격이 부족했다
3. 자신감이 부족해 힘들었다
4.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다
5. 급여나 시간 등 근무조건이 맞는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다
6. 임신, 출산, 가사, 자녀 양육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려 다니기 힘들었다
7. 기타(적을 것: _____)
8. 어려운 경험 없음
9. 해당없음(구직을 해본 적 없다)

B5) 귀하하는 일하는 곳에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린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일해본 적 없음 포함) → B6)로 갈 것

B5-1) 미혼모라는 이유로 인해 일하는 곳에서 어떠한 소외나 차별을 경험하셨습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동료들의 따돌림이나 수군거림
- 권고사직
- 승진이나 업무배치에서의 차별 및 불이익
- 성희롱
- 모욕적인 언행
- 기타(적을 것: _____)
- 미혼모라는 이유로 소외나 차별 받은 경험 없음

B6) 귀하가 가장 희망하는 일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동료들끼리 사이가 좋고 편안한 분위기의 일자리
-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없는 일자리
- 본인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 급여가 높은 일자리
- 출퇴근 등 근무시간이 유연한 일자리
- 기타(적을 것: _____)

〈C. 소득 및 소비 관련 사항〉

C1) 다음의 항목 중 귀하가 받는 경제적 지원이나 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에 월 평균 금액을 적어주세요.

〈응답 가이드〉

* 매달 일정하지 않거나, 매달 받지 않고 한 번에 받는 경우 등은 최근 3개월 간의 월 평균 금액을 응답해 주세요.

* 마지막 총 월 소득 총액이 대략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502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항목	C1-2. 월평균 금액
1) 형제, 자매나 부모님 등 본인의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1. 없음 2. 있음 (월 ____만원)
2) 아이 아버지 쪽으로부터의 양육비 등 지원	1. 없음 2. 있음 (월 ____만원)
3) 사회복지기관이나 미혼모 단체 등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1. 없음 2. 있음 (월 ____만원)
4) 정부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만24세 이하) 등)	1. 없음 2. 있음 (월 ____만원)
5) 본인의 근로 소득(또는 사업소득)	1. 없음 2. 있음 (월 ____만원)
6) (저축)이자, 주식 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 기타 소득	1. 없음 2. 있음 (월 ____만원)
7) 기타(예: 실업수당, 친구나 지인·이성친구 등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등)	1. 없음 2. 있음 (월 ____만원)

C2) 귀하는 저축(예금, 적금 등)을 하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 C3)로 갈 것

C2-1) **[C2의 1 응답자만]**

그 저축은 주로 어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1. 향후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한 것
2. 거주지 마련을 위한 것
3. 본인의 노후 준비를 위한 것
4. 부족한 생활비, 아플 때 의료비 등 비상시를 위한 것
5. 기타(적을 것: _____)

C3) 귀하는 부채가 있습니까?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린 것 포함)

1. 예 → C3-1)로 갈 것
2. 아니오 → C4)로 갈 것

C3-1) **[C3의 1 응답자만]**

현재 귀하의 부채 총액은 얼마입니까?

총 _____만원

C3-2)

[C3의 1 응답자만]

그 부채는 주로 무엇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까?

1. 임신 전부터 있던 부채
2. 임신 기간 동안 일을 못하면서 학자금, 생활비, 의료비 등을 위해 빌린 돈
3.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4. 출산 후 거주지 마련을 위한 비용
5. 출산 후 생활비 및 의료비
6. 출산 후 본인 학비
7. 기타(적을 것: _____)

C3-3)

[C3의 1 응답자만]

그 부채는 주로 어디에서(누구에게) 빌렸습니까?

1. 부모님, 형제 등 가족
2. 친구나 지인 등 주변 사람
3. 일반 시중/지방 은행
4. 비은행금융기관(보험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신용카드회사, 캐피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5. 사금융(대부업체, 사채업체, 휴대폰 소액대출)
6. 지원기관
7. 기타(적을 것: _____)

C4)

귀댁은 다음 항목에 대해 한 달 평균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응답 가이드〉

- * 아이사랑카드와 같은 정부 지원 보육료, 기타 정부지원금 등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본인이 직접 지출하는 금액을 응답해 주세요.
- * 없는 항목은 0으로 기재해 주세요.
- * 매달 지출하지 않고 한 번에 지출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월 평균 금액으로 나누어 응답해 주세요.
- * 마지막 총 월 소비액이 대략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항목	월평균 지출금액
1)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어린이집/유치원 수업비, 특별활동비 등)	월 _____ 만원
2) 자녀 공교육비(등록금 및 학교교재, 방과후학교에 지불하는 비용 등)	월 _____ 만원
3) 자녀 사교육비(학원, 학습지, 과외비 등)	월 _____ 만원
4) 자녀 돌봄비(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 이용료나 돌보는 사람 (부모, 형제 등 가족도 포함)에게 주는 비용)	월 _____ 만원
5) 주거비(집세, 관리비 등)	월 _____ 만원
6) 생활비 (분유, 기저귀, 육아용품, 아이 옷, 장난감, 식료품비, 상담비, 병원비, 자녀용돈, 교통비, 통신비 등)	월 _____ 만원
7) 본인을 위한 비용(본인 교육비, 옷, 화장품 등 본인만을 위한 비용)	월 _____ 만원
8) 기타(예: 대출이자/부채상환 등)(적을 것: _____)	월 _____ 만원
월 총 소비	월 _____ 만원

504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C5) 정부의 생활지원에 대한 인지도부, 이용경험, 도움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 가이드> *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과 '한부모가족지원'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정책	C5-1) 현재 이용		C5-2) 과거 이용 [C5-1의 1 응답자만]		C5-3) 도움 정도 [C5-1의 2 또는 C5-2의 2 응답자만]				
	지원 받고 있지 않음	지원 받고 있음	지원 받은 적 없음	지원 받은 적 있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됨	매우 도움됨
1) 국민기초생활보장	1	2	1	2	1	2	3	4	5
2) 한부모가족지원	1	2	1	2	1	2	3	4	5

C5-4) [C5-1-1의 1 응답자만]

현재 귀하 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 모름
2. 소득 및 재산기준이 맞지 않아 수급 자격이 되지 않아서
3.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등록하지 않음
4. 지원 절차가 번거로워서(서류작성 등)
5. 필요 없어서
6. 기타(적을 것: _____)

C5-5) [C5-1-2의 1 응답자만]

현재 귀하 가족이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지원에 대해 모름
2. 소득 및 재산기준이 맞지 않아 수급 자격이 되지 않아서(부모 재산으로 인해 제외된 경우도 포함)
3.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등록하지 않음
4. 지원 절차가 번거로워서(서류작성 등)
5.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어서
6. 필요 없어서
7. 기타(적을 것: _____)

3. 임신·출산 및 건강 관련 사항

◆ 다음은 임신·출산 및 건강과 관련된 사항을 묻는 문항입니다.

- D1) 귀하는 임신할 당시 누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까? 함께 살고 있던 사람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1. 자녀
 2. 본인 아버지/엄마
 3. 본인 할아버지/할머니
 4. 본인 형제/자매
 5. 친인척
 6. 친구, 동료 및 지인
 7. 자녀의 아빠나 그 친인척
 8. 이성친구, 애인, 파트너(즉, 현재 아이 아빠)
 9. 시설의 다른 가족들
 10. 기타(적을 것: _____)
- D2) 귀하는 임신 기간 동안 출산 후 양육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1. 처음부터 직접 기를 생각이었다
 2. 출산하지 않을 생각(인공임신중절(낙태) 고려)을 한 적 있다
 3. 타인 양육(입양 등)을 생각한 적 있다
 4. 기타(적을 것: _____)

〈응답 가이드〉

* 자녀가 여럿일 경우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D3) 귀하는 임신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 임신 _____ 주째
- D4) 귀하는 출산 전 임신기간 동안 산전 진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주로 어디서 받았습니까?
1. 출산 전에 진찰을 받은 적 없음 → D4-3)로 갈 것
 2. 종합병원
 3. 병원(여성전문병원 포함)
 4. 의원
 5. 조산원
 6. 보건의료원(보건소)

〈응답 가이드〉

* 정기적인 산전 진찰 시기 : 임신 28주까지는 4주 마다, 임신 36주까지는 2주마다, 그 이후에는 매주 정기진찰을 하게 됩니다. 고위험 임신의 경우, 일주일에 2회 진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D4-1) [D4의 2 ~ 6 응답자만] 몇 회나 산전 진찰을 받았습니까?

(약) _____ 회

D4-2) [D4의 2 ~ 6 응답자만] 첫 산전 진찰(초진) 시기는 언제입니까?

임신 _____ 주

D4-3) [D4의 1 응답자만]

귀하가 산전 진찰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출산이 가까워질 때까지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2. 산전 진찰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3. 건강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따로 진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4. 받으려 했지만 시간이나 상황상 여유가 없어서
5. 받으려 했지만 비용이 부담되어서
6. 병원에서 미혼모인 것을 알 것 같아 불편해서
7. 기타(적을 것: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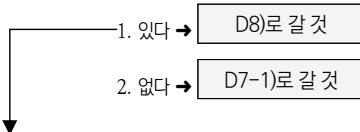
D5) 귀하는 어디에서 분만하셨습니까?

1. 종합병원
2. 병원(여성전문병원 포함)
3. 의원
4. 조산원
5. 보건의료원(보건소)
6. 자택(친정 등 가족 집 포함)
7. 기타(적을 것: _____)

D6) 아이를 임신 몇 주 만에 분만하셨습니까? 또한 그 당시 아이의 체중은 얼마였습니까?

1. 분만시기 : 임신 _____ 주
2. 아이의 출생 당시 체중 : _____ kg

D7) 출산 후 (산모의 출산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산후 진찰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D7-1)

[D7의 2 응답자만]

귀하가 산후 진찰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산후 진찰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2. 건강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따로 진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3. 받으려 했지만 시간이나 상황상 여유가 없어서
4. 받으려 했지만 비용이 부담되어서
5. 병원에서 미혼모인 것을 알 것 같아 불편해서
6. 기타(적을 것: _____)

D8)

귀하는 출산 후 산후우울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D9)로 갈 것

D8-1)

[D8의 1 응답자만]

귀하는 그 때 느끼신 산후우울감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거나 전문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응답 가이드〉

* 의료기관 및 전문 상담센터: 보건의료원(보건소),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한의원 등

1. 있다

2. 없다

D9)

귀하는 출산 후 산후조리를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해당되는 곳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응답 가이드〉**

* 질병, 제왕절개, 건강이상 등의 치료를 위해 산부인과에 입원한 기간은 산후조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 | |
|----------------|---------------------|
| 1. 산후조리원 | 2. 조산소 |
| 3. 산부인과 | 4. 산부인과 외 병·의원 |
| 5. 본인 집 | 6. 미혼모 시설 |
| 7. 친정, 형제/자매 집 | 8. 친인척 집 |
| 9. 친구나 지인 집 | 10. 기타(적을 것: _____) |

D10)

귀하는 출산 후(6주 간) 산후조리를 위한 비용으로 모두 얼마를 지출하셨습니까?

〈응답 가이드〉

*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도우미 비용, 산후조리를 위해 부모님,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 지인 등 도움을 준 사람에게 준 돈 등 모두 포함

총 _____만원

508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D11)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 가이드>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철분제 지원: 임신 확인을 통해 보건소에서 수령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보살피며 산후관리 지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예정) 또는 출산한 미혼/이혼 한부모에게 가정방문 산후서비스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정책	D11-1) 인지 여부		D11-2) 이용 경험 [D11-1의 2 응답자만]		D11-2-1) 도움 정도 [D11-2의 2 응답자만]				
	모름	알고 있음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됨	매우 도움됨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구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1	2	1	2	1	2	3	4	5
2) 임신·철분제 지원	1	2	1	2	1	2	3	4	5
3)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1	2	1	2	1	2	3	4	5
4)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구,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1	2	1	2	1	2	3	4	5
5)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1	2	1	2	1	2	3	4	5
6)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	2	1	2	1	2	3	4	5

D12) 귀하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1. 병원에 같이 갈 사람이 없었다
2. 안정되게 지낼 곳이 없었다
3. 진료비 및 출산비용 등 금전적으로 어려웠다
4. 신생아를 돌보는 방법을 몰라 어려웠다
5.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말할 곳이 없었다
6.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 같았다
7. 기타(구체적으로:_____)

- D13) 귀하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1. 임신·출산 관련 긴급상담전화(위기임신·출산 상황에 필요한 지원 및 상담)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임신·출산 준비에 드는 비용 및 물품 지원
4. 임신·출산 기간 동안 생활비(출산관련 비용 및 진료비를 제외한 비용) 지원
5. 임신·출산 기간 동안 지낼 곳 지원
6. 출산 후 필요한 산후조리 서비스(도우미 지원 등)
7. 임신·출산 과정에서 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8. 아이를 낳자마자 돌보는 방법(먹일 때, 씻길 때, 울 때, 응급 시 등)에 대한 교육
9. 기타(적을 것: _____)

〈건강〉

- D14) 귀하는 현재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건강이 매우 안 좋다
2.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건강한 편이다
5. 매우 건강하다

- D15) 귀하가 지난 1주일 동안 느끼고 행동한 것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구 분	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이하)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2~3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4~5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6일 이상)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1	2	3	4
2) 비교적 잘 지냈다	1	2	3	4
3) 상당히 우울했다	1	2	3	4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1	2	3	4
5)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1	2	3	4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	2	3	4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1	2	3	4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	2	3	4
9) 마음이 슬펐다	1	2	3	4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	2	3	4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1	2	3	4

510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D16) 귀하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1. 거의 느끼지 않는다
2. 조금 느끼는 편이다
3. 많이 느끼는 편이다
4. 대단히 많이 느낀다

D17)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전문가 상담(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D18) 귀하께서는 현재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 매우 만족

1	2	3	4	5	6	7
---	---	---	---	---	---	---

4. 돌봄 및 양육 관련 사항

◆ 다음은 돌봄 및 양육과 관련된 사항을 묻는 문항입니다.

〈E. 미취학 자녀〉

E1) 귀하는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F1)로 갈 것

미취학 자녀가 있는 사람만 응답

〈E1-1 ~ E1-6 응답 가이드〉

- * 미취학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 평일 기준으로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의 돌봄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E1-2) [E1의 1 응답자만]

귀하의 미취학 자녀를 현재 돌봐주고 있는 가장 주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주된 순서대로 2가지 응답)

〈응답 가이드〉

- * '기관' 보기에서 2개를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가장 주된 사람(곳)	두 번째 주된 사람(곳)	
기관	사람	기타
1. 국공립 어린이집 2. 가정·민간 어린이집 3. 직장 어린이집 4. 기타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기타 법인·단체, 부모협동 등) 5. 국공립유치원 6. 사립 유치원 7.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학원, 놀이학교, 유아체육단 등) 8. 기타 사설학원	9. 본인 10. 부모님 또는 본인 형제, 자매 11. 친구나 지인 12. 기타 친인척 13. 아이돌보미 14. 출퇴근 베이비시터 15. 입주 베이비시터 16. 방문교육(미술, 한글 등) 교사 17. 아이의 형제, 자매 18. 아이 혼자 지냄	기타 ()

E1-3)

[E1의 1 응답자만]

귀하는 미취학 자녀의 돌봄 상황에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보통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E1-3-1)

[E1-3의 1,2 응답자만]

귀하가 만족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시설(기관)에 내야 하는 비용 부담 때문에
2. 개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3. 원하는 서비스를 구할 수 없어서
4.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5. 본인이 돌봐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6. 시설(기관)의 돌봄시간이 짧아서
7. 기타(적을 것: _____)

E1-4)

[E1의 1 응답자만]

미취학 자녀를 돌봐줄 사람(곳)으로 귀하가 가장 희망하는 사람(곳)은 누구입니까?

(주된 순서대로 2가지 응답)

〈응답 가이드〉

* 기관' 보기에서 2개를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가장 주된 사람(곳)	두 번째 주된 사람(곳)
-------------	---------------

512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기관	사람	기타
1. 국공립 어린이집 2. 가정·민간 어린이집 3. 직장 어린이집 4. 기타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기타 법인·단체, 부모협동 등) 5. 국공립유치원 6. 사립 유치원 7. 반알제 이상 학원(영어학원, 놀이학교, 유아체육단 등) 8. 기타 사설학원	9. 본인 10. 부모님 또는 본인 형제, 자매 11. 친구나 지인 12. 기타 친인척 13. 아이돌보미 14. 출퇴근 베이비시터 15. 입주 베이비시터 16. 방문교육(미술, 한글 등) 교사 17. 아이의 형제, 자매 18. 아이 혼자 지냄	기타 ()

E1-5)

[E1의 1 응답자만]

일주일 중 미취학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있는 날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1. 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있는 날이 전혀 없다 → E1-6)로 갈 것

2. 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있는 날이 1주일에 1~2일 정도 있다

3. 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있는 날이 1주일에 3~4일 정도 있다

4. 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있는 날이 1주일에 5일 이상 있다

E1-5-1)

[E1-5의 2, 3, 4 응답자만]

미취학 자녀가 혼자 있는 날 하루에 대부분 몇시간이나 혼자 있습니까?

1. 1~2시간 미만
2. 2~3시간 미만
3. 3~4시간 미만
4. 4~5시간 미만
5. 5시간 이상

E1-6)

[E1의 1 응답자만]

귀하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에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어디입니까?

<응답 가이드>
* 평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1. 놀이터
2. 문화센터
3. 키즈카페
4. 도서관, 주민센터, 복지관, 공동육아나눔터 등 공공시설
5. 그 외 아파트 및 마을 내 기타 공용 시설
6. 기타(적을 것:)
7. 평일에 아이를 직접 돌보는 시간이 거의 없음

E1-7)

[E1의 1 응답자만]

귀하는 육아를 하루에 몇 시간쯤 하십니까? 평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휴일)을 구분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가이드〉

* 육아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평균적인 시간을 생각해 응답해 주세요.

평일	토요일	일요일(휴일)
_____ 시간 _____ 분	_____ 시간 _____ 분	_____ 시간 _____ 분

E1-8)

[E1의 1 응답자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음의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여부, 이용경험, 도움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 가이드〉

- * **아동수당**: 만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 *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지원
- * **보육료 지원**: 만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 * **유아학비 지원**: 만3~5세 유치원 재원 중인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
-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하면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
- * **공동육아나눔터**: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육아를 함께 하고, 정보를 나누고 도움 수 있는 돌봄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지역 내에 장소 제공

정책	E1-8-1) 인지 여부		E1-8-2) 이용 경험 [E1-80-1의 2 응답자만]		E1-8-3) 도움 정도 [E1-8-2의 2 응답자만]				
	모름	알고 있음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됨	매우 도움됨
1) 아동수당	1	2	1	2	1	2	3	4	5
2)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때 지원)	1	2	1	2	1	2	3	4	5
3) 보육료(어린이집) 지원	1	2	1	2	1	2	3	4	5
4) 유아학비(유치원) 지원	1	2	1	2	1	2	3	4	5
5) 아이돌봄서비스	1	2	1	2	1	2	3	4	5
6) 공동육아나눔터	1	2	1	2	1	2	3	4	5

514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E1-9)

[E1의 1 응답자만]

귀하가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1. 아이 양육비나 교육비가 부담스럽다
2. 아이를 돌보거나 챙길 시간이 부족하다
3.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
4. 아이 생활 태도 지도나 훈육이 어렵다
5. 미혼모 자녀라고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차별·따돌림 받거나 적응을 못해
걱정이다
6. 아이에게 가족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다
7. 기타(적을 것: _____)
8.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

〈F. 초등 자녀〉

F1)

귀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1. 예

2. 아니요 →

G1)로 갈 것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사람만 응답

〈F1-1 ~ F1-12 응답 가이드〉

* 초등학생 자녀가 여러 명이면, 초등학생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F1-1)

[F1의 1 응답자만]

귀하의 초등학생 자녀는 현재 몇 학년입니까?

_____ 학년

F1-2)

[F1의 1 응답자만]

실제 귀하의 초등학생 자녀를 돌봐주고 있는 가장 주된 사람(곳)은 누구입니까?(주된 순서대로
2가지 응답)

가장 주된 사람(곳)		두 번째 주된 사람(곳)	
시설 및 프로그램		사람	기타
1. 초등돌봄교실 2. 방과후학교 3. 지역아동센터 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5. 사설 예체능 학원 6. 사설 교과목 학원 7. 사설 공부방 8.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 9. 방문교육 및 과외 10.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예체능 프로그램 11.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교과목 프로그램		12. 본인 13. 부모님 또는 본인 형제,자매 14. 친구나 지인 15. 기타 친인척 16. 아이돌보미 17. 출퇴근 베이비시터 18. 입주 베이비시터 19. 아이의 형제,자매 20. 아이 혼자 지냄	기타 ()

F1-3)

[F1의 1 응답자만]

귀하는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상황에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보통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F1-3-1)

[F1-3의 1,2 응답자만]

귀하가 만족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비용 부담 때문에
2. 돌봄 공백 때문에(아이 혼자 있는 시간)
3.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4.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5. 기타(적을 것: _____)

F1-4)

[F1의 1 응답자만]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에 돌봐줄 사람(곳)으로 귀하가 가장 희망하는 사람(곳)은 누구입니까?

(주된 순서대로 2가지 응답)

가장 주된 사람(곳)		두 번째 주된 사람(곳)	
-------------	--	---------------	--

F1-7)

[F1의 1 응답자란]

정부의 취약 아동 돌봄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부, 이용경험, 도움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 가이드>

* **초등돌봄교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방과 후 학교에서 돌봄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하면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

정책	F1-7-1) 인지 여부		F1-7-2) 이용 경험 [F1-7-1의 2 응답자란]		F1-7-3) 도움 정도 [F1-7-2의 2 응답자란]				
	모름	알고 있음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1)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과정)	1	2	1	2	1	2	3	4	5
2) 지역아동센터	1	2	1	2	1	2	3	4	5
3) 아이돌봄서비스	1	2	1	2	1	2	3	4	5

F1-8)

[F1의 1 응답자란]

귀하가 초등학생 자녀를 기르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1. 아이 돌봄 비용 및 교육비가 부담스럽다
2. 아이를 돌보거나 챙길 시간이 부족하다
3. 방과 후 아이를 돌봐줄 곳이 마땅치 않다
4. 아이 생활 태도 지도나 훈육이 어렵다
5. 아이 학습관리가 어렵다
6. 미혼모 자녀라고 아이가 학교에서 차별·따돌림 받거나 적응을 못해 걱정이다
7. 아이에게 가족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다
8. 기타(적을 것: _____)
9.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

〈G. 중고등 자녀〉

G1) 귀하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1. 예 → G1-0)로 갈 것 2. 아니오 → H1)로 갈 것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사람만 응답

〈G1-0 ~ G1-1 응답 가이드〉

* 중고등학생 자녀가 여러 명이면, 중고등학생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G1-1) [G1의 1 응답자만]

귀하의 중고등학생 자녀는 현재 몇 학년입니까?

중 학교 _____ 학년
고등학교 _____ 학년

G1-2) [G1의 1 응답자만]

귀하가 중고등학생 자녀를 기르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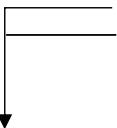
1순위	2순위
-----	-----

1. 교육비가 부담스럽다
2. 자녀에게 신경 써 줄 시간이 부족하다
3. 자녀의 방과 후 시간 관리가 어렵다
4. 자녀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5. 자녀의 생활 태도 지도나 훈육이 어렵다
6. 자녀의 진학 및 학습관리가 어렵다
7. 자녀에게 가족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다
8. 기타(적을 것: _____)

9.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

모두 응답

H1) 귀하는 자녀를 잘 기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잘 기르고 있지 않다
2. 별로 잘 기르고 있지 않은 편이다
3. 잘 기르고 있는 편이다
4. 매우 잘 기르고 있다

H1-1)

[H1의 1, 2 응답자만]

귀하가 자녀를 잘 기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1. 엄마가 심리,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2. 엄마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3. 자녀와 함께할 시간이 부족해서
4.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5. 아버지의 부재로
6. 기타(적을 것: _____)

H2)

귀하의 자녀가 잘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1. 양육이나 교육에 드는 비용 지원
2. 아이를 돌봐주는 시설 및 서비스
3. 아이의 정서 안정을 위한 아이 상담 서비스
4. 엄마의 정서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
5. 아이 양육·훈육이나 교육 방법 등에 관련된 엄마 대상 교육
6. 엄마가 일하면서도 아이를 직접 돌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유연화나 휴가 등 시간을 확보해주는 지원
7. 아이가 생활하는데 있어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이 없는 환경
8. 기타(적을 것: _____)

5. 학업 및 직업훈련 관련 사항

◆ 다음은 학업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묻는 문항입니다.

〈I. 학업 관련 사항〉

I1) 귀하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 I1-2)로 갈 것

I1-1)

[I1의 1 응답자만]

귀하는 어느 학교에 다니고 계십니까?

1. 중학교 2. 고등학교 3. 대학교(사이버대 포함) 4. 대학원 → I1-3)로 갈 것

I1-2)

[I1의 2 응답자만]

귀하는 현재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 I2)로 갈 것

현재 학교를 다니거나 검정고시 준비 중인 사람만 응답

I1-3)

[I1의 1, I1-2의 1 응답자만]

귀하가 현재 학업을 지속하게 된 가장 큰 도움은 무엇입니까?

1. 학업을 마치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강해서
2. 가족, 친지 및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가 있어서
3. 대안학교 이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4. 원래 다니던 학교(선생님)에서 계속 다니도록 지지하고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5. 기타(적을 것: _____)

I1-4)

[I1의 1, I1-2의 1 응답자만]

귀하가 현재 학업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	-----

1. 학업 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음
2.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함
3.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
4. 교육비용이 부담스러움
5. 스스로 느끼는 또래와의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 문제
6. 미혼모의 학업 지속에 대한 주변의 편견과 차별적인 시선
7. 배우는 내용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8. 기타(적을 것: _____)

모두 응답

I2) 귀하는 10대 청소년 시기(초·중·고등학교 다닐 연령)에 임신·출산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I3)로 갈 것

I2-1)

10대 청소년 때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I2의 1 응답자만]**

10대 임신·출산 당시 학업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언제	상태
1. 초등학교	1. 재학
2. 중학교	2. 휴학
3. 고등학교	3. 졸업
	4. 자퇴
	5. 퇴학

I3) 귀하는 초·중·고·대학교를 다니는 중에 임신·출산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I4)로 갈 것

I3-1)

학교 다닐 때 임신·출산 경험 있는 사람만 응답**[I3의 1 응답자만]**

귀하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학교를 쉬거나 그만두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I3-1-5)로 갈 것

I3-1-1)

학교 다닐 때 임신·출산으로 학업 중단 경험 있는 사람만 응답**[I3-1의 1 응답자만]**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은 언제, 어떤 형태였습니까?

언제	형태
1. 초등학교	1. 휴학
2. 중학교	2. 자퇴
3. 고등학교	3. 퇴학
4. 대학교 이상	

522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I3-1-2)

[I3-1의 1 응답자만]

귀하가 학업을 중단한 때는 임신(또는 출산) 후 언제였습니까?

1. 임신 _____ 주 때 (또는 임신 _____ 개월 때)
2. 출산 후 _____ 주 때 (또는 출산 후 _____ 개월 때)

I3-1-3)

[I3-1의 1 응답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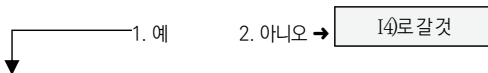
그 때, 학업을 중단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2. 임신 및 출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3. 주변의 차별과 편견을 견디기 어려워서
4.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이나 가족의 권유 때문에
5. 생활비(양육비)를 벌기 위해
6. 학교의 징계와 강요 때문에
7. 기타(적을 것: _____)

I3-1-4)

[I3-1의 1 응답자만]

학업 중단 후 다시 복학하거나 학교에 재입학 하였습니까?



I3-1-4-1)

[I3-1-4의 1 응답자만]

어느 학교로 복학하였습니까?

1. 원래 다니던 학교
2. 원래 다니던 학교가 아닌 다른 일반학교
3. 원래 다니던 학교가 아닌 다른 대안학교
4. 기타(적을 것: _____)

I3-1-5)

[I3-1의 2 응답자만]

귀하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계속 다닌 학교는 어떤 학교였습니까?

1. 정규 과정 학교(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
2. 시설위탁교육(대안학교 포함)
3. 기타(적을 것: _____)

모두 응답

- 14) 귀하는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임신·출산한 경우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	-----

1.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출산 전·후 회복기간 중 휴학 보장
2. 정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업일수와 교육과정 조정
3. 학업과 양육이 가능하도록 학생 미혼모를 위한 대안학교 운영
4. 미혼모 시설에 교사를 파견하여 학업을 이수하고 학교와 동일한 학력 인정
5. 검정고시를 위한 학원이나 온라인교육 이용 지원
6. 임신·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학교에 대한 제재 조치
7. 기타(적을 것: _____)

(J. 자립 관련 사항)

- J1) 귀하는 자립을 위해 귀하의 현재 학력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J1-1)

[J1의 3, 4 응답자만]

귀하는 자립을 위해 최소한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중학교 졸업
2. 고등학교 졸업
3. 2~3년제 전문대 졸업
4.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J1-2)

[J1의 3, 4 응답자만]

귀하가 현재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갖추기 위해 학업을 더 한다면 어떤 유형의 교육을 가장 받고 싶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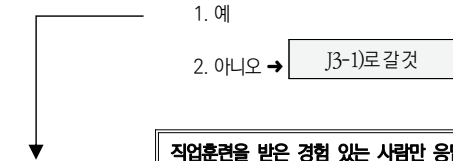
1. 정규 학교교육(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
2. 대안학교 교육 후 검정고시
3. 독학이나 홈스쿨 후 검정고시
4. 원격교육기관(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등)
5. 기타(적을 것: _____)

524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J2) 귀하는 임신·출산 이후 자립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응답 가이드〉

- * 직업교육(훈련) 관련 질문에 대해 임신·출산 이후에 받는 교육을 생각하고 응답해 주세요.
- * **직업(교육)훈련:** 취업, 창업 또는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장연수, 학원수강, 통신강좌, 교양강좌 등 포함. 직업학교의 교육도 포함.
- * 단순한 취미나 여가를 위한 노래교실, 쿠킹클래스, 미술교실 등은 포함되지 않음.



J2-1) **[J2의 1 응답자만]**
 귀하는 총 몇 개의 직업교육을 신청하였습니까?
 총 _____ 개 신청

J2-2) **[J2의 1 응답자만]**
 그 중 몇 개의 과정을 끝까지 완료하였습니까?
 총 _____ 개 완료

J2-3) 귀하가 교육 완료한 직업훈련 과정 분야를 모두 적어주세요.

〈응답 가이드〉

- * 예: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바리스타, 제빵, 한식, 미용, 피부관리, 네일, 메이크업 등

〈J2-4 ~ J2-7 응답 가이드〉

- * 직업교육(훈련)을 여러 개 신청한 경우, 그 중 교육을 완료한 과정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 완료한 과정이 없다면, 가장 최근에 신청했던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응답해 주세요.
- * 완료한 과정이 여러 개인 경우, 가장 최근에 완료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응답해 주세요

J2-4) 귀하는 직업훈련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 |
|-----------------|--------------------|
| 1.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 | 2. 별로 만족하지 않는 편이었다 |
| 3. 조금 만족하는 편이었다 | 4. 매우 만족했다 |

J2-5) 귀하가 직업훈련을 받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1. 비용이 부담되었다
2. 훈련 및 교육 과정 동안 아이를 돌봐줄 곳이 마땅치 않았다
3. 훈련 및 교육 과정 동안 생활비를 벌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4.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5. 프로그램을 선택하기까지 어떤 것을 고를지 결정하기 힘들었다
6.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교육을 받다 보니 나의 적성에 맞지 않아 어려웠다
7.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지원되지 않아 하고 싶은 것을 못했다
8. 배우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 과정을 따라가기 힘들었다
9. 배우는 내용이 너무 쉽고 기간이 길어서 지루했다
10. 미혼모라는 이유로 부정적 시선을 느꼈다
11. 기타(적을 것: _____)

J2-6) 귀하는 직업훈련을 받은 후 일자리를 구하셨습니까?

1. 예 2. 아니오 → J2-6-2)로 갈 것

J2-6-1)

[J2-6의 1 응답자만]

그 일자리는 귀하가 받은 직업훈련 분야의 일자리입니까?

1. 예 2. 아니오

J2-6-2)

[J2-6의 2 응답자만]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일할 상황이 아니어서 일자리를 알아보지 않음
2. 본인이 교육받은 분야의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3. 교육받은 수준으로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4. 본인이 희망하는 급여나 근로시간 등 조건이 맞지 않아서
5. 기타(적을 것: _____)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 없는 사람만 응답

J3-1)

[J2의 2 응답자만]

귀하가 임신·출산 후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2. 취업할 마음이 없었다
3.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었다

4.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5. 자녀를 돌보느라 시간을 내기 힘들었다
6.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7.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일을 쉬어야 하는데 돈을 벌어야 해서 일을 할 수 없었다
8.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9. 원래 하던 일이 있어서 직업훈련이 필요 없었다
10. 직업훈련 없이도 취업이 가능한 상태(학력이나 기술 보유)였다
11. 받고 싶었지만 각오나 용기가 나지 않았다
12. 기타(적을 것: _____)

J3-2)

[J2의 2 응답자만]

귀하는 앞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이십니까?

1. 예
2. 아니오 → J4로 갈 것

J3-2-1)

[J3-2의 1 응답자만]

어떤 직업훈련 과정을 받고 싶은지 적어주세요.

〈응답 가이드〉

* 예: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바리스타, 제빵, 한식, 미용, 피부관리, 네일, 메이크업 등

모두 응답

J4)

귀하는 미혼모가족의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	-----

1.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2. 다양한 직업 훈련 교육과정(프로그램) 제공
3. 근무 시간 조정이나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확대
4. 교육, 훈련, 일자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나 서비스
5. 학업이나 일을 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주는 시설 및 서비스
6. 학업이나 취업과정, 일하는 곳에서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환경 조성
7. 기타(적을 것: _____)

6. 가족 및 주변 관계 사항

◆ 다음은 가족 및 주변관계 사항을 묻는 문항입니다.

K1) 귀하는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과 어떻게 지내십니까?

〈응답 가이드〉

* 부모님 두 분이 헤어지시거나 안 계신 경우에는 성장 과정에서 본인을 주로 길러주신 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예) 자라면서 엄마는 안 계시고 아버지와 주로 생활한 경우 아버지와 관계를 응답해 주세요.

*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과만 연락하며 지내는 경우, 연락하고 지내는 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K1-1)

1. 연락하지 않고 지낸다
2. 연락을 끊지는 않았지만 잘 연락하지 않는다
3. 연락은 가끔 하지만 잘 만나지는 않는다
4.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잘 지낸다(같이 사는 경우 포함) → K2)로 갈 것

[K1의 1, 2, 3 응답자만]

연락을 잘하지 않거나 잘 만나지 않고 지내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어릴 때부터 떨어져서 자라서
2. 학업·취업 등으로 집을 나와 살게 되어서
3. 본인의 임신·출산을 계기로
4. 아이 기르면서 바쁘게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5. 기타(적을 것: _____)

K2) 현재 귀하의 고민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자녀
2.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
3. 같은 당사자 미혼모
4. 복지사나 미혼모 단체 관계자
5. 현재 이성친구나 애인
6. 친구나 지인
7. 아이 아빠나 그 가족
8. 기타(적을 것: _____)
-
9. 전혀 없음

K3) 귀하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1. 전혀 없다
2. 별로 없는 편이다
3. 많은 편이다
4. 매우 많다

7. 사회적 환경 및 지원 욕구 관련 사항

◆ 다음은 사회적 환경 및 지원 욕구 관련 사항을 묻는 문항입니다.

L1) 귀하는 우리 사회에는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없다
2. 별로 없는 편이다
3. 조금 많은 편이다
4. 매우 많다

L2) 귀하는 미혼모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전혀 없다
2. 별로 없다
3. 많다
4. 매우 많다

L2-1) [L2의 3, 4응답자만]

귀하가 경험한 차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L3) 귀하는 우리 사회가 여성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좋은 환경이 아니다
2.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다
3. 조금 좋은 환경이다
4. 매우 좋은 환경이다

L3-1) [L3의 1, 2응답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혼자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기 힘들기 때문에(아이 맡길 시설 및 서비스 부족)
2. 아이에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 미혼모에 대한 국가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4.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5. 기타(적을 것: _____)

L4) 요즘 귀하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1. 양육비, 생활비, 주거문제 등 경제적인 고민
 2. 본인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등 가족들과의 관계 고민
 3. 주변이나 사회의 편견, 차별 및 부정적 시선 등 인식과 차별에 대한 고민
 4. 본인의 이성관계나 결혼 등 본인의 개인적인 고민
 5. 본인의 학업이나 일 등과 관련된 자기 발전에 대한 고민
 6. 자녀의 현재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의 부적응에 대한 고민
 7. 아버지 없이 성장할 자녀의 장래에 대한 고민
 8. 기타(적을 것: _____)

9. 특별히 고민이 없다

L5) 귀하가 최근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1. 구청·주민센터
 2. 지역복지시설
 3. 고용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4. 모자관련시설(미혼모자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등)
 5. 미혼모부자거점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6. 미혼모 단체
 7. 보건소
 8. 학교
 9. 기타(적을 것: _____)
 10. 도움 받는 기관이 없다

L6) 귀하는 미혼모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국가적 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1. 임신기간 동안의 생활을 위한 지원
 2. 아이와 일상생활을 위한 생활보조금지원
 3. 주거지원
 4. 의료지원

530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5. 양육·교육비 지원
6. 엄마의 학습(비) 지원
7. 엄마가 일하면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있도록 업무 환경 제공
8. 출산·양육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 제공
9. 저축, 목돈마련 등 금융관련 정보 및 교육 제공
10. 엄마의 취업 지원
11. 자녀의 학습 및 진학 지원
12. 엄마의 심리 상담서비스
13. 자녀의 심리 상담서비스
14.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15. 기타(적을 것: _____)

L7) 귀하는 국가 지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1. 지원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다
2. 지원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다(대상자인지 아닌지 이해 안가는 등)
3. 지원 신청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다
4. 국가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되기 어렵다
5.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사선이나 편견을 느낀다
6. 기타(적을 것: _____)

일반 사항

◆ 다음은 일반 사항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M1) 귀하의 현재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 | | |
|---------------|------------|
|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 2. 중학교 재학 |
| 3. 중학교 중퇴 | 4. 중학교 졸업 |
| 5. 고등학교 재학 | 6. 고등학교 중퇴 |
| 7. 고등학교 졸업 | 8. 대학교 재학 |
| 9. 대학교 중퇴 | 10. 대학교 졸업 |
| 11. 대학원 재학 | 12. 대학원 중퇴 |
| 13. 대학원 졸업 | |

M2)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1. 서울 | 2. 부산 |
| 3. 대구 | 4. 인천 |
| 5. 광주 | 6. 대전 |
| 7. 울산 | 8. 세종 |
| 9. 경기 | 10. 강원 |
| 11. 충북 | 12. 충남 |
| 13. 전북 | 14. 전남 |
| 15. 경북 | 16. 경남 |
| 17. 제주 | |

M3)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은 '동'·'읍'·'면'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 | |
|------|--------|
| 1. 동 | 2. 읍/면 |
|------|--------|

M4)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함께 사는 사람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 | |
|---------------------|------------------|
| 1. 자녀 | 2. 본인 아버지/엄마 |
| 3. 본인 할아버지/할머니 | 4. 본인 형제/자매 |
| 5. 친인척 | 6. 친구, 동료 및 지인 |
| 7. 자녀의 아빠나 그 친인척 | 8. 이성친구, 애인, 파트너 |
| 9. 시설의 다른 가족들 | |
| 10. 기타(적을 것: _____)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2.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조사

ID				
----	--	--	--	--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대상자 안내문]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제공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 연구기관으로 현재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 미혼모가족 정책을 수립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제34조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확실하게 보장되며, 통계 산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보 보호를 위하여 조사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한 보안처리가 되어있는 컴퓨터에 파일로 보관되며, 향후 연구결과물에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포함되어 개인 정보(성별, 연령 등)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의 응답시간 약 5분내외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 참여를 거절할 수 있고, 응답 도중에 설문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참여 및 거절, 참여 중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 조사의 자발적 참여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흥식 연구책임자: 연구정책연구실 변수정 연구위원
--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응답자 일반사항(성별, 연령, 지역, 혼인상태, 자녀수),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 [개인정보 수집 목적] 국민의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 및 보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들을 이해하였고,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조사’의 조사대상으로 참여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2019년 ____월 ____일 조사대상자 서명: _____

EQ 선정질문

선문 1. 귀하는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시도)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세종)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선문 1-1. 거주하고 계신 지역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시/군)

- ① 시 지역 //선문1의 ①, ⑤, ⑥ 응답자는 ① 자동입력//
② 군 지역

선문 2. 성별 (면접원 : 묻지 말고 기록)

- ① 남자 ② 여자

선문 3.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시나요?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 나이에서 한 살을 빼서 응답해주세요.

만 _____세 [만 14세 이하, 80세 이상 조사 종료]

- ① 15~19세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59세
⑥ 60세 이상

EQ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

1. 귀하는 우리사회에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는 편이다 ③ 약간 있는 편이다 ④ 매우 많다

2. 귀하는 본인 스스로 미혼모가족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는 편이다 ③ 약간 있는 편이다 ④ 매우 많다

3.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가족이 가장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가장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가족 유형 1순위와 2순위를 말씀해 주세요.

※ 면접원 : 응답자가 보기를 이해 못하는 경우 괄호 안의 내용을 읽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미혼모/미혼부 가족
② 한부모가족 (※이혼, 사별 등으로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족)
③ 조손가족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
④ 다문화가족 (※국제결혼 가족이나 외국인 노동자 가족 등)
⑤ 동거가족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커플)
⑥ 입양가족
⑦ 기타()

※ 다음 견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20대 이상 성인 여성이 미혼인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면 그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이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14. 미성년 여자 청소년이 임신을 했다면 그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이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15. 내 가족이 미혼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면 그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에 찬성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16. 미혼모가 아이를 낳거나 입양보내기 보다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일반적 특성

배문1.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면접원 : 고졸 이하는 졸업 기준으로 받을 것. 예: 고등학교 중퇴→중졸)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 ② 고등학교 졸업
- ③ 대학교 재학/졸업
- ④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 ⑤ 모름/무응답 (임지 마시오)

배문2.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동거 중인 경우라면 기혼으로 응답해주세요.

- ① 미혼 → 배문3
- ② 기혼 → 배문2-1
- ③ 이혼 → 배문3
- ④ 별거 → 배문3
- ⑤ 사별 → 배문3

배문2-1 기혼인 경우, 구체적인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 ① 초혼 ② 동거(사실혼) ③ 재혼 ④ 이혼/사별 후 동거(사실혼)

배문3. 귀하는 자녀가 몇 명입니까?

_____명 (※ 없으면 0명으로 응답)

간행물 회원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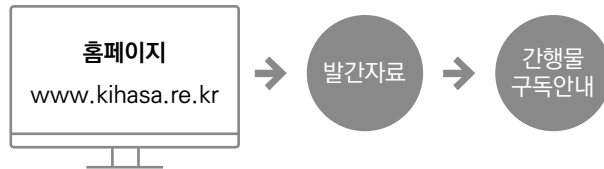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판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120,000원	75,000원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정기 간행물 회원
75,000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